



연구보고서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김정근
한형민
금혜윤
백종훈
이선형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김정곤 · 한형민 · 금혜윤 · 백종훈 · 이선형

연구보고서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 쇄 2021년 12월 24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일지사(02-503-6971)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5,000원
ISBN 978-89-322-1798-7 94320
978-89-322-1072-8(세트)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 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29

 1. 연구 배경 30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2

 3. 연구의 차별성 33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37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38

 가. 개방화 이전의 통상정책 38

 나. 1990년대 개방화 시기의 통상정책 42

 다. 통상정책의 프레임워크 43

 2. 상품무역정책 48

 가. 관세율 48

 나. 반덤핑 조치 52

 다. 비관세장벽: TBT를 중심으로 56

 3. 투자·서비스무역정책 58

 가. 외국인직접투자 58

 나. 서비스무역 65

 4. 자유무역협정 69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76

 가.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Make in India 76

 나.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82

 다. 양자간 상품무역 적자 95

6. 요약 및 소결	97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01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102
가. 전체	102
나. 주요 국가별	117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141
가. 한-인도 상품무역 개관과 주요 정책 · 현안	141
나.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143
다.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상품무역구조 비교 · 분석	151
3. 요약 및 소결	153
제4장 인도의 투자 · 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59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160
가. 전체	160
나. 주요 국가별	170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195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201
가. 연구자료	201
나.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 · 브라운필드 투자	202
다.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 브라운필드 투자	212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239
가. 전체	239
나. 주요 국가별	243

5. 요약 및 소결	267
가. 대인도 투자 추이와 특징	267
나. 대인도 투자의 세부적 특징	270
다. 인도 서비스무역의 특징	272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275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76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277
가. 미국	280
나. 중국	290
다. 독일	300
라. 일본	309
마. 인도네시아	318
바. 베트남	328
사. 한국	338
3. 요약 및 소결	348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355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356
가. 개방화 이후 인도의 통상정책	356
나. 인도의 대세계 통상관계	357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60
가. 상품무역	360
나. 투자 및 서비스무역	361

다. 생산 네트워크 구축	362
라. 한국과 주요 국가의 대인도 통상관계 비교와 시사점	363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367
가. 한-인도 통상협력의 여건 평가	367
나. 한-인도 통상협력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과제	369
다. 협력 방안	374
참고문헌	387
부록	401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402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405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09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11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413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415
Executive Summary	419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표 2-1. RCEP 협상에서 인도의 주요 이익단체와 입장	47
표 2-2. 인도의 관세율 추이	49
표 2-3. 인도와 주요국의 관세율 비교(WTO 분류 비농산물)	52
표 2-4. 업종별 인도의 FDI 규제	61
표 2-5. 인도 FDI 승인방법 및 한도 규제(2020년 4월 개정)	64
표 2-6. 인도의 FTA 체결 현황	70
표 2-7. 인도의 대한민국 및 대일본 관세 감축률	72
표 2-8. 인도의 주요 FTA 상품 부문 내용	74
표 2-9. CAROTAR 2020의 주요 내용	75
표 2-10. Make in India 분야별 25개 육성산업	77
표 2-11. 인도의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수출전략(2017년 기준)	85
표 2-12. 인도 인프라구축계획(NIP) 주요 부문별 예산	94
표 3-1. 인도의 대세계 상품무역 추이	104
표 3-2. 인도의 산업별 대세계 TSI와 RCA	111
표 3-3. 인도의 20대 수출상대국	112
표 3-4. 인도의 20대 수입상대국	114
표 3-5. 인도의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115
표 3-6. 인도의 상대국별 무역결합도	117
표 3-7. 인도의 대미국 상품무역 추이	119
표 3-8. 인도의 대중국 상품무역 추이	122
표 3-9. 인도의 대일본 상품무역 추이	125
표 3-10. 인도의 대ASEAN 상품무역 추이	128
표 3-11. 인도의 대EU 상품무역 추이	133
표 3-12. 인도의 대영국 상품무역 추이	138

표 3-13. 인도의 대UAE 상품무역 추이	140
표 3-14. 인도의 대한민국 상품무역 추이	144
표 3-15.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상대국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	149
표 4-1. 최근 산업별 대인도 FDI 유입(2019~21년)	162
표 4-2. 주요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20년)	163
표 4-3. 산업별 FDI 유입 현황(2000~20년)	164
표 4-4. 인도 주요 지역별 FDI 유입(2000년 4월~2020년 12월)	165
표 4-5.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현황	168
표 4-6. 주요국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추이 (2010~20년 누적 기준)	169
표 4-7. 주요 업종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추이 (2020년 1~12월)	170
표 4-8. 인도-미국 간 FDI 현황	173
표 4-9. 주요 업종별 미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73
표 4-10. 중국의 주요 인도 유니콘 기업 투자 현황	176
표 4-11. 인도-중국 간 FDI 현황	177
표 4-12. 인도-일본 간 FDI 현황	180
표 4-13. 주요 업종별 일본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80
표 4-14. 인도-ASEAN 간 FDI 현황	183
표 4-15. 주요 업종별 ASEAN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83
표 4-16. 주요국의 대아세안 누적 OFDI(2010~17년)	184
표 4-17. 주요 업종별 인도의 대아세안 OFDI 추이(2012~16년)	185
표 4-18. 인도-EU 간 FDI 현황	187
표 4-19. 주요 업종별 EU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88

표 4-20. 인도-영국 간 FDI 현황	190
표 4-21. 주요 업종별 영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90
표 4-22. 인도-UAE 간 FDI 현황	192
표 4-23. 주요 업종별 UAE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193
표 4-24. 인도-남아공 간 FDI 현황	194
표 4-25. 한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20년)	196
표 4-26. 주요 업종별 한-인도 FDI 현황: 투자 금액 기준	198
표 4-27. 세부업종별 한-인도 FDI 추이	200
표 4-28. 해외 주요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2003~21년)	206
표 4-29. 해외 주요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2003~21년)	208
표 4-30.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09
표 4-31. 상위 20개 산업별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0
표 4-32. 상위 20개 산업별 전 세계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1
표 4-33. 미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3
표 4-34. 미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3
표 4-35. 미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15

표 4-36. 중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6
표 4-37. 중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17
표 4-38. 중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19
표 4-39. 영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0
표 4-40. 영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1
표 4-41. 영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22
표 4-42. 독일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3
표 4-43. 독일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4
표 4-44. 독일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25
표 4-45. 일본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6
표 4-46. 일본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27
표 4-47. 일본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29

표 4-48. 싱가포르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0
표 4-49.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0
표 4-50.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32
표 4-51. UAE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3
표 4-52. UAE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4
표 4-53. UAE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35
표 4-54.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6
표 4-55. 한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37
표 4-56.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238
표 4-57. 인도의 서비스수출 현황(2010~19년)	240
표 4-58. 인도의 서비스수입 현황(2010~19년)	241
표 4-59.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42
표 4-60.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43
표 4-61. 인도-미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244
표 4-62. 산업별 대미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45

표 4-63. 산업별 대미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46
표 4-64. 인도-중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247
표 4-65. 산업별 대중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47
표 4-66. 산업별 대중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48
표 4-67. 인도-일본 간 서비스무역 현황	249
표 4-68. 산업별 대일본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50
표 4-69. 산업별 대일본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51
표 4-70. 인도-ASEAN 간 서비스무역 현황	252
표 4-71. 산업별 대ASEAN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52
표 4-72. 산업별 대ASEAN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53
표 4-73. 인도-EU 간 서비스무역 현황	254
표 4-74. 산업별 대EU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55
표 4-75. 산업별 대EU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56
표 4-76. 인도-영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257
표 4-77. 산업별 대영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57
표 4-78. 산업별 대영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58
표 4-79. 인도-UAE 간 서비스무역 현황	259
표 4-80. 산업별 대UAE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60
표 4-81. 산업별 대UAE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61
표 4-82. 인도-남아공 간 서비스무역 현황	262
표 4-83. 산업별 대남아공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62
표 4-84. 산업별 대남아공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63
표 4-85. 인도-한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265
표 4-86. 산업별 대한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265

표 4-87. 산업별 대한민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266
표 4-88. 주요 국가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정리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272
표 5-1. 기관별 국제산업연관표	277
표 5-2. 해외 주요국의 인도 생산 기여액 추이(2009, 2019년)	278
표 5-3. 인도의 해외 주요국 생산 기여액 추이(2009, 2019년)	279
표 5-4. 인도의 대미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281
표 5-5. 미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283
표 5-6. 인도의 대미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284
표 5-7. 미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284
표 5-8. 인도-미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286
표 5-9. 인도-미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287
표 5-10. 인도의 대미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87
표 5-11. 미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88
표 5-12. 인도-미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289
표 5-13. 인도의 대미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89
표 5-14. 미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90
표 5-15. 인도의 대중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291
표 5-16. 중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293
표 5-17. 인도의 대중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294

표 5-18. 중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295
표 5-19. 인도-중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296
표 5-20. 인도-중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297
표 5-21. 인도의 대중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97
표 5-22. 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98
표 5-23. 인도-중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298
표 5-24. 인도의 대중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99
표 5-25. 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299
표 5-26. 인도의 대독일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301
표 5-27. 독일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302
표 5-28. 인도의 대독일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03
표 5-29. 독일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04
표 5-30. 인도-독일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305
표 5-31. 인도-독일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05
표 5-32. 인도의 대독일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06
표 5-33. 독일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07
표 5-34. 인도-독일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07
표 5-35. 인도의 대독일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08

표 5-36. 독일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09
표 5-37. 인도의 대일본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311
표 5-38. 일본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311
표 5-39. 인도의 대일본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13
표 5-40. 일본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14
표 5-41. 인도-일본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314
표 5-42. 인도-일본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15
표 5-43. 인도의 대일본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16
표 5-44. 일본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16
표 5-45. 인도-일본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17
표 5-46. 인도의 대일본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17
표 5-47. 일본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18
표 5-48.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 (2009, 2019년)	320
표 5-49.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 (2009, 2019년)	321
표 5-50.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22
표 5-51.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23
표 5-52. 인도-인도네시아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324

표 5-53. 인도-인도네시아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 325	
표 5-54.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25
표 5-55.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26
표 5-56. 인도-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 327	
표 5-57.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27
표 5-58.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28
표 5-59.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 330	
표 5-60.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 330	
표 5-61.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32
표 5-62.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333
표 5-63. 인도-베트남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334
표 5-64. 인도-베트남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35
표 5-65. 인도의 베트남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35
표 5-66. 베트남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36
표 5-67. 인도-베트남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337
표 5-68. 인도의 대베트남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37
표 5-69. 베트남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338

표 5-70. 인도의 대한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	339
표 5-71. 한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	341
표 5-72. 인도의 대한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	342
표 5-73. 한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	343
표 5-74. 인도-한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	344
표 5-75. 인도-한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	345
표 5-76. 인도의 대한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	345
표 5-77. 한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	345
표 5-78. 인도-한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	346
표 5-79. 인도의 대한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	347
표 5-80. 한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 (2009, 2019년) ……	347
표 5-81. 인도, 대인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국 ……	349
표 5-82. 인도, 대인도 수출 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	350
표 5-83. 인도, 대인도 주요 생산 기여 국가 및 산업 ……	351



그림 차례

그림 1-1. 주요 국가의 경제규모 전망	31
그림 1-2. 인도의 무역 및 무역수지(1991~2020년)	32
그림 1-3. 인도의 무역수지(1991~2020년)	32
그림 2-1. 인도의 GDP 대비 수입과 관세수입 추이(1960~88년)	40
그림 2-2. 인도의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년)	50
그림 2-3. 인도의 분야별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년)	51
그림 2-4. 인도의 반덤핑 조사 추이	53
그림 2-5. 인도의 품목별 반덤핑 조치	54
그림 2-6.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55
그림 2-7. 인도의 TBT 및 SPS 통보 건수(1995~2020년)	56
그림 2-8. STC 제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1995~2020년)	57
그림 2-9. 주요국의 STRI 비교(2008년 및 2016년)	66
그림 2-10. 인도의 서비스산업 분야 및 정책 영역별 무역장벽	68
그림 2-11. 인도 스타트업 분야별 현황	92
그림 3-1. 인도의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3
그림 3-2. 인도의 전체 수출입 증감률 추이	105
그림 3-3. 인도의 대세계 용도별 수출입 비중 추이	106
그림 3-4. 인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추이	108
그림 3-5. 인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비중 추이	109
그림 3-6. 인도의 대미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119
그림 3-7. 인도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21
그림 3-8. 인도의 대중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123
그림 3-9. 인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24
그림 3-10. 인도의 대일본 용도별 수출입 비교	126

그림 3-11. 인도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27
그림 3-12. 인도의 대ASEAN 용도별 수출입 비교	129
그림 3-13. 인도와 ASEAN 회원국 간 교역비중 비교	130
그림 3-14. 인도의 대ASEAN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31
그림 3-15. 인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32
그림 3-16. 인도의 대EU 용도별 수출입 비교	134
그림 3-17. 인도와 EU 회원국 간 교역비중 비교	134
그림 3-18. 인도의 대EU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35
그림 3-19. 인도의 대독일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37
그림 3-20. 인도의 대영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39
그림 3-21. 인도의 대UAE 용도별 수출입 비교	140
그림 3-22. 인도의 대UAE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41
그림 3-23. 인도의 대한국 수출입 비중 추이	142
그림 3-24. 인도의 대한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145
그림 3-25. 인도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146
그림 3-26. 인도의 대한국 양허유형별 수입비중 추이	147
그림 3-27. 한국의 대인도 양허유형별 수입비중 추이	148
그림 3-28. 주요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 비교	152
그림 4-1. 대인도 FDI 유입액(1991~2021년 5월)	161
그림 4-2. 대인도 FDI 및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 유입액 (2005~21년 5월)	161
그림 4-3. 인도의 해외직접투자액(OFDI) 추이	168
그림 4-4. 미국의 대인도 FDI 추이	173
그림 4-5. 중국의 대인도 FDI 추이	177

그림 4-6. 일본의 대인도 FDI 추이	180
그림 4-7. ASEAN의 대인도 FDI 추이	183
그림 4-8. 주요국의 대아세안 누적 OFDI(2010~17년)	184
그림 4-9. EU의 대인도 FDI 추이	187
그림 4-10. 영국의 대인도 FDI 추이	190
그림 4-11. UAE의 대인도 FDI 추이	192
그림 4-12. 남아공의 대인도 FDI 추이	194
그림 4-13.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2000~20년)	197
그림 4-14. 주요 업종별 한-인도 FDI 비중: 투자금액 기준	199
그림 4-15. 전 세계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203
그림 4-16. 전 세계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204
그림 4-17. 인도의 대세계 서비스무역 추이(2010~19년)	239
그림 4-18.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출 대상국 비중(2010~19년)	240
그림 4-19.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입 대상국 비중(2010~19년)	241
그림 4-20.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무역 현황	244
그림 4-21.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현황	247
그림 4-22. 인도의 대일본 서비스무역 현황	249
그림 4-23. 인도의 대ASEAN 서비스무역 현황	252
그림 4-24. 인도의 대EU 서비스무역 현황	254
그림 4-25. 인도의 대영국 서비스무역 현황	257
그림 4-26. 인도의 대UAE 서비스무역 현황	259
그림 4-27. 인도의 대남아공 서비스무역 현황	262
그림 4-28. 인도의 대한국 서비스무역 현황	265
그림 4-29. 주요국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268

그림 5-1.	인도-미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281
그림 5-2.	인도-중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291
그림 5-3.	인도-독일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300
그림 5-4.	인도-일본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310
그림 5-5.	인도-인도네시아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319
그림 5-6.	인도-베트남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329
그림 5-7.	인도-한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339



글상자 차례

글상자 6-1. 2015년 일-인도 협력 논의 주요 내용	377
글상자 6-2. 일본 기업 다이킨의 인도 현지화	378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1. 인도의 관세율 추이	402
부록 표 2-1.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405
부록 표 5-1. 한-인도 CEPA: 인도 측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	413
부록 표 5-2. 한-인도 CEPA: 한국 측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	414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3-1. 싱가포르	409
부록 그림 3-2. 인도네시아	409
부록 그림 3-3. 말레이시아	410
부록 그림 3-4. 태국	410
부록 그림 4-1. 네덜란드	411
부록 그림 4-2. 벨기에	411
부록 그림 4-3. 프랑스	412
부록 그림 4-4. 이탈리아	412
부록 그림 6-1. 수출부가가치 분해	417
부록 그림 6-2. 수출 분해: 국내부가가치	418
부록 그림 6-3. 수출 분해: 해외부가가치 및 중복계산	418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1. 연구 배경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 및 2017년 12월 발효된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경제관계가 성장하여 2010~19년간 인도는 한국의 10위권 무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¹⁾ 한국의 FDI 대상국 가운데 인도는 2010년 21위에서 2018년 12위로 올라섰다(금액 기준).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아세안(ASEAN)과 비교할 때, 그리고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인도 경제교류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규모와 비교해보면 명확하다. 즉 무역규모에서 아세안은 2010년 이후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무역 파트너로서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³⁾ 상호간 투자관계에서도 아세안은 연간 투자금액 기준으로 2010년 이후 한국의 2~3위 투자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⁴⁾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인도의 전체 투자유입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바,⁵⁾ 현재의 한-인도 무역·투자관계는 양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이다.

중국, 동남아시아에 이은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인도는 1991년 본격적인 경제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는데, 1992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6.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인도가 향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통해 2031년 까지 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⁶⁾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CBER 역시 인도의 2030년 국민총생산이 약 9조 달러에 도달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1-1 참고).⁷⁾

1)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1. 11. 22).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1. 5. 20).

3)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1. 11. 22).

4)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1.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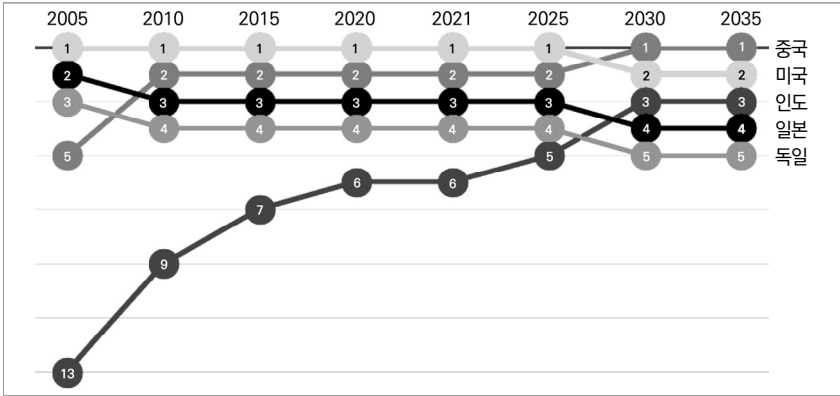
5)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참고.

6) Entrepreneur(2021. 3. 24), "India will be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by 2031, Bank of America projects."

7) CBER(2020), p. 16.

그림 1-1. 주요 국가의 경제규모 전망

(단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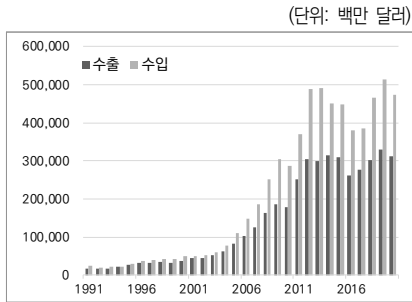
자료: CBER(2020), p. 16.

인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00년 27%, 2010년 49% 등으로 지속 증가해 2012년 55.8%까지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제3장 참고), 이는 인도 경제의 주요 현안인 제조업의 부진과도 연결된 현상이다. 특히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투자유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 모디 정부에서도 드러난다(제2장 참고).

현재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불균형이 통상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비롯한 양국 통상관계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최근 인도의 상품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그림 1-2 및 그림 1-3 참고), 인도는 무역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투자 및 서비스무역 등 경제관계의 다각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는 국가이다. 현재 인도는 미-중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건하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인도 통상협력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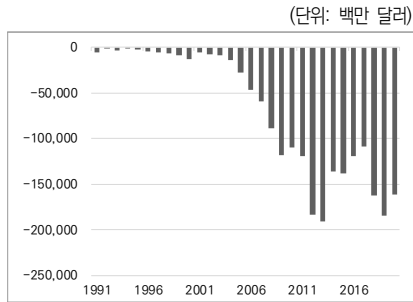
차원을 제시할 경우, 인도의 호응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인도의 무역 및 무역수지(1991~2020년)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1. 6. 20).

그림 1-3. 인도의 무역수지 (1991~2020년)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1. 6. 20).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이상의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 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도 통상정책의 변화과정과 기본 시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본격적인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여, 인도 통상정책의 기본 시각과 아이디어, 핵심 내용 등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인도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관계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도의 현안인 무역불균형 문제를 개괄한다. 아울러 모디 정부 이후 추진된 2015~20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차기 대외무역정책의 주요 이슈를 전망한다.

둘째, 최근 인도의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구조,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상국별 특징을 분석하여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인도의 상품·서비스무역과 투자관계를 분석하여 글로벌 경제에서 인도의 위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한-인도 경제관계의 특징과 보완할 부분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인도의 주요 상대국별(미국과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무역구조와 현안을 분석하고, 또한 한-인도 CEPA 체결 전후 무역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주요 상대국별 투자 및 서비스무역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투자는 인도의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한-인도 통상협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인도의 위상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여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한-인도 통상협력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 현황과 향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연관표 분석을 수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인도 산업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생산 네트워크 구축 상황을 비교 평가하고,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도록 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이상을 토대로 무역, 투자 등을 포괄하여 한국과 인도의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6장에서는 인도 통상정책에 대한 분석(제2장),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인도 무역·투자구조(제3장 및 제4장), 그리고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과 역할(제5장)을 연계하여 무역·투자 등을 포괄한 한국-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한국과 인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부분 한국과 인도의 양자간 관계를 주로 분석했으며, 인도의 전체적인 무역투자 구조 및 정책

에 대한 고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 무역 투자구조,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등과 같이 인도를 중심에 놓은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의 통상정책과 전반적인 통상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 인도 통상정책 및 어젠다 발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 통상정책과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다양한 현시 문헌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투자 통계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제4장에서는 국제기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통계 이외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공하는 fdi Markets와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가 발간하는 Eikons 통계를 활용하여 인도와 상대국 간 투자를 분야별, 유형별(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공식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최신 글로벌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인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 변화를 추적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연구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무역통계 분석 - FTA의 거시적 효과 분석 (CGE) - 해외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시아의 지역특성, 성장잠재력, 경제동향, 남아시아 주요국의 통상정책 분석 - 한국의 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 FTA의 거시적 효과 분석 - 주요국의 남아시아 통상전략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모형 및 정량 분석 - 실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인도 교역 및 투자 구조 분석 - 양국 협력 강화방안 발굴

표 1-1. 계속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한·인도 CEPA 개선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 - 연구자(연도): 조총제 외 (2014) - 연구목적: 한-인도 CEPA의 개선, 개빙화 확대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및 통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분석 - 세부 품목별 CEPA 양허 수준 파악 및 일본 등과의 비교 - CEPA 개선방안 제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연구자(연도): WTO(2020) - 연구목적: 인도 통상정책의 분야별 개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및 통계 분석 -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통상정책 수립 구조 - 인도의 무역투자 분야별 통상정책 소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 분석 연구 - 연구자(연도): 김정곤 외 (2020a) - 연구목적: 한-인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대응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및 통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 무역투자구조 분석 -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논리 제시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 연구자(연도): 김정곤 외 (2021) - 연구목적: 인도 통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의 심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 문헌, 데이터 분석 - 무역투자 통계 분석 - fdi Markets Eikons 통계를 활용한 인도의 국별, 분야별, 방식별 투자관계 분석 - 최신 글로벌 산업연관표 분석 - 전문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통상정책의 포괄적인 이해와 전망 - 인도의 최근 통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주요국에 대한 인도의 통상정책과 무역투자 분석 - 한-인도 무역투자 추이 분석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 분석과 전망 -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인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방안 모색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특히 1991년 개방화 이후의 인도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되, 개방화 이전 통상정책의 흐름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개방화 이전의 통상정책에서 현재 인도 통상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통시적인 인도 통상정책의 흐름과 상품무역정책, 서비스무역·투자정책,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다루어 인도 통상정책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다룬다. 아울러 최근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인 ‘메이크 인 인디아’와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5개년 단위로 발표되는 대외무역정책, 그리고 양자간 상품무역 적자 문제를 분석하여 인도 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가. 개방화 이전의 통상정책

독립 이후 인도의 통상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75년간의 수입대체정책에 기초한 대외경제 통제 시기, 두 번째 단계는 1976~91년간의 초기 개방화 시기, 세 번째 단계는 1991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본격적인 개방화 시기이다.⁸⁾ 본 절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기 인도 통상정책의 중요한 특징을 개관한다. 이 시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개방화 이전 인도 통상정책의 기본 배경과 아이디어가 1990년대 개방화 이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인도 통상정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BOP(Balance of Payment) 관리였다. 이는 경제적 자립과 계획경제체제에 경도된 당시 네루

8) Panagariya(2004), p. 2.

정부의 성향과 결부된 것이었다.⁹⁾ 네루 정부는 2차 5개년 계획(Second Five Year Plan: 1956~61년)을 통해 중공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는데, 수입이 급증하여 약 40억 달러, 당시 5개년 계획 기간 중 인도 수출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의 상품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957년 BOP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GATT 28조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하였다.¹⁰⁾ 당시 BOP 위기는 인도가 수입통제 체제, 그리고 수입대체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이로 인해 이후 인도의 무역 및 외환정책은 정부계획에 기초하여 개별 경제활동에 대한 외환 배분에 집중하였으며,¹¹⁾ 이에 따라 국영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고, 민간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갔다.¹²⁾ 당시 외환 배분이 산업 및 업종 사이의 형평성 논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산업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¹³⁾

수입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면허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며('license-quota raj'라고 일컬어진다), 산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편승하면서 수입제한 등 보호조치에 쉽사리 의지할 수 있었다.¹⁴⁾ 그 결과 인도의 수입정책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관세수입 증대, 그리고 국내 업계의 지대 추구 행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⁵⁾ 1960~88년간 인도의 상품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0% 사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GDP 및 수입금액 대비 관세수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1987~88년의 경우 수입금액 대비 정부의 관세수입 비중이 60%에 달하였다(그림 2-1 참고).

9) Roy *et al.*(2014), p. 16.

10) Roy *et al.*(2014), pp. 11-12, 재인용: Srinivasan and Tendulkar(2003), *Reintegrating India with the World Economy*.

11) Panagariya(2004), p. 2.

12) Roy *et al.*(2014),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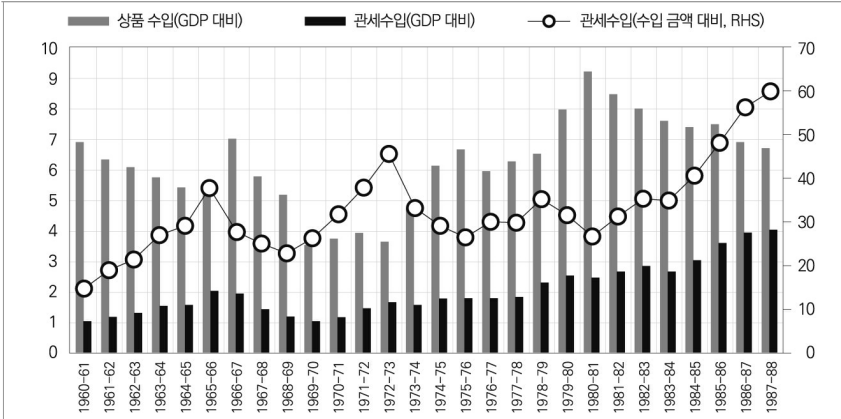
13) Bhagwati and Desai(1970), p. 290.

14) Panagariya(2004), p. 3.

15) Roy *et al.*(2014), p. 16.

그림 2-1. 인도의 GDP 대비 수입과 관세수입 추이(1960~88년)

(단위: %)



자료: Roy et al.(2014), p. 12.

1966년 루피화 평가 절하를 계기로 인도는 관세 인하, 수입면허 완화, 수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자유화는 59개 산업, 생산의 약 80%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면허 부여를 위한 선별작업은 여전히 효율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당시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한 경제 불황, 산업계의 저항, 그리고 정치인들의 계획경제 및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에 대한 선호로 인해 자유화가 중단되었으며, 그 결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수입 감소로 나타났다.¹⁶⁾

인도의 개혁, 개방화는 불완전하나마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1990년대 본격적인 개방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1976년 도입한 OGL(Open General Licensing)¹⁷⁾을 통해 수입면허 대상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85~90년 사이 원유 이외 품목의 수입이 연간 12.3% 증가하였다.¹⁸⁾ 다만 이것은 제한적인 수준의 개방화로서, 1980년

16) Panagariya(2004), pp. 4-5.

17) 이는 수입 가능 품목의 포지티브 리스트인데, 2차 대전 이전에 인도가 시행하던 제도였다.

대에 관세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수입수량제한의 감소폭은 매우 작았다.¹⁹⁾

1980년대 인도 정부는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ing)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0년에 대상 산업은 전체의 1/3에 도달하였다.²⁰⁾ 특히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고, 이는 후임인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총리에게로 이어졌다. 인디라 간디 총리의 개방화 노선은 정치적인 목적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은 인도 통상정책의 정치적 여건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준다. “인도의 정치 문화에서 (중략) [종교적] 세속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힌두우월주의와 친기업이라는 양대 패키지는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²¹⁾ 당시 인디라 간디 정부는 이 가운데 후자의 노선을 택하였으며, 현재 나렌드라 모디 정부 역시 유사한 노선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정부의 친기업 노선으로의 전환은 1980년대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Rodrik and Subramanian(2004)은 당시 인도 정부의 개혁이 친시장적(시장 경쟁 촉진)이라기보다는 친기업적(기업의 사업 환경과 수익성 개선)이었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1990년대 대외개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198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본격적인 수입시장 개방을 추진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현재 인도 정부의 통상정책 역시 수입개방에는 소극적인 반면, 국내 기업환경 개선에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18) Panagariya(2004), pp. 5-6. 그러나 1980년대에 관세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수입수량제한의 감소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Rodrik and Subramanian 2004, p. 19).

19) Rodrik and Subramanian(2004), p. 19.

20) Panagariya(2004), p. 6. 산업면허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만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입면허와는 다른 것이다.

21) Kohli(1989), p. 308.

나. 1990년대 개방화 시기의 통상정책

1991년을 기점으로 한²²⁾ 인도의 무역자유화를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대외적 충격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소련과 공산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1차 걸프 전쟁 발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도는 엄청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를 겪었으며, 여기에 외환시장의 부실한 관리가 겹쳐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²³⁾ 1957년 BOP 위기와는 달리, 당시 BOP 위기는 1980년대부터 싹튼 개방화, 친기업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즉 수입제한을 통해 외환 보유고를 관리한다는 과거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입 개방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수출 촉진으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선화하였다.²⁴⁾

1991년 개방화와 더불어 인도 정부가 단행한 개방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적인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기업 독점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독점규제법(MRTP: Monopolies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에 의한 대기업 투자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단계적 국산화계획²⁵⁾ 역시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보유 지분을 최대 51%까지 상향 조정하고(기존 최대 40%), FDI에 대한 자동승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⁶⁾ 이러한 개

22) 1991년 인도 정부는 연방 예산안을 통해 개방화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다(Singh 2017, pp. 2-3).

23) 1978/79년 약 2억 9,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1990/91년에 약 96억 8,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2%에 이르렀다. Roy *et al.*(2014), p. 22.

24) Roy *et al.*(2014), pp. 21-22; 1991년 연방 예산안은 “산업 개발 정책이 무역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1991), *Union Budget Speech 1991-1992*, paragraph 11.

25) 엔지니어링 제품 및 전자제품의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繪所秀記(2008), p. 83, 각주 45.

26) Roy *et al.*(2014), pp. 24-25; 繪所秀記(2008), 번역: 박종수(2009), pp. 73~98.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해서는 3절 나 참고.

혁은 공기업의 지대추구행위를 막고 경쟁을 통해 민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둘째, 상품무역 측면에서 중요한 개혁은 과거 광범위하게 실시하던 수입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한 것이다. 인도는 상기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수입면허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입을 자유화했으며, WTO 가입과 더불어서는 2000년대 초반 수입면허제도를 완전히 철폐했다. 또한 환율체제 개편과 더불어 수입가격에 기초한 수입정책을 정착시켰다.²⁷⁾

셋째, 관세율을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1990~91년 당시 인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125%였으며, 소비재의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은 153%, 중간재는 77%, 자본재는 97%에 달하였는데, 개방화 이후 이를 대폭적으로 낮추었다.²⁸⁾

넷째, 인도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조인트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등 개방화를 추진했으나, 금융, 소매, 선적(shipping), 전문 서비스 등의 경우 외국인 진입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서비스시장 개방이 제조업에 비해 원활하지 않았던 데는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 사업자의 강력한 로비, 정치적인 비중이 큰 소매업자의 영향력,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금융산업 노조의 반대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가 개방화 이후 주요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²⁹⁾

다. 통상정책의 프레임워크

인도의 통상정책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에 앞서 인도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강한 지방 분권체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연방국가로서 헌법 246조

27) Roy *et al.*(2014), p. 25.

28) *Ibid.*, pp. 25-26. 자세한 내용은 2절 가. 관세율 참고.

29) *Ibid.*, p. 27; Roy and Banerjee(2013), pp. 13-17. 서비스무역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절 가. 서비스무역 참고.

(Seventh Schedule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연방정부와 개별주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으며, 주정부의 권한이 큰 것이 특징이다. 외교, 외국과의 협정 체결 및 이행, 무역 및 상무 등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며(Schedule I - Union List), 은행, 보험, 공익 관련 산업 등의 분야 역시 연방정부의 소관이다. 한편 농업, 전염병 대응, 농작물 및 가축 질병 방지, 어업, 공중보건 및 위생은 주정부의 소관 영역이다(Schedule II - State List). 기업 파산 및 정리, 독과점 문제, 법률 및 의료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Schedule III - Concurrent List).³⁰⁾ 또한 예컨대 노동법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제정할 수 있어 기업은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26)」, 「노동쟁의법(Industrial Disputes Act, 1947)」 등 중앙정부 노동 관련 법은 물론 주(州)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³¹⁾

이에 따라 통상정책 수립 시 연방과 주정부의 의견 조율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업의 경우 각 주의 책임 영역으로서, 통상정책 수립 시 입장을 수립하는 연방정부의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 Welfare), 식품산업부(Ministry of Food Processing and Industries)와 의견 조율은 물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주정부와 논의가 필수적이다.³²⁾ 이처럼 연방과 주 사이에 정책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각 주정부는 수도 델리에 사무소를 두어 연방정부와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인도 무역정책의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으로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외무역정책(FTP)에 근거한다.³³⁾ 무역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상공부의 DoC(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한다. 상공부는 또한 다자·양자간 무역관계, 특별수출

30) WTO(2020), p. 32.

31) 김정곤 외(2019), p. 66.

32) 다만 각 주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기능이 약하거나 의견개진 절차가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ingh and Singh 2020a, pp. 513-514).

33) 자세한 내용은 '5절 나' 참고.

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 수출 촉진 및 무역 원활화, 수출 산업 및 상품의 개발과 규율 등을 담당한다.³⁴⁾³⁵⁾ 상공부 아래의 대외무역사무국(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관세 위원회(Tariff Commission), NITI Aayog(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³⁶⁾와 같은 정부기관, 인도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인도 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와 같은 민간 기관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³⁷⁾ 한편 외국인투자정책은 상공부의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Department of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가 담당한다. 종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주기적으로 발간하며, 이를 통해 FDI 정책의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³⁸⁾

인도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1990년대 개방화 이후 민간 협의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통상정책은 계획경제의 전통에 따라 고위급 관료와 소수의 대기업(공기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개방화 과정에서 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은 상무부 산하 기관(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zation(FIEO), 수출촉진위원회 등), 또는 부문별 민간단체를 통해 상무부에 전달된다.

제조업 또는 상품 분야에서는 상기한 인도 산업협회와 인도 상공회의소가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양대 이익단체 역할을 하며, 주로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 전달에 주력한다. 수출진흥위원회(Export Promotion Council)는 산업별로 운영되어 각자의 이해관계를 전달하며, 이들은 산업별 협회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업별 협회로는 인도 자동차산업협회(Society of Indian

34) Ind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ommerce(2018), *Annual Report 2017-18*.

35) 인도의 무역 관련 주요 법은 WTO(2020), pp. 33-34 참고.

36)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37) 이상은 WTO(2020), pp. 32-34 참고.

38) *Ibid.*, p. 40. 보다 자세한 FDI 관련 정책과 절차는 '3절 나' 참고.

Automobile Manufacturers), 자동차부품 제조협회(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인도 철강협회(Indian Steel Association), 인도 농기계생산자 협회(All India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이 있다.³⁹⁾

서비스 분야에서는 NASSCOM(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협회(Manufactures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가 대표적인 이익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NASSCOM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긴밀하게 관여하면서 정부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⁴⁰⁾

[표 2-1]은 RCEP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준 이익단체와 그 영향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인도 내 대기업 중심의 이익단체들이 정책 결정(RCEP 참여 포기)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즉 양대 이익단체인 인도 산업협회와 인도 상공회의소가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대기업 중심의 인도 철강협회는 강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농업 역시 전반적으로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경쟁력이 높은 제약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은 높은 개방화 성향을 보였다.

종합하면, 제조업 분야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 수립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철강, 자동차, 화학과 같이 기간산업으로서 인도가 자국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⁴¹⁾ 한편 서비스산업계는 개방화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다.⁴²⁾

39) Singh and Singh(2020a), p. 515.

40) 인도의 농업 관련 이익집단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조직화되지 않고 파편화된 경향이 강하다. 다만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은 인도의 특성상 정치인들이 농촌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Ibid.*, pp. 514-515).

41) 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인도 산업협회와 인도 상공회의소는 포괄적인 기업 이익을 대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42) 다만 3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인도는 상대적으로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개방도가 낮은 편인데, 그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법률 및 의료 등 전문직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기능을 공유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2-1. RCEP 협상에서 인도의 주요 이익단체와 입장

주요 이익단체	관심분야	입장	영향력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상품	보호주의	상
Federation of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상품	보호주의	상
PHD Chamber of Commerce	상품	보호주의	중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of India	상품	보호주의	중
Export Promotion Councils	상품	보호주의	중
Commodity Boards	상품	보호주의	하
Trade Associations	상품	보호주의	하
Indian Steel Association	상품	보호주의	상
All India Steel Rerollers Association	상품	보호주의	중
Indian Stainless Steel Development Association	상품	보호주의	중
The Indian Ferro Alloy Producers Association	상품	보호주의	중
Pharmaceutical Export Promotion Council	상품	자유주의	하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서비스	자유주의	상
Manufactures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서비스	자유주의	하
Service Export Promotion Councils	서비스	자유주의	중
Confederation of Indian Farmer Associations	농업	보호주의	상
All India Kisan Sabha	농업	보호주의	상
All India Coordination Committee for Farmers Movements	농업	보호주의	중
National Dairy Development Board	낙농업	보호주의	상
National Seed Association of India	종자	보호주의	하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ink Tanks, and Universities	국가경제	보호주의	상
Swadeshi Jagran Manch	국가경제	보호주의	상

주: 수출촉진위원회는 모든 분야별 위원회를 포괄하며, 무역협회는 제조업 분야 모든 형태의 단체를 포함함.
 자료: Singh and Singh(2020a), pp. 516-527.

2. 상품무역정책

가. 관세율

개방화 직전인 1990~91년 인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113%,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은 87%, 그리고 고관세율은 355%에 달하였다. 수입면허제도의 철폐와 더불어 관세율 조정 및 인하는 가격기반 무역정책으로 전환 및 개방화의 주요 과제였다.⁴³⁾ 구체적으로 보면, 1993/94 연방정부 예산안은 자본재 중심의 기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중간재 수입 관세율을 감축함으로써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인 개방 기조는 중간재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이를 통해 최종재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⁴⁴⁾ 이는 전반적인 개방화로의 전환하에서 자국 최종재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시점은 이후 인도 무역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는 1997/98년부터 2020/21년까지 관세율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1991년 개방화 이후 1997/98년까지 인도 전 산업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35.3%까지 급격히 낮아졌다. 이후 2010/11년 단순평균 관세율은 12.0%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특기할 만한 감소세는 없이 2020/21년 14.3%를 기록했다. 개방화 이후 관세율 감축은 전적으로 비농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997/98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이 30% 중반을 유지하는 반면 비농산물의 경우 1997/98년 35.4%에서 2010/11년 8.9%, 2020/21년 11.1%이다. 비농산물 가운데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산물(20% 후반을 유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도의 관세율 감축은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다만

43) Panagarya(2004), p. 7.

44)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1993), *Union Budget Speech 1993-1994*, paragraph 82-99. 화학산업의 경우 중간재 관세율이 최종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비농산물 역시 2010/11년 이후부터는 기존 이상의 관세 감축은 없었으며,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 분야별로 보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광물, 목재, 원유의 관세가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화학, 기계류의 평균 관세율 감축 폭도 컸다. 운송기기의 관세율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20/21년에도 24.2%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 2010/11년까지 관세율을 낮추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록 1 참고).

표 2-2. 인도의 관세율 추이⁴⁵⁾

(단위: %)

구분	MFN 적용 관세율 단순평균						MFN 적용 관세율 범위					
	1997/1998	2006/2007	2010/2011	2014/2015	2019/2020	2020/2021	1997/1998	2006/2007	2010/2011	2014/2015	2019/2020	2020/2021
합계	35.3	15.1	12.0	13.0	13.9 (14.9)	14.3 (15.4)	0-260	0-150	0-150	0-150	0-150 (0-637)	0-150 (0-637)
HS 01-24		38.2	35.1	37.7	36.1	37.5		0-150	0-150	0-150	0-150	0-150
HS 25-97		11.8	8.6	9.0	10.4 (11.6)	10.5 (11.7)		0-100	0-70	0-100	0-100 (0-637.7)	0-100 (0-637)
WTO 농산물 범주	35.1	36.2	33.2	36.4	34.8	36.5	0-260	0-150	0-150	0-150	0-150	0-150
WTO 비농산물 범주	35.4	12.0	8.9	9.5	10.8 (12.0)	11.1 (12.3)	0-192	0-70	0-70	0-100	0-100 (0-637)	0-100 (0-63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AVE(ad-valorem equivalent)를 포함.

자료: WTO(2020), WTO(2015), WTO(2011), WTO(2007), WTO(2002)를 토대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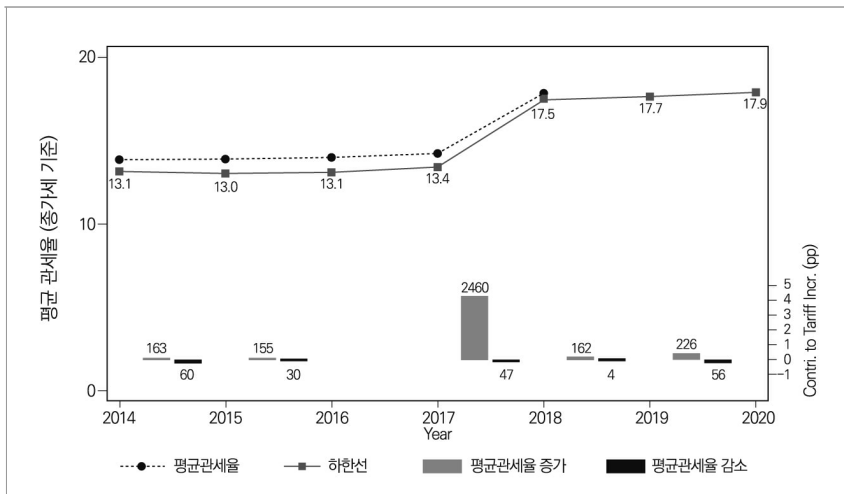
인도의 관세율은 2018년 이후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시점은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점이며, 2020년에는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조하는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그림 2-2]는 2014년 이후 인

45) 상세 내용은 [부록 표 1-1] 참고.

도의 평균 MFN 관세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평균 관세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관세율 상승은 특히 섬유·의류산업, 저숙련 산업, 농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집약 산업 보호를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모디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과도 관련이 있는 바, 자립 인도 정책은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서 농민과 저소득층을 꼽고 있다.⁴⁶⁾ 다만 세부 품목별로 인도 정부는 중간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있다.⁴⁷⁾

그림 2-2. 인도의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20년)

(단위: %, 개)



주: 1) HS 6단위 품목 기준.

2) 막대그래프 위의 숫자는 관세율이 변동된 품목의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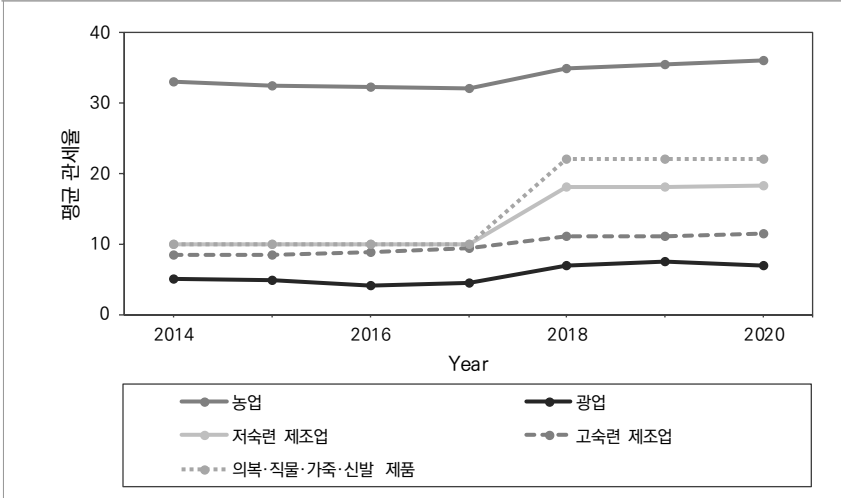
자료: Chatterjee and Subrimanian(2020), p. 5.

46) 인베스트 인디아, 「아트마니르바 ভারত আবিযান(자립 인도)」, <https://www.investindia.gov.in/ko-kr/atmanirbhar-bharat-abhiyaan>(검색일: 2021. 9.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Press Information Bureau, AATAMNIRBHAR BHARAT KA BUDGET, <https://pib.gov.in/AATAMNIRBHARBHARATKABUDGET/>(검색일: 2021. 9. 29).

47) 5절 가. 참고.

그림 2-3. 인도의 분야별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년)

(단위: %)



주: HS 6단위 품목 기준.

자료: Chatterjee and Subrimanian(2020), p. 6.

인도는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세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0/21년 현재 운송기기의 경우 최대 100%, 가죽제품 70%, 기타 제품 60%, 광물 40%, 섬유 35%, 화학 및 기계류 20% 등 관세 적용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더욱이 AVE(ad-valorem equivalent)를 고려할 경우,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부록 1 참고). 또한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WTO 분류 비농산물의 경우, 인도는 무관세 품목의 비중이(HS 6단위 MFN 적용 관세율 기준) 1.8%에 불과하며, 비종가세 적용 품목의 비중 역시 5.5%로서 큰 편이다. 그리고 15%를 초과하는 관세율 적용 대상 품목의 비중이 26.6%로서 높은 편이다. 또한 인도는 WTO 양허 세율(bound tariffs)과 적용 관세율(applied tariffs)의 격차가 매우 큰 편으로서 실질적인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격차는 관세정책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종합하면 인도는 주요 제조업의 관세 감축을 상당히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표 2-3 참고).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 관세율 체제 (uniform tariff regime)에 비추어보면, 인도의 관세율 체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발전전략보다는 분야별 이해관계 반영에 치중하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2-3. 인도와 주요국의 관세율 비교(WTO 분류 비농산물)

(단위: %)

국가	단순평균 관세율	무관세 품목 비중	비종가세 적용 품목 비중	15% 초과 품목 비중	국내평균 관세율 3배 이상 품목 비중	분산 계수
인도	14.3	1.8	5.5	26.6	0.7	84
베트남	8.4	38.6	0.2	21.6	4.0	130
인도네시아	8.0	13.8	0.0	9.8	5.9	109
중국	6.5	7.4	0.3	1.3	0.8	62
한국	6.6	18.7	0.0	3.9	3.8	76

주: HS 6단위 MFN 적용 관세율 기준임.

자료: WTO ITC UNCTAD(2020) 및 WTO(2020), p. 168을 토대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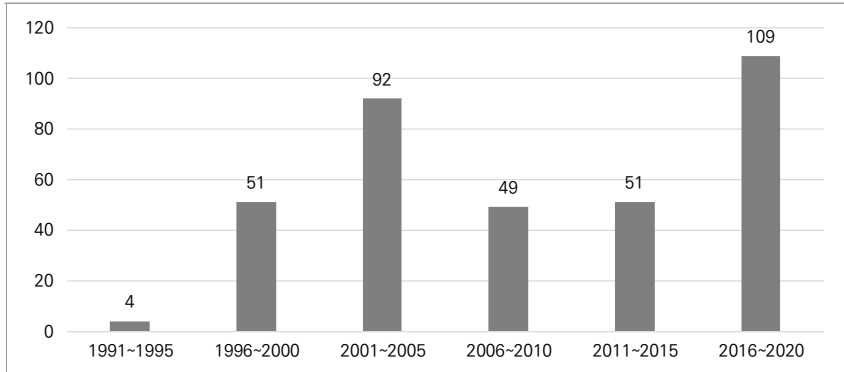
나. 반덤핑 조치

개방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 특히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인도 통상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도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 최초의 반덤핑 조치는 1994년 2월 일본산 비스페놀 A(Bisphenol A, 플라스틱의 원료)에 대해 취해졌다.⁴⁸⁾ 같은 자료원을 사용

48) Indian Government Director General of Trade Remedies, "Anti-Dumping Cases," https://www.dgtr.gov.in/anti-dumping-cases?title=&field_cn_code_value=&field_case_country_value=&field_type_of_proceeding_value=Anti-dumping&field_case_status_value=All&date_filter%5Bmin%5D%5Bmonth%5D=1&date_filter%5Bmin%5D%5Bday%5D=1&date_filter%5Bmin%5D

하여 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1~95년간 4건, 1996~2000년간 51건, 2001~05년간 92건, 2006~10년간 49건, 2011~15년간 51건, 2016~20년간 109건의 반덤핑 조치가 취해졌다.⁴⁹⁾

그림 2-4. 인도의 반덤핑 조사 추이



자료: Indian Government Director General of Trade Remedies, "Anti-Dumping C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2).

인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특히 모디 정부(2014년 5월 취임)에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FDI 유치에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3절 참고), FTA 체결을 사실상 중단하고 평균 관세율을 높이는 등 무역 개방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향이 무역구제조치 활용 빈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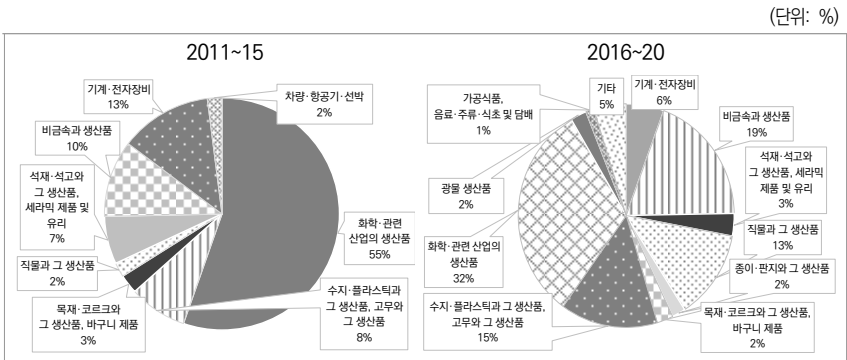
분야별로 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치 추이는 인도 산업의 구조 변화와 관련성이 높다. 최근 10년간 화학산업에서 반덤핑 조치(발동 기준) 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6~20년)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D%5Byear%5D=1960&date_filter%5Bmax%5D%5Bmonth%5D=12&date_filter%5Bmax%5D%5Bday%5D=31&date_filter%5Bmax%5D%5Byear%5D=1993&save=Search(검색일: 2021. 5. 12).
 49) *Ibid.* 상기 수치는 조사단계 및 조사완료 단계를 포함한 것이다. 인도 역대 정부의 집권 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구분해보면, 인도 인민당(BJP) 집권기인 1998~2003년간(약 5년) 및 2014~20년간(약 7년) 반덤핑 조치 건수는 각각 105건, 128건인 반면, 인도 국민회의(INC) 집권기인 2004~13년간(약 10년) 반덤핑 조치 총 건수는 112건이었다.

기본적으로 인도의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성장(소비재, 자동차 및 전자제품, 의료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관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근 10년간 플라스틱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 건수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1~15년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계류 및 전자장비의 비중은 2016~20년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성장전략에 따른 중간재 수입에 대한 인도 정부의 변화된 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중 비금속류(base metal)에 대한 반덤핑 조치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섬유산업의 경우 인도 정부가 최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하는 분야로서, 보호 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 운송장비 및 부품 관련 반덤핑 조치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 및 자동차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고관세율 유지로 인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그림 2-5. 인도의 품목별 반덤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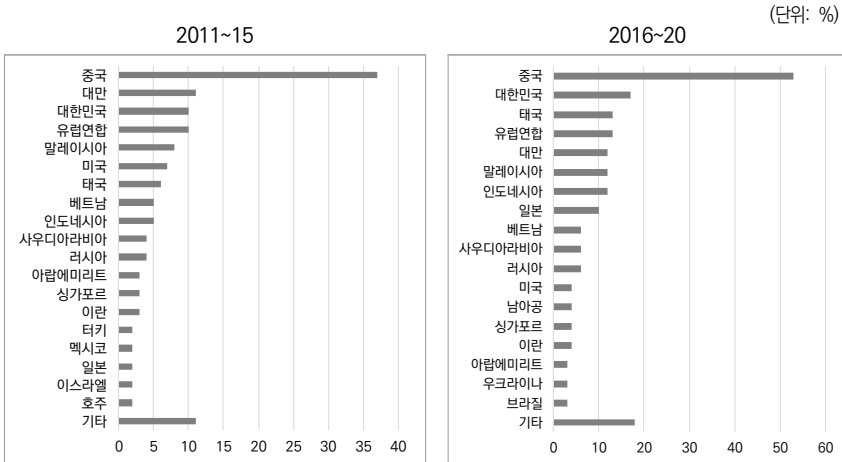
주: 상기 자료는 initiation 기준임.

자료: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검색일: 2021. 6. 30).

국가별로는 최근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는 변화가 없으며, 뒤를 이어 한국, EU,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한국,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도가 동아시아와 제조업 생산 연계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른 현상이다.

그림 2-6.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주: 상기 자료는 initiation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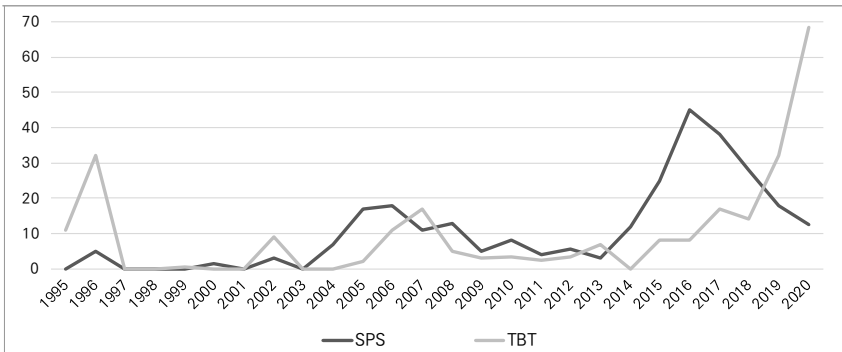
자료: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검색일: 2021. 6. 30).

종합하면 인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상품시장 개방화를 추진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양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즉 자국 기반과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화학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철강 및 섬유산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전략적 육성을 요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전략과 더불어 기계류 등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지는 중국, 한국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가 반덤핑 조치를 집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 비관세장벽: TBT를 중심으로

WTO 출범 이후 인도의 TBT 및 SPS 통보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2-7 참고).⁵⁰⁾ 인도는 TBT 관련 STC(Specific Trade Concern) 제기를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로서, 1995~2020년간 총 235회의 STC 제기를 받았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한 해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EU(46건), 중국(31건)에 이어 인도(24건)가 가장 많은 STC 제기를 받은 바 있다. 다만 1995~2020년간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STC 제기를 받는 빈도가 적고, 신규 STC 빈도 역시 중국, EU, 미국에 비해서 낮다.

그림 2-7. 인도의 TBT 및 SPS 통보 건수(199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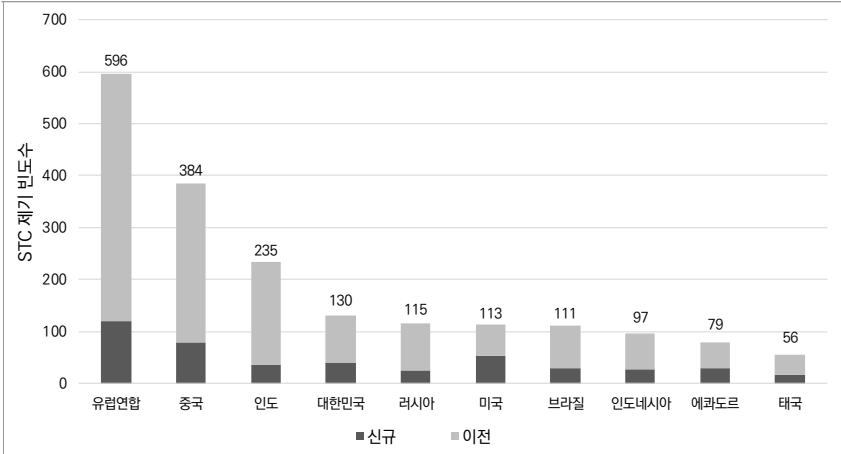


자료: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tbtims.wto.org/>, 검색일: 2021. 6. 30) 및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spsims.wto.org/>, 검색일: 2021. 6. 30).

- 50) TBT 및 SPS 통보가 증가하는 것은 수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도가 TBT 및 SPS 관련 제도 및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기업의 순응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보다, 오히려 기업 거래비용의 감소와 소비자 신뢰 증가로 인해 무역촉진효과를 더 크게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TBT 통보 증가가 인도의 대세계 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산업별로 달라지는데, 농업, 가공광물의 경우 인도의 기술조치 도입이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운데 비교적 기술집약적 산업인 일반기계, 전기기계의 경우도 인도의 기술조치 도입이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제조업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와 기타 제조업은 인도의 기술조치 도입이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용 외 2016).

그림 2-8. STC 제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1995~2020년)

(단위: 빈도 수)



자료: WTO(2021), p. 33.

2021년 5월 현재까지 인도에 대해 제기된 STC는 식품과 완구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그 밖에 전자, IT 제품, 철강, 통신장비, 자동차, 화학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STC는 철강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 규정으로서, 2009년 이래 2021년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EU 제기, IMS ID 224). 또한 전자 및 IT 제품에 대한 강제 등록 요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며(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EU 등 제기, IMS ID 367), 통신장비 보안검사 요구와 관련된 STC 역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제기된 바 있다(캐나다, 미국, EU 제기, IMS ID 274).

인도는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TBT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⁵¹⁾ 한-인도 CEPA에서는 양국간 TBT

51) 김원길, 정운세(2013)는 인도 반덤핑 조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실업률, 수입침투(import penetration)라고 분석하고, 반덤핑 조치가 보호주의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Bao and Qiu(2012)는 일반적으로 수입침투가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TB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해소를 위해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또한 2015년 5월 인도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인도의 제안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MRA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진전이 없다.

3. 투자 · 서비스무역정책

가.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인도의 경제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인도 정부는 독립 이후 해외 자본 도입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산업정책 결의(Industrial Policy Resolution, 1948년)를 제정하였다. 이 가운데 인도 국내 기업들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 정부는 반대급부 차원에서 수입대체정책을 도입하였다.⁵²⁾ 독립 이후 시기별 차이는 있었지만 인도 정부는 FDI에 대해서 개방적인 정책을 선호한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 시각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 초 개방화 추진 당시 인도 정부는 FDI를 해외 자금원 조달의 주요한 경로로 인식하였다.⁵³⁾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자동승인 경로 하에서 지정된 업종에 대해 51%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였으며, 총리실 아래 투자유치 싱글윈도우 시스템인 Foreign Investment Permission Board (FIPB)를 설립하여 FDI를 촉진하기 시작했고,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가입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환경 개선작업을 일관성

52) Kumar(1995), pp. 3228-3229.

53) 인도는 FDI 유치를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인해 부족한 외환 보전의 수단으로서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있게 진행했다.⁵⁴⁾ 특히 인도는 모디 정부 집권 이후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World Bank 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면, 인도의 순위는 2017년(보고서 발간연도 기준) 130위에서 2020년 63위로 높아져 괄목할 만한 개선 추세를 보였다.⁵⁵⁾

1991년 개방화 이후 인도의 FDI 유입은 2001/02년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또한 2004/05년부터 2006/07년간 FDI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인도 정부는 2006년에 FDI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여, 투자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주식 보유 상한선을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투자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FIIA(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를 설립하고, NMCC(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⁵⁶⁾ 2009/10년 이후 2013/14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2008년)와 유로 위기(2012~13년)로 촉발된 금융 불안으로 인해 FDI 유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으나, 2014/15년에 들어서 FDI 유입이 다시 활발해졌다.⁵⁷⁾

상기한 바와 같이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의 투자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FDI 유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디 정부는 다양한 부문에서 FDI를 촉진하며, 이는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였으며, 방위산업, 방송 서비스(broadcasting carriage services), 통신 서비스 및 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최대 100% 지분의 FDI 자동 승인을 허용하였다. 또한 보험중개업에 대해 100%, 보험업의 경우 최대 49%의 외

54) Singh(2019), p. 46.

55) World Bank, Doing Business 웹페이지,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 (검색일: 2021. 6. 9). 세부적으로 'Starting a Business(사업 시작)',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건설 허가)', 'Getting Electricity(전기 사용)', 'Getting Credit(대출)', 'Paying Taxes(납세)', 'Trading Across Borders(국경간 무역)', 'Resolving Insolvency(파산)'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56) Singh(2009), p. 48.

57) 인도의 FDI 유입 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참고.

국민 지분을 허용하고,⁵⁸⁾ 이어서 2021년 초에는 보험업에 대한 지분 한도를 74%로 늘리고 경영관리 규제를 완화하였다.⁵⁹⁾ 공항, 기타 항공 서비스 및 비정기(non-scheduled) 항공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였고, 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는 최대 49%의 외국인 지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⁶⁰⁾ 현재 인도 정부가 FDI를 금지하고 있는 부문은 복권, 담배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광업, 국방(소형 무기 제조), 방송 및 인쇄 매체, 민간 항공, 위성, 통신, 민간 경호, 멀티 브랜드 및 식품 거래, 둘 이상의 규제기관이 규제하거나 규제되지 않고 있는 금융 서비스, 제약 등 11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요구한다.⁶¹⁾

또한 인도 정부는 FDI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서 모든 FDI를 심사, 승인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소관 부처별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도입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일괄된 창구(DPIIT가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 포털(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제안서를 해당 행정 부처 또는 부서로 이관시켜 수령 일주일 이내에 검토하고, 6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규모가 50억 루피(약 7억 7,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무회의 경제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도 심사를 하며, 이 역시 수령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진다.⁶²⁾ 현재 인도 정부는 FDI에 대해 자동승인(Automatic Route) 또는 정부승인(Government Route)을 통해 시장에

58) Indian Government DPIIT(2020), "FDI Policy Section, Press Note No. 1(2020 Series),"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pn1_2020.pdf(검색일: 2021. 6. 8).

59)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재인용: 김정곤(2021a), p. 2.

60) Indian Government DPIIT(2020), "FDI Policy Section, Press Note No. 2(2020 Series),"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pn2_2020.pdf(검색일: 2021. 6. 8).

61) WTO(2021), p. 40.

62) WTO(2021), p. 42.

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이 발표한 업종별 FDI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표 2-4 참고), 국방·디지털 미디어·멀티 브랜드 소매 거래·제약(브라운필드)·통신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있다.

표 2-4. 업종별 인도의 FDI 규제

업종	자동 승인	정부 승인	업종	자동 승인	정부 승인
항공운송 서비스(민간 항공 부문의 비정기 및 기타 서비스)	100%		의료(그린필드)	100%	
항공운송 서비스(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 지역 항공 운송 서비스)	최대 49%	49% 초과	보험	최대 100%	
공항(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100%		IT 및 BPM(비즈니스 서비스)	100%	
자동차부품	100%		가죽	100%	
자동차	100%		의료기기	최대 100%	
생명공학(브라운필드)	최대 74%	74% 초과	금속 및 비금속 광석 채광	100%	
생명공학(그린필드)	100%		티타늄 함유 광물 및 광석 채광, 광물 분리 및 기타 산업활동		100%
방송 콘텐츠 서비스(비뉴스 & 시사 TV 채널 업링크/TV 채널 다운링크)	100%		멀티 브랜드 소매 거래		51%
항공운송 서비스	100%		민간 항공 부문 기타 서비스 (정비 및 수리, 비행 및 기술 훈련)	100%	
방송 콘텐츠 서비스		49%	민간 항공 부문의 기타 서비스(부문별 규정 및 보안 허가에 따른 지상조업 서비스)	100%	
자본재	100%		석유 및 천연가스	100%	
대형 할인매장(중소기업 소싱 포함)	100%		석유 정제(PSU 기준)	49%	
화학	100%		제약(브라운필드)	최대 74%	74% 초과
석탄 및 갈탄	100%		제약(그린필드)	100%	
건설업(주택, 인프라)	100%		항구 및 배송	100%	

표 2-4. 계속

업종	자동 승인	정부 승인	업종	자동 승인	정부 승인
병원 건설	100%		인쇄매체(과학기술잡지 출판/인쇄/전문잡지/정기간행물 및 외국신문의 팩시밀리판)		100%
국방	최대 74%	74% 초과	인쇄 매체(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외국잡지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인도판 발행)		26%
디지털 미디어		최대 26%	철도 인프라	100%	
면세점	100%		재생 에너지	100%	
전자상거래	100%		도로 및 고속도로	100%	
전자 시스템	100%		단일 브랜드 제품 소매 거래	100%	
식품 가공	100%		통신 서비스	최대 49%	49% 초과
식품 소매업	100%		섬유 및 의류	100%	
보석(제조)	100%		화력	100%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 DPIIT(2020), pp. 28-67.

인도 정부는 FDI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SEZ와 EOU(Export-Oriented Unit)에 기반을 둔 투자기업의 수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데, 제조 개시 후 첫 5년간 수출 이익에 대한 100% 면세, 이후 5년간 50% 면세, 수출 이익에 대한 기업 재투자 시 최종 5년간 50%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선은 인도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2014년 9월 발표된, 25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이다. 이 정책은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제조업 FDI 유치가 핵심 과제이다. 또한 인도는 2020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과 그 일환인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⁶³를

적극 추진 중으로, 이 정책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 유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⁶⁴⁾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인도 연방정부는 국가 투자 및 제조 구역(NIMZ: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s)에 대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인도 인프라 금융 회사(IIFCL: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는 교통 및 물류, 에너지, 수도 및 위생, 통신, 사회 및 상업 인프라 등 분야의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제공한다.⁶⁵⁾ 그 밖에 최소 3년간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인프라 등의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 국부펀드에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100%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⁶⁶⁾

2020년 4월 인도 정부는 육로 접경국가들의 투자에 대해 정부승인을 의무화하였다. 인도 정부는 극소수의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자동 승인을 통해 외국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등의 육로 접경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의무화하였다.⁶⁷⁾ 이는 사실상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인도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으며, 분야 역시 제조업, 인프라, 제약산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제4장 참고).

63)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및 연관 부품, 의약품 중간재, 의료기기 등 13개 분야의 선별된 기업에 대해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64)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5절 가 참고.

65) Scheme for Financing Viable Infrastructure Projects(SIFTI), WTO(2020), p. 41.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IIFCL, SIFTI, <https://www.iifcl.org/sifti>(검색일: 2021. 6. 8) 참고.

66)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재인용: 김정권(2021a), p. 2.

67) 규정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우 홍콩을 경유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clusive: India foreign investment rules aimed ad China to include Hong Kong - sources"(2020. 4.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4. 22).

표 2-5. 인도 FDI 승인방법 및 한도 규제(2020년 4월 개정)

구분	기존 내용	개정사항(2020년 4월)
정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위성/식품류 유통(100%), 멀티 브랜드 소매유통(51%), 공공 은행(20%), 뉴스 미디어(49%), 출판(분야별로 26%/100%) 통신/국방/항공서비스 일부 49%, 제약(브라운필드) 74% 초과 시 민간은행, 사설경비: 49% 초과 시(승인 한도 74%까지) 	-
자동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100% 단 보험, 연금, 항공, 석유정제, 국방, 민간은행, 사설경비, 통신, 전력거래소 부문은 49%까지 제약 부문은 그린필드 100%, 브라운필드 74%까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정부승인 필요 	육로 접경국은 정부승인으로 전환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권, 도박, 부동산 개발(타운십, 주택 및 상업시설, 도로 및 교량 등 제외), 담배 제조, 원자력에너지, 철도(일부 제외) 	-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 DPIIT(2020), p. 14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한편 2010년 전후로 발생한 수건의 국제분쟁을 계기로 인도 정부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관련된 정책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특히 2010년 호주의 화이트 인더스트리스(White Industries) 사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초 화이트 인더스트리스와 인도석탄공사(Coal India) 간 계약불이행 관련 분쟁 건이었으나, 분쟁중재 과정에서 인도 정부의 중재 및 해결 지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소송 결과 2011년 11월 중재판정부는 인도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⁶⁸⁾

당시 7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했던 인도 정부는 이 사건 이후인 2015년에 57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종료했으며, 당해 12월 새로운 표준 양자간 협정문(model BIT)을 발표하고 관련 협정을 개정하

68) IISD(2012. 4. 13), "The White Industries Arbitration: Implications for India's Investment Treaty Program," <https://www.iisd.org/itn/en/2012/04/13/the-white-industries-arbitration-implications-for-indias-investment-treaty-program/>(검색일: 2021. 10. 19).

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 발표된 표준 협정문은 투자자 보호 및 분쟁중재의 기능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고 투자유치국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⁶⁹⁾ 현재 인도는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을 중단한 상태이며, 한국과의 협정은 2017년 5월 만료된 상태이다.⁷⁰⁾

인도는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 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추세를 보였다(제4장 참고). 그러나 FDI를 통한 제조업 육성이라는 인도 정부의 전략은 보호주의적인 수입정책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낙후된 물류 인프라, 제조업 기능인력의 부족, 토지법 및 노동법 등 제도장벽은 인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수입 개방화 정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새로운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나. 서비스무역

인도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독립 이후 인도의 경제구조는 농업 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주로 서비스산업이 농업에서 빠져나오는 생산요소를 흡수하였으며, 반면 제조업의 성장은 지체되는 양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로서, 제조업(약 16%), 농림수산업(17%), 기타 광공업(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2019/20 기준).⁷¹⁾

인도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규모가 GDP의

69) Singh(2021), pp.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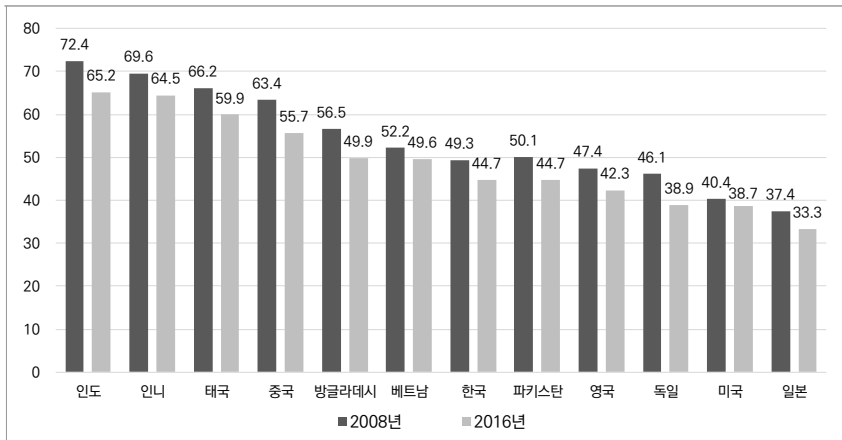
70)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BIT, <https://dea.gov.in/bipa>(검색일: 2021. 10. 19).

71) WTO(2020), p. 19.

약 3%에 달한다. 인도는 2018년 2,050억 달러(세계 서비스수출의 3.5%)를 수출했고, 수입은 1,240억 달러(세계 서비스수입의 2.2%)이다. 가장 큰 서비스 수출 범주는 컴퓨터 서비스이고 가장 큰 수입 범주는 운송 및 기타 상업 서비스이다(상세 내용은 4장 참고).

1990년대 본격적인 경제 개방화를 추진한 이후, 인도의 서비스무역정책은 개방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WTO의 STRI(Services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사용하여 2008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전체 서비스산업에 걸친 STRI가 2008년 72.4에서 2016년 65.2로 개선되었지만, 파나마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STRI의 단순평균은 50.8에서 47.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STRI는 63.4에서 55.7로, 한국은 49.3에서 44.7로, 미국은 40.4에서 38.7로, 인도네시아는 69.6에서 64.5로 낮아졌다.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인도의 서비스무역장벽은 최근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9. 주요국의 STRI 비교(2008년 및 2016년)



자료: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검색일: 2021. 6. 30).

OECD의 STRI를 통해 분야별 서비스무역장벽을 살펴보면,⁷²⁾ 2019년 기준 인도의 22개 서비스산업 부문의 STRI는 전체 조사대상 46개국과 비교하여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운드 레코딩, 엔지니어링 서비스, 화물 포워딩, 영화, 물류 통관 중개업은 STRI가 가장 낮은 편이며, 컴퓨터 서비스, 건설업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분야들 모두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철도 화물 운송, 건축 및 회계 서비스는 모든 국가의 평균 STRI에 비해 인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분야이다. 또한 법률서비스, 보험, 상업은행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수준 역시 높은 편이다. 철도 운행은 투자 금지 목록에 해당되며, 국영 기업인 인도 철도(Indian Railways)의 사업 영역이다. 다만 철도 인프라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 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건축은 규제 대상 직업으로서, 인도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즉 로컬 라이선스를 보유한 건축가만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회에 포함되거나, 건축회사를 관리할 수 있다. 사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인도 국적이 필요하지만, 해외 건축가들은 임시 면허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회계와 감사는 인도 라이선스를 받은 회계사와 감사인만 수행 가능하며, 기업 단위의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계 및 감사 회사 또는 전문가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간 동안 제한된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인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72) WTO가 발간하는 STRI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최근 연도 자료가 없고, OECD의 STRI에 비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 인도의 서비스무역장벽의 내용은 OECD(2019)를 참고하였다.

4. 자유무역협정

인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했다(표 2-6 참고). 1991년 라오(Rao) 총리가 발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당시 인도의 FTA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인도는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에 주목하여 유럽,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연계를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이들과의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2021년 4월 현재 인도가 발효 중인 14개의 자유무역협정 가운데,⁷³⁾ 이웃 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협정은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를 포함하여 6개이다. 이들은 모두 WTO 개도국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입각한 협정으로서⁷⁴⁾ APTA 이외에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지정학적인 고려가 작용하였다.⁷⁵⁾

인도가 이웃 국가를 넘어서서 체결한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은 싱가포르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협력협정(India-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으로서, 처음으로 서비스 개방을 시도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인도는 2011년까지 ASEAN,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면서 유례없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중남미 개도국

73) 42개 개도국이 참여 중인特惠무역협정인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2010년 3차 라운드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로서 제외하였다(UN LDC Portal.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https://www.un.org/ldcportal/global-system-of-trade-preferences-among-developing-countries/> (검색일: 2021. 6. 10)). 1995년 발효된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는 SAFTA에 의해 대체되었으므로 역시 제외하였으며, 2003년 발효된 아프가니스탄-인도特惠무역협정(Afghanistan-India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 SAFTA에 참여함에 따라 대체된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WTO 2020, p. 37).

74) GATT 26조는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모든 영역의 개방을 조건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지만,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권능조항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개방이 아닌 '임의적인(arbitrary)', 즉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한다.

75) Roy *et al.*(2014), pp. 28-29.

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체결하였다. 발효된 협정 이외에, 인도는 EU(2008), 캐나다(2010), 호주(2011), 그리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13) 등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도는 2021년 4월 모리셔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아프리카 거점국가와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5월에는 중단되었던 EU와의 협상을 재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하에서 인도-EU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⁷⁶⁾

표 2-6. 인도의 FTA 체결 현황

인도의 FTA(발효 기준) ¹⁾	발효연도	체결 상대국	WTO 통보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상품)	1976	방글라데시, 중국(2002), 한국, 라오스, 몽골(2020), 스리랑카	Enabling Clause
India-Sri Lanka Free Trade Agreement (상품)	2001	스리랑카	Enabling Clause
Indo-Nepal Treaty of Trade (상품)	2002	네팔	Enabling Clause
Framework Agreement with Thailand (상품) ²⁾	2004	태국	Enabling Clause
India-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2005	싱가포르	GATT/GATS V
Bhutan-India Trade Agreement (상품)	2006	부탄	Enabling Clause
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 상품 및 서비스)	2006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Enabling Clause
India-Chil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상품)	2007	칠레	Enabling Clause
India-MERCOSUR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상품)	2009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Enabling Clause

76) 인도와 EU 협상 재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윤지현(2021) 참고.

표 2-6. 계속

인도의 FTA(발효 기준)(1)	발효연도	체결 상대국	WTO 통보
ASEAN-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³⁾ (상품 및 서비스)	2010	ASEAN 10개국	Enabling Clause/GATSV
India-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2010	한국	GATT/GATSV
India-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2011	일본	GATT/GATSV
India-Malays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2011	말레이시아	Enabling Clause/GATSV
India-Mauritius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	2021	모리셔스	Enabling Clause/GATSV

주: 괄호 안은 2007년.

1) 2021년 5월 말 기준.

2) 프레임워크협정에 대한 개정 논의를 거쳐 인도는 2017년에 WTO에 통보.

3) 서비스, 투자협정은 2012년에 추가.

자료: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PreDefRepByCountry.aspx>, 검색일: 2021. 6. 10);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웹사이트(<https://aric.adb.org/database/fta>, 검색일: 2021. 6. 9);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Framework Agreement with Thailand(<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framework-agreement-with-thailand/framework-agreement-with-thailand/>, 검색일: 2021. 6. 9); Krishna(2019), p. 32.

현재까지 인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 이웃 국가 및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며, 본격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동남아시아(ASEAN 및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과의 협정으로서, 특히 한국 및 일본과의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화를 도출하였다. 상품 양허만을 보면, 한-인도 CEPA는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이 인도에 89.7%, 인도가 한국에 85.5%를 양허하였다. 한편 일본은 인도에 90%를 양허하여(인도는 97%) 개방도가 한국보다 다소 높다. 싱가포르-인도 CECA는 2015년에 양허 비중이 93%에 도달하여 한국이나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은 양허 수준이 80%로서 가장 낮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양허품목에 76개를 추가한 수준이다(표 2-8 참고). 인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양허 수준을 비교해보면,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으로서, 한국이 38.4%, 일본이 7.6%이다.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은 한국이 14.6%, 일본이 10%이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석유화학(HS 29), 플라스틱(HS 39), 기계류(HS 84), 전자기기(HS 85), 자동차부품(HS 87) 등의 품목군에 속하는 주요 수출품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양허 품목 가운데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 또는 인하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발효 후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B10)의 비중이 72%에 달한다.77)

표 2-7. 인도의 대한민국 및 대일본 관세 감축률

(단위: %)

구분	유형	발효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대 일 본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100										
	B5	16.7	33.3	50.0	66.7	83.3	100					
	B7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B10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한 국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RED	T×125	T×250	T×375	T×500	T×625	T×750	T×875	T×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한-인도 CEPA	E-0	발효일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E-5	발효일 기준 이행 4년 차인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E-8	발효일 기준 이행 7년 차인 2017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RED	발효일 기준 이행 7년 차인 2017년 1월 1일 관세율이 1~5%가 되는 상품										

77) 인도가 2000년대 이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용 외(2014) 제2장 참고.

표 2-7. 계속

(단위: %)

구분	유형	내용
한-인도 CEPA	SEN	한국은 8단계, 인도는 10단계에 걸쳐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 최종관세율이 기준관세율의 50%로 인하
	EXC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서 면제
일-인도 CEPA	A	발효일 기준으로 관세 즉시 철폐
	B5	발효일 기준 5년간 철폐
	B7	발효일 기준 7년간 철폐
	B10	발효일 기준 10년간 철폐
	Pa	발효일 이후 2017년 1월까지 5%로 점진적 관세 인하
	Pb	발효일 이후 2019년 1월까지 6.25%로 점진적 관세 인하
X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의무 면제	

주: B5, B7, B10은 '1/(N+1)' 방식으로 감축함. T=기준세율-(1~5).
 자료: 이 응 외(2014).

표 2-8. 인도의 주요 FTA 상품 부문 내용

개방영역/분야	한국(CEPA)	일본(CEPA)	싱가포르(CECA)	말레이시아(CECA)
협상 시작	2006년 3월	2007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8월
협정문 체결	2009년 8월	2011년 2월	2005년 6월	2009년 8월 (2012년 서비스, 투자 추가)
발효	2010년 1월	2011년 8월	2005년 8월	2010년 1월
양허표 기준연도	2006년 8월			2007년 7월
개방도	85%(90%)(2019년) 5,227개(HS 6단위)	90%(97%)(2021년) 9,775개(HS 8단위)	93%(2015년) 5,660개(HS 8단위)	80%(2016년) 4,350개(HS 8단위)
단계 구분	5단계	6단계	3단계	6단계 (제의 품목도 매년 관세 심사 실시로 포함 가능)
스케줄	2019년	2021년	2015년	2019년 인도는 2016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2019년, 필리핀 2022년, 캄보디아 및 베트남 2024년
원산지	35% 및 HS 6단위 세번 변경(예외 품목 인정)	35% 및 HS 6단위 세번 변경(예외 품목 인정)	40% 및 HS 4단위 세번 변경	35% 및 HS 6단위 세번 변경(예외 품목 협의 중)
무역원활화	표준·기술·위생·검역 장벽 완화	표준·기술·위생·검역 장벽 완화	표준·기술·위생·검역 장벽 완화	표준·기술·위생·검역 장벽 완화

자료: 이 용 외(2014)에서 발췌.

인도는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보다는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불균형 개선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5절 다 항목 참고). 그 일환으로서 인도 정부는 FTA 특혜 관세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엄격화하고 있다. 이는 FTA 상대국을 통해 제3국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중국에서의 수입을 겨냥하고 있다.⁷⁸⁾ 예컨대 싱가포르에서의 프린터 부품 및 액세서리 및 전기 집적회로 수입은 2015년 각각 28.6만 달러, 1억 570만 달러에서 2019년 4억 3,100만 달러, 4억 5,610만 달러로 74%와 5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IEEMA)는 중국 수입품이 FTA 상대국을 통해 인도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20년 ‘관세(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칙, 2020(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약칭 CAROTAR 2020)’을 도입했다. 이 규칙의 도입 목적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준수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를 제3국이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CAROTAR 2020은 수입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자립 인도정책 도입과 더불어 인도의 수입정책이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⁷⁹⁾ CAROTAR 2020의 주요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 2-9. CAROTAR 2020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특혜 관세 대우 청구를 위한 정보 및 절차	수입기업이 BOE(Bill of Entry)를 제출하는 동안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CoO 참조 번호, CoO 발행일, 원산지 기준 및 CoO에 따른 제3국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78) Singh and Singh(2020b), p. 135.

79) *Ibid.*, pp. 138-143.

표 2-9. 계속

항목	주요 내용
원산지 관련 정보	수입기업은 지역 부가가치 내용 및 제품별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원산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수입기업이 BOE를 출원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 동안 모든 지원 서류들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
정보 요구	세관원이 수입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나 문서를 요청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입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검증 요청	세관원은 검증당국으로부터 받은 CoO 검증을 수입기업에 요청할 수 있음. 수입품에 대한 검증은 CoO의 진위여부와 무역협정에 따른 RoO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됨.
동일 상품의 처리	수입기업이 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세청장은 추가 확인 없이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기타	수입기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할 경우, 세관원이 예방 및 처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자료: Singh and Singh(2020b), pp. 138-139.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가.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Make in India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경제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세계경제에서 존재감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9년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한 반면, 인도는 2.6%에 불과하다. 세계 5위권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도가 중국에 비해 무역이 성장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조업의 부진이다. 인도는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인구가 가장 풍부한 인도의 입장에서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8월 15일 취임 첫 번째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 정책은 같은 해 9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2025년까지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을 16%에서 25%로 끌어올리고,⁸⁰⁾ 2022년까지 1억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⁸¹⁾ 이 정책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재권 보호 등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5개 주요 분야(표 2-10 참고)의 성장에 집중하였다. 특히 인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자유화 및 사업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노동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FDI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대부분의 FDI에 대해 자동승인을 허용하였다.

표 2-10. Make in India 분야별 25개 육성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재 산업	전략 산업	경쟁력 보유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의류 ■ 가죽, 신발 ■ 보석 ■ 식품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 전자/전기기기 ■ 수송 ■ 광업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 항만 ■ IT 하드웨어 ■ 통신기기 ■ 방산기기 ■ 태양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철도 ■ 도로, 고속도로 ■ 관광, 의료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 ■ 바이오기술 ■ 제약 ■ IT&BPM ■ 우주산업 ■ 건강

자료: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ake in India,' <http://www.makeinindia.com/> (검색일: 2021. 5. 11), 재인용: 김정근 외(2019), p. 22.

80) 제조업 비중 25%는 현재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81)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ake in In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한편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와 연계하여 어떤 무역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는 연방예산안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예산안인 2015/16 연방예산안은 제조업 육성을 인도 경제의 핵심 과제로 천명하였다. GDP의 약 10%에 불과한 제조업 수출 부진이 주요한 도전과제를 지적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⁸²⁾ 2015/16 예산안은 메이크 인 인디아 추진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는 모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투자환경 개선작업으로 지속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관세율(Basic Customs Duty) 개편을 강조하는데, 그 기본 내용은 제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재, 일부 투입물, 중간재 및 부품의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다.⁸³⁾

2016/17 연방예산안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가운데, 전년과는 달리 수출 확대에 대한 강조가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추진을 위해 국내부가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⁸⁴⁾ 수입관세율을 넓은 범위에 걸쳐 조정하였다. 주요 대상 산업은 전자, 자본재, 국방, 섬유, 광물연료, 화학 및 석유화학, 제지, 신재생에너지 등이었다.⁸⁵⁾ 동 예산안에서는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이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화되었으며, 그 기본 방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메이크 인 인디아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인도 정책에도 반영된다.

2017/18 연방예산안은 전년 예산안의 연장선에서 수입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 그쳤다.⁸⁶⁾ 그리고 2018/19 연방예산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내 생산 촉진 의지가 드러나는데, 국내부가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수입관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휴대폰 완성품에 대

82)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5), p. 5.

83) *Ibid.*, p. 23.

84)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6), p. 23.

85) *Ibid.*, p. 26, p. 53.

86)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7), pp. 33-58.

한 관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 일부 휴대폰 부품 및 액세서리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상, 그리고 일부 TV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⁸⁷⁾

2019/20 연방예산안은 현시점의 스와데시(Swadeshi: 식민지 시대 인도의 국산품 사용 운동)가 메이크 인 인디아임을 강조하면서 인도 경제의 자립을 강조하였다.⁸⁸⁾ 동 예산안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업 및 분야로서 MSMEs, 스타트업, 방위산업, 제조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 및 배터리, 의료기기 등을 명시하였다.⁸⁹⁾ 수입정책 측면에서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한 국내부가가치의 확대, 수입 의존 축소, MSME 분야의 보호, 클린 에너지 촉진 등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PVC, 자동차부품, 합성고무류, 광섬유 케이블, CCTV 카메라, IP 카메라, 디지털 및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등의 수입관세율을 인상하고, 현재 인도에서 제조되고 있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CRGO 시트, 무정형 합금 리본, 디염화 에틸렌, 산화프로필렌, 코발트 매트, 나프타, 양모 섬유, 인공 신장 및 일회용 멸균 투석기 제조용 부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의 입력이 포함된다. 또한 e-모빌리티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특정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특정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에도 관세를 면제하였다.⁹⁰⁾

이와 같이 인도가 '자립'의 기초를 무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인해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서 내세운 2030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구축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

87)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8a), p. 32.

88)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9), p. 3.

89) *Ibid.*, p. 2.

90) *Ibid.*, pp. 30-31.

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인도 정부는 외국산 수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조절 또는 억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코로나19가 대확산 중이었던 2020년 5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자립 인도 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의 확산 등 변화하는 대외경제 환경하에서 인도 정부의 경제 및 제조업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자립 인도는 일차적으로 코로나19의 경기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농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자립 인도 정책의 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및 인프라 강화라고 할 수 있다.⁹¹⁾

자립 인도 정책은 매년 1,8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전면적인 역량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중국 공급 의존성이 갖는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공급망을 인도가 흡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립 인도 정책의 핵심은 PLI로서, PLI는 육성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정책으로, 그 대상은 배터리, 전자, 특수강, 태양광, 제약원료, 농업가공 등 14개 분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투자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백억 달러의 재정투입을 통해 인도 내 추가 생산된 금액의 4~6% 정도를 현금으로 환원한다.⁹²⁾

91) 인베스트 인디아, 「아트마니르바라트 아비얀(자립 인도)」, <https://www.investindia.gov.in/ko-kr/atmanirbhar-bharat-abhiyaan>(검색일: 2021. 9.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고. Press Information Bureau, AATAMNIRBHAR BHARAT KA BUDGET, <https://pib.gov.in/AATAMNIRBHARBHARATKABUDGET/>(검색일: 2021. 9. 29).

92) 김문영(2021), p. 8.

자립 인도 정책이 발표된 다음 해인 2021/22 연방예산안은 경제회복을 위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였다. 동 예산안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출, 제조업 지원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보건 및 후생에 대한 예산 대폭 증액, 인프라 낙후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 도로, 교량, 공공사업, 전력 등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증액, 그리고 상기한 PLI에 대해 2021/22년부터 5년간 1.97조 루피를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⁹³⁾

2021/22 연방예산안은 자립 인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바, 주요 제조업의 국내기업 육성 및 자국 내 생산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기본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화학, 기계류, 자동차부품, 휴대폰 부품을 포함한 전기전자부품, 금속 제품, 태양광 부품의 관세율을 인상한 반면, 나프타, 섬유 원료, 항공 부품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인도 내 생산에 활용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정지시켰는데,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라 철강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⁹⁴⁾

인도는 중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GVC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쿼드(QUAD) 참여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공급망 디커플링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최초로 대면 쿼드 정상회담은 쿼드 공통의 가치에 근거한 공급망 구축 및 기술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쿼드 정상회담과 더불어 개최된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⁹⁵⁾ 한편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 Trilateral Supply

93)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재인용: 김정곤(2021a), p. 2.

94)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0a), pp. 59-70. 인도의 2021/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곤(2021a) 참고.

95)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2021b) 참고.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출범하여 공급망 협력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 3국 통상장관은 2021년 4월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SCRI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바 있다.

요컨대 메이크 인 인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수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인도의 움직임은 앞서 연도별 연방예산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기조가 강하게 드러나며, 해당 국내산업의 필요 및 시장 수요에 따라 선별적인 수입 자유화 또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가변성도 높은 편이다. 인도의 고위급 자문 그룹의 보고서도 인도의 전통적인 보호주의적 성향을 지적하고, 관세율 인하와 관세율 구조개선을 통해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⁹⁶⁾

한편 인도는 미-중 갈등 상황을 계기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즉 쿼드, SCRI 참여를 통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경제 지배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연계되어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GVC 참여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의 정책이 다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1) FTP 2015-2020 및 개정보고서 2017

인도 상공부는 2004년부터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방침을 담은 대외무역정책(FTP)을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상공부 아래 대외무역총국

96) High-Level Advisory Group(2019), p. 9, pp. 12-13.

(DGFT)은 대외무역정책을 수행한다. FTP는 수출에 초점을 맞춘 무역진흥정책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수출입 정책(EXIM Policy: 이하 'EXIM 정책')을 대체한 것으로서, EXIM 정책은 1985년 처음으로 3년 단위로 발표되었고, 5년 단위의 EXIM 정책 2002-2007을 끝으로 FTP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⁹⁷⁾ 최초의 FTP 2004-2009 이후 FTP 2009-2014, FTP 2015-2020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FTP는 인도의 대표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FTP는 주로 수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기업들에 큰 의미를 갖는다. FTP의 수립 과정에는 인도 기업들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다.

FTP 2015-2020 이후 이를 대체하는 FTP가 2021년 9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2년 3월로 연기되었다. FTP 2015-2020는 모디 정부 초기에 수립된 것으로서, 이후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메이크 인 인디아를 중심으로 한 최근 인도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의 기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FTP 2015-2020 및 FTP 개정보고서(Foreign Trade Policy Statement 2017: Mid-Term Report)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서 다음 5년간 FTP의 주요 내용을 예상한다.

FTP 2015-2020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연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기업환경 개선(ease of doing business)을 강조했다.⁹⁸⁾ 그리고 FTP 2015-2020에서 제시된 인도 수출의 지향점은 ① 전통적인 시장인 선진국에 대한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② 중간재 수입관세의 최적화, 그리고 ③ 이를 통한 인도의 후방 GVC와의 연계성 강화이다.⁹⁹⁾

FTP 2015-2020은 주요한 수출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수출 보조금 제도를 통합한 상품수출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와 서비스수출제도(SEIS: Service Exports

97) Datt and Sundharam(2012), pp. 806-815.

98)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5b), p. 1.

99) *Ibid.*, p. 2.

from India Scheme)이다. 이 두 제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으로서, 수출기업은 관세면제신용자격(Duty Credit Scrip)을 받아 수출기업이 수입 관세를 지불하는 데 이용하며, 이를 기업간에 거래할 수도 있다.¹⁰⁰⁾

한편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를 통해 인도 내에서 자본재를 조달할 경우 제조세(excise duty) 면제조건을 낮추고, 수출 기여기업(Status Holders)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수출한 기업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무역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였다.¹⁰¹⁾ 그 밖에 품질불만 및 무역분쟁 조정위원회(CQCTD: Committee on Quality Complaints and Trade Disputes)를 도입하여 타국과의 무역상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¹⁰²⁾

FTP 개정보고서 2017(Foreign Trade Policy Statement 2017: Mid-Term Report)은 FTP 2015-2020의 중간성적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존 FTP를 보완 및 개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FTP 개정보고서는 기존 FTP에 비해 포괄적인 통상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개정보고서의 내용이 전적으로 이후 인도의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인도 무역정책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된다. FTP 개정보고서의 초점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인도를 제조업 및 수출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⁰³⁾

FTP 개정보고서에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장 확대¹⁰⁴⁾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수출전략을 [표 2-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도는 동남아시아의 CLMV, 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자국의 인력,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제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0)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5a), chapter. 3.

101) *Ibid.*, chapter. 5.

102) *Ibid.*, chapter. 8.

103)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7), pp. 6-7.

104) *Ibid.*, p. 18.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 수출상대국으로서 시장 확대에 주목하는 반면, EU의 경우 무역장벽 해소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야를 적시하면서 투자 유치 확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인도의 통상 현안이 집중된 지역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 및 무역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특별경제구역(SEZ)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거론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CEPA의 이익 실현을 과제로 언급하면서 CEPA 활용률 제고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도에 대한 핵심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투자와 연계한 대일본 수출기회 모색과 언어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프로모션 확대, 단순화된 시장접근 프레임워크 협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의 기반이 일정 수준 구축된 철강 및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CEPA 체결 이후 확대되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⁰⁵⁾

표 2-11. 인도의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수출전략(2017년 기준)

국가/지역	현황 평가	현안/중점 분야
미국	- 인도의 최대 수출대상국 (전체 수출의 15.3%)	- 무역-투자 연계성 강화를 통한 섬유, 가죽, 제약, 농산물, 보석류 등 수출 확대 - 고속권 인력 진출 - GSP 지속
EU	- IT 분야, 투자, 기술 이전의 중요 파트너 - 양자간 무역 감소세	- EU의 수입제한 조치 대응: SPS, 쿼터 및 고관세(농산물 분야), 무역구제조치, GSP 축소 - 양자간 무역투자협정(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타결
호주	- 투자 연계성 강화 - 에너지, 광물 분야의 긴밀한 파트너십	- 호주의 대인도 투자 확대: 광업, 에너지 프로젝트, 콜드체인, 식품, 바이오테크, 해양분야, 재생에너지, 제조업, 제약업 - FTA 협상

105)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7), p. 32.

표 2-11. 계속

국가/지역	현황 평가	현안/중점 분야
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무역 증가 추세 - 특혜관세 부여 등 남아시아 국가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경제적 참여 확대 - 남아시아의 경제통합체로서의 기능, SAFTA 서비스 프레임워크 협상 완료 - 역내 최빈국 지원 - 파키스탄과의 경제관계 개선 - 역내 인프라 개발, 연결성 강화 - 역내 무역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섬유, 엔지니어링 상품, 화학, 제약,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가족제품 가차사출 형성 - SAARC 협정 타결 - 수력자원 활용 확대 - 프로젝트 수출 확대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약 11% - 신동방정책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 주요 무역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MV와의 무역투자 확대: 제조업 생산기지 마련, Project Development Fund를 활용한 투자 확대 - 북동부 지역과 아세안 연계: 인도-미얀마-태국 삼각 고속도로 연결, 향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추가 연결
동북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약 19% - 주요 제조업 무역 파트너 - 대중국 무역적자 심화, 중국의 무역장벽이 수출의 장애 요인 - 일본, 한국과 CEPA의 이익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제약, 농식품, IT 서비스, 국영기업 등 무역장벽 제거, 세이프가드 등을 통한 인도 산업의 이익 보호, 특별경제구역(SEZ) 등에 대한 제조업 투자유치 - 일본: 투자유치 확대와 이를 통한 인도의 대일본 수출 기회 모색, 섬유·의류, 정보통신 서비스, 제약, 가족제품, 가공식품 수출 촉진 - 한국: CEPA 활용 제고, CEPA 이익의 불균형 개선 (철강, 화학 등)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약 10% - 무역투자 및 역량 개발, 기술 지원, 보건 및 교육 등 서비스 공급의 잠재력 풍부 - 식품가공, 제조, 광업, 섬유, FMCG*, 인프라 개발 등 시장 기회 풍부 - 무역역량, ICT, 교육, 직업 기능 개발, 보건, 금융 등의 서비스 역량 강화 등 인도의 개발협력 지원 강화 - 농업 및 가공식품 민간 투자 확대 - WTO에서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와 특혜무역 협정 타결 -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 Africa),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와 무역협정 타당성 연구 -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 보건, 교육, 전문, 연구개발 등 기술 기반 서비스수출 확대 - 역량 강화 사업 추진: India Africa Institute of Foreign Trade(우간다), India Africa Diamond Institute(보츠와나), India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ITEC) 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등 - 무역정책 지원: 법령 수립 및 교육 지원, India-Africa Forum Summit 및 Trade Ministers Conclave 개최 등

표 2-11. 계속

국가/지역	현황 평가	현안/중점 분야
중동/ 서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19%, 원유 수입 - UAE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오만, 이집트 등이 주요 무역 상대국 - Joint Commission을 통해 양자간 이해관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와 FTA 추진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약 3.7%, 주요 원유 수입지역 - 인도의 수출 확대: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 주요 수출품목: 농화학제품, 원단, 제약성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산업기계 등 - MERCOSUR, 칠레와 PTA 체결 - 원유 채굴 관련 투자 기회 확대 - 식량안보 협력지역으로 잠재력 - 항공, 선박 연결성 증진 필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MERCOSUR 특혜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 Pacific Alliance와의 무역투자 연계 강화 - 수출 촉진 프로그램 강화 - 페루, 콜롬비아와 PTA 협정 - 식량공급처로서 활용 - 프로젝트 수출 확대 - 현지 물류창고 개선 지원 - 새로운 지역무역협정 기회 모색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무역의 약 4.8%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 - 주요한 자원 공급처 - 제조의 보완성 -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 분야: 탄화수소, 핵에너지, 의약품, 비료, 다이아몬드, 코킹(cooking)탄, 농업제품, 직물, 가죽,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 - 러시아의 높은 비관세 장벽(농식품, 제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 항로 개발: ① 뭄바이-반다르아바스(이란)-바쿠(아제르바이잔)-모스크바, ② 반다르아바스-아미라바드(이란)-아스트라칸(러시아)-모스크바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와 FTA 타결 - 러시아와 양자간 무역 확대를 위해 자국 통화 결제 방안 논의

주: *Fast Moving Consumer Goods.

자료: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7), pp. 23-38.

FTP 개정보고서는 그동안 체결한 FTA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FTA가 인도의 전반적인 무역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FTA의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인도 수출의 부가가치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FTA가 인도의 수출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인도의 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FTA 관련 세부 과제로는 먼저 원산지규정의 개정을 지적하고, PSR(Product Specific Rules)의 도입,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원산지 자기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 구조의 조정, 즉 최종재 관세율이 낮고 중간재 및 자본재 관세율이 높은 관세율 구조의 역전(inversion of duty structure)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혜관세율 활용률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아웃리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⁰⁶⁾

그러나 FTP 개정보고서에서 거론된 주요 FTA는 아직 성사되지 않았으며, 한국-인도 CEPA 개정협상의 경우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인도의 FTA 정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이후 오히려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바, CAROTAR 2020은 특혜 원산지 규정을 퇴보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가변성에는 대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인도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 FTP 개정보고서는 엔지니어링 상품, 전자제품, 의약품, 섬유, 농식품, 방위물자, 의료기기, 화학을 수출 육성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인도의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수출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 확대를 꾀하는 전략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산업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¹⁰⁷⁾ 한편 서비스 분야는 인도가 가장 공세적인 영역으로서, 인도 정부는 IT를 비롯한 보건, 교육, 전문, 연구개발, 컨설팅,

106)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7), pp. 39-41.

107) *Ibid.*, pp. 43-52.

출판,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산업을 수출 잠재력이 큰 영역으로 평가하고, 해외 무역장벽 및 국내 규제장벽 철폐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⁰⁸⁾

2) 차기 FTP 전망

2021년 3월 예정이었던 차기 FTP 발표가 10월로 연기된 이후 다시 한 번 연기되어 2022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차기 FTP에서도 무역증진을 통한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수출 인프라 강화가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FTP 2015-2020 및 현지 정보를 토대로 차기 FTP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예상하기로 한다.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차기 FTP의 목표는 인도를 국제무역의 선두주자로 부상시키고,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수출을 통해 얻은 시너지 효과를 ‘5조 달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사업 수행의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책, 규제 및 운영 프레임워크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제약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인도 내 불균형을 시정하고 이를 무역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¹⁰⁹⁾

첫째, 수출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예상된다. 인도의 수출보조금 제도는 WTO 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⁰⁾ 인도 국내에서도 이미 수출보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찬반론이 비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상기한 MEIS와 SEIS를 다른 지원제도로 대체

108)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7), pp. 53-56.

109)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1), “Parliamentary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of Commerce and Industry on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eld,”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88074>(검색일: 2021. 10. 6).

110) 미국이 MEIS 및 SEIS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2019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 “WTO upholds US’s claims, rules against India’s export subsidies”(2019. 11. 1), <https://www.livemint.com/news/world/wto-upholds-us-s-claims-rules-against-india-s-export-subsidies-11572549484806.html>(검색일: 2021. 10. 5).

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¹⁾ MEIS의 경우 2021년 8월 이를 대체하는 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의 도입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수출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¹¹²⁾ 다만 국내기업의 반발로 인해 수출보조금 제도의 전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¹¹³⁾ 인도 정부는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방식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보조금 중심의 수출기업 지원 방식을 어느 정도 개편할 것인지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현재 1인당 GDP 수준으로는 1,000달러 이하를 수출보조금 지급 가능 국가로 규정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수출보조금 철폐는 인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인도의 상무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력은 보조금이 아니라 품질, 기술, 생산 규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¹⁴⁾ 이러한 여건하에서 인도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행될 것인지가 향후 정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정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율 구조의 역전 현상을 개선하는 작업 역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구조의 개선은 수출보조금 제도를 대신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1) cogoport(2021), "Foreign Trade Policy 2021-2026: Expectations For The Import-Export Sector," <https://www.cogoport.com/blogs/foreign-trade-policy-2021-2026-expectations-for-the-import-export-sector>(검색일: 2021. 10. 5).

112) India Briefing(2021), "India's Import-Export Trends in FY 2020-21," <https://www.india-briefing.com/news/indias-import-export-trends-in-2020-21-trade-diversification-ft-a-ftp-plans-23305.html>(검색일: 2021. 10. 6).

113) 수출보조금에 대한 인도 내에서의 논의 동향은 다음 기사 참고. "Foreign trade policy 2021-26- Can new FTP refuel India's stagnant exports?"(2021. 9. 3), <https://www.businesstoday.in/opinion/columns/story/foreign-trade-policy-2021-26-can-new-ftp-refuel-indias-stagnant-exports-305852-2021-09-03>(검색일: 2021. 10. 6).

114) "Quality and scale, not subsidies, to push exports to \$1 trn: Piyush Goyal"(2020. 10. 4),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ic-revival/quality-scale-to-help-take-exports-to-1-trn-not-subsidies-piyush-goyal-120100301012_1.html(검색일: 2021. 10. 5).

다. 인도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실현을 위해 중간재 수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¹¹⁵⁾

셋째, 수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¹¹⁶⁾

넷째, 인도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에 기초한 새로운 수출 분야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는 연구개발 서비스로서, 인도 정부는 차기 FTP에 이 분야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기술 그룹(technology group)을 임명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역시 주요 수출 분야로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¹¹⁷⁾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1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3%로서 중국(33%), 인도네시아(31%), 말레이시아(30%) 등을 크게 앞선 바 있다.¹¹⁸⁾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약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래 품목의 HSN(Harmonized System of Nomenclature) 코드 개선작업,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철자의 디지털화,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의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¹¹⁹⁾

115) "CII wants end to inverted duty structure to make India an exporting nation"(2020. 8. 11),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cii-wants-end-to-inverted-duty-structure-to-make-india-an-exporting-nation-120081100854_1.html(검색일: 2021. 10. 6).

116) cogoport(2021), "Foreign Trade Policy 2021-2026: Expectations For The Import-Export Sector," <https://www.cogoport.com/blogs/foreign-trade-policy-2021-2026-expectations-for-the-import-export-sector>(검색일: 2021. 10. 5).

117) IBRF(2021), "EXPECTATIONS WITH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ttps://www.ibef.org/blogs/expectations-with-new-foreign-trade-policy-2021-26>(검색일: 2021.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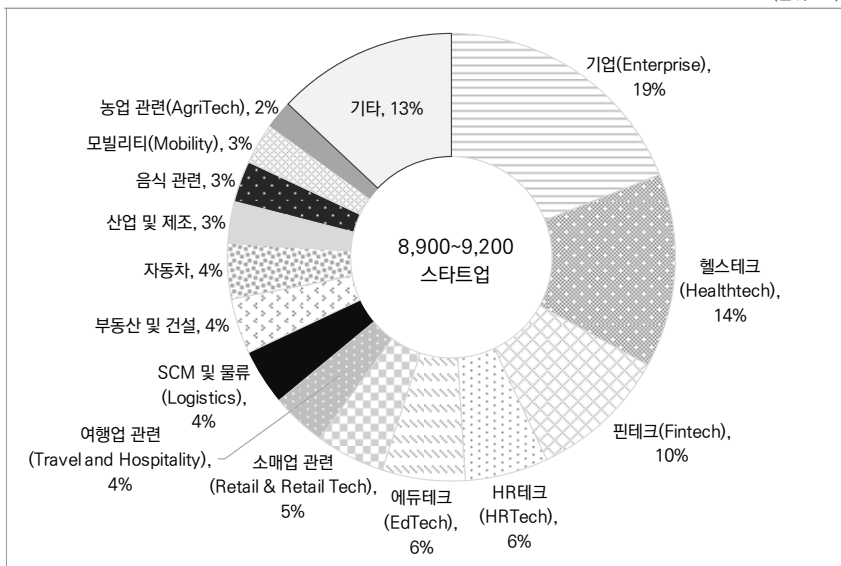
118) Bain & Company(2018), p. 2, 재인용: 김정곤 외(2020b), p. 84.

119) IBRF(2021), "EXPECTATIONS WITH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ttps://www.ibef.org/blogs/expectations-with-new-foreign-trade-policy-2021-26>.

그 밖에 코로나19와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수출 및 투자유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NASSCOM(2019)은¹²⁰⁾ 20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넘어서는 분야로서 에듀테크, 핀테크, 모빌리티, 헬스테크 등을 선정하였으며, [그림 2-11]과 같이 스타트업 역시 기업 서비스, 헬스테크, 핀테크 등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진하고 있다.¹²¹⁾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영역은 인도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정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1. 인도 스타트업 분야별 현황

(단위: %)



주: 1)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작성.

2) 기업(Enterprise)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관련 플랫폼 기업 등을 포함.

자료: NASSCOM(2019), p. 15, 재인용: 김정곤 외(2020b), p. 114.

www.ibef.org/blogs/expectations-with-new-foreign-trade-policy-2021-26(검색일: 2021. 10. 6).

120) NASSCOM(2019), p. 15, 재인용: 김정곤 외(2020b), pp. 113~114.

121) 김정곤 외(2020b), p. 114.

다섯째, 농식품 수출에 대한 강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국내정치적 반발을 무릅쓰고 농업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농업 생산 효율화와 수출 확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농산물 생산 효율화 및 공급망 개선 등의 작업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¹²²⁾

여섯째, 지역별 수출 이니셔티브(District Export Hubs)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강점을 토대로 수출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단계적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차기 FTP에 보다 구체화되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¹²³⁾

일곱째, 수출 관련 인프라 개선 및 디지털화 작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도는 인프라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절감하였다. 인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NIP)을 발표하고 2019/20년 부터 2024/25년까지 5년간 공공 인프라 부문에 총 111조 루피(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24.2%), 도로(18.3%), 도시 개발(17.2%), 철도(12.3%) 인프라 등이다.¹²⁴⁾ 이러한 인프라 투자계획의 일환으로서 항만, 물류창고 등 수출과 직결되는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 정책에서 이미 정부 부문의 디지털화를 강조한 바와 같이, 수출통관 절차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122) IBRF(2021), "EXPECTATIONS WITH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ttps://www.ibef.org/blogs/expectations-with-new-foreign-trade-policy-2021-26>(검색일: 2021. 10. 6).

123)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1), "Parliamentary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of Commerce and Industry on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eld,"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88074>(검색일: 2021. 10. 6).

124)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0b), pp. 33-35.

표 2-12. 인도 인프라구축계획(NIP) 주요 부문별 예산

(단위: 천만 루피, %)

분야	예산	비중
	2,690,003	24.2
에너지	전력	1,410,428
	재생에너지	929,500
	원자력	155,503
	석유 및 천연가스	194,572
도로	2,033,823	18.3
철도	1,367,563	12.3
항만	121,194	1.1
공항	143,448	1.3
도시 개발: AMRUT, 스마트시티, MRTS, Affordable Housing, Jal Jeevan Mission	1,919,267	17.2
디지털	309,672	2.8
관개시설	894,473	8.0
	773,915	7.0
농촌	농촌 인프라	410,955
	식수 위생	362,960
농업 및 식품가공 시설	168,727	1.5
사회 인프라: 교육, 보건복지, 스포츠, 관광	393,386	3.5
산업 인프라: 산업 및 국내 무역, 철강	314,957	2.8
전체	11,130,428	100.0

자료: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20b), pp. 33-35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여덟째, 인도의 FTA 정책의 향방이다. 무역불균형과 연계하여 현재 인도 정부는 FTA 체결에 소극적이다. 인도는 RCEP에 불참 선언을 하였으며, 이미 추진 중인 여타 FTA의 진전은 더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의 CEPA 개정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개된 EU와의 FTA 협상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인도의 최근 무역정책은 개방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추세가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글로벌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는 것이 인도의 핵심과제로서, 인도가 전략적 선택지로서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인도가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EU, 호주,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양자간 상품무역 적자

개방을 본격화한 1991년 이후 인도의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경제관계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아세안, 한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여 양자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관계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 인도와 한·중·일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산업을 앞세워 인도에 진출한 일본은 이미 인도의 주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인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무역투자 관계 역시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자세한 내용은 3장 및 4장 참고).

최근 인도는 균형 있는 양자간 무역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원 수입국을 제외하면, 인도의 양자간 상품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2019년 기준 중국(약 511억 달러), 스위스(약 164억 달러), 한국(약 114억 달러), 일본(약 79억 달러), 호주(약 76억 달러) 등이다(제3장 참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무역관계의 조정을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인도는 중국을 겨냥하여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2위의 타깃이 되고 있다(본장 2절 참고). 그 밖에 EU,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역시 주요 대상국이다. EU를 제외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무역구제조치는 물론, 기체결 FTA를 통한 중국의 대인도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에서도 확인된다. 4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는 FTA를 특혜관세를 적용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에 FTA 협정문상 원산지제도의 준수여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 심사제도 역시 도입하고 있다(본장 3절 참고).

중국과 더불어 한국 역시 무역불균형 해소의 대상 국가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는 한-인도 CEP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도의 제조업 구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에 민감한 인도의 전통적인 특성, 그리고 자국 내 주요 기업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인도는 양자간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다각도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인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국내산업 육성을 증시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특성상 수출 일변도보다는 현지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앞의 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는 한국 및 일본과 CEPA를 통해 인도의 이익이 실현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원인에는 인도가 일본의 주요 투자국가로서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그리고 ODA를 활용한 포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인도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일본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6장 참고).

6.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 분석한 개방화 이후 인도 통상정책의 추이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관리, 즉 BOP 관리가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FTP와 같은 무역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는 여러 차례 BOP 위기를 겪었으며, 이것이 통상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57년의 BOP 위기는 당시 수입대체 산업화를 선호하는 네루 정부의 성향과 맞물려 폐쇄적인 자립경제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외환관리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1990년대 초의 BOP 위기는 반대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BOP를 관리하는 정책방향의 선화를 유도했다. 개방화 이후 인도 정부는 안정적으로 BOP를 관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역수지를 근거로 한 양자간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투자를 강조하는 인도의 특성상 일본과 같이 대인도 투자 규모가 크고 현지화 수준이 높은 국가, 그리고 관계자본이 축적된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경제의 자립성은 개방화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인도 통상정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도의 통상정책은 개방화 이후에도 국내산업(특히 최종재 산업)의 자립성을 강조하면서 수입은 분야별로 통제하며 외국인 투자에는 적극적인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와 같은 여건하에서 인도 정부가 자립 인도와 같은 정책 패키지를 내세운 것이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도의 무역정책은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전자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셋째, 1990년대 초반 개방화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무역개방의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 인도는 개방화와 더불어 다자체제(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율을 양허했으나, 그 이행을 마친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가시적인 관세 개방

화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2017년 이후 제조업 자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관세율이 상승하는 등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관세 개방화 추진의 반대급부로서 반덤핑 조치,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 조치를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 방향에 맞추어 활용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는 국내 규제환경 구축의 미흡, 연방과 지방정부의 분권체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차기 FTP에 개혁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도 수출진흥정책의 핵심은 수출보조금 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WTO 협정 위반으로 인해 차기 FTP에서는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직접적인 수출 지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 신기술 개발에 얼마나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차기 FTP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인도의 개방화는 투자 개방화 및 효율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최종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족적인 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해온 인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개방화는 1980년대에 이미 드러났듯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보다는 기업의 사업 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적절한 수입개방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치만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향후 인도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인도 정부는 중단된 양자간투자협정을 다시 체결하여 투자 환경을 안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편이며, 아세안, 한국, 일본 등과의 협정 이외에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양자간 무역적자 심화와 맞물려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당장 높지 않지만, 글로벌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에서 지위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EU,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인도의 통상정책은 국내정치 여건의 변화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종교적 세속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힌두민족주의와 친기업정책이라는 두 선택지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디 정부는 후자의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인도 통상정책의 변화 역시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도는 5년 단위의 대외무역정책(FTP)을 통해 수출을 촉진해왔다. 차기 FTP에서는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서비스 및 각종 디지털 서비스, 농식품 등의 수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관련 인프라 개선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공개된 국가·지역별 수출전략을 통해서 보면, 인도는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인적 교류, 투자를 증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 역시 첨단 분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한·중·일)에 대해서는 인도의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도의 특징적인 점은 인근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과의 경제적 연계성이다. 인도는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 및 인프라 등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과는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 지역들에 대한 진출 협력 또는 거점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앞선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는 2000년대 접어들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디 정부 출범 이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본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도의 대세계 상품무역 추이를 시기별·용도별·산업별로 살펴본다.¹²⁵⁾ 더불어 여러 무역지수를 활용하여 인도와 교역상대국의 무역결합도 및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에 특별히 중요한 교역상대국을 식별하고, 이러한 국가들과 인도 간의 상품무역 추이와 특징도 분석한다.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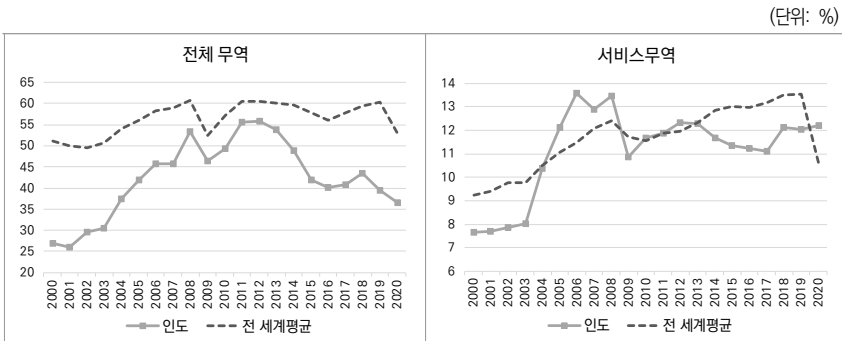
가. 전체

인도는 1991년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 정책을 단행하며 대외경제의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도 개방수준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그림 3-1]은 인도의 GDP에서 전체 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즉 개방도)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의 전체 무역 개방도는 2000년 26.9%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55.8%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는 39.6%에 그쳤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비스무역이 활발해지고 전체 무역의 개방도가 전 세계 평균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125) 본 연구는 인도의 상품무역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HS코드 2002년 버전과 연계한 UN의 상품별 용도 분류(BEC)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이용하며, 본 연구의 자료원인 UN COMTRADE에서 인도의 HS 2002 무역데이터를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바 연구의 분석 시작연도를 2003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충격으로 전 세계 무역이 급감한 시기이므로 이를 논외로 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평균 개방도는 점차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그렇지 못하며 특히 상품무역의 개방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인도의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전체 무역은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합한 값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1. 10. 30).

먼저 2003년부터 2019년 동안 인도의 대세계 교역 현황은 [표 3-1]과 같다. [그림 3-1]에서도 확인했듯이 2020년의 무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배적인 관계로 분석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인도의 전체 수출은 2003년 594억 달러에서 2019년 3,233억 달러로 5.4배 증가하여 연평균 11.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의 전체 수입은 같은 기간 724억 달러에서 4,789억 달러로 6.6배 늘어났고 이는 연평균 12.5%씩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있던 2009년 이전 기간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25.1%와 34.2%인 반면 이후 기간은 4.3%와 3.5%로 최근 인도의 교역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기간 동안 인도는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2년에 약 2,0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부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3,000억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¹²⁶⁾

표 3-1. 인도의 대세계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3	594	18.5	724	26.1	-131
2004	759	27.9	990	36.7	-231
2005	1,004	32.2	1,409	42.3	-405
2006	1,212	20.8	1,782	26.5	-570
2007	1,459	20.4	2,186	22.7	-727
2008	1,819	24.6	3,157	44.4	-1,339
2009	1,768	-2.8	2,664	-15.6	-896
2010	2,204	24.7	3,500	31.4	-1,296
2011	3,015	36.8	4,624	32.1	-1,609
2012	2,896	-4.0	4,890	5.7	-1,994
2013	3,366	16.2	4,660	-4.7	-1,294
2014	3,175	-5.7	4,594	-1.4	-1,418
2015	2,644	-16.7	3,907	-14.9	-1,264
2016	2,603	-1.5	3,567	-8.7	-964
2017	2,944	13.1	4,441	24.5	-1,497
2018	3,223	9.5	6,179	39.2	-2,957
2019	3,233	0.3	4,789	-22.5	-1,556
2020	2,755	-14.8	3,680	-23.2	-925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10. 30)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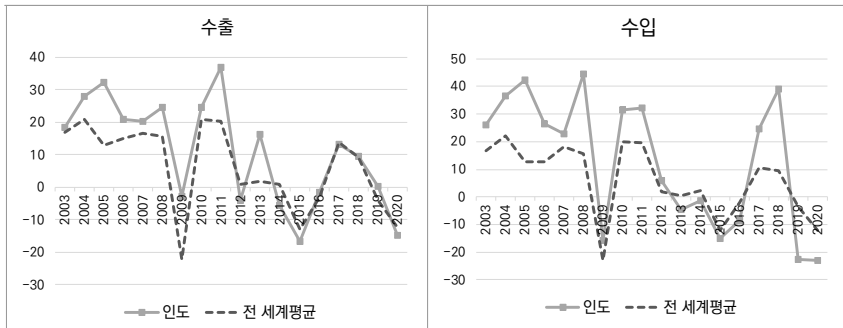
인도의 연도별 수출입 증감률을 대세계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면서도 특정 시기에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에 인도의 수출 감소폭(전년대비 -2.8%)은 전 세계 평균(전년대비 -22.3%)에 비해 훨씬 작았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던 2011년과 2013년에 인도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최

126) 다만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인도의 무역규모가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분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본 연구의 자료원인 UN COMTRADE에서는 인도의 대세계 수입액을 6,179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으나 인도상공부(검색일: 2021. 6. 17)는 5,146억 달러, Trade Map(검색일: 2021. 6. 17)은 5,076억 달러로 명시하고 있다.

근의 수입에서는 2017~18년 전 세계 추이와 달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디 정부의 자립 인도 정책에 따른 평균 관세율 상승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정책기조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인도 전체 수입 감소율도 23%를 넘어섰다.

그림 3-2. 인도의 전체 수출입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10. 30)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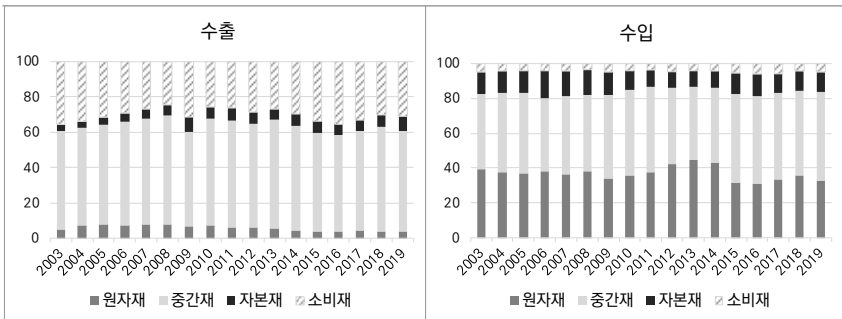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도의 용도별 무역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3~19년의 HS 코드 6단위 기준 대세계 수출입 품목을 UN의 상품별 용도분류(BEC: 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활용하여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하였다.¹²⁷⁾ 분석기간 동안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는 중간재로 50~60%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석유주제품,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터보제트 등이 해당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홍콩,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과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처를 확대하였다. 소비재는 인도의 대

127) BEC 코드 111, 21, 31은 원자재, 121, 22, 321, 322, 42, 53은 중간재, 41, 521은 자본재, 112, 122, 51, 522, 61, 62, 63은 소비재로 분류하며, BEC 코드 7은 미분류 품목으로 보았다.

세계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품과 귀금속이 대표적 품목이며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홍콩, 베트남, 이란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4%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휴대전화 등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19년에는 8%로 증가하였다. 반면 원자재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1년부터 비중이 줄어들어 자본재의 비중과 역전되었다.

그림 3-3. 인도의 대세계 용도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미분류 품목의 비중은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의 전체 수입에서도 대부분의 기간에 중간재의 비중이 50% 내외로 가장 컸고, 뒤를 이어 원자재, 자본재 순이었다. 2013~14년 기간에 원자재(원유, 석탄, 구리광 중심) 수입 비중이 중간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2015년에 다시 전환되어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수입이 많은 중간재로는 미가공·반가공한 금, 액화천연가스,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휴대전화 부품품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이 활발하였다. 이는 제조업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인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재의 수입 비중은 2006년 15.8%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두 자릿수 비중을 회복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료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주요 품목으로 하였다.

인도의 무역을 주도하는 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의 대세계 교역품목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에 따라 구분하고 ISIC 2단위(revision 3)로 살펴보았다. 2003년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기타제조업(19%, 주로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제조업)이며, 섬유제품 제조업(12.7%),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12.2%)의 비중도 높았다. 기타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까지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귀금속을 자산으로 생각하며 관련 산업을 크게 발달시켜 왔으며 세계적 규모의 주얼리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점이 최근에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¹²⁸⁾ 섬유산업 역시 유사한 상황으로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제조시설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바 인도 수출산업으로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¹²⁹⁾

반면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 비중은 2010년대 접어들 때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최근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2017년부터 최대 수출산업이 되었다. 특히 인도의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제약 부문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도 기대되고 있다.¹³⁰⁾ 이 밖에 눈에 띄는 산업은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인데 2003년 수출비중은 5.9%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20.5%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원유의 가격 변화에 연동하여 큰 폭의 증감을 보이며 변동성이 가장 컸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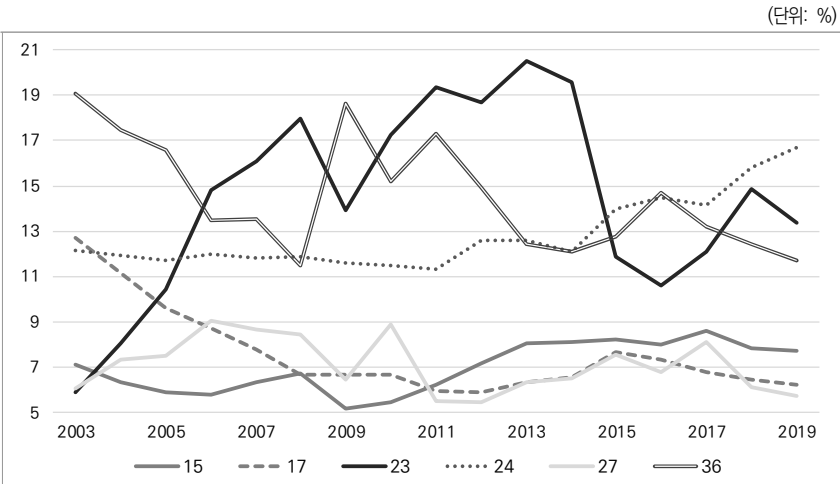
128) KOTRA 온라인 자료(2019. 9. 5),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주얼리 시장」(검색일: 2021. 10. 30) 참고.

129) KOTRA 온라인 자료(2019. 7. 30), 「인도 섬유산업」(검색일: 2021. 10. 30) 참고.

130) 정영식 외(2019), pp. 180~181.

업 역시 분석기간 동안 부침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의 비중이 각각 7.7%와 5.8%로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 3-4. 인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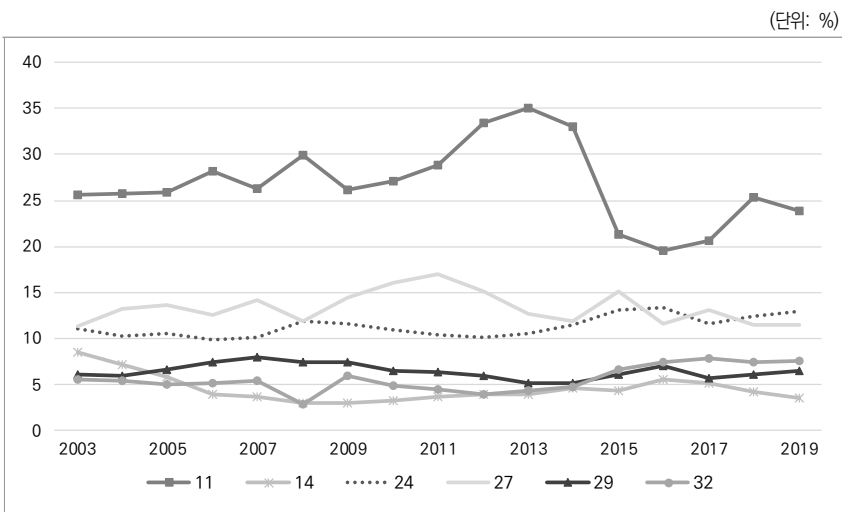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한편 인도의 최대 수입산업은 원유·천연가스 채굴업으로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해당 산업의 대세계 수입비중은 2003년 25.6%, 2013년 35%까지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5%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인도는 석유정제업을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통상 이슈로 주목하고 있는 탄소감축을 위한 인프라도 열악한 편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전체 수입에서 원유·천연가스 채굴업은 당분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화학제품(비료) 제조업과 1차금속(금, 은) 제조업도 주요 수입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10~15% 사이의 수입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화학산업은 인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수입의 경우 인도

정부의 무역구제조치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포함한 기타광업은 2003년 8.6%의 비중이었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금, 은 위주의 1차금속 제조업과 기타광업은 인도의 주얼리 시장 성장세에 따라 수입규모도 변화하는 편이다.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는 산업은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으로 전화기 부분품 및 관련 기기의 수입이 늘면서 2012년 3.9%에서 2019년 7.5%까지 비중을 높였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인도의 대세계 수입 중 최소 5.1%에서 최대 8%까지 비중을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인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1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14 기타광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의 주요 수출입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가진 경쟁력은 아래와 같은 무역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는 각 산업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산업의 교역규모로 나눈 값으로 경쟁력이 있

는 산업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용된다. TSI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특정 산업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분석대상 국가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값인데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그 국가의 해당 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특화 산업은 의복,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가죽 순이며, 수입특화 산업은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석탄광업, 사무용 기계 제조업 등이다.¹³¹⁾ 현재 인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입규모도 커서 TSI는 음(-)의 값으로 도출되었으나, RCA 지수에 따르면 여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비중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큰 산업이며 RCA 지수도 3 내외로 높은 편이다. 섬유제품 제조업과 기타제조업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이나 최근 그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는데, 무역지수 값 역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대세계 시장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1차금속 제조업(철강)은 현재까지 수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더 큰 상황이나 RCA 지수는 1 내외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대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31) 2019년 전체 수출입액 기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2. 인도의 산업별 대세계 TSI와 RCA

산업	TSI			RCA		
	2003	2011	2019	2003	2011	2019
농업·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0.20	0.38	0.05	1.79	1.54	1.10
석탄광업	-0.90	-0.96	-0.99	0.36	0.12	0.04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1.00	-1.00	-1.00	0.01	0.00	0.00
기타 광업	-0.85	-0.73	-0.68	1.67	1.94	3.13
음식료품 제조업	0.19	0.25	0.32	1.42	1.14	1.38
섬유제품 제조업	0.74	0.67	0.64	4.52	2.63	2.76
의복	0.99	0.96	0.86	4.05	2.34	2.30
가죽	0.80	0.63	0.49	2.65	1.37	1.18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0.19	0.59	0.41	2.22	3.19	2.97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0.05	-0.17	-0.06	1.14	1.00	1.45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34	0.18	0.10	0.76	0.68	0.7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5	0.02	0.19	1.27	0.79	1.25
1차금속 제조업	-0.39	-0.65	-0.49	1.39	0.81	1.00
금속가공제품	0.50	0.16	0.16	1.46	1.02	1.1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0.41	-0.49	-0.31	0.37	0.39	0.59
사무용 기계 제조업	-0.67	-0.79	-0.85	0.14	0.09	0.08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0.24	-0.28	-0.19	0.43	0.46	0.60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0.81	-0.54	-0.72	0.10	0.31	0.1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0.51	-0.55	-0.48	0.27	0.19	0.2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27	0.16	0.41	0.20	0.39	0.5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56	0.30	0.06	0.31	1.39	1.48
기타제조업	0.80	0.37	0.50	7.30	6.48	3.86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003년부터 2019년 기간에 인도의 2대 수출상대국은 미국과 UAE였다.¹³²⁾ 2003년 인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18.9%를 차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9년 수

132) 참고로 2020년의 경우 최대 수출상대국은 미국(17.9%)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2위는 중국(6.9%)이었는데 두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 모두 2019년 대비 증가하였다. UAE는 전년 대비 수출비중이 감소하며 3위(6.5%) 수출국이 되었다(UN COMTRADE, 검색일: 2021. 10. 30).

출비중은 16.8%였다. UAE에 대한 수출비중 추이는 미국과 반대로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최대 수출국이 되기도 했으며, 이후 감소세이긴 하나 2대 수출국의 자리를 유지 중이다. 인도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체 상태이다. 인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ASEAN 회원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해 온 편인데, 2010년대 접어들어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EU 역시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특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2021년 EU 공식 탈퇴) 등을 중심으로 수출하였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를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UAE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도 높은 편이다.

표 3-3. 인도의 20대 수출상대국

(단위: %)

순위	2003		2011		2019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18.85	UAE	12.40	미국	16.79
2	UAE	7.13	미국	10.92	UAE	9.14
3	홍콩	5.76	중국	5.55	중국	5.35
4	영국	4.67	싱가포르	5.18	홍콩	3.55
5	중국	4.32	홍콩	4.17	싱가포르	3.32
6	독일	3.97	네덜란드	3.22	네덜란드	2.76
7	벨기에	2.99	영국	2.95	영국	2.72
8	일본	2.88	독일	2.74	독일	2.65
9	싱가포르	2.87	벨기에	2.45	방글라데시	2.55
10	방글라데시	2.78	인도네시아	2.12	네팔	2.20
11	이탈리아	2.66	일본	1.86	말레이시아	1.94
12	네덜란드	2.09	브라질	1.79	벨기에	1.91
13	스리랑카	2.01	사우디아라비아	1.70	사우디아라비아	1.85

표 3-3. 계속

(단위: %)

순위	2003		2011		2019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4	프랑스	2.01	이탈리아	1.67	베트남	1.71
15	인도네시아	1.75	프랑스	1.67	프랑스	1.68
16	사우디아라비아	1.73	한국	1.51	이탈리아	1.61
17	스페인	1.59	스리랑카	1.48	일본	1.49
18	이란	1.50	남아프리카공화국	1.43	한국	1.44
19	말레이시아	1.34	말레이시아	1.26	터키	1.42
20	이스라엘	1.25	이스라엘	1.22	인도네시아	1.40
	ASEAN	8.54	ASEAN	11.44	ASEAN	10.6
	EU27	18.11	EU27	15.21	EU27	14.6

주: 1) 비중은 인도의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3개 기간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음영으로 표시함.
 3) EU27은 기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을 제외한 값임.
 4) 2011년의 경우 미분류로 표시된 수출이 전체 수출의 6.2%에 상당하는바 수출상대국 순위와 비중이 불확실할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의 20대 수입상대국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큰 편이나 최대 수입국은 2003년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이었다.¹³³⁾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7%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다소 주춤하며 2019년 14.3%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대미국 수입비중은 부침을 보이며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최근 3년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접어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인도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인도의 중동 국가에 대한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ASEAN 회원국 중에서는 기존의 주요 교역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외에 베트남,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인도의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금 공급처로서 의존도가 높은 스

133) 2020년에도 인도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수입비중도 약 16%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5위까지 수입국도 2019년과 동일하였으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동 국가에 대한 비중이 다소 감소한 점이 특징적이다(UN COMTRADE, 검색일: 2021. 10. 30).

위스이며, EU 회원국 상대로는 주로 독일, 벨기에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주요 수입상대국이긴 하나 그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4. 인도의 20대 수입상대국

(단위: %)

순위	2003		2011		2019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6.99	중국	12.00	중국	14.28
2	벨기에	5.28	UAE	7.67	미국	7.29
3	중국	4.99	스위스	6.78	UAE	6.33
4	스위스	4.30	사우디아라비아	6.15	사우디아라비아	5.64
5	영국	4.11	미국	4.88	이라크	4.61
6	독일	3.85	이라크	3.77	스위스	3.70
7	한국	3.33	독일	3.22	홍콩	3.63
8	일본	3.22	쿠웨이트	3.18	한국	3.36
9	호주	2.81	인도네시아	3.02	인도네시아	3.2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2.69	나이지리아	2.94	싱가포르	3.11
11	말레이시아	2.62	호주	2.90	일본	2.66
12	인도네시아	2.60	한국	2.67	독일	2.56
13	싱가포르	2.58	홍콩	2.56	나이지리아	2.22
14	UAE	2.10	이란	2.48	호주	2.21
15	홍콩	1.87	카타르	2.43	말레이시아	2.17
16	프랑스	1.51	일본	2.43	카타르	1.99
17	이탈리아	1.38	벨기에	2.24	벨기에	1.95
18	러시아	1.08	남아프리카공화국	2.02	쿠웨이트	1.91
19	사우디아라비아	0.95	말레이시아	1.97	베트남	1.55
20	이스라엘	0.87	싱가포르	1.76	태국	1.47
	ASEAN	9.23	ASEAN	8.72	ASEAN	11.91
	EU27	15.52	EU27	10.32	EU27	8.92

주: 1) 비중은 인도의 대세계 전체 수입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3개 기간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음영으로 표시함.
 3) EU27은 기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을 제외한 값임.
 4) 2003년의 경우 미분류로 표시된 수입이 전체 수입의 27.3%에 상당하는바 수입상대국 순위와 비중이 불확실할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가 통상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무역수지 관리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상위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았다. 인도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모든 시기에 미국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인도는 인접국가인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케냐와의 무역에서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흑자상대국이며 그 밖에 스페인, 영국 등과도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흑자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9년 기준 인도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 다이아몬드의 수입처인 스위스, 벨기에, 남아공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인도의 주력 수출산업이 귀금속 제조업에서 화학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중국과 중동 국가에 대한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호주는 석탄, 금, 구리의 주요 공급처로서 의미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주로 팜유를 수입한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주요 적자상대국으로 한국과 일본도 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인도의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순위	2003		2011		2019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흑자국	1	미국	6,122	미국	10,345	미국	19,370
	2	UAE	2,708	네덜란드	7,500	방글라데시	7,029
	3	홍콩	2,059	싱가포르	7,472	네팔	6,459
	4	방글라데시	1,581	스리랑카	3,734	네덜란드	5,158
	5	스리랑카	1,072	방글라데시	2,826	스리랑카	3,233
	6	네덜란드	736	터키	2,731	스페인	2,596
	7	스페인	713	바하마	2,432	터키	2,294
	8	이란	625	네팔	2,052	이스라엘	1,935
	9	이탈리아	578	베트남	1,912	영국	1,919
	10	나이지리아	474	케냐	1,912	케냐	1,835

표 3-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순위	2003		2011		2019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적자국	1	스위스	-2,626	중국	-38,765	중국	-51,123
	2	벨기에	-2,053	스위스	-30,350	사우디아라비아	-21,026
	3	한국	-1,746	사우디아라비아	-23,290	이라크	-20,066
	4	호주	-1,479	이라크	-16,766	스위스	-16,445
	5	남아공	-1,478	쿠웨이트	-13,334	한국	-11,457
	6	말레이시아	-1,101	호주	-11,321	인도네시아	-11,049
	7	중국	-1,048	나이지리아	-11,048	카타르	-8,219
	8	인도네시아	-840	카타르	-10,517	일본	-7,929
	9	일본	-623	이란	-9,026	쿠웨이트	-7,797
	10	아르헨티나	-484	한국	-7,813	호주	-7,596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앞서 교역규모를 기준으로 인도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을 파악하였는데, 인도와 상대국 간의 무역의존 정도는 무역결합도(TII: Trade Intensity Index)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TII는 일국의 전체 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값으로, 1보다 클 경우 세계 평균보다 특정 상대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기간 동안 인도와의 무역결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부탄이었으며, 뒤를 이어 네팔, 기니비사우(Guinea-Bissau), 탄자니아, 스리랑카, 소말리아 순이었다. 무역결합도가 높은 상위 10개국을 보면 모두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며, 교역규모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에는 ASEAN 회원국과의 무역결합도가 가장 높았고 유럽 국가 중에는 대벨기에 지수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을 초과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값은 1 내외에서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1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침을 나타낸다. 즉 인도는 전반적인 교역규모와는 별개로,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품목을 수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 인도의 상대국별 무역결합도

상대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II 높은 국가	부탄	32.41	29.89	31.38	36.25	34.91	40.99	35.99	34.75	39.23
	네팔	25.86	21.57	22.66	26.50	30.04	34.11	31.26	28.49	31.30
	기니비사우	20.28	12.73	11.20	12.24	17.46	18.13	17.57	10.85	10.54
	탄자니아	7.71	7.03	11.56	12.34	8.42	8.95	8.80	8.27	7.67
	스리랑카	8.64	7.99	8.58	10.63	10.01	8.62	7.83	7.67	7.94
	소말리아	4.46	6.08	5.08	8.63	8.59	9.69	7.82	5.53	8.02
	이라크	7.50	7.17	6.94	5.88	6.27	6.35	7.06	8.23	8.31
	UAE	7.97	7.41	6.11	5.85	6.27	6.57	5.99	5.70	7.00
	케냐	5.45	8.31	8.06	7.74	6.49	6.13	4.05	3.94	4.38
모리셔스	8.58	4.91	6.20	8.97	5.25	4.36	5.12	5.55	4.93	
주요 교역국	미국	0.75	0.79	0.81	0.80	0.85	0.93	0.90	0.91	1.03
	중국	1.00	0.93	0.87	0.92	1.01	1.04	0.97	0.96	0.92
	일본	0.50	0.55	0.56	0.52	0.55	0.56	0.52	0.56	0.57
	인도네시아	2.31	2.21	2.27	2.38	2.52	2.50	2.67	2.53	2.50
	말레이시아	1.19	1.28	1.27	1.40	1.52	1.48	1.37	1.42	1.38
	싱가포르	1.98	1.71	1.69	1.37	1.48	1.53	1.67	1.91	2.12
	태국	0.86	0.94	1.00	1.00	1.06	1.03	1.04	1.14	1.10
	베트남	1.09	1.01	1.33	1.28	1.02	1.10	1.14	1.10	0.98
	독일	0.43	0.41	0.39	0.38	0.41	0.42	0.40	0.39	0.38
	벨기에	1.09	1.01	1.05	1.07	1.01	1.02	0.84	0.97	1.01
	영국	0.70	0.60	0.68	0.60	0.68	0.63	0.60	0.67	0.66
한국	0.81	0.83	0.76	0.83	0.87	0.88	0.92	0.89	0.9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나. 주요 국가별

지금까지 여러 분류기준과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인도의 전반적인 상품무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에 중요한 교역상대국들을 선별할 수 있었

는데, 이하에서는 인도와 이러한 국가들 간의 상품무역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ASEAN과 EU의 주요 국가, UAE이다.¹³⁴⁾

1) 미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미국 역시 중국 견제의 목적에서 인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양국간의 상품무역은 2003년 163억 달러에서 2019년 900억 달러 내외로 규모가 5.5배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인도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10.4%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3년 112억 달러에서 2019년 543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적용해 왔는데 이러한 제도 또한 인도의 대미 수출 유지에 기여하였다.¹³⁵⁾ 인도의 대미국 수입은 매년 12.8%씩 증가하는 속도로 2018년에는 38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인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체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2008년에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수입이 급증하여 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10년대 접어들어 수입은 200억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동안 수출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수입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134) 앞서 확인하였듯이 인도와 무역의존 관계가 높은 상대국은 부탄, 네팔, 스리랑카 같은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이었으나,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매우 미미하여(인도 전체 무역의 1% 미만) 국가별 분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도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대체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2000년대 중후반의 부탄 제외)하고 있다.

135) 미국 USTR은 2019년 3월 인도의 GSP 수혜 개도국 지위 중단을 발표하였는데, 인도의 광범위한 무역장벽이 미국의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USTR 온라인 보도자료(2019. 3. 4), "United States Will Terminate GSP Designation of India and Turkey"(검색일: 2021. 10. 7) 참고).

표 3-7. 인도의 대미국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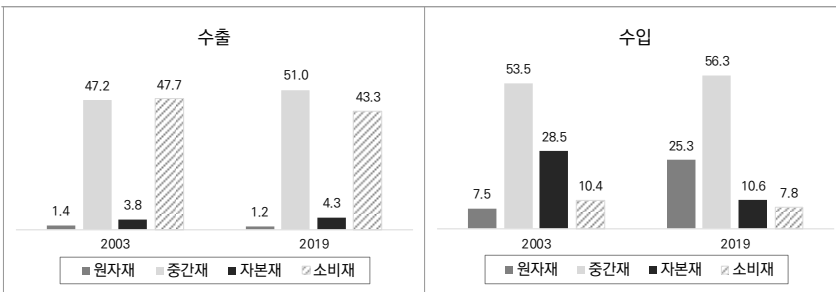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111.9	50.6	61.2	2012	371.7	241.1	130.7
2004	131.1	59.4	71.6	2013	419.6	226.0	193.6
2005	165.4	83.1	82.4	2014	426.8	204.4	222.5
2006	187.1	113.2	73.8	2015	403.1	204.6	198.5
2007	201.3	142.1	59.3	2016	419.9	204.0	216.0
2008	214.1	244.9	-30.8	2017	460.2	240.9	219.3
2009	191.3	160.0	31.3	2018	516.3	389.0	127.2
2010	235.9	191.0	44.9	2019	542.9	349.2	193.7
2011	329.2	225.7	103.5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인도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각종 석유조제품, 터보제트, 자동차 부분품 등의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에 비해 2019년에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소비재(의약품, 면제품, 신변장식품) 수출도 4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중간재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많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와 터보제트도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원유 및 석탄 같은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재와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3-6. 인도의 대미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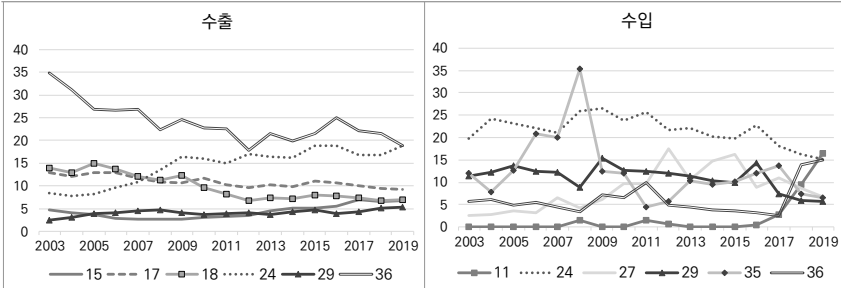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수출산업은 기타제조업으로 곧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제조업이며, 이는 인도의 전세계 주요 수출산업이기도 하다. 2003년에는 35%에 달하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귀금속 제조업은 여전히 최대 수출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기타제조업과 거의 유사한 규모가 되었다. 반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경우 대미국 수출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점유율은 분석기간 동안 크게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인도의 대미국 주요 수입산업의 점유율은 수출산업과 달리 변동성이 큰 편으로 2019년 현재에는 원유·천연가스 채굴업의 비중이 16.4%로 가장 높다. 이 산업은 2016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부재했으나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대인도 무역수지 적자를 통상현안으로 거론하자 인도는 원유 수입 확대를 통해 흑자규모를 일부 상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제조업 위주인 기타제조업 역시 최근 증가세가 확연한데, 이 산업은 그간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었으나 2018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크게 늘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분석기간 내내 20%대의 수입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입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수입이 발생할 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2008년에 35.3%까지 수입비중이 치솟기도 했다.

그림 3-7. 인도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1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 중국

인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교역에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기체결 FTA를 통한 중국의 대인도 우회수출도 경계하고 있다. 인도가 RCEP 협상에서 중도에 불참을 선언한 것 역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도의 대중국 상품무역은 2003년 약 62억 달러에서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8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수준이다. 인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매년 평균적으로 12.7%씩 증가하여 2019년 173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중국으로부터 인도의 수입은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20.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8년에는 90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타 운송기기(선박 등)를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의 영향이 컸다. 이렇듯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도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급증하여 2018년에 74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수입이 200억 달러 이상 줄어들면서 적자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에서의 변동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가 수입억제·투자진흥이기 때문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무역구제조치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2019년 기준 114건)으로 볼 수 있다.¹³⁶⁾

표 3-8. 인도의 대중국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25.7	36.2	-10.5	2012	147.3	541.4	-394.1
2004	41.0	60.5	-19.5	2013	164.2	516.4	-352.2
2005	71.8	101.7	-29.8	2014	134.3	582.3	-448.0
2006	78.3	156.4	-78.1	2015	95.8	616.0	-520.3
2007	94.9	245.8	-150.8	2016	89.2	604.8	-515.7
2008	100.9	315.9	-214.9	2017	125.0	719.2	-594.3
2009	103.7	306.1	-202.4	2018	163.7	904.0	-740.3
2010	174.4	412.5	-238.1	2019	172.8	684.0	-511.2
2011	167.2	554.8	-3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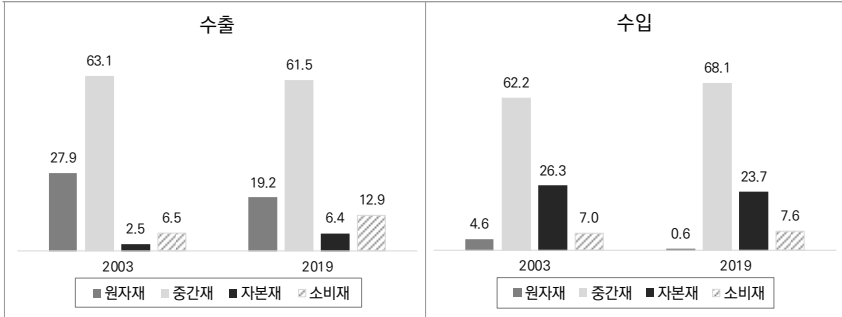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인도와 중국 간의 교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입에서 모두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의 수출은 석유조제품과 화학제품이, 수입은 휴대전화 부분품과 집적회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의 비중은 5% 내외로 낮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주로 철광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인도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도 정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수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 소비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에서는 중간재와 함께 자본재 품목(휴대용 디지털 컴퓨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136) KOTRA(2020), 「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검색일: 2021. 10. 3).

그림 3-8. 인도의 대중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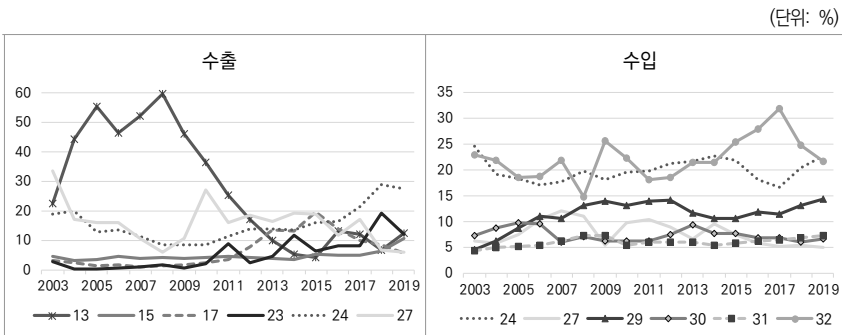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011년까지 인도의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수출산업은 금속광업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철광이 주요 품목이었다. 2008년 인도의 대중국 수출에서 60%를 차지하기도 했던 금속광업은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5년 4.3%까지 점유율이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1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중국에 대한 수출산업은 금속광업이 독보적이었다면 2010년대부터는 다양한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2019년 기준 가장 수출이 많은 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이며, 금속광업,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섬유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다가 201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 기간에 인도의 대중국 2대 수입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과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으로 중간재가 많이 포함된 산업이었다. 두 산업은 분석기간 동안 각각 15%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인도의 대중국 수입 확대를 이끌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경우 2010년을 전후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1차금속 제조업의 수입비중은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나 2014년 이후에는 감소세이다. 사무용·회계 및 컴퓨터 기계 제조업과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역시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포함한 산업들로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5~10% 사이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현재 인도는 주요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대중 적자규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인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3 금속광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0 사무용·회계 및 컴퓨터 기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3) 일본

2000년대 이후 인도와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였는데 2011년 발효한 양국간 CEPA는 경제협력의 한 형태였다.¹³⁷⁾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양국간 상품무역은 2003년 약 40억 달러에서 2019년 176억 달러로 규모가 4.3배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인도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 17억 달러에서

¹³⁷⁾ 인도와 일본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충제 외(2012), pp. 34~47 참고.

2019년 48억 달러로 늘어났다. 인도의 대일본 수입은 연평균 11.2%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15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 성장세와 비교하면 일본과의 무역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며, 양국은 직접적인 상품무역보다는 ODA 및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⁸⁾ 그럼에도 일본은 인도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상대국 중 하나이며, 2018년에는 정제한 구리와 각종 기계류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적자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인도의 대일본 무역은 대체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하여 인도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태도와 달리 일본에게는 이러한 점을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3-9. 인도의 대일본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17.1	23.3	-6.2	2012	64.2	123.6	-59.5
2004	18.5	29.6	-11.1	2013	73.3	104.9	-31.6
2005	24.6	36.8	-12.2	2014	57.6	99.6	-42.1
2006	28.0	47.4	-19.4	2015	45.3	96.4	-51.1
2007	32.6	58.3	-25.7	2016	38.3	98.1	-59.8
2008	36.2	77.8	-41.6	2017	45.0	104.7	-59.7
2009	32.2	66.9	-34.7	2018	47.4	151.8	-104.4
2010	48.1	82.7	-34.6	2019	48.2	127.4	-79.3
2011	55.9	112.2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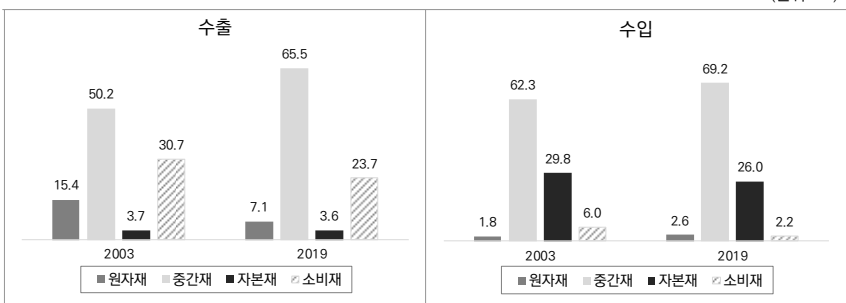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인도의 일본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인도의 대

138) 'Delhi Metro'는 ODA 활용을 통한 일본과 인도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결과물 중 하나이다(일본 외무성, 일본-인도 관계,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5).

일본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절반가량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66%까지 증가하였으며, 소비재와 원자재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더욱 높은 편으로 2019년에는 전체 수입의 70%에 육박하며, 인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대부분 중간재와 자본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에는 석유제품,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며, 수입에서는 2017년부터 정제한 구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밖에 화학제품과 기계장비도 상위 품목에 해당한다.

그림 3-10. 인도의 대일본 용도별 수출입 비교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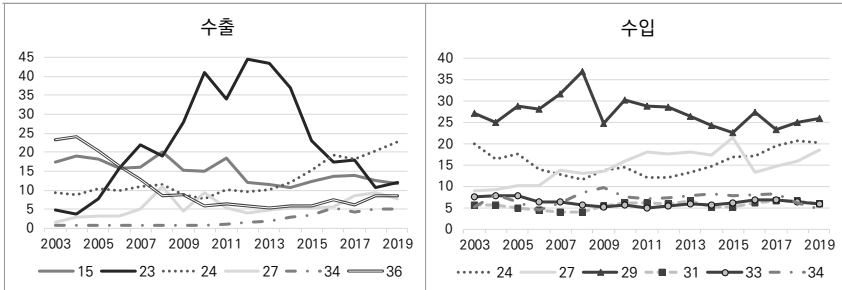
2019년 인도의 대일본 최대 수출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2010년대 접어들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농약제품과 의약품이 주를 이룬다. 화학산업은 수출과 함께 수입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수출이 매우 활발하기도 하였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부침을 보이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이다. 기타제조업의 수출점유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이후 6% 내외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그간 미미한 편이었으나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2010년대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일본에 대한 대표적인 수입산업은 기계·장비 제조업이며,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 또한 대일본 수입비중이 높다. 특히 인도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인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기계에 대한 수입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폴리염화비닐, 파라-크실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학산업의 수입점유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전자기계, 정밀기기, 자동차 제조업의 수입비중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5~10%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일본 기업(마루티스즈키, 혼다 등)은 인도 자동차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자동차부품 수입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 인도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5 음식료품 제조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4) ASEAN

인도와 ASEAN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두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자국 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서로의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도와 ASEAN에게 공통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바 양측이 자유무역협정(AIFTA)을 추진한 이유였으며, 협정 발효 후 실제 양자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¹³⁹⁾ 인도의 대ASEAN 상품무역은 2003년 약 118억 달러에서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913억 달러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과 비교하면 7.8배 증가하였다. 인도의 ASEAN에 대한 수출은 매년 평균적으로 12.7%씩 증가하여 2019년 343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분석기간 동안 ASEAN으로부터 인도의 수입은 연평균 14.3%의 증가세를 보여 대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인도는 ASEAN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부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약 228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표 3-10. 인도의 대ASEAN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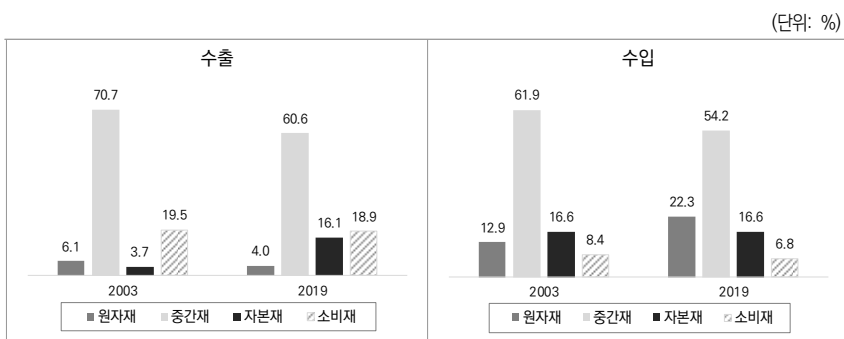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50.7	66.9	-16.2	2012	322.9	427.4	-104.4
2004	75.5	85.5	-10.0	2013	378.9	423.1	-44.2
2005	102.9	106.3	-3.5	2014	312.9	444.6	-131.6
2006	123.7	163.0	-39.3	2015	264.3	415.2	-150.9
2007	138.2	210.3	-72.1	2016	263.8	382.2	-118.4
2008	194.3	267.0	-72.6	2017	354.1	453.1	-99.0
2009	179.0	239.7	-60.7	2018	361.3	694.0	-332.6
2010	229.6	296.4	-66.8	2019	342.5	570.4	-227.9
2011	345.0	403.3	-58.3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139) India Briefing(2021. 2. 23), "India-ASEAN Trade and Investment Prospec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5).

한편 인도와 ASEAN 간의 교역은 모두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다른 상대국과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고 터보제트, 화학물질, 철강과 같은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가 포함되었으며, 수입에서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부분품 등 전자기계 산업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다수 포함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입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자본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수입에서는 원자재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특히 생산 네트워크에서 인도와 ASEAN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인도의 대ASEAN 용도별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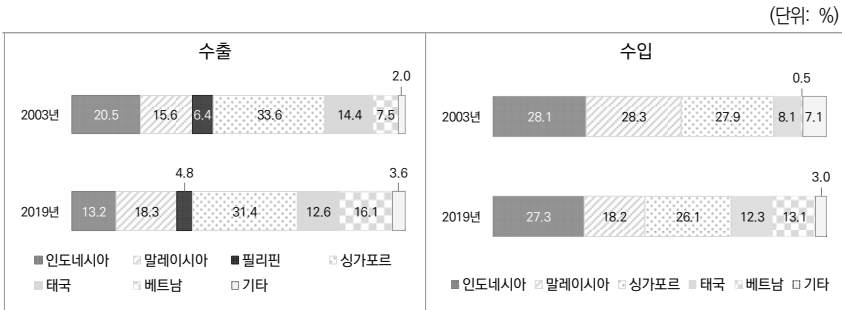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019년 현재 ASEAN 국가 중 수출이 가장 많은 상대국은 싱가포르,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수출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중요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의 비중도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수출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출과 달리 수입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의 점유율은 높아졌다. 특히 ASEAN 회원국 중 인도 동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Muni 2011)의 경우 2003년 인

도의 수입비중이 0.5%에 불과했으나 2019년 13.1%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13. 인도와 ASEAN 회원국 간 교역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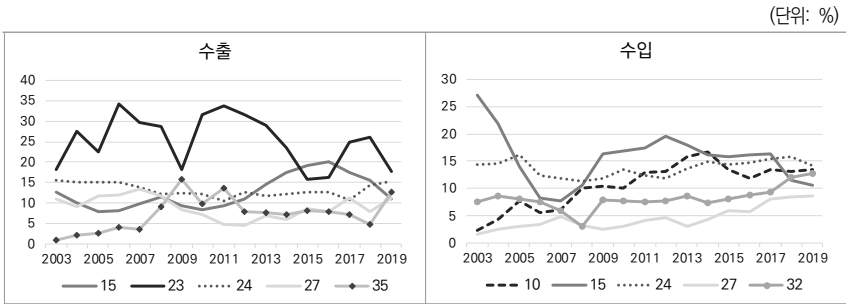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규모에 힘입어 분석기간 동안 인도의 대ASEAN 최대 수출산업은 석유정제품 제조업이었다. 원유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관계로 수출비중의 변동은 심한 편이었으나 2015~16년을 제외하고 ASEAN에 대한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학제품 제조업은 ASEAN 주요 국가에 고르게 수출하는 산업으로 10~1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019년에 비중이 크게 증가한 산업이다. 항공기나 선박과 관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특성상 무역규모의 변동이 큰 편인데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수출비중의 급증을 가져왔다.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알루미늄과 철강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ASEAN 수출비중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료품 제조업 역시 ASEAN 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산업인데 냉동쇠고기, 쌀(정미), 냉동새우 및 오징어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인도의 대ASEAN 수입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팜유 수입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화학제품 제

조업, 석탄광업,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최대 수입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환식탄화수소 물질(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과 프로필렌 중합체가 주요 품목이다. 최근에는 1차금속과 휴대전자 부분품(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인도의 대ASEAN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0 석탄광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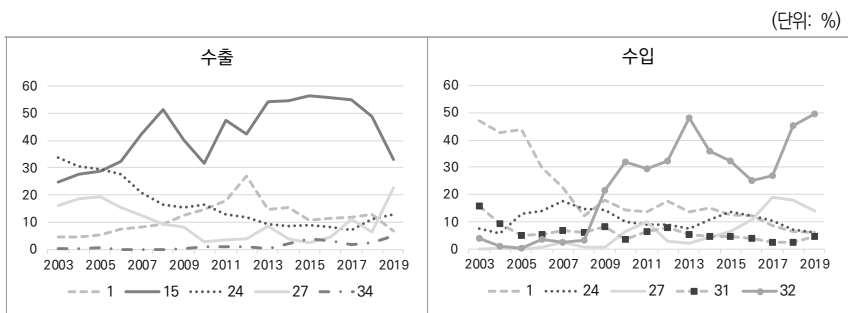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2003년부터 2019년 기간에 인도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ASEAN 국가는 베트남이었는데, 그만큼 인도에 있어 베트남은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인도와 베트남 간의 주요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¹⁴⁰⁾ 우선 수출에서는 농축산품과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냉동쇠고기와 냉동새우는 인도의 대표적인 대베트남 수출품목이며, 땅콩, 오일 케이크, 사료용 조제품 등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철강제품(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7208)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업은 2003년 대베트남 최대 수출산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140) 인도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교역규모를 고려하여 베트남 외에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는 [부록 3]에 실었다.

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자동차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2014년 부터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도가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산업은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으로 주요 품목에는 휴대폰 부분품, 음성·영상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등이 포함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농축산업, 구체적으로는 커피, 차, 향신료 등의 HS 09류 수입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과는 반대의 추이를 보였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베트남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강국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간재 유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텔레비전 및 디지털 카메라 중심으로 전자기기 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차금속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도 주요 수입산업으로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5. 인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 농축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1 전자기기·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5) EU 및 영국

인도와 EU 사이의 최초 FTA 협상은 2013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2000년대 양측 간의 상품무역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인도와 EU(영국을 제외한 27개국) 간의 상품무역은 2003년 약 220억 달러에서 2019년 899억 달러로

규모는 4.1배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EU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9.7%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 108억 달러에서 2019년 472억 달러로 늘어났다. 인도의 대EU 수입은 연평균 8.7%씩 증가하여 2018년에 500억 달러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2019년에는 427억 달러였다. 인도와 EU 사이의 교역규모는 수출과 수입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 성장세와 비교해 보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속도는 더딘 편이다. 또한 인도의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측은 8년 만에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정체되어 있는 무역상황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¹⁾ 그간 인도의 대EU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다가 2013년, 2016~17년, 2019년과 같이 특정 연도에 간헐적으로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3-11. 인도의 대EU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107.5	112.4	-4.9	2012	405.4	475.2	-69.8
2004	133.5	140.2	-6.7	2013	457.2	429.2	28.1
2005	176.9	195.5	-18.6	2014	419.0	435.9	-16.8
2006	206.0	246.9	-40.9	2015	358.1	385.2	-27.0
2007	254.0	276.4	-22.4	2016	371.8	362.7	9.1
2008	326.9	378.1	-51.2	2017	422.2	398.9	23.3
2009	298.6	342.7	-44.1	2018	475.7	546.7	-70.9
2010	351.6	372.2	-20.6	2019	472.1	427.2	44.8
2011	458.5	477.0	-18.5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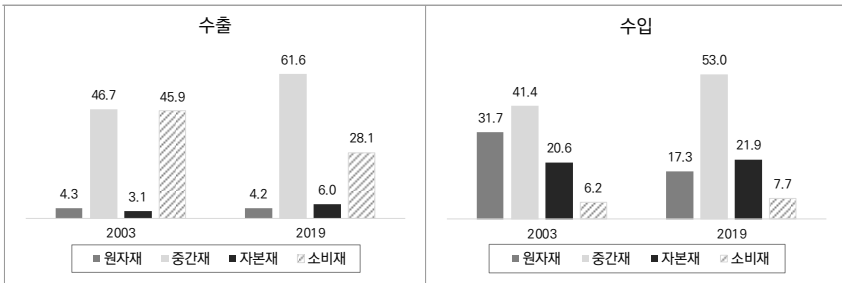
인도의 EU에 대한 수출은 주로 중간재(석유조제품,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터보제트, 자동차 부품품)와 소비재(의약품, 의류잡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41) 최근 영국이 인도와 무역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또한 EU의 대인도 협상 재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Poitiers *et al.* 2021, p. 9 참고).

있다. 다만 2003년의 경우 중간재와 소비재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중간재의 비중이 약 62%까지 높아지고 반대로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인도의 대EU 수입은 2003년에 중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중간재 비중이 50%를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원자재는 그만큼 감소하면서 자본재(각종 기계 및 정밀기기)가 원자재보다 EU로부터의 수입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3-16. 인도의 대EU 용도별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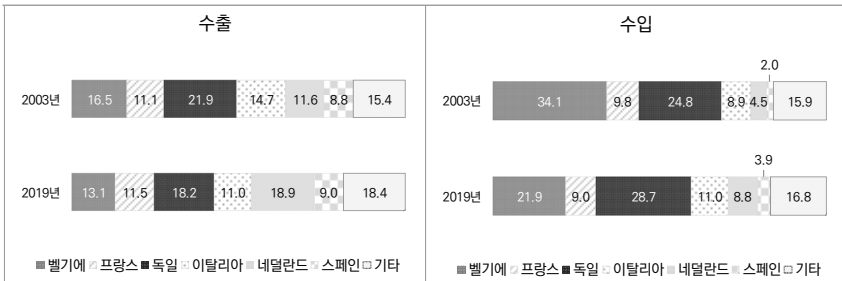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그림 3-17. 인도와 EU 회원국 간 교역비중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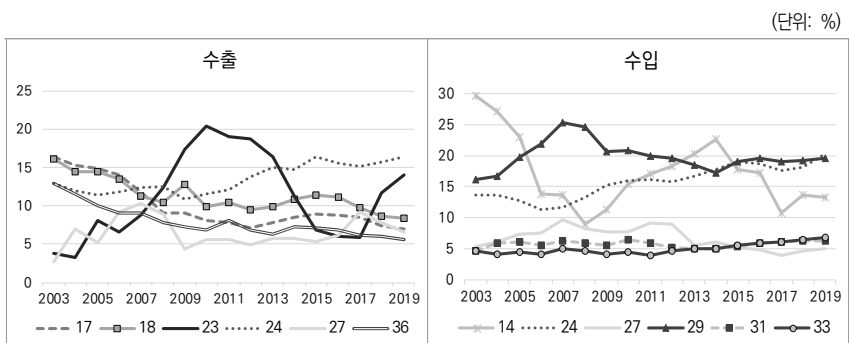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인도와 EU의 무역은 일부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2019년 현재 EU 국가 중 인도의 수출이 가장 많은 상대국은 네덜란드이며,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그간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수출점유율이 감소하고 네덜란드로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벨기
 에와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비중도 다소 감소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200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과 달리 수
 입에서는 독일의 비중이 더욱 늘어났고, 그 밖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으
 로부터의 수입비중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 인도의 대EU 수입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벨기에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인도가 EU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은 의약품 중심
 의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세였다.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또한 주요 수출산업이나 그 비중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대한 수출규모에
 따라 부침을 보였다. EU는 인도의 섬유, 의복, 모피가공을 비롯하여 귀금속 제
 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의미가 있는데, 다만 해당 품목들에 대한 인도의 전체
 수출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EU에 대한 수출비중도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으로 대표되는 1차금속 제조업은 벨기에와 이
 탈리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8. 인도의 대EU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4 기타광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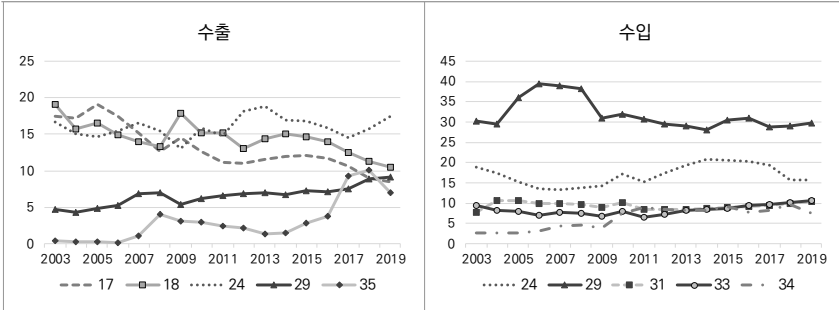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인도의 대EU 2대 수입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벨기에로부터 대량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면서 기타광업의 비중이 30%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기계 산업과 화학산업의 증가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가스터빈, 탭, 코크, 밸브 등 다양한 기계·장비 품목의 수입을 EU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과 면역물품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 수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배 전용 보드·패널 등의 장비와 부분품 수입이 늘면서 전자기계·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의 수입비중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EU로부터 수혈 및 수액세트, 각종 의료기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에 따라 인도와 수출입이 많은 EU 회원국은 변화하였지만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상대국은 독일인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컸으나 특정산업에 편중된 경향이 강한 반면 독일의 경우 분석기간 내내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에 인도와 독일 간의 주요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¹⁴²⁾ 2019년 기준 인도의 대독일 최대 수출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중심)으로 2012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가공 제조업은 지금까지도 인도의 독일에 대한 주요 수출산업이나 2010년대 접어들면서 그 비중은 확연한 감소세이다. 최근에는 터보제트나 각종 기계, 즉 기계산업에서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기계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데 터보제트 등의 가스터빈 수입에서 인도의 대독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자동차부품, 의약품도 주요 수입품에 해당하는바 화학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에서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142) 인도와 EU 회원국 간의 교역규모를 고려하여 독일 외에 주요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와의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는 [부록 4]에 실었다.

그림 3-19. 인도의 대독일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한편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상품무역 추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2003년 약 58억 달러에서 2019년 157억 달러 내외로 규모가 2.7배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인도의 영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7.5%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3년 28억 달러에서 2019년 88억 달러로 늘어났다. 수출의 경우 2013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인도의 대영국 수입은 2011년 약 75억 달러까지 증가한 바 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5.4%에 머물렀다. 인도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2003년을 제외하면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대 접어들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에 양국은 최근 체결한 ‘2030 로드맵’에서 앞으로 10년간 양국의 무역규모를 2배 확대할 수 있는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더불어 의약품, 백신 및 기타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¹⁴³⁾

143) GOV.UK(영국 정부)(2021. 5. 4), “UK and India announce new era in bilateral relation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9).

표 3-12. 인도의 대영국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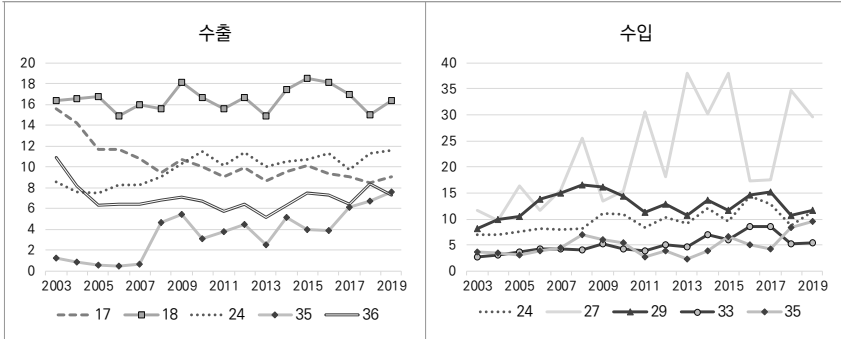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27.7	29.8	-2.1	2012	81.0	66.4	14.6
2004	34.1	32.9	1.2	2013	105.6	64.3	41.3
2005	49.6	43.0	6.6	2014	96.7	47.9	48.7
2006	53.8	40.3	13.5	2015	88.9	53.8	35.2
2007	62.9	47.9	14.9	2016	85.7	38.6	47.0
2008	66.0	62.2	3.8	2017	89.5	43.4	46.1
2009	65.3	40.5	24.8	2018	97.4	85.5	11.9
2010	64.4	51.7	12.7	2019	88.0	68.8	19.2
2011	88.8	74.5	14.3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2003년 이후 인도의 대영국 주요 수출산업은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가공 제조업이었다. 이에 EU의 경우와 달리 영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보다 소비재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의복 및 모피가공 산업은 부침을 보이면서도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섬유제품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부분품 등)의 수출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기타제조업(귀금속)은 6~8%대의 수출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금, 은,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바 1차금속 제조업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는데, 다만 시기에 따라 변동성은 매우 심하였다.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계 제조업도 주요 수입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부분품)의 수입비중도 높아져 해당 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입에서는 중간재 중심의 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그림 3-20. 인도의 대영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7 석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6) UAE

중동 지역에 위치한 UAE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3~19년 동안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교역액은 2003년 58억 달러에서 2019년 599억 달러로 그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도에 있어 UAE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중요한 국가인데, 양국은 지금까지의 긴밀한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서명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인도의 대UAE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2.9%로 전세계 평균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수입의 경우 매년 2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에도 300억 달러가 넘었다. 2012~16년 기간에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다.

표 3-13. 인도의 대UAE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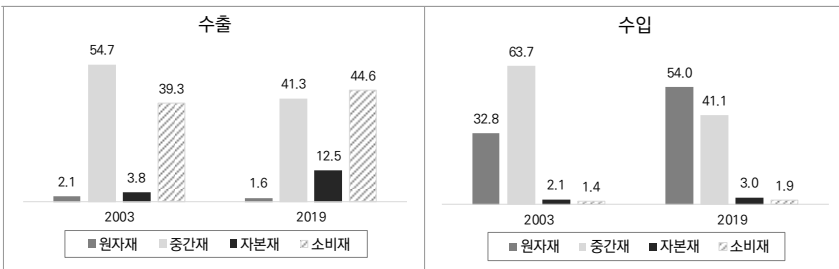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42.3	15.2	27.1	2012	357.8	378.0	-20.2
2004	66.4	38.2	28.3	2013	339.8	329.6	10.2
2005	84.2	50.3	33.9	2014	329.2	272.9	56.3
2006	114.5	75.1	39.4	2015	299.9	202.8	97.1
2007	144.5	117.0	27.4	2016	300.4	192.4	108.0
2008	191.0	194.2	-3.2	2017	286.4	231.2	55.2
2009	254.2	197.4	56.8	2018	285.2	321.2	-36.0
2010	274.1	309.1	-35.0	2019	295.4	303.1	-7.7
2011	373.7	354.7	19.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인도의 UAE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와 소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중간재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소비재보다 많았으나 2019년에는 그 비중이 역전되어 귀금속 및 섬유 중심의 소비재가 더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 중간재 수출비중이 낮아지면서 소비재와 함께 자본재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수입은 중간재와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할 수록 중간재 비중이 낮아졌고 2019년의 경우 원유, 다이아몬드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그림 3-21. 인도의 대UAE 용도별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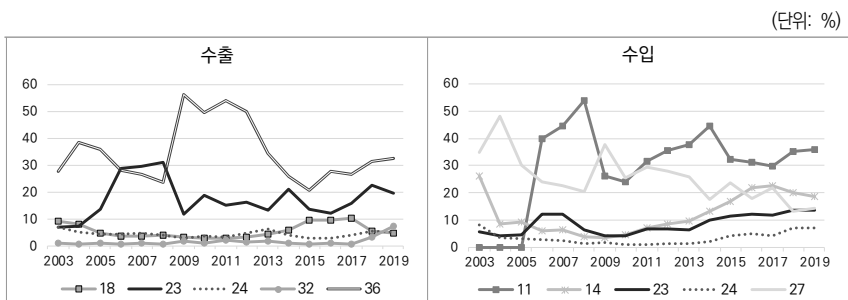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가 UAE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 귀금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산업 측면에서는 기타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석유정제품 제조업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인도의 대세계 주요 수출산업인 의복 및 모피가공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도 일정한 수출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휴대전화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2006년부터 원유가 대표적 품목이었고, 2010년대 이후 다이아몬드의 수입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석유정제품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UAE 수입비중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 철강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해당 산업의 수입비중도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 인도의 대UAE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1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14 기타광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3 코코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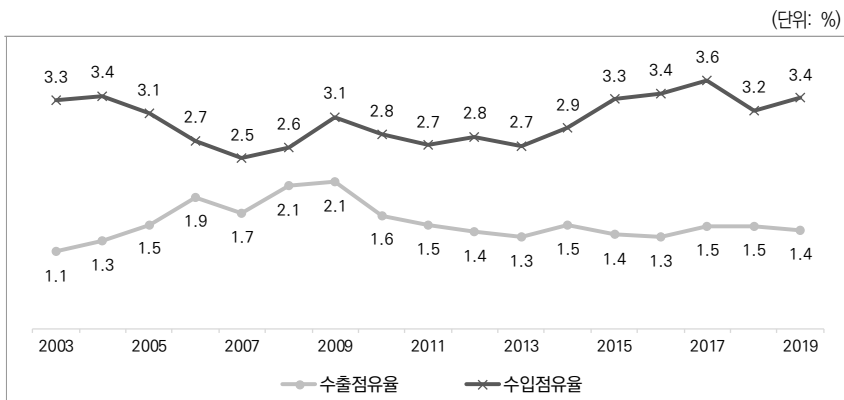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가. 한-인도 상품무역 개관과 주요 정책·현안

한국과 인도 사이의 상품무역 규모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개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진출하

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로 이어졌고 더불어 양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2018년 제4라운드를 발효하기도 하였다.¹⁴⁴⁾ 이렇듯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수출입 증가는 더딘 편이다. 특히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은 협정 발효 1년 차 일시적 증가 이후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수입은 증가하여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 인도의 전체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림 3-23]과 같이 수출점유율은 2009년 2.1%에서 2019년 1.4%까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3-23.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은 원자재와 중간재가 대부분이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인도는 수출품목으로 나프타에 대한 의존

144) APTA 제4라운드에서 한국과 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하여 평균 33%의 관세 감축을 양허하였다.

도가 매우 높은데 최근 한국이 나프타 수입선을 러시아 등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체 수출도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화학, 철강, 기계, 전자산업에 속한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한-인도 CEPA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의 성장으로 차세대 통신망 기지국 설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자기기나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¹⁴⁵⁾ 2018년 7월 한국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 목표액을 50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2019년 9월에는 협정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첸나이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 밖에도 양국은 한-인도 CEPA 개선 사항 및 인도의 RCEP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인도와 한국 사이의 상품무역은 2003년 약 31억 달러에서 2019년 208억 달러로 규모가 6.8배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연평균 12.9% 증가하면서 6억 6천만 달러에서 46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고, 수입의 경우 수출과 유사하게 연평균 12.6%씩 증가하는 속도로 24억 1천만 달러에서 161억 1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보다 약간 빠른 수준이나 CEPA 발효 전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수출에서 한·인도 CEPA 발효 전(2003~09년)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같은 기간 대세계 19.9%보다 성장세가 컸으나 CEPA 발효 후(2010~19년)에는 오히려 대한국 2.8%, 대세계 4.3%로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인도가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프타는 원유 가격과 연동되어 수출규모도 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품목을 제외한 수출

1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p. 279 참고.

표 3-14. 인도의 대한민국 상품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3	6.6	24.1	-17.5	2012	40.8	136.8	-96.0
2004	9.7	33.6	-23.9	2013	45.0	124.3	-79.3
2005	15.2	44.1	-28.9	2014	47.9	134.4	-86.4
2006	23.2	48.9	-25.7	2015	36.1	130.9	-94.8
2007	24.6	54.4	-29.8	2016	34.7	122.1	-87.5
2008	37.7	83.5	-45.8	2017	43.8	160.9	-117.1
2009	37.7	82.3	-44.6	2018	48.0	196.7	-148.7
2010	36.3	99.2	-62.9	2019	46.5	161.1	-114.6
2011	45.5	123.6	-78.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증감률을 보더라도 4.8%로 전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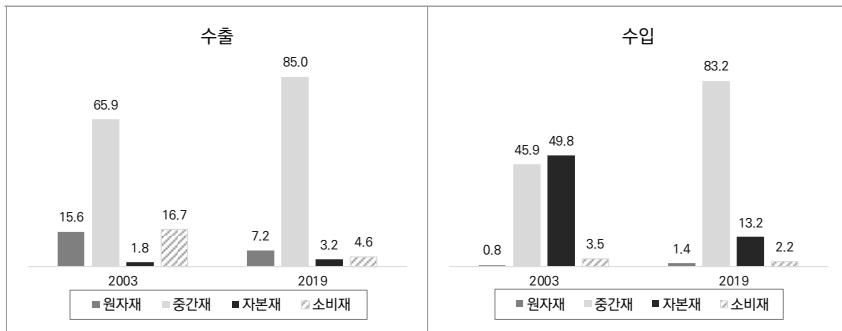
수입에서는 반대 경향이 나타났는데, CEPA 발효 전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은 연평균 22.7% 증가하고 전세계 수입은 그보다 빠른 연평균 24.2% 증가하였다. 그러나 CEPA 발효 후 대한민국 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하면서 전세계 증가율 3.5%를 상회하였다. 인도에 있어 한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상대국으로 2003년 17억 5천만 달러에서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부터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즉 CEPA 발효 후 인도는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양국이 CEPA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2019년에는 85%까지 확대되었다. 중간재에 대한 이러한 수출입 비중은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중간재 수출품으로는 각종 석유제품(나프타), 면사, 철강제품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철광, 회(ash), 아연광, 메슬린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와 갑각류, 냉동어류 등의 소비재 비중도 10%를 상회하였으나 2019년에는 이러한 용도의

비중은 줄어들고 중간재가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에서는 2003년에 중간재보다 자본재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에 크게 역전되었다. 특히 2003년에는 선박과 항공기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기기, 기계의 수입 비중이 높은 관계로 자본재 수입이 많았다. 2019년에는 메모리와 자동차부품, 석유조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 되면서 중간재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그림 3-24. 인도의 대한민국 용도별 수출입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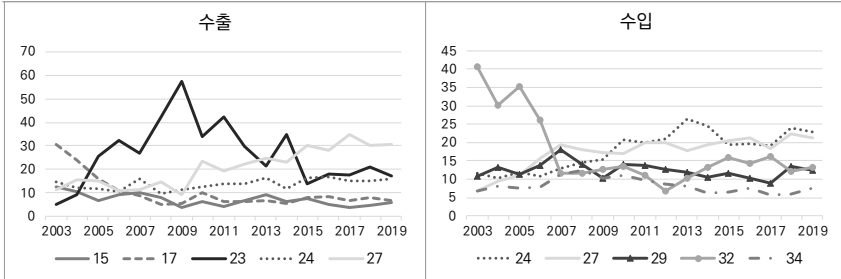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인도의 한국에 대한 최대 수출산업은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제품 제조업,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은 석유정제품 제조업, 이후에는 1차금속 제조업이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였다.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9년에 수출비중이 6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에 대하여 알루미늄, 철강, 아연, 납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1차금속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2015년부터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의 의약품 수출이 증가하여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 수출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3-25. 인도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한편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에서는 2006년까지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1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가장 수입이 많은 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폴리염화비닐, 테레프탈산, 스티렌 등)과 1차금속 제조업(철강, 아연 등)이며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¹⁴⁶⁾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수입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 산업의 대표적 품목인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은 여전히 인도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품목이다. 자동차 제조업의 수입비중은 부침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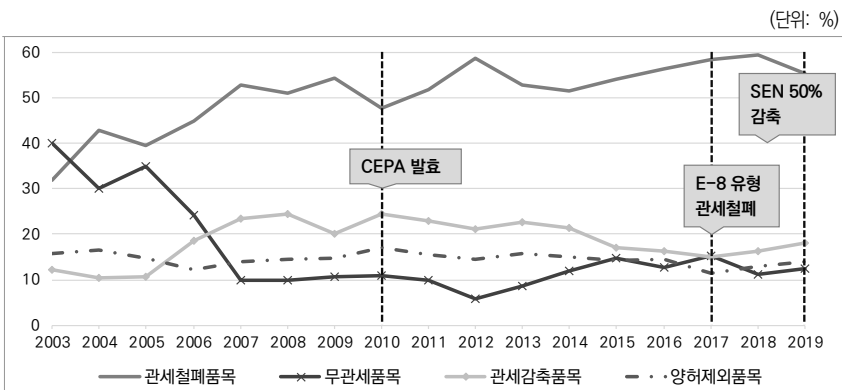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인도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입 산업은 원자재 수입 산업(채굴업, 광업)을 제외하면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 산업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완화하게 되면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인도 CEPA의 상품 양허유형은 크게 8년 이내 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

146) 인도 정부의 위생환경 개선 캠페인인 '클린인디아'로 인해 폴리염화비닐(하수도관 및 화장실 설치에 이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는 한국 등에서 부족한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278 참고).

허제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동 협정이 발효 12년 차에 접어들어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한 품목도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¹⁴⁷⁾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협정 발효 전(2003~09년)과 후(2010~19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2017년은 양국의 관세 철폐 및 한국의 관세 감축이 마무리되며 2019년은 인도의 관세 감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양허유형별 인도와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비중 추이는 [그림 3-26] 및 [그림 3-27]과 같다.

그림 3-26. 인도의 대한국 양허유형별 수입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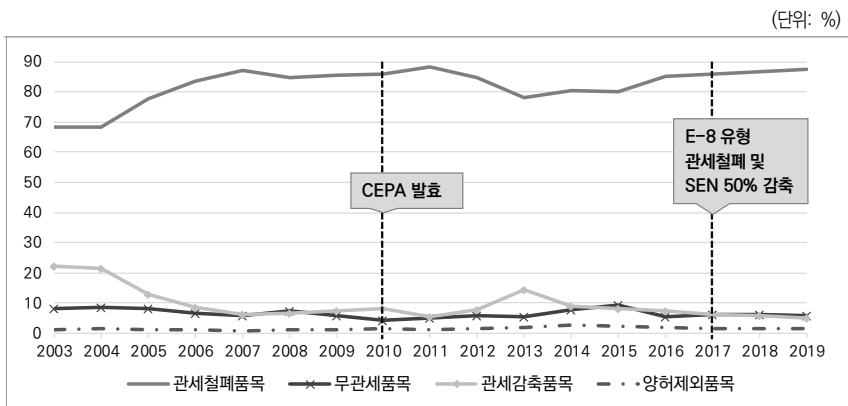
주: 각 기간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에서 해당 양허유형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먼저 인도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현황을 보면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8년 이내 철폐가 예정된 품목의 수입비중이 대체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 감축 품목의 경우 CEPA 협상 논의가 활발하던 2005년부터 수입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협상 결과가 관세 감축에 그치지 오히려 수입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기준세율이 무관세인 품목의 비중

147) 8년 이내 관세 철폐는 즉시 철폐(E-0), 5년 철폐(E-5), 8년 철폐(E-8)로 세분되며, 관세 감축은 RED와 SEN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RED로 규정된 품목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부터 1~5% 범위 내로 인하되며, SEN으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8단계, 인도에 대해서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된다.

은 2000년대 중반까지 크게 감소한 이후 1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양허제외에 해당하는 품목은 인도의 민감품목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수입비중은 CEPA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10%대 수준을 유지하였다. 양허제외에 해당하는 품목을 CEPA 발효 이후 인도의 대한민국 평균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자동차 제조업(15.3%), 전자기계·장비 제조업(10.5%) 순이었다.

그림 3-27. 한국의 대인도 양허유형별 수입비중 추이



주: 각 기간 인도에 대한 전체 수입에서 해당 양허유형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인도로부터 수입은 협정 발효 전인 2006년부터 관세 철폐 품목의 비중이 80%를 상회하였는데, 기존 무관세 품목까지 포함하면 현재는 전체 수입의 90%가량이 관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인도 CEPA에서 관세 감축으로 분류된 품목들의 경우 협정 발효 이후 수입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은 인도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동일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양허제외에 해당하는 품목을 CEP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인도 평균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농축산업(60.3%)과 음식료품 제조업(34.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Mukhopadhyay(2020)는 CEPA 발효 이후 인도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양국의 양허유형별 수입비중 차이도 그러한 판단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¹⁴⁸⁾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0년 평균 기준 상대국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은 [표 3-15]와 같다. 해당 기간 동안 인도의 대한민국 최대 수입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으로 양허유형(SEN)에 따라 10%의 기준세율이 2019년부터 5%로 감축되었다. 그 밖에 수입이 늘어난 화학 관련 품목의 경우 협정의 양허유형은 관세 철폐부터 양허제외까지 다양하였다. 협정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전자기 부분품과 디지털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며, 자동차 부분품이나 기어박스 등은 RED 또는 SEN의 양허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관세 인하 혜택이 존재한다. 철강제품도 수입이 많은 대표적 품목인데 이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인도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상대국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구분	HS6	품목명	양허유형	2003~09년 평균 수입액	2010~19년 평균 수입액
인도 대한 수입	271019	기타 석유조제품	관세감축	265,487	689,674
	851790	전자기 부분품	무관세	34,566	433,401
	854221	디지털 모노리식 집적회로	무관세	2,913	404,477
	870899	기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관세감축	262,632	397,075
	85252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무관세	722,971	282,388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관세감축	19,459	275,827
	720917	0.5mm 이상 1mm 이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년 내 관세철폐	100,666	193,925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고무	8년 내 관세철폐	54,639	172,175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관세감축	33,815	156,427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기타 폴리	양허제외	28,657	154,261

148) Mukhopadhyay(2020), pp. 62-63 참고.

표 3-15. 계속

(단위: 천 달러)

구분	HS6	품목명	양허유형	2003~09년 평균 수입액	2010~19년 평균 수입액
한국 대인 수입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8년 내 관세철폐	1,705,915	2,084,294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8년 내 관세철폐	11,572	458,701
	720241	페로크로뮴	8년 내 관세철폐	86,479	196,901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	8년 내 관세철폐	7,246	108,768
	230649	기타 유채씨 오일	무관세	55,288	92,817
	290124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무관세	31,155	70,640
	260111	응결하지 않은 철강	8년 내 관세철폐	81,348	62,860
	100190	기타 밀과 메슬린	관세감축	6,464	61,485
	520523	면사	관세감축	108,637	60,574
	780110	정제된 연(lead)의 괴	8년 내 관세철폐	1,825	60,077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대인도 수입, 즉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협정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경질석유 및 조제품(구체적으로 나프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 발효 8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1차금속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곡물이나 면사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협정 발효로 낮아졌으나 수입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수입품목을 통해 보면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이 양국 간의 교역규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양허제외된 품목의 경우에도 협정 발효 전후 수입액에 큰 차이를 나타내며, 관세가 철폐된 품목보다 관세가 감축된 품목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는 양국간의 수입에서 품목의 다양성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CEPA 발효 이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 실적이 없다가 발효 이후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HS코드 6단위 기준 637개, 한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98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상품무역구조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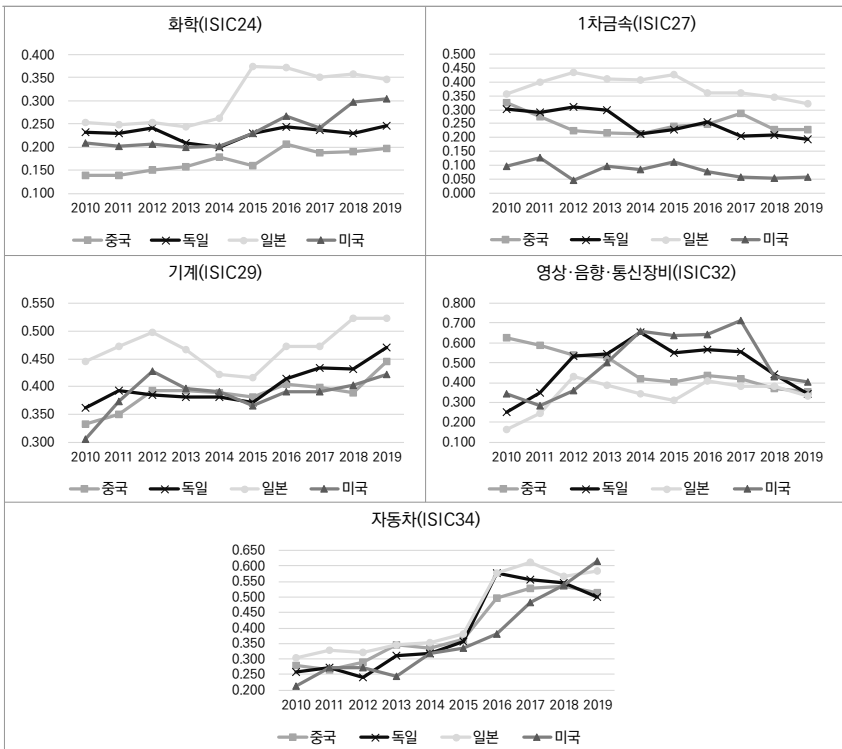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원유와 금을 제외하면 최근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산업은 대세계 수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앞으로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CEPA에 따른 한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인으로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 2011년 일-인도 CEPA 발효,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이용하였다. 두 국가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ESI는 양 국가의 특정산업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을 더한 값으로 정의되며 1에 가까울수록 두 국가의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분석대상 분야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이다.

[그림 3-28]과 같이 한국과 주요국 사이의 수출경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수출산업에서 한국은 일본과 높은 경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은 물론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합관계가 두드러졌다. 최근 인도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관련 원료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미국, 독일과의 경합도도 높아지고 있다. 1차금속 제조업에서는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주요국간 경합이 큰 편이며 그 밖에 아연은 일본, 알루미늄은 한국의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대한 철강 수출은 인도의 비관세조치 여부에 따라서 주요국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비 제조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물론 여타 주요국과의 경합

도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으로 기타 기계류(HS847989, HS848180)를 중심으로 대인도 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인도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의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보면 발효 8년 이후에도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된 다수 품목의 관세가 잔존하게 된다. 그러나 2011년 발효된 일-인도 CEPA에서는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만큼 현재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일부 품목의 수출환경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149)

그림 3-28. 주요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 비교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149) 대표적으로 폴리염화비닐(HS390410)을 들 수 있다. 동 품목은 한-인도 CEPA에서 양허되지 않았으나 일-인도 CEPA에서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른 예로 자동차부품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 일본에게 모두 미양허하였지만 한국에 대한 기준세율은 12.5%(MFN 2006), 일본에 대한 기준세율은 10%(MFN 2007)로 양허유형이 동일하더라도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에서는 미국과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큰 가운데 주요국과의 경합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대체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점차 특정 품목, 즉 디지털 전자집적회로(HS854221) 위주로 인도에 수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품목의 경우 미국의 대인도 수출도 큰 편이긴 하나 한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모든 상대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FDI 유치 및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바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주요국의 수출품목(자동차부품 위주)이나 전략은 경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3. 요약 및 소결

인도는 1991년부터 대외개방을 포함한 각종 경제개혁을 추진(2000년대 FTA 정책,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인도의 무역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개방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속도도 느린 편으로 특히 상품무역에서 그러하다. 인도는 개방화를 추진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으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3년부터 2019년 동안 인도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2.5%로 수출증가율 11.2%보다 높았다.

2000년대 이후 인도의 상품무역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분석기간에 인도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패턴의 영향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 경기둔화 시기에 수출 감소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작았다. 반면 수입에서는 경기회복 기간에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성도 더

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급감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인도 무역구조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20년 인도의 전체 수입 감소율은 23.2%로 전 세계 평균 12.3%보다 10%p 이상 더 낮았다. 이에 그간 모디 정부가 추구해 온 자립 인도 성향은 당분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도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중간재 비중이 가장 컸는데, 수출은 선진국(미국, 홍콩, 영국, 일본)에서 개도국(중국, 방글라데시, 네팔)으로, 수입은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와 원석의 수입이 많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 원자재보다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최근 수출입에서 자본재 비중이 높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인도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인도의 무역은 크게 3개의 중심 영역이 있었는데, ① 수입한 원유로 조제한 석유정제품(고속디젤, 항공터빈연료, 경유 등) 수출 ② 수입한 다이아몬드, 금, 은을 가공한 귀금속 수출 ③ 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다. 수출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기타제조업(귀금속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산업(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수입에서는 원료 및 천연자원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수입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철강, 알루미늄)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며 이러한 경향이 직접적인 원자재 수입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도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와는 중간재 교역을 통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도의 상대국별 무역결합도를 살펴보면 부탄과 가장 높았고 상위권 국가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중동 및 아프리카 상대국들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며, 인도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원유, 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ASEAN 국가들은 화학 및 전자기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인도는 GSP를 매개로 귀금속과 섬유제품을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원유와 다이아몬드 등 원자재 비중이 높았다. 최근 원유 수입 확대는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구제조치와 같은 수입억제정책을 빈번하게 실시하며 이에 따라 수출보다 수입에서의 변동성도 컸다. 수출에서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원자재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수입은 화학 및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중간재가 주도하였다.

일본과의 무역은 증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핵심 산업의 중간재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며 특히 화학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였다. 기계 수입에 대한 일본 의존도도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와 경제발전 수준에서 유사성을 가진 ASEAN과의 교역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화학, 철강, 전자기계와 같은 주요 산업의 중간재 위주 교역이 확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수출에서 자본재, 수입에서는 원자재 비중도 증가하고 있었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인도와 ASEAN 간 생산 네트워크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ASEAN 회원국 중 동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출은 음식료품과 철강산업, 수입은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EU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역 성장세는 느린 편이며 수출입에서 중간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EU는 의약품과 섬유제품의 수출시장으로 중요하며 수입은 화

학 및 기계산업 중심이었다. 시기에 따라 인도와 교역이 많은 EU 회원국은 변화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상대국은 독일로 기계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이 인도 입장에서 주요 교역국에 해당한다면 UAE는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라 할 수 있다. 즉 UAE에 대한 인도의 수출입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무역결합도 역시 높은 국가로 의미가 있다. 대UAE 무역은 수출보다 수입에서 증가세가 더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지 않는 편이었다. 수출에서는 귀금속과 석유 등의 소비재 비중이, 수입에서는 원유와 다이아몬드 등의 원자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인도 간의 상품무역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크게 확대되어 2003년 약 31억 달러에서 2019년 208억 달러로 6.8배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은 연평균 12.9%, 수입은 12.6%씩 늘어나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보다 약간 빠른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한-인도 CEPA를 기준으로 보면 발효 이전(2003~09년)에 비해 이후(2010~19년) 수출의 증가세는 대세계 평균보다 낮았고, 수입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¹⁵⁰⁾ 즉 CEPA 발효 후 인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양국이 CEPA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나프타, 철강제품 등을 대표적 품목으로 들 수 있으며 이에 1차금속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수입 역시 메모리, 자동차부품, 석유조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많았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0년 평균 기준 상대국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양허제의

150) 인도의 대한민국 최대 수출품목인 나프타는 유가와 연동되어 수출규모의 변동성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한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수출증감률을 보더라도 대세계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된 품목의 수입이 협정 발효 전후 큰 차이를 보이거나 관세가 철폐된 품목보다 감축된 품목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즉 협정의 양허유형별 수입규모를 통해 보더라도 한-인도 CEPA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은 양국간 수입에서 품목의 다양성을 높여준 계기로 의미가 있었다. CEPA 발효 이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 실적이었다가 발효 이후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HS코드 6단위 기준 637개, 한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982개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수출경합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수출산업에서 한국은 일본과 높은 경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은 물론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합관계가 두드러졌다. 한국이 인도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의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보면 발효 8년 이후에도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된 품목이 다수였다. 이러한 품목 중에는 일-인도 CEPA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도 있는바 일본과 경합하는 일부 품목의 수출환경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에서는 미국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큰 가운데 주요국과의 경합도가 최근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점차 디지털 전자집적회로 위주로만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가 자동차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FDI 유치 및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에서 주요국의 수출품목과 전략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인도의 투자 · 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본 4장에서는 인도의 대외 투자 및 서비스무역 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식별해 보도록 한다. 특히 미국, 중국, EU, ASEAN, 한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도와의 FDI 및 서비스무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현안을 살펴 보도록 한다.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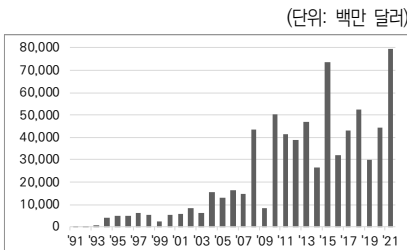
1991년 경제 개방 이후 인도 정부는 각종 규제 철폐 또는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세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투자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FDI 관련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과의 FDI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FDI 관련법으로 1999년 제정된 「인도외환관리법(FEMA)」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동 법령은 투자심사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을 인도중앙은행(RBI)에 부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대인도 FDI 자본이 자동승인(Automatic Route) 또는 정부승인(Government Route)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방·디지털 미디어·멀티 브랜드 소매 거래·제약(브라운필드)·통신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인도 정부는 해외투자자본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의 해외투자 유입액을 살펴보면(그림 4-1 참고), 1991년 1억 달러에 불과하던 대인도 투자액은 199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0년 51억 8천만 달러까지 기록했으며,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503억 6천만 달러, 734억 6천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대인도 투자를 FDI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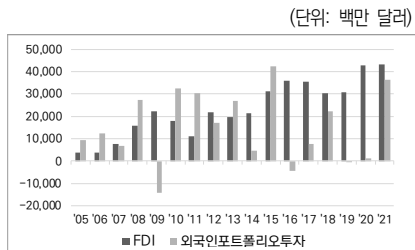
해외포트폴리오투자(FPI)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에는 FDI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가 각각 38억 달러(29%)와 93억 달러(71%)로 해외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 구성비는 2010년대에 역전돼 2012년에는 각각 56%와 44%, 2018년에는 각각 58%와 42%를 기록하였다(그림 4-2 참고).

그림 4-1. 대인도 FDI 유입액
(1991~2021년 5월)



자료: RBI(2021);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 대인도 FDI 및 외국인포트폴리오 투자(FPI) 유입액(2005~21년 5월)



자료: RBI(2021);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UNCTAD의 2020년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506억 달러 규모의 FDI를 유치했으며, FDI 유입액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8년 대비 3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또한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 및 교역환경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다. 2021년 1월 UNCTAD의 『글로벌 투자동향 보고서(Global Investment Trend Monitor)』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0년 인도에 유입된 FDI는 전년대비 13% 증가하고 국경간 인수합병(M&A)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2% 급감하며 크게 위축된 글로벌 FDI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독일 -61%, 미국 -49%, 프랑스 -39%, 인도네시아 -24% 등 대부분 국가들의 투자가 급속히 위축된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인도의 위상이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⁵¹⁾ 위상 변화의 배경으로는 2020년 크게 증가한 M&A 투자유입과 더불어 에너지, 인프라 및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FDI 등이 꼽히며, 이는 최근 인도 FDI 관련 법 개정 및 해외투자 촉진 정책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된 결과로 판단된다.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인 2020년 이 정도 수준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한 국가는 인도 이외에 중국밖에 없었다.¹⁵²⁾ 2020/21 회계연도의 FDI 유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전체 FDI에서 약 44%를 차지하며,¹⁵³⁾ 그다음으로 건설(인프라, 13%), 서비스업(8%) 등의 순이다. 인프라에 대한 FDI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화학, 제약, 금속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 비하면 비중이 낮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표 4-1 참고).¹⁵⁴⁾

표 4-1. 최근 산업별 대인도 FDI 유입(2019~21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8/19	19/20	20/21	증감
1	서비스	9,158	7,854	5,060	-
2	컴퓨터	6,415	7,673	26,145	+
3	통신	2,668	4,445	392	-
4	무역	4,462	4,574	2,608	-
5	주택 개발	213	617	422	-
6	자동차	2,623	2,824	1,637	-
7	인프라 건설	2,258	2,042	7,875	+
8	화학	1,981	1,058	847	-
9	의약	266	518	1,490	+
10	호텔 관광	1,076	2,938	369	-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 한형민(2021)에서 재인용.

151) UNCTAD(2021b), "Global Investment Trend Monitor," p. 3.

152) 2020년 전 세계 FDI 유입량이 전년대비 42% 감소한 가운데, 인도(13%) 및 중국(4%)만 증가세를 기록하였다(달력연도 기준으로 본문의 회계연도와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 UNCTAD(2021a), "Global FDI Flows Down 42% in 2020," p. 3.

153) 2020~21년 FDI 유입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은 릴라이언스(Reliance) 그룹 지분 매각을 통한 해외 투자유입이었다. 한형민(2021), p. 2.

154)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1. 5. 24), "India attracted highest ever total FDI inflow of US\$ 81.72 billion during 2020-21, 10% more than the last financial year,"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21268>(검색일: 2021. 5. 25).

대인도 주요 투자국 순위를 살펴보면(표 4-2 참고), 200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모리셔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1,461억 달러와 1,133억 달러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상위 2개국을 제외하면 3위 미국(8.2%), 4위 네덜란드(7.0%), 5위 일본(6.6%), 6위 영국(5.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인도의 전체 투자유입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인도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한-인도 간 투자관계는 다소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위 15개국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싱가포르의 투자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대인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ASEAN의 투자는 대부분 싱가포르를 통해 집중되고 있다.

표 4-2. 주요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20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누적투자액	비중
1	모리셔스	146,186	28.0
2	싱가포르	113,386	21.7
3	미국	42,607	8.2
4	네덜란드	36,287	7.0
5	일본	34,526	6.6
6	영국	30,043	5.8
7	독일	12,685	2.4
8	사이프러스	10,973	2.1
9	UAE	10,906	2.1
10	카이맨제도	10,069	1.9
11	프랑스	9,769	1.9
12	스위스	5,012	1.0
13	한국	4,830	0.9
14	홍콩	4,529	0.9
15	스페인	3,431	0.7
-	전 세계	521,589	100

주: 자료는 2000년 4월-2020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산업별 대인도 FDI 순위를 살펴보면(표 4-3 참고), 서비스업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각각 859억 달러(16.5%), 693억 달러(1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산업별 FDI 유입 현황(2000~20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누적투자액	비중
1	서비스업	85,860	16.5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69,296	13.3
3	통신	37,628	7.2
4	무역	29,736	5.7
5	건축 및 개발	25,935	5.0
6	자동차	25,395	4.9
7	인프라 및 기타 건설	23,995	4.6
8	화학	18,378	3.5
9	제약	17,746	3.4
10	호텔 및 관광	15,615	3.0
11	전력	15,359	3.0
12	금속	14,287	2.7
13	식품	10,245	2.0
14	전자기기	9,911	1.9
15	정보통신	9,834	1.9
-	총액	521,589	100

주: 1) 자료는 2000년 4월~2020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인도 주요 지역별 FDI 유입추이를 살펴보면(표 4-4 참고),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 주(州)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38억 달러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인도 최대도시인 뭄바이를 주도로 하는 마하라슈트라 주에도 전체의 27.7%가 유입되었다. 반면 약 9,100만 명의 인구(총인구의 13.8%)가 거주 중인 서벵골 주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의 0.8%만 유입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다수 나타나 대
인도 FDI가 일부 주(州)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인도 주요 지역별 FDI 유입(2000년 4월~2020년 12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지역	누적투자액	비중
1	구자라트(Gujarat)	23,830	31.9
2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20,899	27.7
3	카르나타카(Karnataka)	10,659	14.1
4	델리(Delhi)	8,193	10.8
5	타밀나두(Tamil Nadu)	2,684	3.6
6	즈하르한드(Jharkhand)	2,644	3.5
7	하리아나(Haryana)	1,861	2.5
8	텔랑가나(Telangana)	1,540	2.0
9	서벵골(West Bengal)	582	0.8
10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561	0.7
11	라자스탄(Rajasthan)	346	0.5
12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273	0.4
13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264	0.4
14	케랄라(Kerala)	264	0.4
15	펀자브(Punjab)	148	0.2
-	합계	75,352	100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DI가 유입되는 주요 지역별 투자환경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환경을 갖춘 구자라트(Gujarat) 주는 석유화학, 섬유, 제약, 자동차, 보석 등을 필두로 인도 내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자라트 주는 42개의 항구, 18개의 국내공항, 1개의 국제공항 등 물류 및 교통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⁵⁵⁾ 또한 현재 20개의 특별경제구역(SEZ), 8개의 특별투자지역(SIR)과 함께 산업

155) FDI India, GUJARAT, <https://www.fdi.finance/states/gujarat/>(검색일: 2021. 6. 10).

단지 202곳이 구자라트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⁶⁾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자라트 주에 유입된 FDI는 2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외투자기업으로는 포드(Ford, 자동차), 혼다(Honda, 자동차), 스즈키(Suzuki, 자동차), 아이비엠(IBM, 기술 및 컨설팅), 오라클(Oracle, 소프트웨어), 펩시(Pepsi, 음료), 지멘스(Siemens, 엔지니어링), 클라란스(Clarins, 화장품 및 향수) 등이 있다.

인도의 최대도시이며 금융수도로도 불리는 뭄바이가 위치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는 다수의 산업 클러스터, 특히 자동차, IT 및 ITeS, 화학, 섬유 및 식품가공 등 산업분야의 클러스터가 크게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인도 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2017/18 회계연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지역내총생산(Gross State Domestic Product)은 인도 전체 GDP의 15.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하라슈트라 주는 4개의 국제공항 및 7개의 국내공항과 함께 총 길이 30만 9천 km 이상의 도로망과 6,210km의 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며, 720km에 달하는 해안선에 위치한 55개의 항구를 통해 인도 전체 화물운송의 약 22%가 처리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는 2020년 인도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가 발표한 Export Preparedness Index(EPI)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입 및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⁵⁷⁾

200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자라트 주에 유입된 FDI는 약 208억 9천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도의 총 FDI 유입액의 27.7% 수준이다. 주요 해외투자기업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자동차), 폭스바겐(Volkswagen, 자동차), 쉐들러(Schindler, 엘리베이터), 화이자

156) Invest India, GUJARAT,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gujarat>(검색일: 2021. 6. 10).

157) Invest India, Maharashtra,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maharashtra>(검색일: 2021. 6. 10).

(Pfizer, 제약), 코카-콜라(Coca-Cola, 식음료) 등이 있다.

한편 인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인도의 실리콘벨리’로 통하는 IT 산업 중심지 벵갈루루(Bengaluru)를 주도로 하는 카르나타카(Karnataka) 주는 자동차, 전자, 식품가공, 증장비 및 섬유 산업이 발달해 관련 분야에서 인도 내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지역이다. 카르나타카 주는 망갈로르(Mangalore) 항 및 2개의 국제공항, 5개의 국내공항을 통해 역내 및 역외 경제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⁵⁸⁾¹⁵⁹⁾ FDI 유입액은 2000년 4월부터 2020년까지 106억 6천 달러가 카르나타카 주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벵갈루루를 포함해 카르나타카 주에 진출한 주요 해외투자기업은 토요타(Toyota, 자동차), 델파이(Delphi, 소프트웨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인프라 및 제조), 인텔 코퍼레이션(Intel Corporation, 반도체), 엔비디아(NVIDIA, 반도체 및 하드웨어), 퀄컴(Qualcomm, 무선통신) 등으로 IT 및 테크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인 뉴델리가 위치하고 있는 델리 국가수도지구(NCT of Delhi)는 도시 화율(urbanization rate)이 98%에 달해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지역으로 꼽힌다.¹⁶⁰⁾ 주요 정부기관 및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 및 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 및 풍부한 인적자원 등 인도 내 가장 우수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19 회계연도 기준 델리 국가수도지구(NCT)의 지역내총생산은 1,090억 달러를 기록해 인도 전체 GDP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¹⁾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델리 국가수도지구에 유입된 FDI는 81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델리 등 네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직접투자액

158) FDI India, Karnataka <https://www.fdi.finance/states/karnataka>(검색일: 2021. 6. 10).

159) Invest India, Karnataka,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karnataka>(검색일: 2021. 6. 10).

160) IIG, Delhi, <https://indiainvestmentgrid.gov.in/states/delhi>(검색일: 2021. 6. 10).

161) Invest India, DELHI,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delhi>(검색일: 2021. 6. 10).

은 전체의 8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전 세계 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FDI)¹⁶² 현황을 살펴보면(표 4-5 및 그림 4-3 참고), 인도의 OFDI는 최근 10년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총 투자 횟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0년 405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던 OFDI는 2015년 224억 달러, 2019년 142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207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총 투자 횟수는 2010년 3,716회에 불과했으나 2018년 6,224회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20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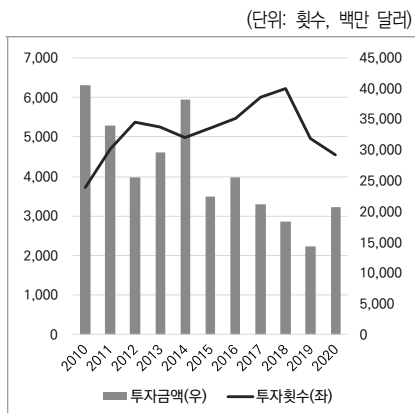
표 4-5.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투자 횟수	지분 투자	대출	보증	합계
2010	3,716	7,484	5,360	27,668	40,512
2011	4,701	8,011	9,629	16,297	33,938
2012	5,362	5,597	4,942	15,062	25,601
2013	5,245	5,327	3,876	20,386	29,589
2014	4,980	9,070	2,908	26,268	38,247
2015	5,225	3,485	3,285	15,726	22,496
2016	5,461	9,007	3,407	13,134	25,548
2017	6,009	7,074	5,321	8,726	21,121
2018	6,224	6,230	4,216	7,965	18,411
2019	4,955	3,461	4,624	6,173	14,259
2020	4,557	5,612	6,129	9,054	20,795
합계	56,435	70,358	53,697	166,461	290,516

주: 1) 2019년 8~10월 수치는 자료 누락으로 미반영.
 2) 합계는 지분투자, 대출, 보증의 합계액.
 자료: Reserve Bank of India(2021, 검색일: 2021. 6. 1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3. 인도의 해외직접투자액(OFDI) 추이



자료: Reserve Bank of India(2021, 검색일: 2021. 6. 1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0년 이후 인도의 주요 투자대상국 현황을 살펴보면(표 4-6 참고), 2010년 부터 2020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인도는 싱가포르와 모리셔스에 각각 610억 달러와 517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는 네덜란드

162) 본 장에서는 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인도의 대세계 직접투자를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3위, 441억 달러), 미국(4위, 289억 달러), UAE(5위, 162억 달러), 영국(6위, 157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상위 10개 OFDI 대상국에 싱가포르, 모리셔스, 영국령 버진제도, 케이맨 제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혜택의 장점을 가진 투자대상국에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4개국 대상 투자금액은 1,276억 달러로 인도의 전 세계 163개국 대상 투자 총액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주요국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추이(2010~20년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투자 횟수	지분 투자	대출	보증	합계
1	싱가포르	9,289	10,173	13,488	37,367	61,028
2	모리셔스	3,403	13,586	8,560	29,635	51,781
3	네덜란드	1,923	4,827	6,388	32,901	44,116
4	미국	9,747	9,133	6,637	13,099	28,869
5	UAE	6,573	3,524	3,250	9,444	16,217
6	영국	3,779	5,492	2,840	7,416	15,748
7	스위스	759	1,253	3,198	7,296	11,747
8	영국령 버진제도	576	4,336	1,190	3,804	9,331
9	케이맨 제도	178	391	468	4,638	5,497
10	호주	1,004	689	311	3,408	4,409
-	총합계(163개국)	56,435	70,358	53,697	166,461	290,516

자료: Reserve Bank of India(2021, 검색일: 2021. 6. 1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주요 산업별 인도의 OFDI 현황의 순위를 살펴보면(표 4-7 참고), 인도는 투자 횟수 및 금액 측면에서 제조업과 금융·보험 및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의 투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2개 업종과 교통·통신 및 창고업 등 상위 3개 업종 관련 투자금액은 총 1,934억 달러로 이는 총 OFDI의 66.5%에 해당한다.

표 4-7. 주요 업종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OFDI) 추이(2020년 1~12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업종	투자 횟수	지분 투자	대출	보증	합계
1	제조업	16,265	18,110	15,402	49,983	83,495
2	금융, 보험 및 비즈니스 서비스	14,746	20,948	14,826	21,981	57,755
3	교통, 통신 및 창고업	2,841	3,756	6,080	42,385	52,221
4	농광업	4,319	12,922	3,849	17,587	34,358
5	도소매, 외식 및 숙박업	10,861	7,091	8,375	17,410	32,876
6	건설업	2,943	2,585	2,058	12,240	16,884
7	사회복지 및 개인서비스	3,098	3,057	1,700	2,797	7,554
8	전력, 가스 및 상수도	919	1,522	851	1,243	3,616
9	기타	443	366	556	835	1,758
-	합계	56,435	70,358	53,697	166,461	290,516

자료: Reserve Bank of India(2021, 검색일: 2021. 6. 1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주요 국가별

1) 미국

경제 개방 이후 인도 정부는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총리 집권 이후 첫 미국 방문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미 정상은 양국 기관 투자자 및 기업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투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자본 시장 및 인프라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¹⁶³⁾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2016년 6월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수협력 및 방산기

163) The White House(2014. 9. 30). "U.S.-India Joint Statemen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9/30/us-India-joint-statement>(검색일: 2021. 6. 27).

술 공유 등 국방·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동 방문을 계기로 미국 원전건설사와 인도 정부 간 인도 내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합의¹⁶⁴⁾와 더불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의 3억 달러 규모 인도 투자계획도 발표되었다.¹⁶⁵⁾

미국과 인도 양국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인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상품 수출시장(대세계 수출의 17% 비중)이었고, 중국(14%), EU(9%)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상품 수입대상국(7%)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대인도 FDI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미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시장진출이 이행되기도 하였다.¹⁶⁶⁾

인도 정부는 FDI 및 외국 기업 비즈니스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보험 및 국방 산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FDI 제도 관련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FDI 관련 규제 완화 등 인도 정부의 대외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인도 FDI는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의 투자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미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투자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정부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아마존·플립카드(Flipkart)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인도 내에서 비즈니스 수행에 많은 부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및 인도

16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6. 6. 7), "India-US Joint Statement during the visit of Prime Minister to USA,"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6879/IndiaUS_Joint_Statement_during_the_visit_of_Prime_Minister_to_USA_The_United_States_and_India_Enduring_Global_Partners_in_the_21st_Century(검색일: 2021. 6. 27).

165) "Amazon to increase India investment to \$5 billion"(2016. 6. 8),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Amazon-to-increase-India-investment-to-5-billion/article14391866.ece>(검색일: 2021. 6. 27).

16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12. 23), U.S.-India Trade Relations.

진출 주요 기업들은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특히 규제 투명성,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문제, 불합리한 현지화 강요 정책 등이 활발한 FDI 유입을 저해하는 심각한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해오고 있다.

최근 20년간 미국의 대인도 FDI는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수년 동안 더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4-8 및 그림 4-4 참고). 2000년 4억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의 대인도 투자액은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0년 14억 달러 및 2015년 3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구글(Google)·페이스북(Facebook) 등 IT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나타난 2020년에는 14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다.

2020년 1월에 아마존이 10억 달러, 4월에는 페이스북이 57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구글이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IT 및 디지털 분야 미국 거대기업들의 인도 투자 러시가 이어졌다.¹⁶⁷⁾

한편 인도의 대미국 OFDI는 2000년대 이후로 매년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꾸준한 투자진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346억 8천만 달러이며, 인도는 293억 8천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 "China's Closed. So Google Invests \$10 Billion In India, Following Facebook, Amazon, Apple"(2020. 7. 13). <https://www.forbes.com/sites/johnkoetsier/2020/07/13/chinas-closed-so-google-invests-10-billion-in-india-following-facebook-amazon-apple/?sh=3d6cfc962b01>(검색일: 2021.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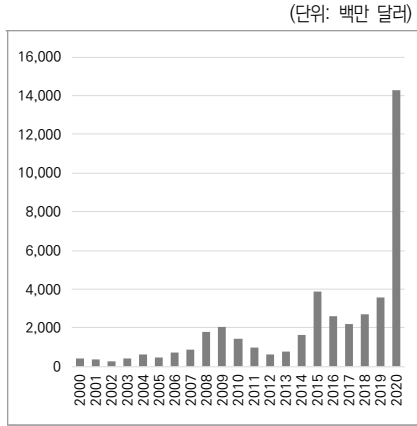
표 4-8. 인도-미국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미국 → 인도		인도 → 미국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1,414	6.7	2,087
2011	1,000	2.9	1,784
2012	639	2.8	2,943
2013	772	3.5	2,388
2014	1,663	5.8	1,801
2015	3,855	10.1	3,001
2016	2,621	5.6	2,285
2017	2,183	5.0	3,978
2018	2,693	6.3	3,177
2019	3,590	7.5	2,316
2020	14,258	22.0	3,623
합계	34,688	-	29,384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미국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4. 미국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업종별 미국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9 참고), 2000년부터 2019년 기간의 누적투자금액 기준 미국은 서비스업 투자가 21.1%로 타 업종 대비 크게 높았으며, 이외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9.7%), 인프라 및 건설(10.3%), 자동차 산업(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주요 업종별 미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투자금액	비중
1	서비스업	6,007	21.08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5,622	19.73
3	인프라 및 건설	2,943	10.33
4	자동차	2,450	8.6
5	무역	916	3.22
-	합계(상위 5개 업종)	17,938	62.96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중국

인구수 기준 전 세계 1·2위이며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 관계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2000년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의 교역액은 2008년 양자 무역이 518억 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95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⁶⁸⁾ 양국간 교역 규모에 비해 투자관계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 후반까지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서비스업 투자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대인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7억 4,700만 달러 규모이며, 특히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수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중국의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규모는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9월 기준 중국에 대한 인도의 누적 FDI는 8억 5,190만 달러로 나타나 중국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⁹⁾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국 기업들이 현재 인도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Sinosteel(제철), Baoshan Iron & Steel Ltd(제철), Sany Heavy Industry Ltd(중공업), Chongqing Lifan Industry Ltd(자동차 제조업) 등 국영기업을 들 수 있으며, 다수의 민간기업도 인도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샤오미(Xiaomi), 화웨이(Huawei), 비보(Vivo), 오포(Oppo) 등 중국 모바일 기업들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인도 모바일 단말기 시장점유율은 2018년 60%, 2019년 7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⁰⁾ 한편 중국 진출 인도 주요

168) Embassy of India in Beijing China(2019), "India-China Bilateral Relations," p. 5.

169) ORF(2021. 6. 5), "Chinese investments in Indian startups: Trends and controversies,"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chinese-investments-in-indian-startups-trends-and-controversies/>(검색일: 2021. 6. 24).

170) Counterpoint(2020), "India Surpassed the USA to Become the Second Largest Smartphone

기업으로는 Dr. Reddy's Laboratories(제약업), Aurobindo Pharma(제약업) Infosys(IT 및 컨설팅), Wipro(IT 및 컨설팅), Mahindra Satyam(IT) 등의 서비스 기업 및 Suzlon Energy(풍력발전시설 제조업), Mahindra & Mahindra(자동차 제조업), TATA(제조업) 등의 제조기업 등이 있다.¹⁷¹⁾

최근 인도와 중국 간 투자관계에서 주요 쟁점은 중국의 대인도 IT 및 기술 분야 투자진출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양국간 정치·외교적 갈등 등으로 더욱 크게 고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활발한 FDI를 통해 인도 기술 및 IT 분야의 영향력을 크게 높여왔다. 인도 싱크탱크인 게이트하우스(Gateway House)는 중국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여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선점해 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⁷²⁾ [표 4-10]과 같이 중국의 인도 유니콘 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스냅딜(Snapdeal), 스위기(Swiggy), 올라(Ola) 등 18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중국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인도의 유니콘 기업이 총 21개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¹⁷³⁾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스타트업 및 기술 산업 분야에 중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통해서도 인도 시장에 우회적으로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¹⁷⁴⁾

Market in the World Reaching 158 Million Shipments in 2019,"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india-surpassed-usa-become-second-largest-smartphone-market-world-reaching-158-million-shipments-2019/>(검색일: 2021. 6. 24).

171) Embassy of India in Beijing China(2019), "India-China Bilateral Relations," pp. 6-7.

172) Gateway House(2020), "Chinese investments in India," p. 6.

173) cnbctv18(2020. 8. 4), "India is home to 21 unicorns, collectively valued at \$73.2 billion: Hurun Global Unicorn List 2020," <https://www.cnbctv18.com/startup/india-is-home-to-21-unicorns-collectively-valued-at-732-billion-hurun-global-unicorn-list-2020-6538511.htm>(검색일: 2021. 6. 24).

174) FDI India(2020), "China Can't Use Singapore to Push FDI into India"(검색일: 2021. 9. 30).

표 4-10. 중국의 주요 인도 유니콘 기업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브랜드명	기업명	업종	중국 투자기업	투자금액
Snapdeal	Jasper Infotech Pvt. Ltd.	전자 상거래	Alibaba Group, FIH Mobile Ltd (Foxconn Technology Group 자회사)	>700
Swiggy	Bundl Technologies Pvt. Ltd.	음식 배달	Meituan Dianping, Hillhouse Capital, Tencent Holdings, SAIF Partners	>500
Ola	ANI Technologies Pvt. Ltd.	차량 공유 서비스	Tencent Holdings, Steadview Capital, Sailing Capital and China 등	>500
Paytm.com	One97 Communications Ltd.	전자결제 서비스	Alibaba Group(Alipay Singapore Holding Pvt. Ltd.), SAIF Partners	>400
Flipkart	Walmart	전자 상거래	Steadview Capital, Tencent Holdings	>300
BigBasket	Innovative Retail Concepts Pvt. Ltd.	소매업	Alibaba Group, TR Capital	>250
Dream 11	Sporta Technologies Pvt. Ltd.	온라인 게임	Steadview Capital, Tencent Holdings	>150
Hike	Hike Messenger Ltd.	모바일 메신저	Tencent Holdings, Foxconn	>150
Byju's	Think and Learn Pvt. Ltd.	온라인 교육	Tencent Holdings	>50
Delhivery	Delhivery Pvt. Ltd.	물류(배달)	Fosun	>25

자료: Gateway House(2020).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도 정부는 중국 자본의 인도 IT 및 기술 산업 잠식에 대해 규제강화 등의 정책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2020년 4월 인도 정부는 중국 등 접경국으로부터 대부분의 FDI를 기존 자동승인 방식(automatic route)에서 정부승인 방식(Government route)으로 변경하는 규제강화 조치를 발표했다.¹⁷⁵⁾ 당시 인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도 경제가 크게 침체된 시기에 외국자본의 기회주의적 M&A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¹⁷⁶⁾

175) 인도산업정책진흥국 DPIIT(2020), p. 14.

인도와 중국 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1 및 그림 4-5 참고), 2000년 2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인도 투자액은 2009년부터 점차 증가해 2015년 8억 6천만 달러까지 성장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1억 7천만 달러와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대 중반 나타난 중국 FDI의 높은 상승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인도 기술 및 IT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기조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20년 중국의 투자금액이 급감한 배경으로는 2020년 4월 인도 정부가 중국 등 접경국으로부터 FDI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인도의 대중국 OFDI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천만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3,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23억 8천만 달러이며, 인도는 5억 8천만 달러를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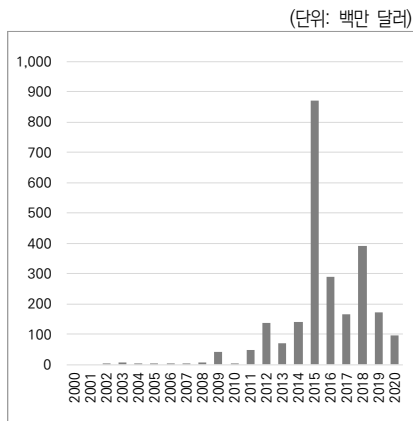
표 4-11. 인도-중국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 → 인도		인도 → 중국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1.0	0.0	32.9
2011	49.5	0.1	53.1
2012	138.3	0.6	57.3
2013	72.2	0.3	77.8
2014	140.8	0.5	73.9
2015	869.0	2.3	79.8
2016	288.9	0.6	45.5
2017	165.3	0.4	61.5
2018	391.2	0.9	23.2
2019	173.9	0.4	41.4
2020	96.7	0.1	36.4
합계	2,387	-	582.9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중국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5. 중국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76) 인도산업정책진흥국 DPIIT(2020a), "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for curbing opportunistic takeovers/acquisitions of Indian companies due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pn3_2020.pdf(검색일: 2021. 6. 24).

3) 일본

인도와 일본은 오랜 기간 친밀한 외교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 협력은 교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195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000년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2006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등으로 상호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어서 2014년에는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으로 격상됐다. 특히 양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토대로 2010년대 이후 군사 및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일본-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어 이후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 긴밀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와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협력 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일본은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 및 거대한 규모와 성장성을 지닌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근거로 대인도 교역 및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집계된 일본의 대인도 누적투자금액은 320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각각 58억 달러, 3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2016년과 2019년 기간에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FDI 분야는 주로 자동차, 전기장비, 통신, 화학, 금융(보험) 및 제약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에 진출해 사업 중인 일본 기업의 수는 1,441개로 집계되었다. 한편 2020년 기준 일본 진출 인도 기업의 수는 약 100개로 조사되었다.¹⁷⁷⁾

177) Embassy of India in Tokyo(2020), “Brief Note on India-Japan Bilateral Relations,” p. 4.

일본 기업들은 인도 전역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까지 구자라트, 라자스탄,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등 9개 주에 12개의 일본기업전용 산업단지(Japanese industrial township)가 분포하고 있으며 아쌈(Assam) 주 내 열세 번째 전용산업단지 허가 계획을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이 최근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⁷⁸⁾

일본은 인도와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교역 및 투자관계를 구축해온 주요국으로 꼽힌다. 인도와 일본의 상호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2 및 그림 4-6 참고), 2000년 2억 2천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던 대인도 투자액은 200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성장해 2010년 12억 9천 5백만 달러 및 2016년 57억 8천 백만 달러 수준까지 기록했다. 다만 이후에는 20억~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인도로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 투자액의 7% 수준을 담당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기초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의 대일본 OFDI는 2010년 120만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13년 5천만 달러, 2015년 2,700만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인도 최대의 숙박예약 플랫폼 기업인 오요(OYO)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268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

178) "India plans to set up Japanese industrial township in Assam: DPIIT Secretary"(2020. 8. 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frastructure/road-ministry-to-see-cabinet-nod-for-townships-alongside-highways-nitin-gadkari/articleshow/84264931.cms>(검색일: 2021.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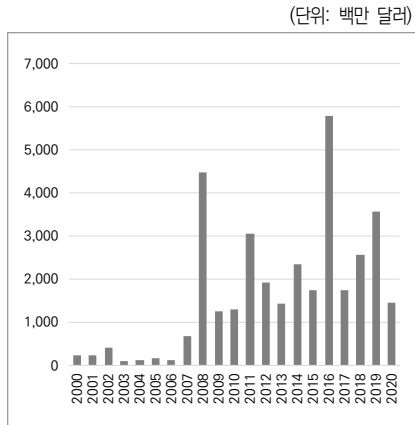
표 4-12. 인도-일본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일본 → 인도		인도 → 일본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1,295	6.2	1.2
2011	3,058	8.8	4.0
2012	1,909	8.4	9.5
2013	1,421	6.4	50.4
2014	2,335	8.1	10.1
2015	1,739	4.6	26.6
2016	5,781	12.5	5.9
2017	1,745	4.0	2.9
2018	2,558	6.0	2.3
2019	3,561	7.5	422.4
2020	1,446	2.2	3.4
합계	26,850	-	538.8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일본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6. 일본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요 업종별 일본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3 참고), 2000년부터 2019년 기간의 누적투자금액 기준 일본은 자동차산업 투자가 19.9%로 타 업종 대비 크게 높았으며, 이외에는 서비스업(15.3%), 의약 및 제약(13.5%), 금속산업(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주요 업종별 일본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1	자동차	6,608.97	19.93
2	서비스업	5,087.96	15.34
3	의약 및 제약	4,468.34	13.47
4	금속산업	2,677.06	8.07
5	통신	2,159.29	6.51
-	합계(상위 5개 업종)	21,001.62	63.32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또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결성된 아시아 내 국가연합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 비국가 대화 파트너(Non-Country Dialogue Partner),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로 대화상대국을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는 대화상대국으로 아세안과 교류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1992년 부분대화상대국, 1995년 대화상대국으로 인도의 대아세안 관계가 격상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차 인도-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후 양자간 정상회의가 연례화되었으며, 2015년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인도 모디 정부의 싯동방 정책(Act East Policy)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2015년 7월에는 인-아세안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아세안 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인도로 유입되는 투자유입액의 약 18% 정도가 아세안에서 유입된 투자로 나타났으며, 2000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SEAN에서 인도로 유입된 FDI는 약 689억 1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¹⁷⁹⁾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ASEAN 국가에서 총 2,000여 개의 인도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와 아세안의 상호 투자관계는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주요 근거로 첫째, 2000년 이후 인도와 아세안 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을 들 수 있다. 2005년 인도-싱가포르 자유무

179)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8), "India- ASEAN Relations," <https://mea.gov.in/asean-india/20-years.htm>(검색일: 2021. 6. 24).

역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및 2011년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경제협정(MICECA: The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등의 무역협정 체결과 더불어 2020년에는 인도-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된 바 있다.¹⁸⁰⁾ 또한 약 3,100만 명의 해외이주 인도인 중 1/5인 약 600만 명을 차지하는 아세안 내 인도 인구¹⁸¹⁾를 통한 인적 교류도 양자간 투자관계 증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²⁾

2010~20년 기간 총 투자금액 기준으로 ASEAN은 인도의 1위 FDI 파트너로 꼽힌다. 특히 최근 10년간 ASEAN의 대인도 FDI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4-14 및 그림 4-7 참고). 2000년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ASEAN의 대인도 투자액은 2010년 26억 달러, 2015년 13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순이며, 동남아 지역에서 인도로 유입되는 전체 FDI의 99%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인도-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및 최근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Treaty) 개정 등으로 인한 인도 정부 차원의 대외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있었다.¹⁸³⁾

한편 인도도 매년 40억에서 60억 달러 수준의 대ASEAN OFDI를 기록하는 등 아세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ASEAN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1,060억 달러이며, 인도는 653억 달러를 ASEAN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 Government of Singapore(2019. 9. 24), "INCOME TAX ACT," <https://sso.agc.gov.sg/SL-Supp/S647-2019/Published?DocDate=20190930&ProvIds>(검색일: 2021. 6. 24).

181) "Indian diaspora can be 'a bridge for closer Asean-India ties'"(2018. 1. 8), <https://www.straitstimes.com/asia/indian-diaspora-can-be-a-bridge-for-closer-asean-india-ties> (검색일: 2021. 6. 24).

182) ISEAS(2018), pp. 5-8.

183) "Singapore is top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India"(2019. 6. 6), <https://www.straitstimes.com/asia/south-asia/spore-is-top-source-of-foreign-direct-investment-into-india>(검색일: 2021.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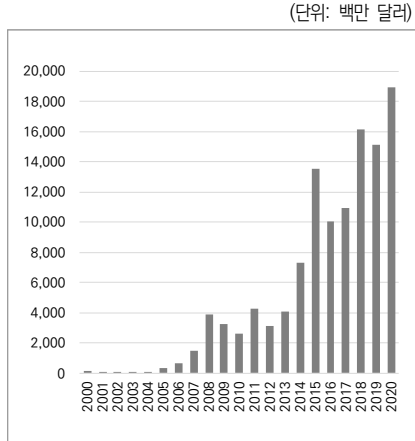
표 4-14. 인도-ASEAN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ASEAN → 인도		인도 → ASEAN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2,614	12.4	12,474
2011	4,288	12.4	7,814
2012	3,150	13.8	4,475
2013	4,052	18.4	4,975
2014	7,311	25.4	6,753
2015	13,511	35.4	5,901
2016	10,034	21.6	5,943
2017	10,948	25.1	5,713
2018	16,129	38.0	2,877
2019	15,145	31.8	4,319
2020	18,909	29.2	4,045
합계	106,092	-	65,288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ASEAN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7. ASEAN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요 업종별 ASEAN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5 참고), 2000년부터 2019년 기간의 누적투자금액 기준 ASEAN은 서비스업 투자가 20.4%로 타 업종 대비 크게 높았으며, 이외에는 무역(13.5%),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1.8%), 통신(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주요 업종별 ASEAN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1	서비스업	19,861.31	20.43
2	무역	13,162.80	13.54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11,487.62	11.82
4	통신	7,626.96	7.85
5	인프라 및 건설	6,151.90	6.33
-	합계(상위 5개 업종)	58,290.59	59.97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주요국의 대아세안 2010~17년 누적 O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6 및 그림 4-8 참고), 역내 투자를 제외하고 미국(12.8%), 일본(12%), 중국(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는 1.7%로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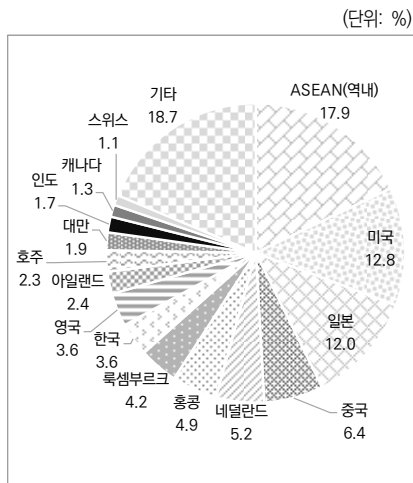
표 4-16. 주요국의 대아세안 누적 OFDI(201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투자국	투자액(누적)	비중
1	ASEAN(역내)	169,525	17.9
2	미국	120,988	12.8
3	일본	113,779	12
4	중국	60,415	6.4
5	네덜란드	49,095	5.2
6	홍콩	46,199	4.9
7	룩셈부르크	39,924	4.2
8	한국	34,288	3.6
9	영국	34,121	3.6
10	아일랜드	22,430	2.4
11	호주	21,531	2.3
12	대만	17,510	1.9
13	인도	16,378	1.7
14	캐나다	12,340	1.3
15	스위스	10,193	1.1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p. 55.

그림 4-8. 주요국의 대아세안 누적 OFDI(2010~17년)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p. 55.

[표 4-17]과 같이 업종별 인도의 대아세안 OFDI 추이(2012~16년)를 살펴 보면, 인도의 아세안 OFDI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98.9%에 달하였다. 서비스업 세부업종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 절반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서비스업, 부동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주요 업종별 인도의 대아세안 OFDI 추이(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산업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합계
농어업	8.7	4.6	4.7	3.5	4.4	25.8
광업	-0.7	0.4	-0.1	0.2	2.9	2.7
제조업	109.4	66.2	34.2	-131.4	20.2	98.6
서비스업	7,193.7	2,036.9	1,177.4	1,089.3	1,021.1	12,518.4
도소매·자동차수리	633.9	192.1	25.1	131.5	199	1,181.6
교통·운송	-451.5	-17	36.6	0.4	41	-390.5
금융·보험	5,619.6	1,067.6	771.5	525.7	-578.4	7,405.9
부동산	9.1	1.3	428.7	296	276.2	1,011.4
합계	7,311.1	2,108.1	1,216.2	961.6	1,048.6	12,645.5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p. 55.

5) EU 및 영국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전 세계 두 번째 수출대상국(2019년 기준)으로 꼽히는 등 인도와 EU의 경제관계는 상호 대외 경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와 EU의 합산 경제규모는 1조 6,500억 달러이며 합산 인구가 18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양자의 합산 대세계 OFDI는 잔액 기준으로 약 1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¹⁸⁴⁾

인도는 196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의 수교를 계기로 EU와 교류를 심화하였다. 인도와 EU는 2000년 1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2004년 회담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으로 상호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2020년 7월 15차 인도-EU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외교·안보·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EU 전략적 파트너십(EU-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Roadmap to 2025)’을 채택하는 한편,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 관련 논의를

184) European Council(2021), “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 factsheet,” pp. 1-2.

위한 장관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중인 인도와 EU 간 무역협정 관련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2007년 협상이 개시된 인-EU FTA는 서비스 시장 및 투자 자유화, 농산물 시장 개방정도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3년 이후 장기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¹⁸⁵⁾

이어서 2021년 5월 인도와 EU 정상은 FTA 협상을 재개하는 안에 합의하였으며, 양자간 교역 및 투자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EU 연결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을 체결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양자간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연결성(Digital connectivity), 에너지 연결성(Energy connectivity), 교통 연결성(Transport connectivity), 인적교류 연결성(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등 네 분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도·EU·개발도상국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합의로 향후 양자간 활발한 투자활동이 전망되고 있다.¹⁸⁶⁾

인도로 유입되는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8%에서 18%로 대폭 증가하면서 EU는 인도의 핵심 FDI 주체가 되었다.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 통계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EU에서 인도로 유입된 전체 FDI는 총 86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6,000개의 유럽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제조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0만 개의 직접고용과 500만 개의 간접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에 대한 인도의 OFDI는 총 6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¹⁸⁷⁾

한편 인도와 EU는 2017년 7월 상호간 투자촉진 메커니즘(IFM: Investment

185) European Council(2020. 7. 15), “Joint Statement - 15th EU-India Summit, 15 July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7/15/joint-statement-15th-eu-india-summit-15-july-2020/>(검색일: 2021. 7. 2).

186) European Council(2021), “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 pp. 1-3.

187)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1), “India-European Union Bilateral Relations,” pp. 3-5.

Facilitation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발표하면서 향후 EU의 인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인도 EU 투자자 및 진출기업들의 활동 저해요인을 식별하고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인도산업정책진흥국(DPIIT)과 인도 주재 EU 대표단이 정기적인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인도와 EU의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8 및 그림 4-9 참고), 2000년 5억 달러를 기록한 EU의 대인도 투자액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2010년 45억 달러, 2015년 7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2020년에도 113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한편 인도의 대EU OFDI는 2014년 138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매년 2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EU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943억 5천만 달러이며, 인도는 655억 4천만 달러를 EU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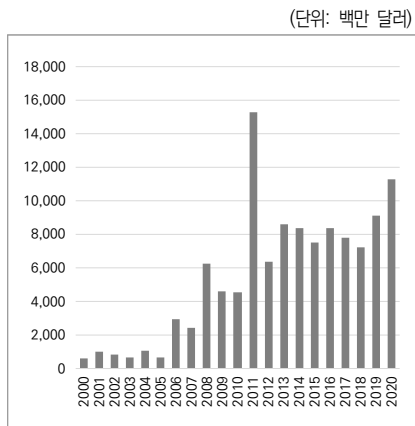
표 4-18. 인도-EU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EU → 인도		인도 → EU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4,522	21.5	9,280
2011	15,260	44.1	5,261
2012	6,351	27.9	5,846
2013	8,610	39.1	9,678
2014	8,348	29.0	13,816
2015	7,483	19.6	3,487
2016	8,355	18.0	3,719
2017	7,804	17.9	4,229
2018	7,227	17.0	4,506
2019	9,116	19.1	3,190
2020	11,271	17.4	2,532
합계	94,347	-	65,542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EU의 비율.
 3) 2020년 통계는 영국 제외.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9. EU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주요 업종별 EU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19 참고),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중 누적투자금액 기준 EU는 서비스업 투자가 14.2%로 타 업종 대비 크게 높았으며, 이외에는 화학(9.8%), 자동차(7%),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주요 업종별 EU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1	서비스업	14,753.02	14.18
2	화학산업(비료 제외)	10,195.05	9.8
3	자동차	7,329.91	7.04
4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7,127.43	6.85
5	의약 및 제약	5,835.86	5.61
-	합계(상위 5개 업종)	45,241.27	43.48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영국은 인도와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토대로 상호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했으며, 특히 투자관계는 양자 경제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5년 인도와 영국은 투자 및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영국-인도합동경제투자위원회(JETCO: UK-India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를 설립하였으며, 양국 재무장관 간 회담인 인-영 경제 및 재무회담(EFD: Indo-British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도 연례 개최되고 있다.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대인도 투자국인 영국은 200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누적금액 기준으로 3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600개의 영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했으며 인도 내 8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¹⁸⁸⁾ 한편 인도도 다수

188) *Ibid.*

기업이 영국에 진출해 있고 신규 진출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 수는 850개에 이르며 현지에서 11만 6천여 명을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인도는 99건의 대영국 투자를 단행하며, 해당 연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영국 투자국이 되었다.¹⁸⁹⁾

인도와 영국의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6,500만 달러를 기록한 영국의 대인도 투자는 최근까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2011년, 2013년, 2020년을 제외하고 20억 달러 미만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다만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의 대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투자 사례로는 영국 정유기업 BP가 2011년 9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도 석유가스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일부 지분매입(acquisition of partial interest)을 통한 시장진출을 선택한 BP는 인도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td.)의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발표하였다.¹⁹⁰⁾ 한편 인도의 대영국 OFDI도 최근 활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이후 영국에 연평균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인도는 2016~18년에는 영국의 투자액을 상회하는 투자 흐름을 보인 바 있다.

189) High commission of India(2021), "BRIEF ON INDIA-UK ECONOMIC RELATIONS," <https://www.hcilondon.gov.in/docs/1633948114General%20Economic%20Brief%20India-UK.pdf>(검색일: 2021. 10. 1).

190) "RIL eyes short-term gains from \$9 bn BP deal"(2011. 3. 20), <https://www.businesstoday.in/magazine/features/story/mukesh-ambani-ril-and-british-oil-major-bp-deal-24107-2011-07-23>(검색일: 2021.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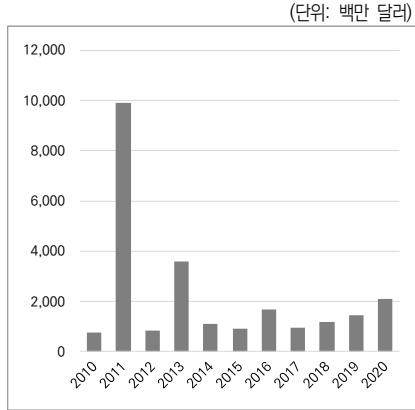
표 4-20. 인도-영국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영국 → 인도		인도 → 영국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748	3.6	691
2011	9,902	28.6	1,675
2012	829	3.6	1,254
2013	3,606	16.4	1,647
2014	1,096	3.8	562
2015	920	2.4	779
2016	1,661	3.6	2,096
2017	937	2.1	2,180
2018	1,183	2.8	1,984
2019	1,443	3.0	1,248
2020	2,106	3.3	1,931
합계	24,432	-	16,047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영국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0. 영국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한편 주요 업종별 영국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21 참고), 2000년 부터 2019년 기간 중 누적투자금액 기준 영국은 화학산업 투자가 20.99%로 타 업종 대비 크게 높았으며, 이외에는 의약 및 제약(15.47%), 서비스(13.84%), 식품 유통(10.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화학, 자동차 등에 집중된 EU의 대인도 투자와 비교해보면 영국은 의약 및 제약, 식품 유통, 석유 및 천연 가스 분야에서도 대인도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주요 업종별 영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1	화학산업(비료 제외)	5,867.90	20.99
2	의약 및 제약	4,323.11	15.47
3	서비스업	3,867.47	13.84
4	식품 유통	3,067.21	10.97
5	석유 및 천연가스	2,350.51	8.41
-	합계(상위 5개 업종)	19,476.20	69.68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UAE 및 남아프리카

인도와 UAE는 역사적으로 오랜 과거부터 지속된 문화·종교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971년 아랍에미리트연방이 출범하면서 양국간 경제 및 외교관계가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인도 총리로서는 34년만에 이루어진 2015년 8월 모디 총리의 UAE 방문은 양국 경제관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방문에서 양국은 인도에 철도, 항만, 도로, 공항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 규모의 UAE-인도 인프라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¹⁹¹⁾

인도 모디 총리는 2017년 1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전략 비축유 공급 등 13개 부문에서 조약을 체결해 향후 에너지, 방위, 해상운송, 교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 및 외교 전반에서 본격적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⁹²⁾

인도와 UAE의 상호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22 및 그림 4-11 참고), 2000년 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UAE의 대인도 투자액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투자시장이 크게 위축된 2020년에 39억 9천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었으며 이는 인도로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6.2%에 달하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인도의 대UAE OFDI는 UAE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면서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UAE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액

191) MEA(2015. 8. 17),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Republic of India,"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5733/Joint_Statement_between_the_United_Arab_Emirates_and_the_Republic_of_India(검색일: 2021. 9. 25).

192) "India, UAE in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ign 13 security, trade pacts"(2017. 1. 25),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uae-in-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sign-13-security-trade-pacts/story-IxpOFpcYtpDd9rfBQluP6M.html>(검색일: 2021. 9. 30).

기준 16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UAE는 인도의 5위 투자대상국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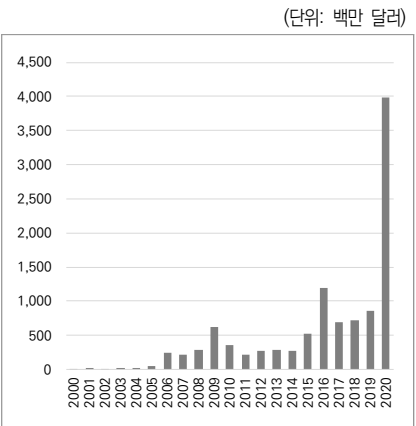
인도의 대UAE 투자는 최근 10년간 평균 15억 달러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6년에는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까지 시멘트 등 건축 자재, 섬유, 엔지니어링, 소비자 가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이 투자 진출 하였으며 UAE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⁹³⁾

주요 투자사례로 인도 시멘트 제조업체 JK Cement는 연간 600만 톤 생산 규모의 백색 시멘트 공장을 푸자이라 자유무역지대(Fujairah Free Trade Zone)에 건설하는 1,497만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2011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공장은 현재까지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¹⁹⁴⁾

표 4-22. 인도-UAE 간 FDI 현황 그림 4-11. UAE의 대인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UAE → 인도		인도 → UAE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363	1.7	1,809
2011	221	0.6	1,341
2012	271	1.2	1,463
2013	284	1.3	1,798
2014	279	1.0	1,450
2015	522	1.4	1,540
2016	1,197	2.6	2,464
2017	689	1.6	1,155
2018	721	1.7	1,499
2019	862	1.8	928
2020	3,990	6.2	847
합계	9,399	-	16,295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식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UAE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3) Embassy of India, Abu Dhabi, U.A.E. Bilateral Economic & Commercial Relations, <https://www.indembassyuae.gov.in/bilateral-eco-com-relation.php>(검색일: 2021. 9. 30).
 194) "India-based JK Cement sign \$14.9m Fujairah deal"(2011. 11. 16), <https://www.constructionweekonline.com/business/article-14692-india-based-jk-cement-sign-149m-fujairah-deal>(검색일: 2021. 9. 30).

주요 업종별 UAE의 대인도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23 참고), 2000년부터 2019년 기간의 누적투자금액 기준 UAE는 서비스업 투자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해상운송(8.5%), 전력(8%), 건설(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주요 업종별 UAE의 대인도 FDI 현황(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1	서비스업	1,092.7	15.8
2	해상운송	586.5	8.5
3	전력	555.8	8.0
4	건설(인프라)	506.7	7.3
5	부동산 개발	472.0	6.8
-	합계(상위 5개 업종)	3,213.7	46.5

주: 1) 자료는 2000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누적금액 기준.

2)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비금융 비즈니스, 아웃소싱, 연구개발, 물류,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DIPP 자료(검색일: 2021. 6.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인도와 오랜 기간 경제관계를 구축해온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들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Satyagraha)과 더불어 아파르트헤이트 반대운동(Anti Apartheid Movement)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등 인도는 남아공과 수세기간 외교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추진했던 국민당 정권이 1992년에 붕괴된 후 인도-남아공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었고 1993년 양국은 공식수교를 맺었다.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관계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및 부품, 운송 장비, 의약품, 엔지니어링 제품, 신발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금, 기관용 석탄, 구리광 등이다.¹⁹⁵⁾

인도의 주요 남아공 투자사례로는 타타그룹(자동차 · IT), UB Group(양

195) High Commission of India(2021), "India - South Africa Relations," <https://www.hcpretoria.gov.in/page/india-sa/>(검색일: 2021. 10. 1).

조업), 마힌드라(자동차), Ranbaxy(제약), CIPLA(제약) 등과 일부 IT 기업 및 광산 개발기업 등이 있으며 남아공의 대인도 투자는 SAB Miller(양조업), 남아공 공항공사(인프라 개발), SANLAM 및 Old Mutual(보험업)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최근 인도와 남아공의 FDI 현황을 살펴보면(표 4-24 및 그림 4-12 참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의 대남아공 및 남아공의 대인도 총 투자액은 각각 4억 7,400만 달러와 4억 1,900만 달러로 대등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인도 투자는 2013년, 2016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2,000만 수준에 머물렀으며 인도의 투자액도 연평균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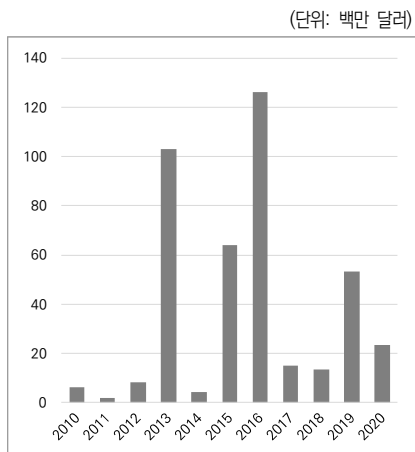
표 4-24. 인도-남아공 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남아공 → 인도		인도 → 남아공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2010	6	0.03	29
2011	2	0.01	24
2012	8	0.04	137
2013	103	0.47	19
2014	5	0.02	28
2015	64	0.17	64
2016	126	0.27	28
2017	15	0.03	19
2018	13	0.03	66
2019	53	0.11	40
2020	23	0.04	20
합계	419	-	474

주: 1) 정부승인, 자동승인, 주시취득을 통한 FDI 유입액 포함.
 2) 비중은 전 세계의 대인도 FDI에서 남아공의 비율.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2. 남아공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후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투자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인도 진출 대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대인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1월에는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됨으로써 이후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관계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제조업 중심·대기업 투자활동 중심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추이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4-25 참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억 달러 미만의 수준에 그치던 한국의 대인도 투자액은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중반까지 연 4억 달러 규모로 유지되던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2018년 최초로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증가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대인도 총 투자금액은 약 62억 1,800만 달러 규모이다.

아울러 신규법인 수 설립은 투자금액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기간에는 연 1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는 등 최근 법인설립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주요 국내 대기업의 인도 시장 투자진출 사례로는 2018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공장 노이다 설립, 2019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공장 아난타푸르 설립, 2019년 효성의 섬유제품 생산공장 마하라슈트라 설립 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형태는 주로 완전소유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 즉 단독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s)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소유자회사 형태 투자진출의 장점으로는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에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과 더불어 진출지역 주정부와의 투자 관련 협상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⁹⁶⁾

표 4-25. 한국의 대인도 FDI 현황(200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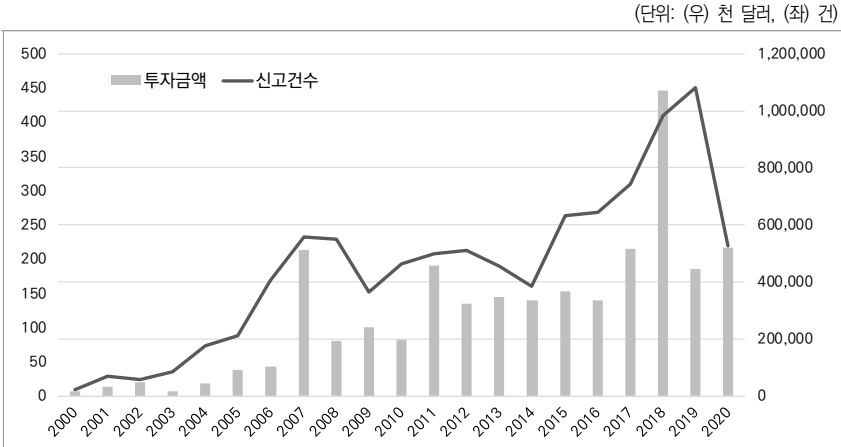
(단위: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2000	10	12,077	7	15,378
2001	29	35,563	13	30,805
2002	24	44,472	11	47,949
2003	36	21,473	14	17,299
2004	73	49,448	28	42,648
2005	88	113,944	38	92,164
2006	169	154,626	76	101,777
2007	233	546,617	103	513,995
2008	229	289,751	68	195,204
2009	152	345,680	47	242,570
2010	193	210,844	60	199,134
2011	207	686,962	66	456,583
2012	212	457,292	52	322,888
2013	190	573,514	41	346,642
2014	160	387,495	39	336,576
2015	264	391,509	55	365,289
2016	268	392,341	55	336,682
2017	310	949,221	113	516,344
2018	410	846,108	119	1,071,776
2019	450	684,692	130	446,781
2020	220	396,167	66	519,445
합계	3,927	7,589,795	1,201	6,217,9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5. 20).

196) Singh(2021), "Role of Korea-India Bilateral Economic Ties in India's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 pp. 9-12.

그림 4-13.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2000~20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5. 20).

한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의 대한국 OFDI는 총 투자금액 기준 약 5억 2백만 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2억 달러를 상회하는 한국의 투자금액의 1/10 수준으로 인도의 대한국 OFDI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의 투자활동은 특정 기간, 소수 대기업의 단발성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3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한 2011년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and Mahindra)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시기로 해당 기업의 투자액이 당해 인도의 OFDI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도 기업의 한국 시장 투자진출 주요 사례로는 노벨리스, 타타모터스(Tata Motors), 마힌드라&마힌드라 등이 있다.¹⁹⁷⁾ 인도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노벨리스는 2005년 알칸대한 주식회사를 인수해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현재 울산공장 및 영주공장 등을 통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 대기업인 타타그룹의 계열사인 타타모터스

197) investindia(2021), "KOREA - INDIA RELATIONS," <https://www.investindia.gov.in/country/korea-plus>(검색일: 2021. 7. 2).

는 2004년 대우자동차 상용차 부문을 인수한 뒤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인도 자동차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2010년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업종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업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4-26 및 그림 4-14 참고),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 크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도매 및 소매업이 수위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대부분의 투자금액이 제조업 관련 FDI에 편중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합산 투자금액 기준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84.5%, 도매 및 소매업 5.3%, 건설업 3.7%, 부동산업 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주요 업종별 한-인도 FDI 현황: 투자 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연도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2000	46	7,215	-	-	-	7,977
2001	230	24,121	-	-	-	6,453
2002	10	24,806	-	-	-	23,133
2003	155	12,971	-	-	-	3,889
2004	110	10,237	-	2	1,000	29,371
2005	315	1,235	-	440	-	82,318
2006	10,000	2,295	1,600	1,664	445	84,042
2007	14,317	1,415	5	2,319	2,330	475,419
2008	5,915	12,057	-	437	3,913	139,716
2009	1,320	19,051	2	2,720	1,286	216,194
2010	12,564	18,401	41	1,769	972	155,266
2011	2,494	14,880	-	3,329	157	428,050
2012	5,886	19,340	-	1,436	1,055	244,298
2013	8,251	7,369	52	4,861	1,209	296,531

표 4-2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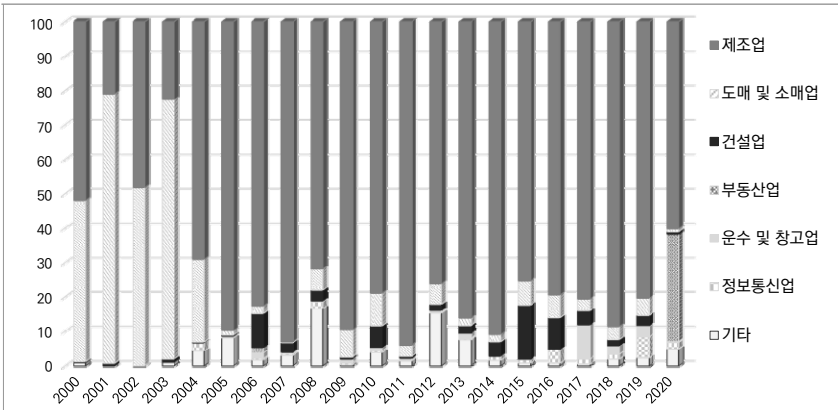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연도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2014	14,227	6,890	-	8	3,836	304,948
2015	57,617	25,708	-	367	3,352	274,522
2016	30,801	22,091	-	325	13,051	266,348
2017	20,823	17,464	-	51,565	7,560	415,558
2018	19,842	40,910	100	25,848	15,137	948,786
2019	13,048	22,352	203	14,506	26,986	356,802
2020	3,617	4,383	161,685	1,173	9,729	311,930
합계	221,589	315,191	163,690	112,769	92,019	5,071,5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5. 20).

그림 4-14. 주요 업종별 한-인도 FDI 비중: 투자금액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5. 20).

[표 4-27]과 같이 세부업종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편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융업 및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업종의 다양화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2000년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과자류 등 다수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다만 최근에는 제조업 외에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분야에 각각 1억 6,168만 달러와 1,226만 달러의 투자가 단행되면서 과거 대비 업종이 소폭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세부업종별 한-인도 FDI 추이

(단위: 천 달러, %)

2000년				
순위	업종	업종_상세	투자금액	비중
1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6,892	44.8
2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5,998	39.0
3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30	7.3
4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65	2.4
5	도매 및 소매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300	2.0
6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30	1.5
2010년				
순위	업종	업종_상세	투자금액	비중
1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46,987	23.6
2	제조업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9,402	9.7
3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8,114	9.1
4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5,060	7.6
5	제조업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	14,600	7.3
6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1,575	5.8
2020년				
순위	업종	업종_상세	투자금액	비중
1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65,358	31.8
2	부동산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61,685	31.1
3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35,681	6.9
4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25,824	5.0
5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3,400	2.6
6	금융 및 보험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12,262	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5. 20).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가. 연구자료

FDI는 크게 그린필드(Greenfield)와 브라운필드(Brownfield),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린필드 FDI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신규 또는 확장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 이를 그린필드 FDI로 분류한다. 반면 브라운필드 FDI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다국적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국경간 M&A가 가장 대표적인 브라운필드 FDI 형태 중 하나이다.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의 합계가 흔히 사용되는 FDI 총액이다.

이러한 FDI 총액 통계치는 UNCTAD 등 국제기구나 인도 산업정책부 등 각국의 통계 기관을 통해 발표된다. 조의윤(2019) 등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인도의 FDI 추이를 분석해왔다. 인도의 FDI 추이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도의 투자관계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도의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유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린필드 투자 정보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fDi Markets¹⁹⁸⁾에서 추출하였으며, 투자 정보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나누어 제공된다. 브라운필드 투자 정보는 톰슨 로이터스(Thompson Reuters)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이콘(Refinitiv Eikon)¹⁹⁹⁾에서 추출하였으며, 투자 정보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나누어 제공된다.

198) 그린필드 자료는 fdimarkets.com에서 추출 가능하다.

199) 브라운필드 자료는 <https://eikon.thomsonreuters.com/index.html>에서 추출 가능하다.

나.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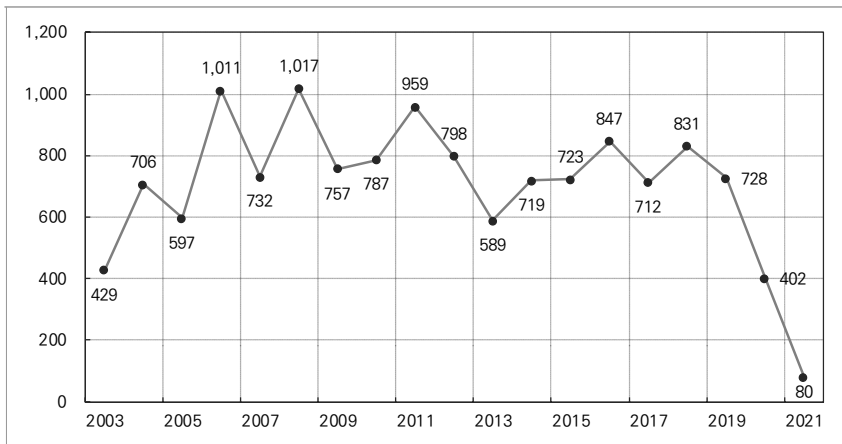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5]는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와 금액 추이를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준다. 2003년은 2월부터 12월까지 누적치를 나타내며, 2021년은 1월부터 3월까지 누적치를 나타낸다. 먼저 그린필드 투자건수를 살펴보자면, 2003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fDi Marke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측된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총 1만 3,424건이다.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2003년에 429개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1,017개까지 기록하면서, 5년 사이 137%(429 → 1,017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200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589개로 2008년 대비 약 42%(1,017 → 589개) 감소하였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즉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 2014년부터는 소폭 증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관측된 그린필드 투자 총액은 714억 달러로서, 투자건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03년 15억 8천만 달러에서 2008년 6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가 인도로 유입되면서 5년 사이 309%(15억 8천만 → 64억 7천만 달러)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 투자금액이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5년 동안 대체로 급감하면서 2013년에는 24억 1천만 달러(2008년 대비 63% 감소)까지 하락했다.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액은 급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61억 1천만 달러, 6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2019년부터 투자금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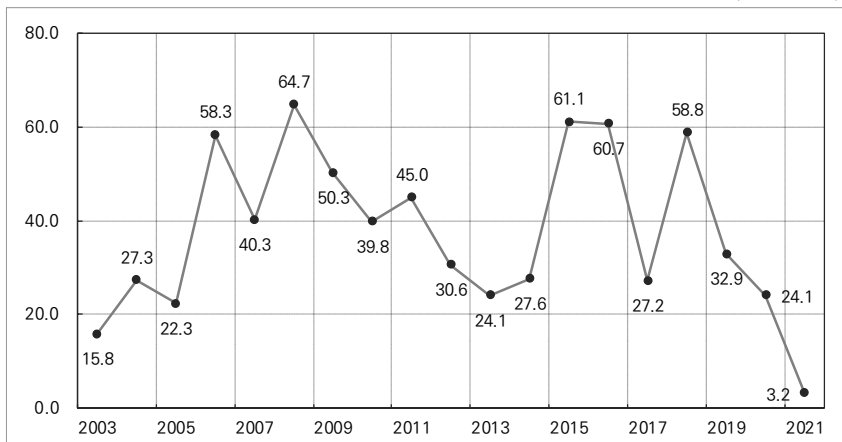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4억 1천만 달러로 2018년의 58억 8천만 달러보다 약 59%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투자금액 역시 2003~08년 증가, 2009~13년 감소, 2014~18년 증가,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투자건수와 비슷한 주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전 세계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개)



(단위: 억 달러)



주: 1) 2003년은 2월부터 12월까지, 2021년은 1월부터 3월까지 집계치임.

2) 위 그래프는 투자건수(13,424개), 아래 그래프는 금액(71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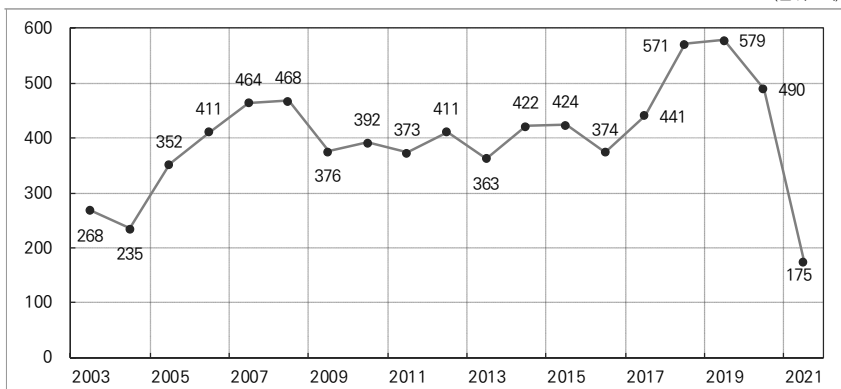
자료: fDi Markets(검색일: 2021. 7.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16]은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건수와 금액 추이를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준다. 다만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치를 나타낸다. 200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Eikon 데이터베이스에 관측된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건수는 총 7,589건이며, 이는 그린필드 투자건수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브라운필드 투자건수는 2003년에 268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468개로 증가하면서 5년 사이 약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큰 변동 없이 매년 300~400개 사이의 투자건수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579건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490개로 투자건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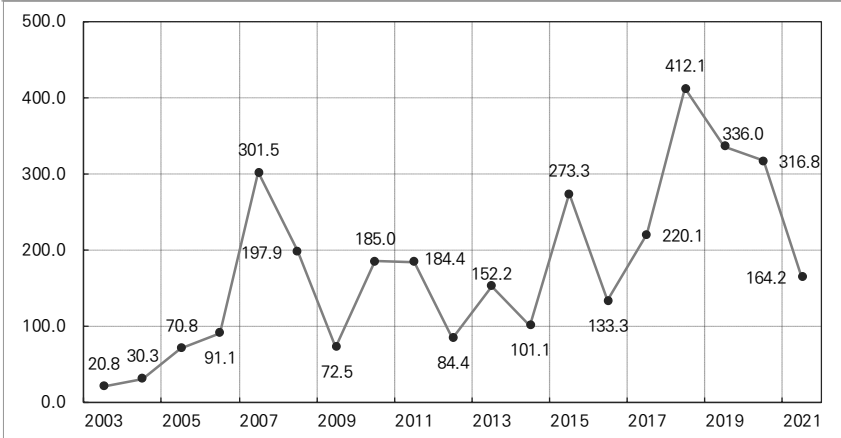
관측된 브라운필드 투자 총액은 3,347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4배 이상의 수준이다. 2003년 20억 8천만 달러에서 2007년 301억 5천만 달러로 5년 사이 1,350%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금액이 매우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2018년에는 41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액을 기록했다. 다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투자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16. 전 세계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개)



(단위: 억 달러)



주: 1)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집계치임.
 2) 위 그래프는 투자건수(7,589개), 아래 그래프는 금액(3,347억 달러).
 자료: Refinitiv Eikon(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28]은 국별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보여준다. 인도에 그린필드 투자를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전체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25%를 차지하며, 전체 투자건수의 33.9%를 차지한다. 미국 다음으로 투자금액과 건수가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각각 10.8%와 9.5%를 차지한다. 최대 투자금액과 건수 순위의 3위와 4위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나눠 가졌으며, 5, 6, 7위는 중국, UAE, 프랑스가 각각 나눠 가졌다. 다시 말해 상위 7개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UAE, 프랑스이다. 반면 한국이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8위이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12위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투자 규모인 32억 달러는 미국의 투자 규모의 18% 정도 수준이며, 252개의 투자건수는 미국 투자건수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일본의 53%,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투자건수로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더 많은 321개를 기록했다. 상위 20개 국가에 포함된 아세안 국가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1개국으로, 아세안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대신 상위 20개 국가에 대만과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가 많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4-28. 해외 주요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건수	비중
1	미국	178	25.0	1	미국	4,555	33.9
2	영국	77	10.8	2	영국	1,272	9.5
3	일본	60	8.4	3	독일	1,180	8.8
4	독일	53	7.4	4	일본	1,116	8.3
5	중국	46	6.4	5	프랑스	586	4.4
6	UAE	33	4.7	6	UAE	457	3.4
7	프랑스	32	4.5	7	중국	390	2.9
8	한국	32	4.5	8	스위스	350	2.6
9	싱가포르	29	4.0	9	싱가포르	321	2.4
10	대만	18	2.5	10	이탈리아	288	2.1
11	스위스	16	2.2	11	네덜란드	269	2
12	네덜란드	14	2.0	12	한국	252	1.9
13	캐나다	13	1.8	13	스웨덴	209	1.6
14	홍콩	12	1.6	14	캐나다	189	1.4
15	이탈리아	10	1.4	15	스페인	178	1.3
16	스웨덴	9	1.2	16	대만	168	1.3
17	말레이시아	8	1.2	17	홍콩	156	1.2
18	스페인	8	1.1	18	핀란드	149	1.1
19	핀란드	6	0.8	19	호주	126	0.9
20	호주	5	0.8	20	덴마크	125	0.9
-	기타	55	7.9	-	기타	1088	7.4
	총계	714.0	100.0		총계	13,424	100.0

주: 2003년은 2월부터 12월까지, 2021년은 1월부터 3월까지 집계치임.
 자료: fDi Markets(검색일: 2021. 7.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29]는 국별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보여준다.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로 M&A 위주이다 보니 자금 출처 등이 불명확하므로 국가가 미분류된 경우가 1,611건으로 전체 브라운필드 투자건수의 21.2%를 차지한다. 미분류의 형태가 무작위라고 가정했을 때 인도에 브라운필드 투자를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금액의 28.7%를 차지했으며, 전체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미국 다음으로 투자금액이 많고 건수도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가 전체 투자금액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9%와 7.9%이다. 싱가포르 다음으로 투자금액이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전체 금액의 15.8%를 차지한다. 반면 싱가포르 다음으로 투자건수가 많은 나라는 모리셔스로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한다. 모리셔스의 투자금액은 202억 6천만 달러로, 전체에서 5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투자금액은 239억 6천만 달러로 모리셔스보다 더 높은 투자금액을 기록했으며, 투자건수도 421개로 상위 5위 수준이다.

인도에 브라운필드를 여섯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로, 전체 투자금액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와 3.1%이다. 그다음부터는 금액과 건수의 순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금액 면에서는 캐나다, UAE, 네덜란드 순, 건수 면에서는 독일, 홍콩, 네덜란드 순이다. 한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은 11억 2천만 달러로 20위 수준이며, 투자건수는 51개로 15위 수준으로, 전체 대인도 브라운필드 금액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7%에 불과하다. 즉 한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전체 8위인 것을 고려했을 때, 20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4-29. 해외 주요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건수	비중
1	미국	959.9	28.7	1	미국	1898	25
2	싱가포르	565.5	16.9	2	싱가포르	600	7.9
3	영국	529.8	15.8	3	모리셔스	520	6.9
4	일본	239.6	7.2	4	영국	443	5.8
5	모리셔스	202.6	6.1	5	일본	421	5.5
6	프랑스	112.6	3.4	6	프랑스	232	3.1
7	캐나다	94.9	2.8	7	독일	192	2.5
8	UAE	92.8	2.8	8	홍콩	184	2.4
9	네덜란드	75.1	2.2	9	네덜란드	157	2.1
10	말레이시아	59.7	1.8	10	캐나다	108	1.4
11	중국	54.6	1.6	11	UAE	107	1.4
12	독일	43.5	1.3	12	스위스	93	1.2
13	스위스	31.2	0.9	13	말레이시아	80	1.1
14	홍콩	30.7	0.9	14	중국	68	0.9
15	카타르	21.5	0.6	15	한국	51	0.7
16	남아공	18.3	0.5	16	스웨덴	44	0.6
17	러시아	16.8	0.5	17	남아공	36	0.5
18	스웨덴	12.8	0.4	18	노르웨이	26	0.3
19	노르웨이	11.6	0.3	19	카타르	24	0.3
20	한국	11.2	0.3	20	러시아	22	0.3
-	미분류	41.6	1.2	-	미분류	1,611	21.2
-	기타	163.0	3.8	-	기타	2,283	8.9
	총계	3,347.7	100.0			7,589	100.0

주: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집계치임.

자료: Refinitiv Eikon(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지난 12년간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년간 누적 투자금액과 투자건수를 비교하였다. 2015~20년 누적치를 2009~14년 기간과 비교하여, 최근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에 추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모디 정부 집권 이후 인도 투자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30]은 기간별 전 세계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경우 기간 내 217억 3천만 달러에서 264억 8천만 달러로 21.8%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기간 내 4,609개에서 4,243개로 7.9% 감소하였다.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투자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 투자 건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투자환경 변화가 그린필드 투자건수 증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의 경우 779억 6천만 달러에서 1,691억 5천만 달러로 기간 내 117%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역시 2,337개에서 2,879개로 기간 내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부터 M&A 등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브라운필드 투자를 선호하는 다국적 기업의 성향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인도 정부가 많은 분야에 걸쳐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 정책 완화가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30.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217.3	264.8	21.8	4,609	4,243	-7.9
브라운필드	779.6	1,691.5	117.0	2,337	2,879	23.2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31]은 2009~14년과 2015~20년의 산업별 그린필드 투자 비교치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재생에너지로, 2015년 전후 6년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9억 2천만 달러에서 29억 6천만 달러로 222.9%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 투자금액이 많이 유입된 산업은 부동산(24억 4천만 달러)으로, 2014년 누적치보다 179.5% 증가하였다. 반면 2014년까지 가장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되었던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는 23억 3천만 달러에서 2020년 누적치는 15억 9천만 달러로 31.8%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위탁생산 관련 산업의 누적 투자금액은 2014년 16억 1천만 달러에서 2020년 12억 9천만 달러로 6년 동안 20.1% 감소하였다.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완료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 개방과 더불어 향후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31. 상위 20개 산업별 전 세계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재생에너지	9.2	29.6	222.9	44	88	100
2	부동산	8.7	24.4	179.5	72	122	69.4
3	석탄/석유/가스	17.8	22.8	28.1	42	48	14.3
4	정보통신	8.4	21.7	159.5	219	308	40.6
5	전자부품	6.1	17	179.4	133	148	11.3
6	소프트웨어/IT서비스	13.1	16.7	27.8	637	928	45.7
7	철강	23.3	15.9	-31.8	133	70	-47.4
8	자동차 위탁생산	16.1	12.9	-20.1	131	110	-16
9	소비재	7.2	12.5	74.6	167	158	-5.4
10	소비자 제품	16.7	11.2	-33.3	205	143	-30.2
11	사업서비스	5.6	9.3	65.6	509	377	-25.9
12	금융서비스	14.7	8.7	-41.1	359	228	-36.5
13	공업 장비	10	7.3	-26.3	435	312	-28.3
14	화학제품	7.6	7.3	-3.8	220	144	-34.5
15	식품/음료	7.4	6.8	-7.9	174	149	-14.4
16	자동차부품	8.3	4.3	-47.7	204	144	-29.4
17	의료기기	2.8	4.2	51.1	60	38	-36.7

표 4-31.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8	건축자재	3.1	3.6	15.3	22	27	22.7
19	항공우주	2	3	46.6	56	57	1.8
20	고무	3.4	2.9	-13.5	40	32	-20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fDi Markets(검색일: 2021. 7.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32]는 산업별로 2009~14년과 2015~20년의 브라운필드 투자 비교치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온라인 소매로, 2014년 11억 1천만 달러에서 2020년 223억 1천만 달러로, 6년간 약 1,907%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197억 2천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됐으며, 기간 증가율도 553%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인도 시장의 향후 성장 전망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금액의 기간 증가율이 2.051%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인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투자건수도 11건에서 46건으로 318% 증가하였다. 앞서 그린필드 투자에서 많이 증가하였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도 각각 약 510%, 121% 증가하였다.

표 4-32. 상위 20개 산업별 전 세계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온라인 소매	11.1	223.1	1,907.1	22	64	190.9
2	정보통신서비스	30.2	197.2	553.1	37	26	-29.7
3	석유/가스	168	159.3	-5.2	50	31	-38

표 4-32.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4	운송/인프라	16.5	95.6	480.9	95	137	44.2
5	기타 금융	17.9	79.2	343.6	78	133	70.5
6	기타 부동산	7.9	58.7	641.6	50	68	36
7	에너지	22.4	52.8	135.6	67	84	25.4
8	제약	106.3	52.6	-50.5	86	77	-10.5
9	보험	12.7	49	286.2	23	66	187
10	재생에너지	7.5	45.8	510.3	34	75	120.6
11	자산관리	5.4	44.4	724.8	53	75	41.5
12	전문서비스	11.9	39	228.4	112	163	45.5
13	호텔/숙박	2	38.9	1,825	31	42	35.5
14	IT 컨설팅/서비스	11.8	37.7	219.3	110	131	19.1
15	기타 에너지	18.7	34	81.5	25	19	-24
16	상업용 부동산	1.5	31.3	2,051.1	11	46	318.2
17	식품가공	5.1	30	487	25	46	84
18	신용기관	8.4	29.7	253.1	62	110	77.4
19	병원	10.1	26.6	163.3	32	38	18.8
20	부동산 관리/개발	0.7	25.1	3,335.9	8	13	62.5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Refinitiv Eikon(검색일: 2021. 7. 1)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1) 미국

[표 4-33]은 미국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24.4%,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도 모두 각각 234.2%, 40.2% 증가하였다. 즉 미국의 대인도 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분 투자와 관련된 브라운필드

표 4-33. 미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51.4	63.9	24.4	1365	1391	1.9
브라운필드	170.8	570.8	234.2	532	746	40.2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FDI의 증가세가 설비투자와 관련된 그린필드 FDI의 증가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는 미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소프트웨어/IT서비스로, 2014년 누적치 대비 16.3%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소비자 제품, 정보통신, 사업서비스로 기간 증가율이 각각 282.6%, 196.1%, 157.8%에 이른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온라인 소매(투자금액 191억 9천만 달러)로, 2014년 누적치 대비 약 1,952%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투자가 4천만 달러에서 138억 8천만 달러로 무려 33,036% 증가했으며, 상업용 부동산 관련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4-34. 미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소프트웨어/IT서비스	8.8	10.3	16.3	407	570	40
2	소비자 제품	2.5	9.5	282.6	44	76	72.7
3	정보통신	2	6	196.1	69	89	29

표 4-34.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4	사업서비스	2	5.2	157.8	166	150	-9.6
5	전자부품	2.8	5	78.7	32	31	-3.1
6	재생에너지	4.8	3.5	-25.7	17	15	-11.8
7	식품/음료	2.3	3.1	36.5	53	59	11.3
8	금융서비스	3.4	2.8	-18.4	83	44	-47
9	반도체	0.6	2.4	284.3	22	23	4.5
10	운송/물류	0.9	2.1	148.6	15	33	120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온라인 소매	9.4	191.9	1,952.3	8	24	200
2	정보통신서비스	0.4	138.8	33,036.1	7	13	85.7
3	상업용 부동산	0	15	-	3	14	366.7
4	기타 금융	6.4	14.9	133.2	17	32	88.2
5	소프트웨어/서비스	3.3	14.1	330.7	20	13	-35
6	호텔/숙박	0.6	12.5	1,913.9	5	13	160
7	IT 컨설팅/서비스	2.5	12.1	384.7	40	67	67.5
8	보험	0.3	11.2	3,601.3	4	19	375
9	전문서비스	2.2	11.1	405.7	34	54	58.8
10	식품가공	2.1	10.7	403.7	4	17	325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35]는 미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소비자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아마존 인디아(Amazon India)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5억 8천만 달러, 31개이다. 관련된 아마존닷컴(Amazon.com)까지 포함하면, 아마존 관련 투자금액은 총 8억 7천만 달러,

투자건수는 52개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마존 웹서비스(AWS)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아마존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액은 12억 달러, 투자건수는 58개이다. 홍콩의 대인도 그린필드가 12억 달러임을 고려했을 때(표 4-28, 투자금액 14위 참고), 아마존의 투자는 한 나라의 투자 총액과 같은 셈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투자의 초점이 맞춰진 Investor Group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소매업과 관련된 월마트(Walmart Inc)가 가장 많은 160억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미국 기업 투자에서 16.7%의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을 제외하고 월마트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펼치는 구글(Google International LLC)이다.

미국 기업의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종합하면 미국의 소매업 관련 대기업인 아마존과 월마트가 인도의 최대 투자자인 점을 보아, 인도의 내수시장 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도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미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5. 미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Amazon India	소비자 제품	5.8	3.3	31	0.7
2	SunEdison	전자부품	4	2.3	1	0
3	Amazon Web Services(AWS)	정보통신	3.3	1.9	6	0.1
4	Deloitte Touche Tohmatsu	사업서비스	3.3	1.8	5	0.1
5	Amazon.com	소비재	2.9	1.6	21	0.5
6	SunEdison	재생에너지	2.3	1.3	8	0.2
7	Max New York Life Insurance	금융서비스	2.3	1.3	18	0.4
8	RIL-Chevron	석탄/석유/가스	1.9	1.1	8	0.2
9	Hyatt International	숙박/관광	1.7	1	19	0.4
10	Intel	반도체	1.7	0.9	11	0.2

표 4-35.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252.9	26.3	357	18.8
2	Walmart Inc	온라인 소매	160	16.7	4	0.2
3	Jaadhu Holdings LLC	기타 금융	56.9	5.9	1	0.1
4	Google International LLC	정보통신서비스	44.8	4.7	1	0.1
5	Abbott Laboratories	제약	37.2	3.9	3	0.2
6	RMG Acquisition Corp II	기타 금융투자	35.9	3.7	1	0.1
7	Blackstone Group LP	기타 금융투자	34.8	3.6	42	2.2
8	American Tower Corp	부동산 펀드	28.8	3	6	0.3
9	Mylan Inc	제약	18.8	2	2	0.1
10	Warburg Pincus LLC	기타 금융투자	13	1.3	18	0.9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2) 중국

[표 4-36]은 중국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358.3%, 19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도 모두 각각 170,342.8%, 833.3%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브라운필드 투자는 2014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4-36. 중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7.4	33.9	358.3	87	259	197.7
브라운필드	0.032	54.5	170,342.8	6	56	833.3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37]은 중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재생에너지로, 2014년 누적치 대비 2,558.3%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부동산, 자동차 위탁생산, 정보통신으로 기간 증가율이 각각 1,002.9%, 461.2%, 254.8%에 이른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여행서비스(투자금액 15억 8천만 달러)이다. 그다음으로 식품가공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제약 관련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4-37. 중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재생에너지	0.3	7.3	2,558.3	1	10	900
2	부동산	0.6	6.4	1,002.9	2	7	250
3	자동차 위탁생산	0.8	4.4	461.2	4	22	450
4	정보통신	1.2	4.2	254.8	18	82	355.6
5	석탄/석유/가스	0	3	-	0	4	-
6	전자부품	0.2	2.2	981.1	9	20	122.2
7	건축자재	0	1.2	-	0	3	-
8	철강	2.7	1.1	-60	9	4	-55.6
9	가전제품	0.9	1	20.4	8	11	37.5
10	운송 위탁생산	0	0.7	-	0	9	-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여행서비스	0	15.8	-	0	2	-
2	식품가공	0	12	-	0	2	-
3	제약	0	10.9	-	0	1	-
4	온라인 소매	0	5.6	-	1	5	400

표 4-37.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5	기타 금융투자	0	2	-	0	1	-
6	전문서비스	0	1.6	-	0	6	-
7	소프트웨어	0	1.4	-	0	8	-
8	전자상거래/B2B	0	1.1	-	0	2	-
9	호텔/숙박	0	1.1	-	0	2	-
10	운송/인프라	0	1	-	0	5	-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38]은 중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중국 기업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화하행복부동산(CFLD)으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 금액과 건수는 각각 4억 9천만 달러, 1개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최근 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에 활발한 투자를 하는 삼일중공업(Sany)이며, 투자금액은 3억 3천만 달러, 투자건수는 2개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투자의 초점이 맞춰진 Investor Group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서비스와 관련된 회사인 씨트립(Ctrip.com International Ltd)이 가장 많은 15억 8천만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중국 기업 투자에서 28.9%의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로 [표 4-37]의 산업별 브라운필드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서비스'에 포함된 1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바로 씨트립의 투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제약회사인 상하이 푸싱제약(Shanghai Fosun Pharmaceutical Co Ltd)이다. 중국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브라운필드 투자는 2014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

다가, 2015년부터 활발한 투자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정 여행서비스사와 제약회사의 투자 규모가 상위 업종과 기업 순위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8. 중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China Fortune Land Development(CFLD)	부동산	4.9	10.7	1	0.3
2	Sany	재생에너지	3.3	7.1	2	0.5
3	China Huaneng Group(CHNG)	석탄/석유/가스	3	6.5	1	0.3
4	Xinxing Ductile Iron Pipes	철강	2.2	4.7	1	0.3
5	Chint Group	재생에너지	2	4.4	1	0.3
6	Anshan Iron & Steel Group(Angang)	철강	2	4.4	1	0.3
7	Great Wall Motors(GWM)	자동차 위탁생산	1.4	3	5	1.3
8	Sinosteel	철강	1.1	2.5	3	0.8
9	Vivo Electronics	정보통신	1.1	2.3	8	2.1
10	Hong Kong Jinyuan International Development	건축재	1	2.2	1	0.3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19.4	35.5	19	27.9
2	Ctrip.com International Ltd	소프트웨어/서비스	15.8	28.9	2	2.9
3	Shanghai Fosun Pharmaceutical Co Ltd	제약	10.9	20	1	1.5
4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국제금융	2	3.7	1	1.5
5	Ant Small & Micro Financial Services Group Co Ltd	신용기관	2	3.7	3	4.4
6	Fosun International Ltd	자산관리	1.4	2.6	4	5.9
7	Tencent Holdings Ltd	소프트웨어/서비스	1.2	2.2	3	4.4
8	Star Virtue Investments Ltd	기타 금융	1	1.8	1	1.5
9	Alibaba Group Holding Ltd	온라인 소매	0.4	0.6	3	4.4
10	Eight Roads Ventures	기타 금융투자	0.2	0.3	2	2.9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3) 영국

[표 4-39]는 영국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영국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09~14년 누적치보다 4.8% 소폭 증가한 반면, 투자건수는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은 74.5% 감소했으며, 투자건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체적으로 영국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9. 영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23.7	24.8	4.8	479	340	-29
브라운필드	235.6	60	-74.5	128	128	0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0]은 영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철강으로, 2014년 누적치 대비 233%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자부품으로 기간 증가율이 각각 761.8%, 3,630%에 이른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투자금액 14억 달러)와 석유/가스(투자금액 10억 달러)이지만,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5.3%, 93.4% 감소한 수치이다.

표 4-40. 영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철강	1.5	4.9	233	9	10	11.1
2	재생에너지	0.5	4.1	761.8	4	5	25
3	전자부품	0.1	4	3,630	5	7	40
4	석탄/석유/가스	7.1	2.9	-58.9	8	11	37.5
5	정보통신	1.4	1.8	27.9	22	36	63.6
6	소프트웨어/IT서비스	0.4	1	120.4	43	65	51.2
7	항공우주	0	0.9	2,912.2	3	10	233.3
8	사업서비스	1.3	0.7	-47.9	139	68	-51.1
9	식품/음료	0.4	0.6	48	16	9	-43.8
10	부동산	0.4	0.5	21	9	10	11.1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정보통신서비스	16.5	14	-15.3	1	2	100
2	석유/가스	150.6	10	-93.4	7	2	-71.4
3	온라인 소매	0	5.7	-	2	8	300
4	기타 금융	0.02	4	16,435.7	5	10	100
5	의료기기	0	3.9	-	2	3	50
6	주거용 부동산	0	3.6	-	0	1	-
7	부동산투자관리	0	3	-	0	1	-
8	재생에너지	0.7	2.7	287.5	2	5	150
9	기타 부동산	0.7	2.4	263.7	4	3	-25
10	소프트웨어	0.1	2	1,985.5	5	7	40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1]은 영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영국 기업은 철강 회사인 베단타 리소스(Vedanta Resources)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8억 5천만 달러, 10개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영국의 유전개발 업체인 케언에너지(Cairn India)이며, 투자금액은 4억 1천만 달러, 투자건수는 9개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영국 통신 사업자 보다폰(Vodafone Group Plc)이 가장 많은 19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영국 기업 투자에서 36.6%의 비중을 차지한다. 보다폰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영국의 대표 석유회사인 BP이며, 투자 금액 규모는 100억 7천만 달러이다. 영국 기업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종합하면 철강과 에너지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국 기업은 인도를 제조업과 자원 조달의 허브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1. 영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Vedanta Resources	철강	8.5	10.9	10	0.8
2	Cairn India	석탄/석유/가스	4.1	5.3	9	0.7
3	Solargise India	전자부품	3.9	5	2	0.2
4	Sterlite Industries	석탄/석유/가스	3.8	4.9	4	0.3
5	Lightsource BP(Lightsource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3	3.9	1	0.1
6	Bharat Aluminium Company(BALCO)	철강	2.3	2.9	2	0.2
7	Cairn Energy	석탄/석유/가스	2.1	2.8	4	0.3
8	Standard Chartered Bank	금융서비스	1.9	2.5	19	1.5
9	Vodafone India	정보통신	1.8	2.3	26	2
10	Hindustan Zinc	철강	1.6	2	3	0.2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Vodafone Group Plc	무선통신	193.9	36.6	6	1.4
2	BP PLC	정유화학	100.7	19	3	0.7
3	Vedanta Resources PLC	철강/광업	61.2	11.6	5	1.1
4	Unilever PLC	식음료	35.7	6.7	1	0.2
5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29.3	5.5	53	12
6	Vedanta Resources Ltd	철강/광업	21.1	4	1	0.2
7	SoftBank Group Capital Ltd	기타 금융	14	2.6	1	0.2

표 4-41.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8	Reckitt Benckiser Group PLC	소비자 제품	7.2	1.4	1	0.2
9	Serco Group PLC	전문서비스	7.1	1.3	2	0.5
10	Xander Group Inc	기타 금융투자	4.9	0.9	7	1.6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4) 독일

[표 4-42]는 독일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독일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21.2%,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도 모두 각각 30.5%, 26.5% 감소하였다. 즉 독일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2. 독일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18.2	14.4	-21.2	446	360	-19.3
브라운필드	18	12.5	-30.5	68	50	-26.5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3]은 독일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운송/물류로, 2014년 누적치 대비 30.6% 감소한 수치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재생에너지로 기간 증가율이 265.4%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자동차부품과 자

동차 위탁생산이지만, 2014년 누적치 대비 각각 34.7%, 44.8% 감소하였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컴퓨터 부품(투자금액 3억 8천만 달러)과 자동차부품(투자금액 3억 1천만 달러)으로 2014년 누적치 대비 각각 2,251.2%, 37% 증가한 수치이다.

표 4-43. 독일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운송/물류	4.9	3.4	-30.6	54	33	-38.9
2	재생에너지	0.5	1.7	265.4	4	7	75
3	자동차부품	2	1.3	-34.7	51	51	0
4	자동차 위탁생산	2.3	1.2	-44.8	33	24	-27.3
5	소프트웨어/IT서비스	0.4	1.2	188.9	18	35	94.4
6	철강	1	1.2	18.1	13	11	-15.4
7	공업 자재	1	1	1.5	73	47	-35.6
8	화학제품	1.1	0.7	-38.3	32	26	-18.8
9	정보통신	0.1	0.4	279.5	4	5	25
10	엔진/터빈	0.3	0.3	-14.8	7	3	-57.1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컴퓨터/부품	0.2	3.8	2,251.2	1	1	0
2	자동차/부품	2.3	3.1	37	9	3	-66.7
3	보험	0	1.7	-	0	1	-
4	종이/목재	0	1.7	-	1	1	0
5	기타 에너지	0	0.7	-	0	1	-
6	재생에너지	0	0.5	-	1	3	200
7	은행	0	0.4	-	0	1	-
8	신용기관	0	0.3	-	1	1	0
9	의료서비스	0	0.2	-	0	3	-
10	레저/오락	0	0	-	0	1	-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4]는 독일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독일 기업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Volkswagen)으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2억 5천만 달러, 12개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독일의 운송/물류 회사인 DHL이며, 이와 관련한 투자금액을 모두 합하였을 경우 약 4억 8천만 달러(1.9억+1.7억+1.2억) 규모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독일 정보통신장비 업체인 지멘스(Siemens AG)가 가장 많은 1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독일 기업 투자에서 31.5%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멘스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독일의 컴퓨터 부품 업체인 와이어카드(Wirecard AG)이며, 투자금액 규모는 3억 9천만 달러이다. 독일 기업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종합하자면 DHL 사의 그린필드 투자가 독일의 대표적인 투자이며, 지멘스 사가 이끄는 정보통신 관련 투자가 독일의 주요 브라운필드 투자이다.

표 4-44. 독일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Volkswagen	자동차 위탁생산	2.5	4.7	12	1
2	DHL	운송/물류	1.9	3.6	21	1.8
3	DHL Express	운송/물류	1.7	3.1	22	1.9
4	DHL Supply Chain	운송/물류	1.2	2.3	10	0.8
5	Schaeffler Group	철강	1.2	2.2	8	0.7
6	Blue Dart	운송/물류	1.1	2	10	0.8
7	Metro Cash & Carry	식음료	1	1.9	12	1
8	Ceconomy(Metro)	식음료	1	1.8	6	0.5
9	Enercon India(EIL)	재생에너지	1	1.8	3	0.3
10	Centrotherm Photovoltaics	전자부품	0.9	1.8	2	0.2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Siemens AG	정보통신장비	13.7	31.5	5	2.6
2	Wirecard AG	컴퓨터/부품	3.9	9	2	1

표 4-44.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3	Michael Huber Munchen GmbH	화학제품	3.5	8	3	1.6
4	Robert Bosch GmbH	자동차/부품	3.3	7.6	1	0.5
5	ZF Friedrichshafen AG	자동차/부품	3.1	7.2	1	0.5
6	Man Truck & Bus AG	자동차/부품	2	4.7	1	0.5
7	ERGO Group AG	보험	1.7	3.9	1	0.5
8	Bayer AG	화학제품	1.7	3.8	2	1
9	Deutsche Bank AG	은행	1.6	3.8	7	3.6
10	Deutsche Telekom AG	정보통신서비스	1.4	3.2	3	1.6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5) 일본

[표 4-45]는 일본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19.3%,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69.3%, 13.3% 증가하였다. 일본의 대인도 설비투자는 2014년 누적치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M&A 등 지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아, 일본 기업은 막대한 금융을 기반으로 인도 기업 인수 등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45. 일본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24.8	20	-19.3	469	326	-30.5
브라운필드	56.3	95.4	69.3	166	188	13.3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6]은 일본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자동차 위탁생산이지만, 2014년 누적치 대비 28% 감소한 수치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정보통신과 부동산으로 기간 증가율이 각각 408.2%, 79.7%에 이른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철강이지만, 2014년 누적치 대비 27.6% 감소하였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호텔/숙박(투자금액 18억 5천만 달러)과 운송/인프라(투자금액 13억 5천만 달러)로 2014년 누적치 대비 각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산관리, 온라인 소매 등 다양한 산업의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를 펼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표 4-46. 일본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자동차 위탁생산	5.5	4	-28	42	33	-21.4
2	정보통신	0.5	2.5	408.2	11	15	36.4
3	부동산	1.2	2.2	79.7	6	3	-50
4	철강	2	1.4	-27.6	28	14	-50
5	엔진/터빈	0.5	1.4	163.2	2	4	100
6	자동차 부품	2.5	1.2	-51.3	49	26	-46.9
7	공업 장비	2.2	1.1	-49.5	64	41	-35.9
8	고무	1.3	0.9	-27.4	13	7	-46.2
9	운송/물류	1.3	0.8	-41.3	16	9	-43.8
10	재생에너지	0	0.6	-	1	3	200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호텔/숙박	0	18.5	0	0	3	0
2	운송/인프라	0.7	13.5	1,793	10	6	-40

표 4-46.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3	보험	12.2	12.9	5.3	3	7	133.3
4	재생에너지	0	9.7	0	0	3	0
5	에너지	0	8.1	0	0	4	0
6	자산관리	0	6.5	0	3	5	66.7
7	온라인 소매	0	5.5	0	0	5	0
8	공업기기	3.9	4.2	8.1	15	12	-20
9	화학제품	0.5	2.7	487.8	11	8	-27.3
10	철강/광업	11.5	2.2	-80.6	13	8	-38.5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7]은 일본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일본 기업은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Suzuki Maruti India)와 닛산(Nissan)으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각각 4억 9천만, 2억 4천만 달러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일본의 부동산 기업인 수미토모 그룹(Sumitomo Group)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일본 제약회사인 다이치 산쿄(Daiichi Sankyo Co Ltd)가 가장 많은 5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일본 기업 투자에서 21.1%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금융회사인 Investor Group을 제외하고 다이치 산쿄 다음으로 대인도 브라운필드가 많은 기업은 정보통신회사인 NTT 도코모(NTT DOCOMO Inc)와 보험회사인 일본 생명보험(Nippon Life Insurance Co)이다.

표 4-47. 일본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Suzuki Maruti India	자동차 위탁생산	4.9	8.2	24	2.2
2	Nissan	자동차 위탁생산	2.4	4	8	0.7
3	Sumitomo Group	부동산	1.9	3.2	2	0.2
4	NTT Communications(NTT Com)	정보통신	1.7	2.9	3	0.3
5	Toyota Kirloskar Motor(TKM)	자동차 위탁생산	1.5	2.6	10	0.9
6	Honda Motorcycle & Scooter India	운송장비 위탁생산	1.3	2.1	14	1.3
7	Yanmar	엔진/터빈	1.2	2	1	0.1
8	Bridgestone	고무	1	1.7	10	0.9
9	Edelweiss Tokio Life	금융서비스	0.9	1.6	21	1.9
10	Toyota	자동차 위탁생산	0.9	1.6	5	0.4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Daiichi Sankyo Co Ltd	제약	50.5	21.1	4	1
2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46.7	19.5	50	11.9
3	NTT DOCOMO Inc	정보통신서비스	28.5	11.9	3	0.7
4	Nippon Life Insurance Co	보험	22.5	9.4	9	2.1
5	ORIX Corp	분산투자	15.7	6.5	7	1.7
6	Mitsui Sumitomo Insurance Co Ltd	보험	11	4.6	4	1
7	JFE Steel Corp	철강/광업	10.3	4.3	2	0.5
8	Matsushita Electric Works Ltd	기타 공업	4.7	2	1	0.2
9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기계	3	1.2	2	0.5
10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은행	2.9	1.2	3	0.7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6) 싱가포르

[표 4-48]은 싱가포르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131.2%, 5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도 모두 각각 477%, 127.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8. 싱가포르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6.1	14.2	131.2	93	142	52.7
브라운필드	70.1	404.7	477	140	319	127.9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49]는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부동산으로 2014년 누적치 대비 143.4%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석탄/석유/가스와 재생에너지로 기간 증가율이 각각 234%, 569.1%에 이른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석유/가스(투자금액 129억 3천만 달러)이다. 2015년 이후부터 금융, 부동산, 재생에너지, 병원 등 다양한 산업의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싱가포르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의 인상적인 부분이다.

표 4-49.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부동산	2.5	6.2	143.4	9	25	177.8
2	석탄/석유/가스	1	3.2	234	3	3	0
3	재생에너지	0.2	1.3	569.1	4	2	-50
4	금융서비스	0.2	0.8	299.5	5	28	460
5	정보통신	0.3	0.7	138.5	11	6	-45.5
6	사업서비스	0.1	0.6	612.6	9	19	111.1

표 4-49. 계속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7	소프트웨어/IT서비스	0.1	0.5	518.4	11	38	245.5
8	전자부품	0.1	0.3	141.1	4	3	-25
9	운송/물류	0.6	0.2	-70.9	12	6	-50
10	레저/오락	0	0.2	-	0	1	-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석유/가스	2	129.3	6,466.8	5	4	-20
2	기타 금융	1.6	41.1	2,530.1	4	10	150
3	기타 부동산	1.4	23.4	1,563.4	6	16	166.7
4	재생에너지	1.4	21.9	1,512.9	2	18	800
5	병원	4.7	15.4	229.7	6	11	83.3
6	국립 기관	0	14.9	-	0	1	-
7	운송/인프라	1.3	14.4	1,047.6	7	15	114.3
8	상업용 부동산	0	12.1	-	0	14	-
9	에너지	4.1	12.1	195.3	7	7	-
10	자산관리	0.1	11.8	17,707.5	2	8	300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50]은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은 인도의 공유 오피스 시장에 거액의 투자를 한 아센다스 싱브릿지(Ascendas-Singbride)이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4억 7천만 달러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싱가포르의 반도체업체인 플렉스(Flex Ltd)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싱가포르 석유회사 페트롤 콤플렉스(Petrol Complex Pte Ltd)가 가장 많은 129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이는 전체 싱가포르 기업 투자에서 22.8%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대부분의 브라운필드 투자는 Investor Group 등 기타 금융회사의 M&A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표 4-50. 싱가포르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Ascendas-Singbridge(Ascendas)	부동산	4.7	16.3	19	5.9
2	Flex Ltd(Flextronics)	반도체	3	10.5	1	0.3
3	Sembcorp Utilities	석탄/석유/가스	1.5	5.2	1	0.3
4	Sembcorp Industries	석탄/석유/가스	1.5	5.2	1	0.3
5	CapitaMalls Asia	부동산	1.5	5.1	5	1.6
6	Ascott Group	부동산	1.4	4.9	5	1.6
7	Sembcorp Green Infra	재생에너지	1	3.6	1	0.3
8	Universal Success Enterprises Limited	석탄/석유/가스	1	3.3	1	0.3
9	Flex Ltd(Flextronics)	전자부품	0.9	3	8	2.5
10	Assetz Property Group	부동산	0.6	2	2	0.6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Petrol Complex Pte Ltd	석유/가스	129.1	22.8	1	0.2
2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85.2	15.1	78	13
3	BCP Topco IX Pte Ltd	기타 금융	31.3	5.5	2	0.3
4	GlaxoSmithKline Pte Ltd	제약	19	3.4	2	0.3
5	Temasek International Pte Ltd	자산관리	14.9	2.6	25	4.2
6	Macquarie Asia Investment Fund	기타 금융투자	14.9	2.6	1	0.2
7	Reco Diamond Pte Ltd	기타 금융	13.9	2.5	1	0.2
8	Northern TK Venture Pte Ltd	기타 금융	10.8	1.9	3	0.5
9	Pastel Ltd	기타 금융	8.9	1.6	2	0.3
10	Marble II Pte Ltd	기타 금융	8.9	1.6	2	0.3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7) UAE

[표 4-51]은 UAE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UAE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44.2%,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각각 243.1%, 103.7% 증가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UAE의 대인도 설비투자는 2014년 누적치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M&A 등 지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아, UAE 기업은 막대한 금융을 기반으로 인도 기업 인수 등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1. UAE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12.1	6.8	-44.2	242	114	-52.9
브라운필드	18.2	62.3	243.1	27	55	103.7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52]는 UAE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부동산으로 2014년 누적치 대비 57.2% 증가한 수치이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부동산 관리/개발(투자금액 20억 달러)이다. 2015년 이후부터 금융, 자산관리, 병원 등 다양한 산업의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UAE 투자의 특이점이다.

표 4-52. UAE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부동산	2.2	3.5	57.2	10	16	60
2	금융서비스	3.3	0.9	-71.7	103	34	-67
3	식품/음료	2.2	0.9	-60.3	17	7	-58.8
4	소비자 제품	0.8	0.4	-52.9	24	12	-50
5	재생에너지	0	0.2	-	0	1	-
6	의료서비스	0.9	0.2	-79.5	16	10	-37.5
7	석탄/석유/가스	0	0.2	1,199.4	3	2	-33.3
8	가전제품	0	0.1	2,559.6	1	1	0
9	운송/물류	1.5	0.1	-92.8	19	3	-84.2
10	세라믹/유리	0.1	0.1	-28.7	3	2	-33.3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부동산 관리/개발	0	20	-	0	1	-
2	운송/인프라	3.8	10.9	186.2	1	8	700
3	기타 금융	0	10.2	-	1	2	100
4	자산관리	0	10	-	0	1	-
5	병원	0	3.4	-	0	4	-
6	재생에너지	0	1.5	-	0	2	-
7	식품/음료	0	1.2	-	0	2	-
8	IT 컨설팅/서비스	0	1.2	-	0	4	-
9	소프트웨어	0	1.1	-	0	3	-
10	건축자재	0	1	-	0	3	-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53]은 UAE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UAE 기업은 금융 서비스 회사인 UAE Exchange Centre이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

자금액은 3억 4천만 달러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UAE의 세라믹/유리 업체인 하르샤 그룹(Harsha Group)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자의 경우 Investor Group 등 기타 금융회사의 M&A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표 4-53. UAE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UAE Exchange Centre	금융서비스	3.4	10.1	108	23.6
2	Harsha Group	세라믹/유리	3.1	9.4	1	0.2
3	LuLu	부동산	2.4	7.2	9	2
4	DP World	운송/물류	1.9	5.7	8	1.8
5	ETA Star	석탄/석유/가스	1.5	4.6	1	0.2
6	Emaar Properties	부동산	1.5	4.5	1	0.2
7	Amira Nature Foods	식음료	1.4	4.3	9	2
8	LuLu	식음료	1.2	3.7	8	1.8
9	Limitless	부동산	1.2	3.6	1	0.2
10	Sky Group	부동산	0.8	2.5	3	0.7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24.5	26.3	18	16.8
2	Brookfield Pvt Capital (DIFC) Ltd	기타 금융	20	21.6	2	1.9
3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기타 금융투자	11	11.9	3	2.8
4	Shelf Drilling International Holdings Ltd	건설/엔지니어링	10.5	11.3	1	0.9
5	Emirates Telecommunications Group Co PJSC	정보통신서비스	9.8	10.6	3	2.8
6	Etihad Airways PJSC	운수/인프라	5.3	5.7	3	2.8
7	Abraaj Capital Ltd	기타 금융투자	2.1	2.3	2	1.9
8	Abu Dhabi Future Energy Co PJSC	재생에너지	1.5	1.6	1	0.9
9	Vps Healthcare LLC	병원	1.5	1.6	2	1.9
10	Ali Cloud Investment LLC	기타 금융투자	1	1.1	1	0.9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8) 한국

[표 4-54]는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 추이를 [표 4-30]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2015~20년 그린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2009~14년 누적치보다 각각 44.7%,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각각 480.1%, 15.8% 증가하였다. 일본, UAE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인도 설비투자는 2014년 누적치와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M&A 등 지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54.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그린필드	14.9	8.2	-44.7	78	65	-16.7
브라운필드	1.6	9	480.1	19	22	15.8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55]는 한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2015~20년 가장 많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철강이지만, 2014년 누적치 대비 60.6% 감소한 수치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투자가 자동차 위탁생산(투자금액 1억 7천만 달러)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년에 가장 많은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이 유입된 산업은 운송/인프라(투자금액 3억 5천만 달러)이다. 2015년 이후부터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산업 종류가 다양해지지만, 각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5. 한국의 상위 10개 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철강	7.4	2.9	-60.6	13	2	-84.6
2	자동차 위탁생산	1	1.7	66	7	11	57.1
3	재생에너지	0	0.8	-	0	4	-
4	사업기기	0	0.5	-	0	1	-
5	가전제품	0.7	0.5	-32.2	12	4	-66.7
6	전자부품	0.1	0.4	283.5	1	2	100
7	정보통신	0.6	0.3	-40.5	4	8	100
8	자동차 부품	1.1	0.3	-70.3	10	6	-40
9	공업 장비	0	0.1	848.7	3	6	100
10	소프트웨어/IT서비스	0	0.1	-	0	4	-
브라운필드							
순위	산업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기간 증감률
1	운송/인프라	0	3.5	11,909.2	1	3	200
2	식품/음료	0	2.1	-	0	2	-
3	자산관리	0	1.2	-	0	1	-
4	기계	0.1	0.6	752.8	2	1	-50
5	제약	0.2	0.5	155	1	1	-
6	기타 금융	0	0.2	-	0	1	-
7	전문 서비스	0	0.2	-	0	2	-
8	출판	0	0.1	-	0	1	-
9	소프트웨어	0	0.1	-	0	1	-
10	정보통신서비스	0	0.1	-	0	1	-

주: 순위는 2015~20년 누적 투자금액 순위를 나타냄.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표 4-56]은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그린필드의 경우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 기업은 철강 회사인 포스코이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3억 1천만 달

러로, 전체 브라운필드 투자 규모에서 41.1%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그린필드 투자를 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이며, 전체 그린필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 수준이다.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Investor Group의 M&A 관련 투자 다음으로, 롯데제과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브라운필드 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인 넥슨의 지주사 NXC의 투자가 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CJ 대한통운 등의 기업도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 4-56.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별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2003~21년)

(단위: 억 달러, %, 개, %)

그린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POSCO(Pohang Iron & Steel)	철강	13.1	41.1	14	5.6
2	Hyundai Motor India(HMIL)	자동차 위탁생산	2.7	8.4	16	6.3
3	Korea East-West Power(EWP)	석탄/석유/가스	1.6	5	1	0.4
4	Hyundai Motor	자동차 위탁생산	1.4	4.3	10	4
5	LG Chem	화학제품	0.9	2.8	1	0.4
6	Jusung Engineering	전자부품	0.7	2.3	2	0.8
7	Hyundai Motor	자동차부품	0.7	2.3	3	1.2
8	LG Electronics India	정보통신	0.6	1.9	3	1.2
9	Intellect	반도체	0.6	1.9	1	0.4
10	Hanwha Q Cells	재생에너지	0.5	1.7	2	0.8
브라운필드						
순위	기업	산업	금액	비중	건수	비중
1	Investor Group	기타 금융	3.9	35.1	12	23.5
2	Lotte Confectionery Co Ltd	식음료	2.4	21.3	5	9.8
3	Nxc Corp	소프트웨어	1.2	11	1	2
4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	기계	0.6	5.5	1	2
5	CJ Logistics Corp	운송/인프라	0.5	4.5	1	2
6	TBO Korea Holdings Ltd	기타 금융	0.5	4.5	1	2
7	Sk Lubricants Co Ltd	화학제품	0.3	3	2	3.9
8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기타 공업	0.3	2.5	2	3.9
9	Krafton Inc	소프트웨어	0.2	2	1	2
10	Songwon Industrial Co Ltd	화학제품	0.2	1.7	2	3.9

주: 2003년은 2월부터, 2021년은 3월까지 누적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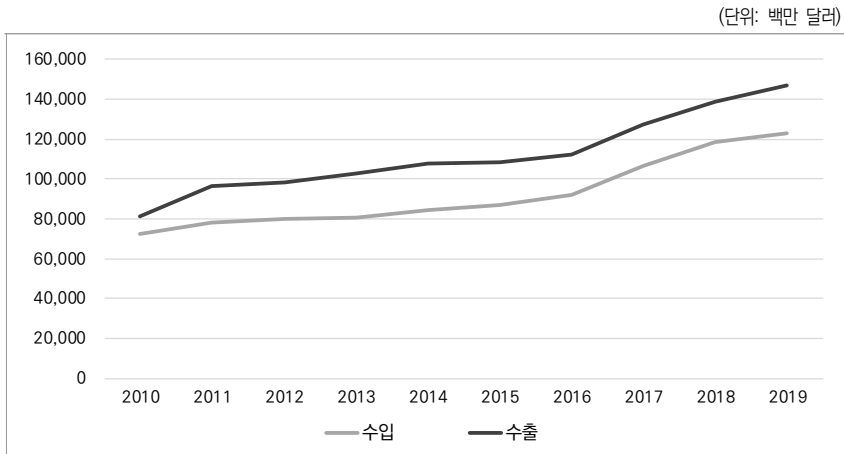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가. 전체

2019년 서비스무역액 2,690억 달러를 기록한 인도는 2010~19년 기간 수출 및 수입액이 각각 80%, 69% 성장하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²⁰⁰⁾ 2010년 이후 인도의 대세계 서비스무역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4-17 참고), 매년 서비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면서 흑자를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813억 달러와 7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각각 1,471억 달러와 1,22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기간 연평균 서비스무역 흑자 규모는 197억 달러로 나타났고 무역 규모와 흑자액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7. 인도의 대세계 서비스무역 추이(2010~19년)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0) 분석 데이터는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EBOPS 2010)를 기준으로 작성된 WTO Stats의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활용.

[표 4-57] 및 [그림 4-18]과 같이 서비스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출대상국은 미국(2019년 기준 21.7%), EU(17.4%), ASEAN(9.2%), 영국(8.7%)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미국과 대ASEAN 수출비중은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순위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홍콩, 중국, UAE 등이며 한국은 12위를 기록하였다(2019년 기준).

표 4-57. 인도의 서비스수출 현황(201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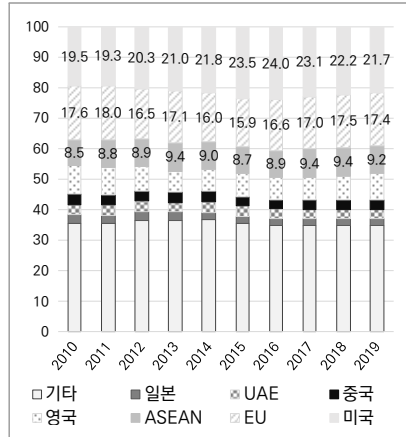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미국	EU	ASEAN	영국	중국	전 세계
2010	15,889	14,281	6,897	7,502	2,945	81,323
2011	18,604	17,287	8,512	8,656	3,200	96,216
2012	20,014	16,298	8,801	8,058	3,290	98,583
2013	21,485	17,542	9,596	6,980	3,506	102,462
2014	23,468	17,261	9,680	7,791	3,795	107,681
2015	25,389	17,239	9,389	8,224	3,285	108,255
2016	26,993	18,593	9,972	8,217	3,364	112,335
2017	29,329	21,644	11,935	9,212	4,391	127,143
2018	30,784	24,234	13,094	10,534	4,687	138,757
2019	31,903	25,550	13,507	12,766	4,771	147,114
합계	243,868	189,929	101,383	87,940	37,234	1,119,869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8.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출 대상국 비중(2010~19년)

(단위: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인도의 서비스수입을 살펴보면(표 4-58 및 그림 4-19 참고), 주요 대상국은 미국(2019년 기준 21.8%), EU(18.7%), ASEAN(10.1%), 영국(5%) 등으로 나타나는데, 인도 대비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이(아세안의 경우 싱가포르) 대인도 서비스수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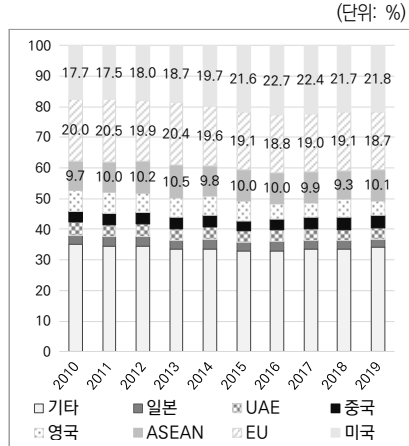
표 4-58. 인도의 서비스수입 현황(2010~19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미국	EU	ASEAN	영국	중국	전 세계
2010	12,829	14,484	7,051	4,895	2,651	72,524
2011	13,657	15,980	7,793	5,204	2,936	78,012
2012	14,350	15,848	8,126	5,211	2,968	79,837
2013	15,136	16,505	8,503	5,159	2,988	80,852
2014	16,678	16,569	8,263	5,326	3,250	84,488
2015	18,714	16,615	8,690	5,669	2,904	86,785
2016	20,960	17,381	9,259	4,749	3,204	92,284
2017	23,808	20,150	10,554	4,969	4,239	106,274
2018	25,732	22,670	11,051	7,094	4,800	118,637
2019	26,703	22,909	12,407	6,146	4,924	122,741
합계	188,567	179,111	91,697	54,422	34,864	922,434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9.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입 대상국 비중(2010~19년)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59 참고), 인도의 주요 수출분야는 기타 비즈니스(35.4%), 통신·정보(30.8%), 관광(14.0%), 수송·운송(11.4%) 순으로 집계되었다. WTO에 따르면 인도는 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정보통신(IT) 서비스수출국이며(2017년 기준),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분석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확장 중인 인도의 IT 서비스 산업은 관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적재산권(IP) 관련 서비스의 대외무역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⁰¹⁾

한편 R&D, 전문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기술 및 무역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은 2010년 67.6%에서 2019년 73.3%로 상승하였는데, 동 기간 0.3%에서 1.2%로 크게 성장한 지식 및 지적재산 분야도 이에 포함된다. 수송·운송 서비스는 2010년 15.6%에서 2019년 11.4%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 WTO(2019), pp. 28-29.

표 4-59.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80,652	99.2	146,283	99.4
	수송·운송	12,721	15.6	16,828	11.4
	관광	12,580	15.5	20,571	14.0
	기타 상업서비스	54,971	67.6	107,872	73.3
	- 건설	1,044	1.3	2,523	1.7
	- 보험 및 연금	863	1.1	1,411	1.0
	- 금융	2,880	3.5	3,268	2.2
	- 지식 및 지적재산	283	0.3	1,793	1.2
	- 통신·정보	24,000	29.5	45,334	30.8
	- 기타 비즈니스	25,193	31.0	52,113	35.4
	- 개인·문화	708	0.9	1,429	1.0
	제조업 관련 서비스	380	0.5	1,012	0.7
	- 제조서비스	295	0.4	586	0.4
	- 정비 및 수리	86	0.1	426	0.3
정부간 상품 및 용역		671	0.8	831	0.6
	총 서비스	81,323	100.0	147,114	100.0

주: 1) 서비스무역 분류는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의 EBOPS 2010 기준.

2) 원자료의 수출액이 소수점 누락된 채 표기돼, 일부 세부항목의 합계액에 차이가 발생.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60 참고), 인도의 주요 수입분야는 관광(30.5%), 수송·운송(24.8%), 기타 비즈니스(16.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도는 서비스수출에서는 통신·정보 및 기타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수입은 수송·운송과 관광 분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 대비 2019년 금융서비스의 수입 비중은 낮아진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 및 통신·정보 서비스의 비중은 높아졌다.

표 4-60.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71,467	98.5	121,128	98.7
	수송·운송	21,602	29.8	30,480	24.8
	관광	20,991	28.9	37,445	30.5
	기타 상업서비스	27,284	37.6	50,728	41.3
	- 건설	1,322	1.8	2,336	1.9
	- 보험 및 연금	1,207	1.7	2,438	2.0
	- 금융	3,793	5.2	4,134	3.4
	- 지식 및 지적재산	2,417	3.3	7,151	5.8
	- 통신·정보	5,354	7.4	12,141	9.9
	- 기타 비즈니스	11,936	16.5	20,266	16.5
	- 개인·문화	1,254	1.7	2,262	1.8
	제조업 관련 서비스	1,591	2.2	2,475	2.0
	- 제조서비스	209	0.3	308	0.3
	- 정비 및 수리	1,382	1.9	2,167	1.8
정부간 상품 및 용역		1,057	1.5	1,613	1.3
	총 서비스	72,524	100.0	122,741	100.0

주: 1) 서비스무역 분류는 UN COMTRADE(검색일: 2021. 9. 13)의 EBOPS 2010 기준.

2) 원자료의 수출액이 소수점 누락된 채 표기돼, 일부 세부항목의 합계액에 차이가 발생.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국가별

1) 미국

인도의 최대 서비스무역 대상국인 미국은 수출과 수입 비중이 각각 20%를 상회하며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전부터 미국에 진출해온 인도의 IT, 공학 등 분야의 고급 인재들은 해당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인포시스(Infosys), 타타 컨설팅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등의 인도 IT 기업들은 전문직 취업비자로 상당수의

자사 고급인력을 미국 고객사에 파견해 왔다. 미국 정부는 연간 8만 5천여 명이 H-1B 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중 67% 이상이 인도 국적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⁰²⁾

다만 전문직 취업비자 활용을 통한 인도의 대미 서비스무역은 최근 미-인도 간 서비스시장 개방과 데이터 규제 등의 무역 갈등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자국화(data localization)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국의 고용시장 안정을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H-1B 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021년 9월 미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비자 발급 확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인도와 미국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61 및 그림 4-20 참고),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의 최대 서비스수출대상국이자 수입 대상국이며 양국의 교역액은 2010년부터 2019년 기간에 두 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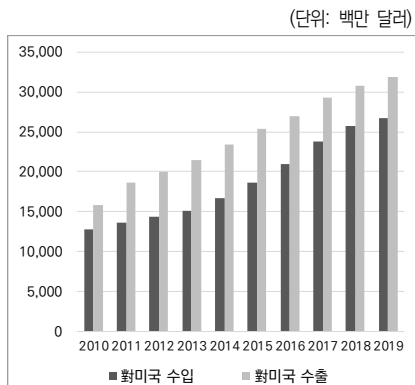
표 4-61. 인도-미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미국 서비스수입		대미국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12,829	17.7	15,889	19.5
2011	13,657	17.5	18,604	19.3
2012	14,350	18.0	20,014	20.3
2013	15,136	18.7	21,485	21.0
2014	16,678	19.7	23,468	21.8
2015	18,714	21.6	25,389	23.5
2016	20,960	22.7	26,993	24.0
2017	23,808	22.4	29,329	23.1
2018	25,732	21.7	30,784	22.2
2019	26,703	21.8	31,903	21.7
합계	188,567	-	243,858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0.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무역 현황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2) "Over 67 Percent of H1B Registrants from India, Says US"(2020. 4. 1), <https://www.news18.com/news/india/over-67-percent-of-h1b-registrants-from-india-says-us-2560783.html>(검색일: 2021. 9. 30).

산업별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62 참고), 인도의 주요 수출분야는 통신·정보 비중이 매우 높으며(45.5%) 수송·운송, 관광 서비스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석기간 중 수송·운송, 관광, 금융 분야의 수출비중이 감소한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2010년 0.6%에서 2019년 3.5%로 크게 증가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표 4-62. 산업별 대미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15,834	99.7	31,829	99.8
	수송·운송	777	4.9	885	2.8
	관광	1,863	11.7	2,707	8.5
	기타 상업서비스	13,184	83.0	28,173	88.3
	- 건설	8	0.1	74	0.2
	- 보험 및 연금	114	0.7	214	0.7
	- 금융	690	4.3	716	2.2
	- 지식 및 지적재산	92	0.6	1,128	3.5
	- 통신·정보	7,581	47.7	14,518	45.5
	- 기타 비즈니스	4,490	28.3	11,134	34.9
	- 개인·문화	208	1.3	389	1.2
	제조업 관련 서비스	9	0.1	64	0.2
	- 제조서비스	0	0.0	30	0.1
	- 정비 및 수리	9	0.1	34	0.1
정부간 상품 및 용역		55	0.3	73	0.2
	총 서비스	15,889	100.0	31,903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63 참고), 인도의 대미국 주요 수입 분야는 관광(43%)으로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비즈니스(14.5%), 지식 및 지적재산(10.1%)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수송·운송(8.3%) 부문의 비중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10년 대비 2019년 관광, 금융 부문의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부문의 수입 비중은 증가했다.

표 4-63. 산업별 대미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12,478	97.3	26,167	98.0
	수송·운송	1,647	12.8	2,211	8.3
	관광	5,603	43.7	11,489	43.0
	기타 상업서비스	5,077	39.6	11,839	44.3
	- 건설	30	0.2	56	0.2
	- 보험 및 연금	100	0.8	435	1.6
	- 금융	1,084	8.4	1,567	5.9
	- 지식 및 지적재산	797	6.2	2,694	10.1
	- 통신·정보	828	6.5	2,014	7.5
	- 기타 비즈니스	1,937	15.1	3,875	14.5
	- 개인·문화	300	2.3	1,198	4.5
	제조업 관련 서비스	151	1.2	627	2.3
	- 제조서비스	0	0.0	4	0.0
	- 정비 및 수리	151	1.2	623	2.3
정부간 상품 및 용역		351	2.7	536	2.0
	총 서비스	12,829	100.0	26,703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중국

서비스 분야의 인도와 중국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64 및 그림 4-21 참고), 상품교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인도의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9년 중국은 상품교역 측면에서 인도의 최대 수입대상국(14.3%)이며, 세 번째 수출대상국(5.35%)을 기록했다. 반면 2019년 기준 중국은 인도의 여섯 번째 서비스수출 대상국이며 다섯 번째

서비스수입 대상국이다. 다만 양국의 서비스교역은 2015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수출 및 수입은 각각 45%와 6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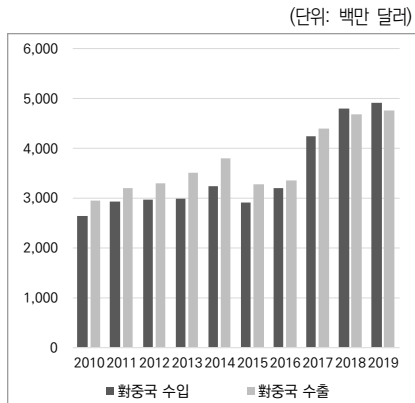
표 4-64. 인도-중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중국 서비스수입		대중국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2,651	3.7	2,945	3.6
2011	2,936	3.8	3,200	3.3
2012	2,968	3.7	3,290	3.3
2013	2,988	3.7	3,506	3.4
2014	3,250	3.8	3,795	3.5
2015	2,904	3.3	3,285	3.0
2016	3,204	3.5	3,364	3.0
2017	4,239	4.0	4,391	3.5
2018	4,800	4.0	4,687	3.4
2019	4,924	4.0	4,771	3.2
합계	34,864	-	37,234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1.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무역 현황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65 참고), 인도의 주요 수출분야는 수송·운송과 관광 서비스로 2019년 각각 총 수출액의 41.6%, 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정보(9.1%), 기타 비즈니스(20%)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수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4-65. 산업별 대중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2,937	99.7	4,761	99.8
	수송·운송	1,330	45.2	1,984	41.6
	관광	502	17.0	1,158	24.3

표 4-6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기타 상업서비스	1,105	37.5	1,596	33.5
	- 건설	24	0.8	74	1.6
	- 보험 및 연금	69	2.3	47	1.0
	- 금융	45	1.5	46	1.0
	- 지식 및 지적재산	4	0.1	12	0.3
	- 통신·정보	260	8.8	432	9.1
	- 기타 비즈니스	692	23.5	953	20.0
	- 개인·문화	9	0.3	32	0.7
	제조업 관련 서비스	1	0.0	23	0.5
	- 제조서비스	1	0.0	3	0.1
	- 정비 및 수리	0	0.0	21	0.4
	정부간 상품 및 용역	7	0.2	10	0.2
	총 서비스	2,945	100.0	4,771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인도의 대중국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66 참고), 주요 수입 분야는 수송·운송(36.4%), 관광(22.4%), 기타 비즈니스(18.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도는 대중국 수입, 수출 모두 수송·운송과 관광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관광 수입 비중이 33.8%에서 22.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신·정보 수입 비중은 3.4%에서 10.4%로 증가했다.

표 4-66. 산업별 대중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2,631	99.2	4,893	99.4
	수송·운송	968	36.5	1,791	36.4
	관광	895	33.8	1,102	22.4
	기타 상업서비스	735	27.7	1,933	39.3
	- 건설	96	3.6	332	6.7
	- 보험 및 연금	9	0.3	55	1.1
	- 금융	40	1.5	62	1.3

표 4-6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 지식 및 지적재산	5	0.2	30	0.6
	- 통신·정보	91	3.4	512	10.4
	- 기타 비즈니스	477	18.0	910	18.5
	- 개인·문화	18	0.7	33	0.7
	제조업 관련 서비스	33	1.2	67	1.4
	- 제조서비스	33	1.2	18	0.4
	- 정비 및 수리	0	0.0	48	1.0
정부간 상품 및 용역		19	0.7	31	0.6
총 서비스		2,651	100.0	4,924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일본

서비스 분야의 인도와 일본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67 및 그림 4-22 참고), 상품교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인도의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양국의 서비스교역은 2014년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대일본 서비스수출 및 수입은 각각 44%와 42% 증가하였다.

표 4-67. 인도-일본 간 서비스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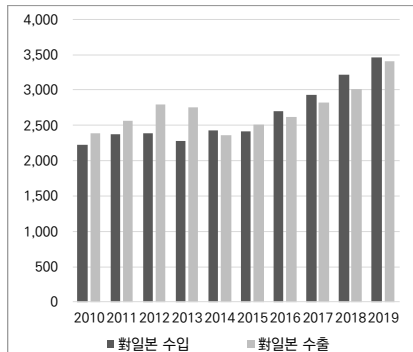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일본 서비스수입		대일본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2,228	3.1	2,384	2.9
2011	2,372	3.0	2,565	2.7
2012	2,390	3.0	2,794	2.8
2013	2,283	2.8	2,750	2.7
2014	2,434	2.9	2,367	2.2
2015	2,419	2.8	2,509	2.3
2016	2,707	2.9	2,618	2.3
2017	2,932	2.8	2,817	2.2
2018	3,212	2.7	3,019	2.2
2019	3,458	2.8	3,412	2.3
합계	26,435	-	27,235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2. 인도의 대일본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일본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68 참고), 인도의 주요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34.7%), 기타 비즈니스(38.2%) 등이며 건설(7.6%) 분야의 서비스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에 수송·운송, 관광, 금융 분야의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통신·정보 서비스의 비중은 22.1%에서 34.7%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8. 산업별 대일본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2,377	99.7	3,404	99.8
	수송·운송	227	9.5	211	6.2
	관광	368	15.4	308	9.0
	기타 상업서비스	1,776	74.5	2,872	84.2
	- 건설	259	10.9	260	7.6
	- 보험 및 연금	28	1.2	22	0.6
	- 금융	72	3.0	73	2.1
	- 지식 및 지적재산	6	0.3	15	0.4
	- 통신·정보	526	22.1	1,184	34.7
	- 기타 비즈니스	876	36.7	1,303	38.2
	- 개인·문화	9	0.4	15	0.4
	제조업 관련 서비스	5	0.2	13	0.4
	- 제조서비스	5	0.2	6	0.2
	- 정비 및 수리	1	0.04	7	0.2
정부간 상품 및 용역		8	0.3	7	0.2
	총 서비스	2,384	100.0	3,412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69 참고), 인도의 대일본 수입 분야 중 지식 및 지적재산(4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송·운송(21.8%)과 기타 비즈니스(13.7%) 역시 수입 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인도의 대일본 수입 분야 중 수송·운송 부문이

2010년 34.9%에서 2019년 21.8%로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분야의 수입 비중은 28.2%에서 41.8%로 급증했다.

표 4-69. 산업별 대일본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2,220	99.6	3,445	99.6
	수송·운송	777	34.9	753	21.8
	관광	112	5.0	304	8.8
	기타 상업서비스	1,329	59.6	2,383	68.9
	- 건설	105	4.7	193	5.6
	- 보험 및 연금	46	2.1	59	1.7
	- 금융	77	3.5	45	1.3
	- 지식 및 지적재산	628	28.2	1,445	41.8
	- 통신·정보	38	1.7	156	4.5
	- 기타 비즈니스	424	19.0	474	13.7
	- 개인·문화	11	0.5	11	0.3
	제조업 관련 서비스	1	0.0	5	0.1
	- 제조서비스	1	0.0	0	0.0
	- 정비 및 수리	0	0.0	5	0.1
정부간 상품 및 용역		8	0.4	13	0.4
	총 서비스	2,228	100.0	3,458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아세안

ASEAN은 미국 및 EU와 더불어 인도의 주요 서비스 교역대상국으로 꼽히며 2019년 기준 총 수출과 수입의 9.2%,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와 ASEAN의 서비스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70 및 그림 4-23 참고),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양자간 서비스 교역은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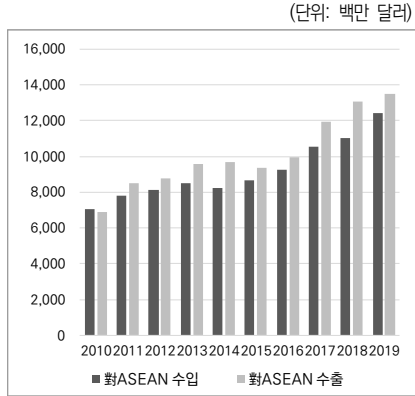
표 4-70. 인도-ASEAN 간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ASEAN 서비스수입		대ASEAN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7,051	9.7	6,897	8.5
2011	7,793	10.0	8,512	8.8
2012	8,126	10.2	8,801	8.9
2013	8,503	10.5	9,596	9.4
2014	8,263	9.8	9,680	9.0
2015	8,690	10.0	9,389	8.7
2016	9,259	10.0	9,972	8.9
2017	10,554	9.9	11,935	9.4
2018	11,051	9.3	13,094	9.4
2019	12,407	10.1	13,507	9.2
합계	91,697	-	101,383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3. 인도의 대ASEAN 서비스무역 현황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ASEAN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71 참고), 주요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 수송·운송, 관광 서비스이며, 2010년 이후 통신·정보 서비스 비중이 23.6%에서 31.4%로 크게 증가하고 건설도 1.7%에서 2.5%로 증가하였다. 반면 수송·운송은 20.1%에서 14.8%로 감소했다.

표 4-71. 산업별 대ASEAN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6,874	99.7	13,483	99.8
	수송·운송	1,387	20.1	1,993	14.8
	관광	1,062	15.4	1,972	14.6
	기타 상업서비스	4,416	64.0	9,480	70.2
	- 건설	120	1.7	344	2.5
	- 보험 및 연금	146	2.1	190	1.4
	- 금융	244	3.5	331	2.5
	- 지식 및 지적재산	25	0.4	90	0.7
	- 통신·정보	1,627	23.6	4,243	31.4
	- 기타 비즈니스	2,163	31.4	4,201	31.1
- 개인·문화	88	1.3	81	0.6	

표 4-7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12	0.2	35	0.3
	- 제조서비스	2	0.0	9	0.1
	- 정비 및 수리	10	0.1	25	0.2
	정부간 상품 및 용역	23	0.3	26	0.2
	총 서비스	6,897	100.0	13,507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72 참고), 인도의 대아세안 주요 수입 분야는 관광(30.9%), 수송·운송(30.4%), 기타 비즈니스(19.5%)로 집계되었다. 인도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와 기타 비즈니스인 반면 주요 수입 분야는 관광과 수송·운송 분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 이후 수송·운송의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관광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2. 산업별 대ASEAN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7,024	99.6	12,374	99.7
	수송·운송	2,488	35.3	3,771	30.4
	관광	1,818	25.8	3,838	30.9
	기타 상업서비스	2,501	35.5	4,493	36.2
	- 건설	188	2.7	252	2.0
	- 보험 및 연금	141	2.0	376	3.0
	- 금융	369	5.2	463	3.7
	- 지식 및 지적재산	34	0.5	152	1.2
	- 통신·정보	354	5.0	765	6.2
	- 기타 비즈니스	1,335	18.9	2,416	19.5
	- 개인·문화	77	1.1	67	0.5

표 4-72.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216	3.1	271	2.2
	- 제조서비스	6	0.1	60	0.5
	- 정비 및 수리	210	3.0	211	1.7
정부간 상품 및 용역		25	0.4	33	0.3
	총 서비스	7,051	100.0	12,407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EU 및 영국

[표 4-73] 및 [그림 4-24]와 같이 EU와의 서비스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대EU 수출과 수입 비중은 17.4%, 18.7%로(2019년), EU는 미국에 이어 2위 서비스 교역대상국이다. 특히 최근 양자간 서비스 교역 증가세가 뚜렷한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대EU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37.4%, 31.8% 증가하였다.

표 4-73. 인도-EU 간 서비스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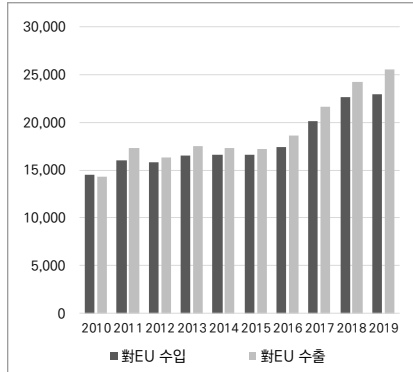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EU 서비스수입		대EU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14,484	20.0	14,281	17.6
2011	15,980	20.5	17,287	18.0
2012	15,848	19.9	16,298	16.5
2013	16,505	20.4	17,542	17.1
2014	16,569	19.6	17,261	16.0
2015	16,615	19.1	17,239	15.9
2016	17,381	18.8	18,593	16.6
2017	20,150	19.0	21,644	17.0
2018	22,670	19.1	24,234	17.5
2019	22,909	18.7	25,550	17.4
합계	179,111	-	189,929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4. 인도의 대EU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EU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74 참고), 수송·운송, 관광, 금융 서비스 분야의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제조서비스, 정비 및 수리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8%를 차지한 통신·정보 서비스의 수출비중은 미국 45.5%, 남아공 50.6% 등과 비교 시 낮은 반면, 한국(21.2%), 영국(20.7%) 및 중국(9.1%) 등의 국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4. 산업별 대EU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14,196	99.4	25,492	99.8
	수송·운송	2,050	14.4	2,572	10.1
	관광	1,804	12.6	2,492	9.8
	기타 상업서비스	10,250	71.8	19,904	77.9
	- 건설	140	1.0	191	0.7
	- 보험 및 연금	145	1.0	189	0.7
	- 금융	552	3.9	494	1.9
	- 지식 및 지적재산	64	0.4	284	1.1
	- 통신·정보	3,988	27.9	7,354	28.8
	- 기타 비즈니스	5,290	37.0	11,217	43.9
	- 개인·문화	70	0.5	169	0.7
	제조업 관련 서비스	91	0.6	526	2.1
	- 제조서비스	73	0.5	359	1.4
	- 정비 및 수리	17	0.1	167	0.7
정부간 상품 및 용역		86	0.6	57	0.2
	총 서비스	14,281	100.0	25,550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EU 서비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75 참고), 수송·운송과 통신·정보 분야의 비중이 각각 28.9%, 21.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5. 산업별 대EU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14,380	99.3	22,752	99.3
	수송·운송	5,436	37.5	6,615	28.9
	관광	1,478	10.2	2,874	12.5
	기타 상업서비스	7,105	49.1	12,527	54.7
	- 건설	307	2.1	292	1.3
	- 보험 및 연금	203	1.4	473	2.1
	- 금융	556	3.8	558	2.4
	- 지식 및 지적재산	537	3.7	1,488	6.5
	- 통신·정보	2,517	17.4	4,972	21.7
	- 기타 비즈니스	2,793	19.3	4,426	19.3
	- 개인·문화	186	1.3	313	1.4
	제조업 관련 서비스	360	2.5	737	3.2
	- 제조서비스	101	0.7	165	0.7
	- 정비 및 수리	257	1.8	570	2.5
정부간 상품 및 용역		102	0.7	153	0.7
	총 서비스	14,484	100.0	22,909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영국도 미국, EU, ASEAN과 함께 인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꼽힌다. 서비스 분야의 인도와 영국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76 및 그림 4-25 참고), 2019년 기준 대영국 수출비중은 8.7%, 수입비중은 5%를 차지하였다. 특히 인도의 대영국 서비스 수출액은 2016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19년 기간에 55% 성장하였다.

표 4-76. 인도-영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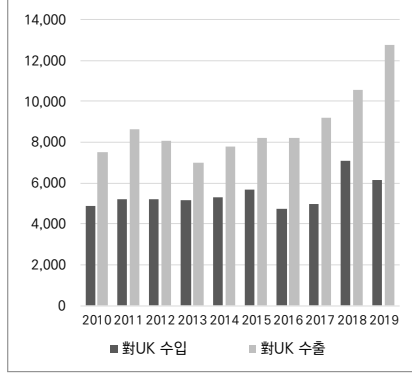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영국 서비스수입		대영국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4,895	6.7	7,502	9.2
2011	5,204	6.7	8,656	9.0
2012	5,211	6.5	8,058	8.2
2013	5,159	6.4	6,980	6.8
2014	5,326	6.3	7,791	7.2
2015	5,669	6.5	8,224	7.6
2016	4,749	5.1	8,217	7.3
2017	4,969	4.7	9,212	7.2
2018	7,094	6.0	10,534	7.6
2019	6,146	5.0	12,766	8.7
합계	54,422	-	87,940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5. 인도의 대영국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영국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77 참고), 수송·운송, 관광, 통신·정보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기타 비즈니스 분야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7. 산업별 대영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7,437	99.1	12,702	99.5
	수송·운송	731	9.7	625	4.9
	관광	1,361	18.1	1,435	11.2
	기타 상업서비스	5,344	71.2	10,633	83.3
	- 건설	4	0.1	27	0.2
	- 보험 및 연금	67	0.9	97	0.8
	- 금융	294	3.9	334	2.6
	- 지식 및 지적재산	11	0.1	57	0.4
	- 통신·정보	1,764	23.5	2,640	20.7
	- 기타 비즈니스	3,099	41.3	7,102	55.6
	- 개인·문화	104	1.4	376	2.9

표 4-7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0	0.0	9	0.1
	- 제조서비스	0	0.0	3	0.0
	- 정비 및 수리	0	0.0	6	0.0
	정부간 상품 및 용역	66	0.9	64	0.5
	총 서비스	7,502	100.0	12,766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영국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78 참고), 주요 수입 분야는 기타 비즈니스(26.4%), 관광(22.7%), 수송·운송(17.1%)이다. 이 중 기타 비즈니스 부문의 수입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주요국 대상 금융 부문의 수입 비중 감소폭 대비 대영국 수입 비중이 더욱 크게 감소한 것도 특징이다.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의 수입 비중은 증가했다.

표 4-78. 산업별 대영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4,850	99.1	5,985	97.4
	수송·운송	972	19.9	1,048	17.1
	관광	1,048	21.4	1,396	22.7
	기타 상업서비스	2,803	57.3	3,432	55.8
	- 건설	28	0.6	56	0.9
	- 보험 및 연금	231	4.7	227	3.7
	- 금융	682	13.9	413	6.7
	- 지식 및 지적재산	122	2.5	542	8.8
	- 통신·정보	273	5.6	419	6.8
	- 기타 비즈니스	1,309	26.7	1,623	26.4
	- 개인·문화	159	3.2	151	2.5

표 4-78.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27	0.6	109	1.8
	- 제조서비스	13	0.3	23	0.4
	- 정비 및 수리	14	0.3	86	1.4
	정부간 상품 및 용역	45	0.9	161	2.6
	총 서비스	4,895	100.0	6,146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UAE 및 남아프리카

한편 서비스 분야의 인도와 UAE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79 및 그림 4-26 참고), 인도의 주요 상품 교역대상국인 UAE와의 서비스무역비중은 수출 및 수입 각각 2.9%, 3.6%(2019년)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양국의 서비스 교역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4-79. 인도-UAE 간 서비스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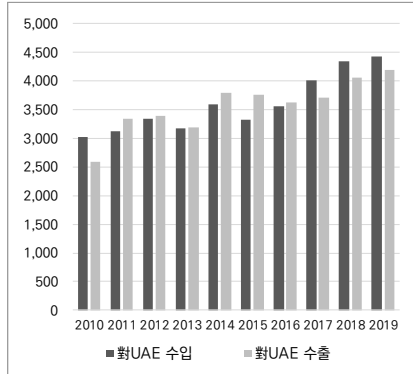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UAE 서비스수입		대UAE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3,029	4.2	2,597	3.2
2011	3,127	4.0	3,334	3.5
2012	3,334	4.2	3,394	3.4
2013	3,179	3.9	3,188	3.1
2014	3,585	4.2	3,790	3.5
2015	3,322	3.8	3,761	3.5
2016	3,561	3.9	3,622	3.2
2017	4,019	3.8	3,708	2.9
2018	4,338	3.7	4,067	2.9
2019	4,421	3.6	4,196	2.9
합계	35,915	-	35,657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6. 인도의 대UAE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UAE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80 참고), 통신·정보 서비스와 수송·운송 서비스의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관광, 수송·운송 분야의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통신·정보 서비스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송·운송 분야 수출액은 2010년 8억 6천만 달러에서 2019년 6억 4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80. 산업별 대UAE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2,586	99.6	4,182	99.7
	수송·운송	861	33.2	604	14.4
	관광	285	11.0	401	9.6
	기타 상업서비스	1,440	55.4	3,171	75.6
	- 건설	7	0.3	89	2.1
	- 보험 및 연금	13	0.5	211	5.0
	- 금융	17	0.7	15	0.4
	- 지식 및 지적재산	1	0.04	7	0.2
	- 통신·정보	846	32.6	1,630	38.8
	- 기타 비즈니스	547	21.1	1,202	28.6
	- 개인·문화	8	0.3	17	0.4
	제조업 관련 서비스	0	0.0	5	0.1
	- 제조서비스	0	0.0	1	0.02
	- 정비 및 수리	0	0.0	5	0.1
정부간 상품 및 용역		11	0.4	14	0.3
	총 서비스	2,597	100.0	4,196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UAE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81 참고), 주요 수입 분야는 관광(38.9%), 수송·운송(37.5%), 기타 비즈니스(10.0%)로 집계됐다. 이 중 수송·운송 부문의 수입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인도의 대UAE 주요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와 기타 비즈니스 부문인 반면 수입은 관광 및 수송·운송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관광 부문의 수입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나 수송·운송, 통신·정보와 건설 부문의 수입 비중은 증가했다.

표 4-81. 산업별 대UAE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2,979	98.3	4,390	99.3
	수송·운송	982	32.4	1,658	37.5
	관광	1,465	48.4	1,721	38.9
	기타 상업서비스	532	17.6	995	22.5
	- 건설	16	0.5	144	3.3
	- 보험 및 연금	41	1.4	37	0.8
	- 금융	28	0.9	19	0.4
	- 지식 및 지적재산	3	0.1	33	0.7
	- 통신·정보	51	1.7	294	6.7
	- 기타 비즈니스	354	11.7	443	10.0
	- 개인·문화	39	1.3	25	0.6
	제조업 관련 서비스	0	0.0	16	0.4
	- 제조서비스	0	0.0	0	0.0
	- 정비 및 수리	0	0.0	16	0.4
정부간 상품 및 용역		50	1.7	32	0.7
	총 서비스	3,029	100.0	4,421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표 4-82] 및 [그림 4-27]과 같이 남아공과의 서비스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양국간의 서비스 무역액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인도는 대 남아공 서비스무역에서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8년에는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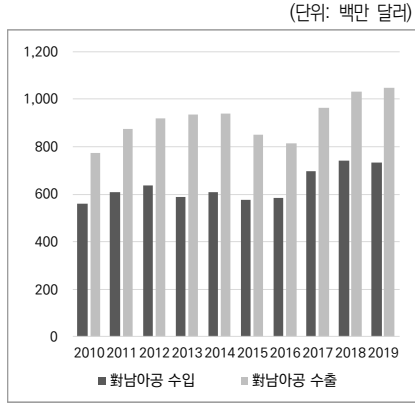
표 4-82. 인도-남아공 간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남아공 서비스수입		대남아공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561	0.8	773	1.0
2011	609	0.8	876	0.9
2012	637	0.8	918	0.9
2013	587	0.7	936	0.9
2014	610	0.7	939	0.9
2015	575	0.7	851	0.8
2016	585	0.6	813	0.7
2017	698	0.7	963	0.8
2018	742	0.6	1,031	0.7
2019	733	0.6	1,049	0.7
합계	6,337	-	9,149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7. 인도의 대남아공 서비스무역 현황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남아공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83 참고), 인도의 주요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 수송·운송, 관광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신·정보 관련 서비스수출이 2019년 50.6%로 총 수출의 과반을 기록하였다.

표 4-83. 산업별 대남아공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770	99.6	1,045	99.6
	수송·운송	109	14.1	141	13.4
	관광	130	16.8	119	11.3
	기타 상업서비스	532	68.8	785	74.8
	- 건설	1	0.1	5	0.5
	- 보험 및 연금	7	0.9	9	0.9
	- 금융	20	2.6	15	1.4
	- 지식 및 지적재산	5	0.6	7	0.7
	- 통신·정보	334	43.2	531	50.6
	- 기타 비즈니스	159	20.6	210	20.0
	- 개인·문화	5	0.6	8	0.8

표 4-8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0	0.0	1	0.1
	- 제조서비스	0	0.0	1	0.1
	- 정비 및 수리	0	0.0	1	0.1
	정부간 상품 및 용역	3	0.4	3	0.3
	총 서비스	773	100.0	1,049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남아공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84 참고), 주요 수입 분야에서는 대EU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광(52.8%)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 분야가 통신·정보와 기타 비즈니스인 반면 주요 수입 분야는 관광과 수송·운송 분야이다. 2010년 이후 수송·운송 부문은 감소한 반면 관광 부문은 증가했다.

표 4-84. 산업별 대남아공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555	98.9	725	98.9
	수송·운송	159	28.3	178	24.3
	관광	277	49.4	387	52.8
	기타 상업서비스	118	21.0	156	21.3
	- 건설	2	0.4	4	0.5
	- 보험 및 연금	13	2.3	19	2.6
	- 금융	13	2.3	8	1.1
	- 지식 및 지적재산	2	0.4	3	0.4
	- 통신·정보	17	3.0	32	4.4
	- 기타 비즈니스	63	11.2	81	11.1
	- 개인·문화	9	1.6	10	1.4

표 4-8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1	0.2	3	0.4
	- 제조서비스	0	0.0	0	0.0
	- 정비 및 수리	1	0.2	3	0.4
정부간 상품 및 용역		6	1.1	8	1.1
	총 서비스	561	100.0	733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 한국

2010년 1월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양자간 서비스교역 활성화의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협정문에서 양국은 분야별 서비스무역의 개방 수준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은 10개 분야 104개 영역, 인도는 11개 분야 81개 영역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참고).²⁰³⁾ CEPA 체결 이후 양국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8차 개선협상이 2019년 6월 개최된 바 있다.

서비스무역 분야의 인도와 한국의 교역 추이를 분석해보면(표 4-85 및 그림 4-28 참고), 양국의 서비스교역은 2015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대한국 서비스수출 및 수입은 각각 26%와 29% 증가하였다. 2019년 인도의 대한국 서비스수출 비중은 2.2%로 1.44%를 기록한 상품수출과 비교 시 서비스교역 측면에서 한국 비중이 소폭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수입(2.4%)은 상품수입 비중(3.36%)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 대한민국정부(2009), pp. 603~7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pp. 26~28.

표 4-85. 인도-한국 간 서비스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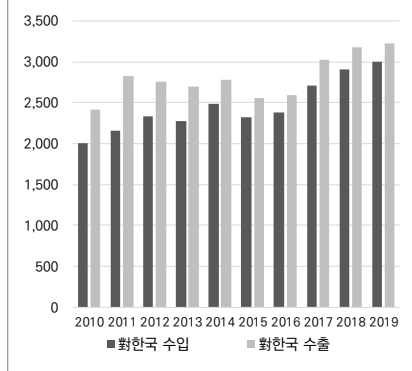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대한국 서비스수입		대한국 서비스수출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2010	2,011	2.8	2,410	3.0
2011	2,162	2.8	2,830	2.9
2012	2,336	2.9	2,760	2.8
2013	2,278	2.8	2,692	2.6
2014	2,488	2.9	2,782	2.6
2015	2,322	2.7	2,550	2.4
2016	2,381	2.6	2,589	2.3
2017	2,704	2.5	3,023	2.4
2018	2,908	2.5	3,179	2.3
2019	3,001	2.4	3,222	2.2
합계	24,591	-	28,037	-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8.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4-86 참고), 2019년 인도의 주요 대한민국 수출 분야는 기타 비즈니스(36.4%), 관광 서비스(25%), 통신·정보(21.2%), 수송·운송(11.1%)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중 통신·정보 서비스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수송·운송 서비스는 감소하였다.

표 4-86. 산업별 대한민국 서비스수출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상업서비스		2,404	99.8	3,214	99.8
	수송·운송	373	15.5	357	11.1
	관광	584	24.2	806	25.0
	기타 상업서비스	1,404	58.3	2,009	62.4
	- 건설	40	1.7	51	1.6
	- 보험 및 연금	18	0.7	20	0.6
	- 금융	48	2.0	39	1.2
	- 지식 및 지적재산	17	0.7	22	0.7
	- 통신·정보	452	18.8	683	21.2
	- 기타 비즈니스	813	33.7	1,172	36.4
	- 개인·문화	15	0.6	23	0.7

표 4-8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42	1.7	42	1.3
	- 제조서비스	42	1.7	39	1.2
	- 정비 및 수리	0	0.0	3	0.1
	정부간 상품 및 용역	7	0.3	8	0.2
	총 서비스	2,410	100.0	3,222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별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87 참고), 인도의 주요 수입 분야는 수송·운송(34.6%), 관광(19.2%), 기타 비즈니스(18.2%)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에 수송·운송의 수입 비중이 50.4%에서 34.6%로 크게 감소했으나, 기타 비즈니스, 관광, 통신·정보와 지식 및 지적재산 분야의 수입 비중은 높아졌다.

표 4-87. 산업별 대한민국 서비스수입 현황(2010,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상업서비스		1,989	98.9	2,968	98.9
	수송·운송	1,013	50.4	1,038	34.6
	관광	280	13.9	577	19.2
	기타 상업서비스	689	34.3	1,326	44.2
	- 건설	218	10.8	280	9.3
	- 보험 및 연금	41	2.0	54	1.8
	- 금융	38	1.9	33	1.1
	- 지식 및 지적재산	49	2.4	162	5.4
	- 통신·정보	38	1.9	194	6.5
	- 기타 비즈니스	255	12.7	546	18.2
	- 개인·문화	50	2.5	58	1.9

표 4-8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부항목	2010		201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	7	0.3	28	0.9
	- 제조서비스	6	0.3	7	0.2
	- 정비 및 수리	1	0.0	21	0.7
정부간 상품 및 용역		22	1.1	33	1.1
	총 서비스	2,011	100.0	3,001	100.0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요약 및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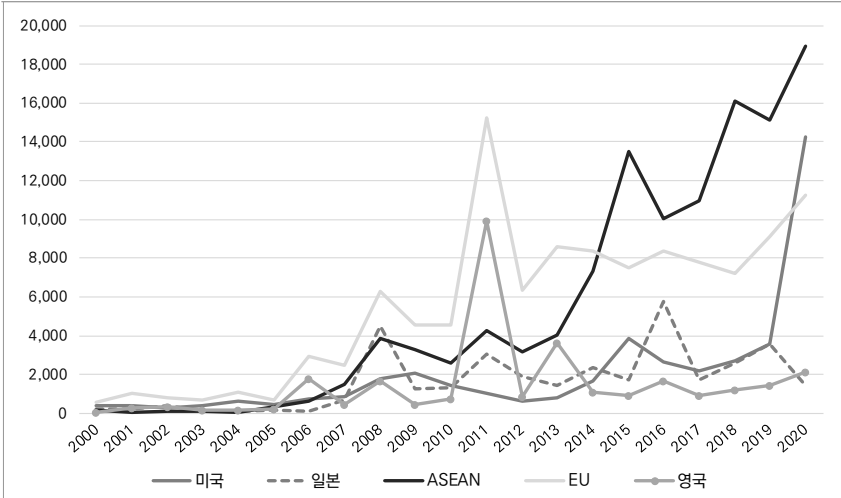
가. 대인도 투자 추이와 특징

1991년 이후 개방화 노력을 토대로 인도의 투자 여건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도 FDI는 2000년 51억 8천만 달러, 2010년 503억 6천만 달러, 2015년에는 각각 734억 6천만 달러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FDI 유입액 기준 전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주요 투자국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무역 등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델리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된 FDI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등 지역별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29]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투자액 기준 상위 5개국의 대인도 FDI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기간 투자금액은 ASEAN 1,161억 달러, EU 1,153억 달러, 미국 427억 달러, 일본 346억 달러, 영국 30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주요국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IPP; CEI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의 최근 10년간 대인도 투자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IT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과 분야별 투자의 다변화 및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인도와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심화되어 왔으나, 교역 규모 대비 투자관계는 다소 완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대인도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는 스냅딜, 스위기 등 기술기반의 인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통한 우회적인 투자 흐름이 상당한 점도 중국의 대인도 투자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인도와 오랜 기간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성장해 2010년 12억 8천만 달러, 2016년 57억 7천만 달러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과 서비스업, 의약 및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19.9%)의 비중이 크게 높고 서비스, 의약 및 제약, 금속 분야의 투자 흐름도 상당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최근 10년간 투자금액 기준 인도의 1위 FDI 파트너로 꼽히는 ASEAN(대부분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는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무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ASEAN은 2000년 6.2%, 2010년 12.4%, 2020년 29.2% 등으로 대인도 투자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과 더불어 서비스 및 무역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EU는 인도와의 투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 투자촉진 메커니즘(IFM) 구축계획 발표 등 인도와 EU는 상호간 투자관계 증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투자 유입은 서비스업, 화학,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과 비교하여 투자 분야가 제조업 등을 포함하여 다변화된 특징을 보인다. EU는 주요국 대비 화학 및 자동차산업의 대인도 투자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투자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진 점을 특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영국의 대인도 투자는 화학, 의약 및 제약, 식품 유통 분야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차별화된다.

경제·외교 등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와 UAE는 최근 20년간 누적금액 기준 109억 달러를 기록해 대인도 9위 투자국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과 비교 시 인도의 대UAE 투자가 매우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UAE의 대인도 투자는 해상운송, 전력,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FDI

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제조업 분야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등 양국간 교류여건 개선을 토대로 최근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주로 이루어진 반면,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과자류 등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최근에도 제조업 편중현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무역, 건축 및 개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다변화 및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대인도 투자 트렌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향후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전 세계의 대인도 투자 비중 측면에서 2000년 0.7%, 2010년 0.9%, 2020년 0.8% 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대인도 투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아세안 등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집중된 반면, 대인도 투자는 미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인도 투자의 세부적 특징

2009~14년과 2015~20년의 투자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인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최근 5년간(2015~20년) 인도는 이전 5년간(2009~14년)과 비교하여 누적 기준 신규 브라운필드 투자유치가 건수 및 규모 측면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신규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금액 측면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브라운필드 투자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건수 측면에서는 감소세를 보

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모디 정부의 투자 규제 완화 및 사업 환경 개선 정책이 신규 설비 투자유치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최근 인도에 대한 제조업 관련 투자는 매우 감소했지만, 부동산 및 각종 서비스업 관련 투자는 급증했다. 철강, 자동차 위탁생산,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과 관련된 주요 산업의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금액(건수)은 각각 31.8%(47.4%), 20.1%(16%), 47.7%(29.4%) 감소한 반면, 부동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그린필드 투자금액(건수)은 각각 179.5%(69.4%), 159.5%(40.6%), 27.8%(45.7%)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리/개발, 기타 부동산 관련 브라운필드 투자금액(건수)은 각각 2,051%(318.2%), 3,336%(62.5%), 642%(36%) 증가하였다.

셋째,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는 금액 및 건수 측면에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UAE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4-88]과 같이, 특히 미국, 중국, 싱가포르의 최근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금액과 건수는 모두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이 가파르다. 한국, 일본, UAE의 경우 최근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브라운필드 투자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한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금액은 9억 달러로, 일본의 95억 4천만 달러, UAE의 62억 3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다.

요컨대 최근 인도 정부의 투자정책은 설비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브라운필드 투자유치에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대인도 그린필드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브라운필드 투자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대인도 투자의 전반적인 추이와 비교해보면, 그린필드 투자에 치중하는 한국이 투자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현지 기업을 통하는 것이 인도 진출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인도 투자의 주요 분야는 서비스업, 재생에너지 등으로, 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한 투자 분야 다각화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88. 주요 국가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 추이 정리
(2009~14년, 2015~20년 기간 비교)

(단위: 억 달러, %, 개, %)

국가	투자종류	누적 투자금액			누적 투자건수		
		2009~14년	2015~20년	증감률	2009~14년	2015~20년	증감률
미국	그린필드	51.4	63.9	24.4	1,365	1,391	1.9
	브라운필드	170.8	570.8	234.2	532	746	40.2
중국	그린필드	7.4	33.9	358.3	87	259	197.7
	브라운필드	0.032	54.5	170,342.8	6	56	833.3
영국	그린필드	23.7	24.8	4.8	479	340	-29
	브라운필드	235.6	60	-74.5	128	128	0
독일	그린필드	18.2	14.4	-21.2	446	360	-19.3
	브라운필드	18	12.5	-30.5	68	50	-26.5
일본	그린필드	24.8	20	-19.3	469	326	-30.5
	브라운필드	56.3	95.4	69.3	166	188	13.3
싱가포르	그린필드	6.1	14.2	131.2	93	142	52.7
	브라운필드	70.1	404.7	477	140	319	127.9
UAE	그린필드	12.1	6.8	-44.2	242	114	-52.9
	브라운필드	18.2	62.3	243.1	27	55	103.7
한국	그린필드	14.9	8.2	-44.7	78	65	-16.7
	브라운필드	1.6	9	480.1	19	22	15.8

자료: 그린필드는 fDi Markets를, 브라운필드는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

다. 인도 서비스무역의 특징

2019년 서비스 교역액 약 2,700억 달러를 기록한 인도는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매년 서비스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수출

대상국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홍콩, 중국, UAE 등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중국, 독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수출 및 수입 비중 모두 20% 이상을 차지해 인-미 간 서비스교역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주요 서비스수출 분야는 통신·정보, 수송·운송, 관광 등이며 수입 분야는 관광, 수송·운송, 기타 비즈니스 등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무역에서 통신·정보 수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점과 R&D, 전문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이 매우 활발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과거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통한 인도의 대미국 서비스 진출이 매우 활발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인-미 간 서비스시장 개방 및 데이터 규제 등의 통상 이슈가 대미국 서비스수출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미국 서비스수입에서는 관광과 지식 및 지적재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에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상품 교역과 달리 인도의 서비스 교역에서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도는 수송·운송 및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국 서비스수출을 하고 있다. 한편 대중국 수입에서는 수송·운송의 비중이 높았으며,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의 수입은 매우 저조한 측면에서 대미국 관계와 상반된다. 일본 또한 인도의 서비스수출과 수입 비중 모두 3%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수출 분야는 통신·정보 및 기타 비즈니스 등 대미국 수출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대일본 수입에서는 지식 및 지적재산의 비중이 41.8%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인-ASEAN 서비스 교역에서는 통신·정보, 기타 비즈니스, 수송·운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ASEAN 서비스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편 대EU와 대영국 서비스수출에서는 기타 비즈니스의 비중이 각각 44%, 56%로 높게 나타났다. 대EU 서비스수입에서는 통신·정보 비중이 21.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영국으로부터는 기타

비즈니스 분야의 수입이 활발한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서비스 교역은 수출과 수입 비중이 각각 2.2%, 2.4% (2019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 및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출은 기타 비즈니스 및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도의 통신·정보 서비스 분야 수출 비중이 미국, 남아공, 일본, ASEAN, UAE 등 대부분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21%), 영국(21%) 및 중국(9%)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인도의 대한민국 서비스수입에서는 수송·운송의 비중이 34.6%로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인 반면, 관광과 통신·정보는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서비스 교역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식 및 지적재산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등 국가들의 대인도 수출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도 해당 부문에서 수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앞 장의 분석 내용에 의하면 최근 글로벌 기업의 생산망 내 인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파악에 유용한 자료인 국제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국별, 산업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와 생산 연계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 연계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특정 산업과 연계도가 높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간 생산 연계성을 살펴보려면 국가, 산업 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본 분석은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한다. 본 장은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론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인도와 생산 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글로벌 분업 연계 또는 글로벌 공급망을 의미한다. 글로벌 분업 연계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 간 투입 요소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이동 및 소비 정보를 담은 국제산업연관표가 등장한 이후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분석은 국제산업연관표 ADB-MRIO를 기반으로 한다. ADB-MRIO는 아시아개발은행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표 5-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른 산업연관표 대비 최근 연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산업분류가 35개로 상대적으로 세분되어 있어 산업별 분석에 유용하다. 본 분석은 2009년부터 2019년도 11년간의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Leontief(1936) 방식과 Wang, Wei, and Zhu(2013) 방식이다. Leontief 기법은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이 포함된 부가가치 기여 형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고, Wang, Wei, and Zhu(2013, 이하 ‘WWZ’) 방식은 국가간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본 방식은 Leontief와 WWZ 방식을 모두 활용하였다.²⁰⁴⁾

표 5-1. 기관별 국제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	작성 기관	제공연도	국가 수	산업분류	산업 수
WIOD	EU 지원 11개 연합기구	2000, 2005~14	43개(2개) *인도네시아, 인도 포함	ISIC Rev.4	56개
ADB-MRIO	아시아개발은행(ADB)	2000, 2007~19	62개(10개) *미얀마 제외	ISIC Rev.3.1	35개
ICIO	OECD	2005~15	64개(9개) *라오스, 미얀마 제외	ISIC Rev.4	36개
Eora MRIO	시드니대학	1990~2015	190개(11개)	ISIC Rev.3	26개

주: 1) 검색일(2021. 6. 23. 기준), 최근 발표된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작성.

2)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ADB-MRIO(ADB Multi-Region Input Output), ICIO(Inter-Country Input Output)의 줄임말.

자료: 정영식 외(2019), p. 74 국제산업연관표 내용을 발췌하여 업데이트함.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인도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대상 국가를 선별하기 위하여 인도와 글로벌 생산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레온티에프 방식을 바탕으로 인도와 해외 주요국 간의 생산 기여도를 살펴보자.

204)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은 부록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 5-2. 해외 주요국의 인도 생산 기여액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순위	2019		
	국가	생산 기여액	비중		국가	생산 기여액	비중
1	호주	32,095.0	8.5	1	중국	92,320.2	11.4
2	미국	26,686.3	7.1	2	미국	60,874.4	7.5
3	중국	23,635.9	6.3	3	독일	27,572.9	3.4
4	독일	15,546.2	4.1	4	영국	26,131.2	3.2
5	일본	10,396.2	2.8	5	호주	25,554.2	3.2
6	브라질	9,545.9	2.5	6	인도네시아	25,191.2	3.1
7	인도네시아	9,406.8	2.5	7	일본	24,850.6	3.1
8	프랑스	8,735.5	2.3	8	한국	23,294.4	2.9
9	영국	8,169.5	2.2	9	러시아	21,836.3	2.7
10	러시아	8,151.5	2.2	10	브라질	21,616.7	2.7
11	한국	7,919.5	2.1		기타	458,259.7	56.8
	기타	216,728.0	57.5		총액	807,501.7	100.0
	총액	377,016.2	100.0				

주: 총액은 인도 생산에 기여한 해외 국가 기여액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009년 기준 인도 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의 인도 생산 기여액은 약 320억 달러로 기록되며, 전체 해외 생산 기여액의 약 8.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호주의 인도 생산 기여액은 250억 달러 수준으로, 생산 기여 비중은 약 3.2%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9년 기준 인도 생산에 가장 많이 기여한 해외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이다. 중국의 인도 생산 기여액은 2009년 236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92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6.3%에서 11.4%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인도 생산 기여액은 2019년 기준 608억 달러, 독일은 27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아세안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인도 생산에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약 250억 달러 규모를 갖는다. 일본은 2019년 약 248억 달러로 생산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2009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기여액보다는 증가한 수치이나, 기여액 비중 순위는 5위에서 7위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2009년 약 80억 달러 규모로 인도 생산 해외 기여액 중 약 2.1%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기준 인도 생산 기여액은 232억 달러 규모로 상승하였고, 비중 또한 2.9%로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도의 해외 생산 기여액 추이를 살펴보자. 2009년 인도가 기여한 해외 국가는 중국으로, 약 88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후 2019년 기준 인도는 중국 생산에 약 920억 달러 규모로 기여하며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중은 동 기간 16.8%에서 10.4%로 감소하였다. 2019년 기준 인도가 생산에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미국으로 약 1,00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394억 달러 규모로부터 크게 성장한 수치를 보인다. 이 외에 인도는 독일,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생산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인도는 독일과 한국에 일본보다 적은 생산 기여를 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인도가 독일과 한국에 일본보다 높은 생산 기여를 각각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 5-3. 인도의 해외 주요국 생산 기여액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순위	2019		
	국가	생산 기여액	비중		국가	생산 기여액	비중
1	중국	88,544.7	16.8	1	미국	103,056.2	11.6
2	미국	39,450.8	7.5	2	중국	92,072.2	10.4
3	싱가포르	22,667.9	4.3	3	독일	30,069.2	3.4
4	일본	14,308.8	2.7	4	싱가포르	27,089.6	3.1
5	독일	13,401.3	2.5	5	한국	23,913.5	2.7
6	한국	13,011.7	2.5	6	일본	21,033.9	2.4
7	영국	11,522.4	2.2	7	터키	20,298.1	2.3
8	프랑스	9,603.7	1.8	8	프랑스	19,505.0	2.2
9	이탈리아	8,278.0	1.6	9	영국	18,633.1	2.1
10	브라질	7,264.7	1.4	10	이탈리아	17,827.5	2.0
	기타	298,828.3	56.7		기타	511,796.6	57.8
	총액	526,882.3	100.0		총액	885,29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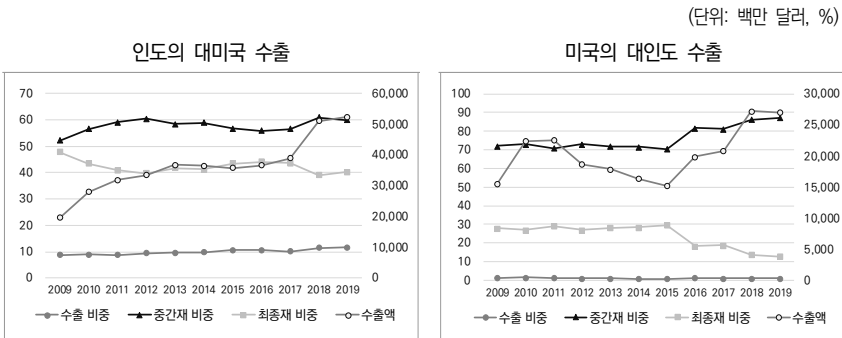
주: 총액은 해외 국가 생산에 기여한 인도의 기여액 총합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해외 주요국의 인도 내 생산 기여액과 인도의 해외 생산 기여액 추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된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본 보고서 3장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인도는 인도네시아 이외에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 교역이 빠르게 증가 중이다. 따라서 본 장의 주요국의 대인도 가치사슬 구조 분석은 언급된 상기 7개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가. 미국

먼저 인도와 미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를 살펴보자. 인도의 총수출에서 대미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인도의 미국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 특히 2018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2009년 인도의 대미국 수출은 196억 달러로 전체 해외 수출의 약 8.8%를 차지하였고, 2019년 523억 달러 규모로 약 11.6% 증가하였다. 인도의 미국 수출은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중간재 비중은 최근 소폭 상승하였다. 미국의 전 세계 수출 대비 인도의 비중은 2009년 1.2%에서 2019년 1.1%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나, 금액으로 살펴보면 미국 대인도 수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인도 수출액 증가는 중간재 중심으로 증가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와 미국 양국 모두 중간재 교역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특히 미국의 대인도 수출에 있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조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 인도-미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 미국 양국의 수출을 산업별로 분리하여 용도별 추이를 살펴 보자. 앞서 살펴본 인도의 대미국 수출 용도별 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출 내 중간재 비중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2009년 52.2% → 59.9%). 구체적으로 중간재 비중의 상승은 농업/광업과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대미국 농업/광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49.0%에서 2019년 59.8%로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동 기간 46.4%에서 59.1%로 증가하였다. 특히 인도의 대미국 수출 중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산업과 기타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모습이 특징이다.

표 5-4. 인도의 대미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545.5	267.3 (49.0)	278.1 (51.0)	농업/광업	1,634.2	977.7 (59.8)	656.5 (40.2)
제조업	14,320.7	6,648.1 (46.4)	7,672.6 (53.6)	제조업	44,949.9	26,552.9 (59.1)	18,397.0 (40.9)
공공사업 건설업	0.0	0.0 (87.5)	0.0 (12.5)	공공사업 건설업	0.0	0.0 (88.4)	0.0 (11.6)

표 5-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사업 서비스업	4,747.4	3,328.4 (70.1)	1,419.0 (29.9)	사업 서비스업	5,740.1	3,797.1 (66.2)	1,942.9 (33.8)
개인 서비스업	2.5	0.0 (0.0)	2.5 (100.0)	개인 서비스업	4.9	0.0 (0.0)	4.9 (100.0)
총합계	19,616.1	10,243.8 (52.2)	9,372.3 (47.8)	총합계	52,329.1	31,327.8 (59.9)	21,001.3 (40.1)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섬유·의복	4,424.1	385.4 (8.7)	4,038.7 (91.3)	섬유·의복 제조업	8,764.9	872.5 (10.0)	7,892.4 (90.0)
화학제조업	2,276.3	1,985.4 (87.2)	290.9 (12.8)	화학제조업	7,466.7	6,496.9 (87.0)	969.8 (13.0)
기타제조업	2,262.7	823.2 (36.4)	1,439.5 (63.6)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7,181.6	5,596.7 (77.9)	1,584.9 (22.1)
1차금속 제조업	1,450.4	1,157.3 (79.8)	293.1 (20.2)	기타제조업	5,459.0	2,692.1 (49.3)	2,767.0 (50.7)
전자부품 제조업	807.9	336.0 (41.6)	471.8 (58.2)	1차금속 제조업	3,138.7	2,519.0 (80.3)	619.7 (19.7)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미국의 대인도 용도별 수출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중간재 수출액은 2009년 약 59억 달러에서 약 14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에 있어, 자동차, 운송, 1차금속, 전기장비,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비중이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는 농업, 제조업(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기타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은 제조업(자동차, 운송, 1차금속 등)과 기타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생산 연계가 높아지는 모습을 시사한다.

표 5-5. 미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602.4	401.8 (66.7)	200.7 (33.3)	농업/광업	656.4	571.0 (87.0)	85.4 (13.0)
제조업	8,683.8	5,874.2 (67.6)	2,809.6 (32.4)	제조업	17,295.6	14,124.2 (81.7)	3171.5 (18.3)
공공사업 건설업	1.5	0.8 (55.5)	0.7 (44.5)	공공사업 건설업	2.3	2.3 (100.0)	0.0 (0.0)
사업 서비스업	5,502.9	4,350.1 (79.1)	1,152.7 (20.9)	사업 서비스업	8,282.9	8,140.1 (98.3)	142.8 (1.7)
개인 서비스업	703.9	559.9 (79.5)	144.0 (20.5)	개인 서비스업	817.3	769.8 (94.2)	47.5 (5.8)
총합계	15,494.5	11,186.8 (72.2)	4,307.7 (27.8)	총합계	27,054.5	23,607.3 (87.3)	3447.1 (12.7)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화학제조업	1,957.6	1,897.4 (96.9)	60.2 (3.1)	자동차, 운송 제조업	3,726.6	2,947.4 (79.1)	779.2 (20.9)
전기장비 제조업	1,541.2	865.9 (56.2)	675.3 (43.8)	1차금속 제조업	2,606.7	2,508.7 (96.2)	98.0 (3.8)
기타제조업	1,427.6	490.4 (34.3)	937.3 (65.7)	화학제조업	2,167.7	2,035.7 (93.9)	132.0 (6.1)
자동차, 운송 제조업	1,157.6	794.9 (68.7)	362.7 (31.3)	전기장비 제조업	2,017.8	1,327.0 (65.8)	690.9 (34.2)
전자부품 제조업	1,068.3	416.1 (39.0)	652.2 (61.0)	기타제조업	1,511.9	866.4 (57.3)	645.5 (42.7)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미국과 인도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요소들의 변화를 살펴보자. 인도는 대미국 제조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와 중복계산분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도의 대미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요소를 살펴보면, 농업/광업, 제조업의

국내부가가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해외부가가치와 중복계산 비중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 내용과 결합하면, 인도와 미국 사이의 제조업 분야 양국간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을 위해서 해외 중간재(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5-6. 인도의 대미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545.5	527.4	96.7	16.3	3.0	0.3	0.1	1.4	0.3
제조업	14,320.7	11,068.3	77.3	2,933.0	20.5	12.6	0.1	306.7	2.1
공공사업건설업	0.0	0.0	83.3	0.0	15.3	0.0	0.1	0.0	1.3
사업서비스업	4,747.4	4,258.6	89.7	459.4	9.7	3.3	0.1	26.0	0.5
개인서비스업	2.5	2.4	94.7	0.1	5.3	0.0	0.0	0.0	0.0
총합계	19,616.1	15,856.7	80.8	3,408.9	17.4	16.3	0.1	334.2	1.7
2019									
농업/광업	1,634.2	1,576.2	96.5	49.5	3.0	1.7	0.1	6.8	0.4
제조업	44,949.9	34,196.9	76.1	9,369.7	20.8	60.1	0.1	1,323.1	2.9
공공사업건설업	0.0	0.0	71.4	0.0	25.8	0.0	0.1	0.0	2.7
사업서비스업	5,740.1	5,445.9	94.9	266.3	4.6	6.3	0.1	21.6	0.4
개인서비스업	4.9	4.8	97.4	0.1	2.6	0.0	0.0	0.0	0.0
총합계	52,329.1	41,223.8	78.8	9,685.8	18.5	68.1	0.1	1,351.4	2.6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7. 미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602.4	544.9	90.5	43.5	7.2	7.5	1.2	6.5	1.1
제조업	8,683.8	7,434.9	85.6	906.5	10.4	143.2	1.6	199.1	2.3

표 5-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공공사업건설업	1.5	1.3	89.6	0.1	7.9	0.0	1.2	0.0	1.2
사업서비스업	5,502.9	5,020.6	91.2	284.8	5.2	133.6	2.4	63.9	1.2
개인서비스업	703.9	649.7	92.3	21.7	3.1	22.7	3.2	9.7	1.4
총합계	15,494.5	13,651.4	88.1	1,256.8	8.1	307.0	2.0	279.3	1.8
2019									
농업/광업	656.4	565.9	86.2	56.0	8.5	17.8	2.7	16.7	2.5
제조업	17,295.6	13,905.2	80.4	2,554.5	14.8	280.5	1.6	555.4	3.2
공공사업건설업	2.3	2.0	88.2	0.2	8.6	0.0	1.5	0.0	1.8
사업서비스업	8,282.9	7,527.2	90.9	459.5	5.5	173.8	2.1	122.5	1.5
개인서비스업	817.3	757.0	92.6	36.1	4.4	15.2	1.9	9.1	1.1
총합계	27,054.5	22,757.3	84.1	3,106.3	11.5	487.2	1.8	703.7	2.6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미국 양국의 생산 및 수출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자. 인도의 대미국 생산과 수출 기여액은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인도의 기여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최근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즉 미국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 절대적인 인도 중간재 활용은 증가하였지만, 기여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의 대인도 생산·수출 기여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인도 생산 및 수출 기여액과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18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인도 생산과 수출에 있어 미국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표 5-8. 인도-미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미국		미국 → 인도		인도 → 미국		미국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액	비중	수출 기여액	비중	수출 기여액	비중
2009	19,725.4	1.3	26,686.3	7.1	1,592.2	1.3	3,335.1	8.3
2010	29,893.7	1.7	36,394.2	7.3	2,566.7	1.5	5,306.2	8.9
2011	33,700.2	1.6	38,026.2	6.3	3,068.4	1.4	5,252.3	7.4
2012	34,646.0	1.6	34,046.0	5.8	3,239.7	1.4	4,605.4	6.2
2013	36,218.3	1.6	31,995.1	5.8	3,437.1	1.5	4,575.1	5.7
2014	35,967.8	1.6	30,654.4	5.6	3,450.5	1.5	4,133.0	5.5
2015	33,738.4	1.7	29,205.5	5.9	3,055.6	1.6	3,463.4	5.8
2016	36,759.3	1.9	39,335.9	7.6	3,220.5	1.8	3,454.0	7.0
2017	39,633.0	1.9	40,518.5	7.0	3,498.6	1.8	3,528.4	6.4
2018	52,409.7	1.8	61,443.0	7.5	5,599.5	1.7	6,037.9	6.9
2019	51,528.1	1.9	60,874.4	7.5	5,379.8	1.8	5,793.6	6.9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 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는 미국의 개인서비스업 생산에서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에서의 비중은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특히 미국 제조업, 농업/광업,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생산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인도의 미국 제조업 생산 기여 증가는 미국의 화학 제조업에 대한 인도 화학 제조업의 기여도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2009년 3.7억 달러 → 2019년 13억 달러). 한편 미국의 대인도 생산 기여는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의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 비중은 2009년 21.3%에서 2019년 31.0%로 약 9.7%p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인도의 육상운송 서비스업 생산에 대하여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등을 중심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 인도 다른

산업의 미국 기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5-9. 인도-미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미 생산 기여				미국의 대인도 생산 기여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684.0	3.5	2,138.5	4.2	1,004.8	3.8	1,816.1	3.0
제조업	7,444.4	37.7	19,725.2	38.3	15,678.6	58.8	31,265.0	51.4
공공사업건설업	1,380.4	7.0	3,768.3	7.3	3,623.2	13.6	7,799.2	12.8
사업서비스업	5,512.7	27.9	15,357.2	29.8	5,673.1	21.3	18,851.4	31.0
개인서비스업	4,704.0	23.8	10,538.9	20.5	706.6	2.6	1,142.7	1.9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10. 인도의 대미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미국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미국	생산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서비스업	1,264.2	6.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611.8	3.1
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976.2	4.9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1,308.9	2.5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643.2	3.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서비스업	1,245.5	2.4
4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373.8	1.9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843.3	1.6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39.1	1.7	농업, 임업	식료품, 음식 제조업	769.8	1.5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11. 미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미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미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968.4	3.6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운송 서비스업	3,985.6	6.5
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및 운송 서비스업	755.6	2.8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1,581.7	2.6
3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749.7	2.8	자동차, 운송 제조업	육상 운송 서비스업	1,295.0	2.1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47.8	2.8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차금속 제조업	1,110.3	1.8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차금속 제조업	489.4	1.8	도매업	육상 운송 서비스업	894.8	1.5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양국간 수출 측면의 기여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는 미국 농업/광업, 제조업에 대한 기여 비중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기존의 미국의 화학제조업 수출에 대하여 인도 화학 제조산업(2009년 7천만 달러 → 2019년 3억 달러)과 인도 소매업(2019년 1억 달러)의 기여도가 증가하였고 미국 자동차, 운송 제조업 수출에 있어, 인도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2019년 1억 5천만 달러)과 인도 1차금속 제조업(2009년 4천만 달러 → 2019년 1억 4천만 달러)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미국은 인도 제조업 수출 기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인도 제조업 수출 기여 비중은 2009년 57.9%에서 2019년 81.5%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임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화학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기여가 증가하였다.

표 5-12. 인도-미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미 수출 기여				미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69.0	4.3	251.5	4.7	93.5	2.8	127.6	2.2
제조업	1,226.5	77.0	4,193.5	77.9	1,930.7	57.9	4,722.2	81.5
공공사업건설업	1.3	0.1	2.7	0.0	12.6	0.4	13.6	0.2
사업서비스업	257.4	16.2	837.7	15.6	1,249.5	37.5	895.5	15.5
개인서비스업	38.0	2.4	94.5	1.8	48.8	1.5	34.7	0.6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13. 인도의 대미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미국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미국	수출 기여도	비중
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71.5	4.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321.9	6.0
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43.9	2.8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48.5	2.8
3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41.3	2.6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43.2	2.7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41.0	2.6	소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21.9	2.3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31.1	2.0	소매업	화학 제조업	109.3	2.0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14. 미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미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미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470.1	14.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92.4	3.3
2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107.7	3.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72.3	3.0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	69.0	2.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차금속 제조업	127.3	2.2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섬유, 의복 제조업	59.3	1.8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120.0	2.1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51.3	1.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119.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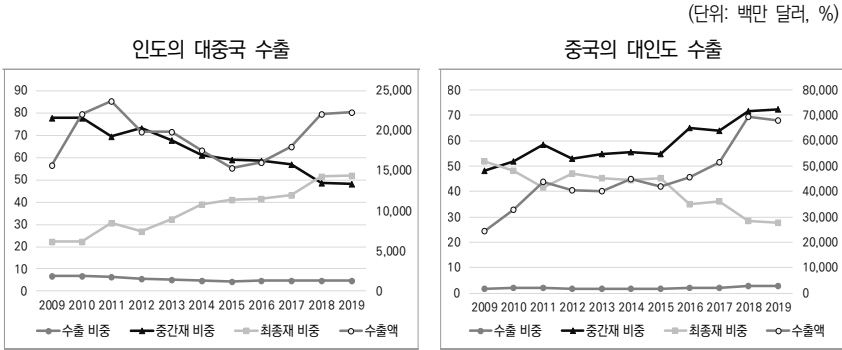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나. 중국

인도의 대중국 수출은 2011년 23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 기준 약 22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전 세계 수출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9년 7.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4.9%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 중으로 2009년 24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68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9년 2.6%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보다 최종재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최종재 비중이 중간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인도 수출에 있어 중간재 비중은 2009년 48.2%에서 2019년

그림 5-2. 인도-중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7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양국의 수출을 산업별로 살펴보자. 인도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종재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중국 제조업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19.1%에서 2019년 37.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농업/광업 수출 또한 동 기간 0.4%에서 18.3%로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수출의 경우, 최종재 중심의 섬유 의복, 코크스, 석유 정제업, 식품품, 음료, 담배 제조업이 상위 수출 산업으로 등장하였다.

표 5-15. 인도의 대중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7,933.4	7,903.1 (99.6)	30.3 (0.4)	농업/광업	3,292.3	2,688.9 (81.7)	603.4 (18.3)
제조업	4,975.4	4,024.6 (80.9)	950.8 (19.1)	제조업	11,773.9	7,409.5 (62.9)	4,364.4 (37.1)

표 5-1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공공사업 건설업	1.1	0.9 (87.5)	0.1 (12.5)	공공사업 건설업	0.8	0.8 (100.0)	0.0 (0.0)
사업 서비스업	385.1	266.3 (69.1)	118.8 (30.9)	사업 서비스업	941.9	617.9 (65.6)	324.0 (34.4)
개인 서비스업	2,388.0	0.0 (0.0)	2,388.0 (100.0)	개인 서비스업	6,254.8	0.0 (0.0)	6,254.8 (100.0)
총합계	15,682.9	12,194.9 (77.8)	3,488.0 (22.2)	총합계	22,263.8	10,717.2 (48.1)	11,546.6 (51.9)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기타 제조업	1,462.6	1,197.0 (81.8)	265.6 (18.2)	섬유 의복 제조업	2,670.4	1,088.8 (40.8)	1,581.5 (59.2)
1차금속 제조업	1,175.3	1,114.0 (94.8)	61.3 (5.2)	1차금속 제조업	2,243.2	2,200.5 (98.1)	42.7 (1.9)
화학 제조업	900.0	848.0 (94.2)	52.0 (5.8)	화학제조업	1,675.8	1,524.5 (91.0)	151.3 (9.0)
전기장비 제조업	340.2	105.8 (31.1)	234.4 (68.9)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247.4	431.6 (34.6)	815.7 (65.4)
전자부품 제조업	278.8	158.6 (56.9)	120.3 (42.1)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990.4	257.7 (26.0)	732.7 (74.0)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에서 생산된 최종재가 수출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최종 수요로 이어지는 추세와 상반되게,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변화 중이다.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2009년 51.1%에서 2019년 72.7%로 크게 증가하였고, 농업/광업 중간재 수출 비중의 경우 동 기간 31.8%에서 78.2%로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산업으로는 자동차, 운송, 전기장비, 1차금속 화학 제조업이 있고, 이들 산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다. 최근 중국은 대인도 제조업 수출 산업 중 전자부품 제조업이 새롭게 주요 수출 산업으로

등장하였고, 최종재의 비중이 소폭 높은 모습을 보인다.

표 5-16. 중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89.0	91.8 (31.8)	197.2 (68.2)	농업/광업	302.5	236.7 (78.2)	65.8 (21.8)
제조업	22,373.9	1,1436.2 (51.1)	10,937.7 (48.9)	제조업	67,160.5	48,796.8 (72.7)	18,363.7 (27.3)
공공사업 건설업	26.3	16.6 (63.2)	9.7 (36.8)	공공사업 건설업	87.7	71.5 (81.5)	16.2 (18.5)
사업 서비스업	217.4	148.3 (68.2)	69.1 (31.8)	사업 서비스업	149.1	141.6 (95.0)	7.5 (5.0)
개인 서비스업	1,346.3	1.3 (0.1)	1,345.0 (99.9)	개인 서비스업	395.8	12.8 (3.2)	383.0 (96.8)
총합계	24,252.9	1,1694.2 (48.2)	12,558.7 (51.8)	총합계	68,095.6	49,259.4 (72.3)	18,836.2 (27.7)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7,625.9	2,114.7 (27.7)	5,511.3 (72.3)	전자부품 제조업	16,070.2	6,622.7 (41.2)	9,447.5 (58.8)
전기장비 제조업	4,718.2	1439.8 (30.5)	3,278.5 (69.5)	전기장비 제조업	10,439.8	4,988.0 (47.8)	5,451.8 (52.2)
1차금속 제조업	2,692.3	2086.9 (77.5)	605.4 (22.5)	자동차, 운송 제조업	10,277.0	9,217.3 (89.7)	1,059.7 (10.3)
화학제조업	2,506.4	2361.9 (94.2)	144.5 (5.8)	1차금속 제조업	8,014.7	7,278.5 (90.8)	736.3 (9.2)
자동차, 운송 제조업	1,293.7	875.7 (67.7)	418.0 (32.3)	화학제조업	7,293.5	7,105.3 (97.4)	188.2 (2.6)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중국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요소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인도의 대중국 수출에서 인도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86.8%에서 2019년 84.9%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이와 반대로 해외부가가치 비중

은 동 기간 9.9%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추세와는 상반되게 인도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에 포함된 인도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고, 해외부가가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국내부가가치는 크게 증가하였고,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과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감소되었다. 양국 사이의 중복부가가치 비중은 인도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최종재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대인도 수출 내 중복부가가치 비중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복잡한 공정을 통한 생산방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5-17. 인도의 대중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7,933.4	7,357.9	92.7	385.4	4.9	47.4	0.6	142.6	1.8
제조업	4,975.4	3,645.5	73.3	1,005.8	20.2	19.7	0.4	304.4	6.1
공공사업건설업	1.1	0.9	84.3	0.2	14.2	0.0	0.1	0.0	1.3
사업서비스업	385.1	342.4	88.9	34.6	9.0	1.1	0.3	7.0	1.8
개인서비스업	2,388.0	2,260.5	94.7	127.6	5.3	0.0	0.0	0.0	0.0
총합계	15,682.9	13,607.2	86.8	1,553.6	9.9	68.2	0.4	454.0	2.9
2019									
농업/광업	3,292.3	3,066.6	93.1	169.5	5.1	15.0	0.5	41.2	1.3
제조업	11,773.9	8,860.1	75.3	2,362.4	20.1	41.6	0.4	509.8	4.3
공공사업건설업	0.8	0.7	82.3	0.1	15.9	0.0	0.2	0.0	1.7
사업서비스업	941.9	879.1	93.3	52.1	5.5	2.9	0.3	7.8	0.8
개인서비스업	6,254.8	6,090.1	97.4	164.6	2.6	0.0	0.0	0.0	0.0
총합계	22,263.8	18,896.6	84.9	2,748.9	12.3	59.5	0.3	558.8	2.5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18. 중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89.0	264.3	91.5	21.3	7.4	1.0	0.3	2.3	0.8
제조업	22,373.9	17,827.3	79.7	3,966.2	17.7	107.5	0.5	472.9	2.1
공공사업건설업	26.3	21.7	82.4	3.9	14.9	0.2	0.6	0.6	2.1
사업서비스업	217.4	189.2	87.0	20.5	9.4	2.1	0.9	5.6	2.6
개인서비스업	1,346.3	1,218.0	90.5	128.2	9.5	0.0	0.0	0.0	0.0
총합계	24,252.9	19,520.5	80.5	4,140.2	17.1	110.7	0.5	481.5	2.0
2019									
농업/광업	302.5	273.3	90.3	22.3	7.4	2.6	0.8	4.4	1.4
제조업	67,160.5	56,798.3	84.6	8,524.2	12.7	452.1	0.7	1,385.9	2.1
공공사업건설업	87.7	74.9	85.3	10.3	11.7	0.7	0.8	1.9	2.2
사업서비스업	149.1	134.8	90.4	10.1	6.8	1.4	1.0	2.8	1.9
개인서비스업	395.8	371.8	93.9	23.7	6.0	0.1	0.0	0.2	0.0
총합계	68,095.6	57,653.0	84.7	8,590.6	12.6	456.9	0.7	1,395.1	2.0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중국 양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 추이를 살펴보자. 인도의 중국 생산 기여액은 2010년 664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인도의 대중국 수출 기여도 또한 2010년 66억 달러 이후 하락하여 2019년 3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는 인도의 중국 생산과 수출 기여 비중에도 반영되어, 인도의 중국 생산 기여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19년 1.1%로 감소하였고, 수출 기여 비중은 동 기간 1.8%에서 1.2%로 하락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인도 생산과 수출 기여도는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대인도 생산 기여액은 2009년 236억 달러에서 2019년 92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6.3%에서 11.4%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액도 2009년 25억 달러에서 2019년 88억 달러로, 비중은 동 기간 6.4%에서 10.6%로 변화되었다. 인도는 중국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인도의 생산

과 수출에 있어 중국의 입지는 크게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5-19. 인도-중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중국		중국 → 인도		인도 → 중국		중국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2009	44,272.3	2.2	23,635.9	6.3	4,000.8	1.8	2,553.0	6.4
2010	66,420.3	2.5	34,196.0	6.9	6,618.6	2.1	3,832.2	6.4
2011	63,787.9	1.8	49,496.9	8.2	6,239.3	1.7	5,360.1	7.5
2012	56,776.1	1.6	43,558.3	7.4	5,379.0	1.4	5,243.1	7.0
2013	54,334.4	1.4	44,233.8	8.0	5,335.5	1.4	5,998.4	7.5
2014	43,956.0	1.1	49,630.9	9.0	4,272.8	1.1	6,378.2	8.4
2015	38,914.3	1.1	48,885.2	9.9	3,505.3	1.1	5,554.3	9.3
2016	42,741.6	1.2	59,464.6	11.5	3,529.9	1.3	5,310.9	10.7
2017	45,283.6	1.2	64,672.0	11.2	4,012.9	1.2	5,804.4	10.5
2018	46,225.1	1.1	93,805.9	11.5	3,977.1	1.1	9,352.2	10.6
2019	46,036.1	1.1	92,320.2	11.4	3,802.6	1.2	8,885.7	10.6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중국 양국간 생산 기여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 기여 금액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인도는 중국의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 기여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 중국 상위 기여 산업을 살펴보면, 기존 인도 광업의 중국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건설업) 생산 기여 중심에서, 인도 농업, 임업, 어업의 중국 식료품, 음료, 담배 생산에 대한 기여와 중국 건설업 생산의 인도의 광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여로의 변화가 특징적이다. 한편 최근 중국은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있어 중국의 기여 비중이 대폭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인도 사업 서비스업 생산 기여 비중은 2009년 14.0%에서 2019년 30.0%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중국은 화학, 1차금속, 섬유 의류 제조업을 바탕으로 인도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인도의 육상 운송업 생산에 중국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금융, 광업, 보험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20. 인도-중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중 생산				중국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2,784.0	6.3	2,259.4	4.9	881.1	3.7	2,914.6	3.2
제조업	28,531.3	64.4	29,125.1	63.3	15,594.0	66.0	48,327.5	52.3
공공사업건설업	7,445.1	16.8	7,010.8	15.2	3,297.8	14.0	11,462.6	12.4
사업서비스업	3,686.4	8.3	4,542.2	9.9	3,320.0	14.0	27,721.1	30.0
개인서비스업	1,825.5	4.1	3,098.6	6.7	542.8	2.3	1,894.4	2.1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21. 인도의 대중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중국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중국	생산 기여도	비중
1	광업	1차금속 제조업	3,918.8	8.9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986.4	2.1
2	광업	건설업	2,326.2	5.3	광업	1차금속 제조업	939.2	2.0
3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2,318.3	5.2	광업	건설업	786.2	1.7
4	광업	전기, 가스, 수도 공급업	1,916.0	4.3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696.0	1.5
5	광업	화학제조업	1,691.2	3.8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649.0	1.4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22. 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중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중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491.2	2.1	자동차, 운송 제조업	육상 운송업	2,501.8	2.7
2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465.8	2.0	도매업	육상 운송업	1,929.5	2.1
3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458.8	1.9	광업	육상 운송업	1,775.2	1.9
4	섬유, 의류 제조업	섬유, 의류 제조업	359.9	1.5	금융 및 보험업	육상 운송업	1,504.5	1.6
5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315.1	1.3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193.0	1.3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23. 인도-중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중국 수출				중국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37.6	0.9	19.5	0.5	77.5	3.0	194.0	2.2
제조업	3,544.7	88.6	3,487.2	91.7	1,970.2	77.2	7,273.3	81.9
공공사업건설업	29.8	0.7	26.6	0.7	11.5	0.5	20.2	0.2
사업서비스업	371.1	9.3	254.6	6.7	466.5	18.3	1,340.6	15.1
개인서비스업	17.5	0.4	14.8	0.4	27.3	1.1	57.7	0.6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중국 양국의 수출 기여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양국 모두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인도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 기여도는 2009년 88.6%에서 2019년 91.7%로, 중국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 기여도는 동 기간 77.2%에서 81.9%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중국의 전자부품 제조업 수출에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소매업, 광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여한다. 인도의 화학, 섬유, 자동차, 운송 제조업 수출에 있어 중국은 동일 산업에서 기여하고 있다.

표 5-24. 인도의 대중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중국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중국	수출 기여도	비중
1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500.6	12.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165.6	4.4
2	광업	1차금속 제조업	242.5	6.1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52.7	4.0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172.0	4.3	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	147.4	3.9
4	광업	전기장비 제조업	143.0	3.6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141.5	3.7
5	광업	화학제조업	129.0	3.2	농업, 임업, 어업	섬유, 의류 제조업	102.4	2.7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25. 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중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중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70.6	2.8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93.6	2.2
2	섬유, 의류 제조업	섬유 의류제조업	70.5	2.8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51.2	1.7
3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42.3	1.7	섬유 의류제조업	섬유 의류제조업	148.4	1.7

표 5-2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중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중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4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41.9	1.6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38.4	1.6
5	전자부품 제조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9.8	1.6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36.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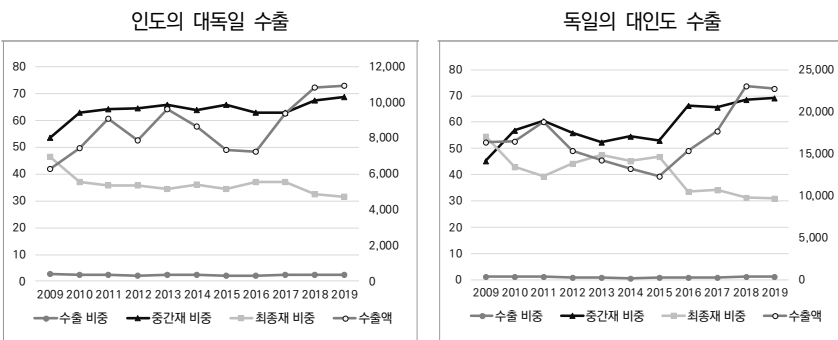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 독일

인도와 독일 양국의 수출액은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독일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53.5%에서 2019년 68.6%로, 독일의 대인도 중간재 수출 비중은 동 기간 45.2%에서 69.1%로 변화되었다.

그림 5-3. 인도-독일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5-26. 인도의 대독일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184.2	79.2 (43.0)	105.0 (57.0)	농업/광업	475.3	290.4 (61.1)	184.8 (38.9)
제조업	5,019.9	2,439.3 (48.6)	2,580.6 (51.4)	제조업	9,202.5	6167.4 (67.0)	3035.0 (33.0)
공공사업 건설업	1.2	1.0 (87.5)	0.1 (12.5)	공공사업 건설업	0.1	0.1 (87.9)	0.0 (12.1)
사업 서비스업	1,055.6	850.1 (80.5)	205.5 (19.5)	사업 서비스업	1,251.5	1,058.4 (84.6)	193.1 (15.4)
개인 서비스업	39.6	0.0 (0.0)	39.6 (100.0)	개인 서비스업	24.4	0.0 (0.0)	24.4 (100.0)
총합계	6,300.4	3,369.7 (53.5)	2,930.7 (46.5)	총합계	10,953.7	7,516.3 (68.6)	3,437.4 (31.4)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1,400.5	160.4 (11.5)	1,240.0 (88.5)	화학제조업	2,060.6	1,957.7 (95.0)	102.9 (5.0)
자동차, 운송 제조업	721.2	196.4 (27.2)	524.7 (72.8)	섬유, 의류 제조업	1,737.9	475.6 (27.4)	1,262.3 (72.6)
화학제조업	696.2	642.4 (92.3)	53.8 (7.7)	1차금속 제조업	1,053.1	934.4 (88.7)	118.8 (11.3)
전자부품 제조업	547.9	411.4 (75.1)	136.5 (24.9)	자동차, 운송 제조업	918.7	622.6 (67.8)	296.1 (32.2)
1차금속 제조업	489.6	409.6 (83.7)	80.0 (16.3)	전자부품 제조업	798.2	521.1 (65.3)	277.0 (34.7)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의 대독일 중간재 수출 비중 증가는 농업/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다. 인도의 농업/광업 산업 대독일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43.0%에서 2019년 61.1%로, 제조업의 경우 동 기간 48.6%에서 67.0%로 변화되었다. 특히 제조업 중 인도의 대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동 기간 27.2%에서 67.8%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독일의 대인도 중간재 수출 증가는 제조업,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일의 대인

도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경우 2009년 38.5%에서 2019년 67.1%로,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동 기간 23.3%에서 61.6%로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대인도 중간재 수출 증가는 자동차, 운송 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대인도 자동차, 운송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14.5%에서 2019년 62.2%로, 전기장비 제조업은 동 기간 30.7%에서 50.8%, 전자부품 제조업은 48.5%에서 60.3%로 증가되었다.

표 5-27. 독일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2.5	20.8 (92.5)	1.7 (7.5)	농업/광업	21.6	21.2 (97.9)	0.5 (2.1)
제조업	13,094.9	5037.5 (38.5)	8,057.4 (61.5)	제조업	18,460.3	12,386.2 (67.1)	6,074.1 (32.9)
공공사업 건설업	138.4	84.8 (61.2)	53.7 (38.8)	공공사업 건설업	99.4	58.2 (58.6)	41.2 (41.4)
사업 서비스업	3,094.2	2,255.5 (72.9)	838.8 (27.1)	사업 서비스업	4,141.1	3,239.5 (78.2)	901.6 (21.8)
개인 서비스업	16.8	3.9 (23.3)	12.9 (76.7)	개인 서비스업	14.3	8.8 (61.6)	5.5 (38.4)
총합계	16,366.8	7,402.5 (45.2)	8,964.4 (54.8)	총합계	22,736.7	15,713.9 (69.1)	7,022.8 (30.9)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5,102.3	740.2 (14.5)	4,362.2 (85.5)	자동차, 운송 제조업	5,169.3	3,216.2 (62.2)	1,953.2 (37.8)
전기장비 제조업	3,277.3	1,005.3 (30.7)	2,272.1 (69.3)	전기장비 제조업	4,834.4	2,455.2 (50.8)	2,379.2 (49.2)
전자부품 제조업	1,629.3	789.8 (48.5)	839.6 (51.5)	전자부품 제조업	2,337.2	1,409.0 (60.3)	928.2 (39.7)
1차금속 제조업	1,111.8	1,021.5 (91.9)	90.3 (8.1)	1차금속 제조업	1,828.9	1,737.5 (95.0)	91.4 (5.0)
화학제조업	958.1	862.9 (90.1)	95.1 (9.9)	화학제조업	1,507.3	1,393.2 (92.4)	114.1 (7.6)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의 대독일 수출에 있어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13%에서 2019년 10%로 감소한 반면, 중복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6.8%에서 9.6%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인도의 대독일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의 대독일 수출에 있어 중복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는 인도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인도와 독일 사이를 수출 경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동하여 생성된 부산물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실질적 부가가치는 아니나 인도 입장에서 수출 경로를 통한 독일과의 생산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의 대인도 수출은 독일 국내부가가치보다 해외부가가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75%에서 65.6%로 감소하였고, 해외부가가치는 동 기간 22.4%에서 29.4%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중복계산 비중 또한 증가하여, 독일 제품이 인도 수출 경로를 통하여 생산에 적극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28. 인도의 대독일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184.2	177.1	96.1	6.2	3.4	0.1	0.0	0.9	0.5
제조업	5,019.9	3,867.9	77.1	742.4	14.8	17.9	0.4	391.7	7.8
공공사업건설업	1.2	1.0	84.2	0.2	13.0	0.0	0.2	0.0	2.6
사업서비스업	1,055.6	946.6	89.7	70.2	6.7	5.0	0.5	33.7	3.2
개인서비스업	39.6	37.5	94.7	2.1	5.3	0.0	0.0	0.0	0.0
총합계	6,300.4	5,030.0	79.8	821.0	13.0	23.0	0.4	426.3	6.8
2019									
농업/광업	475.3	460.1	96.8	10.9	2.3	0.5	0.1	3.8	0.8
제조업	9,202.5	7,074.3	76.9	1,049.2	11.4	50.7	0.6	1,028.2	11.2
공공사업건설업	0.1	0.1	82.2	0.0	14.2	0.0	0.2	0.0	3.3
사업서비스업	1,251.5	1,180.8	94.4	39.1	3.1	7.5	0.6	24.1	1.9
개인서비스업	24.4	23.8	97.4	0.6	2.6	0.0	0.0	0.0	0.0
총합계	10,953.7	8,739.2	79.8	1,099.9	10.0	58.6	0.5	1,056.1	9.6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29. 독일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2.5	18.3	81.5	3.3	14.5	0.1	0.4	0.8	3.6
제조업	13,094.9	9,422.4	72.0	3,324.1	25.4	27.3	0.2	321.1	2.5
공공사업건설업	138.4	114.0	82.3	20.1	14.6	0.5	0.3	3.8	2.8
사업서비스업	3,094.2	2,701.8	87.3	319.1	10.3	14.1	0.5	59.3	1.9
개인서비스업	16.8	15.6	92.9	1.1	6.4	0.0	0.2	0.1	0.5
총합계	16,366.8	12,272.1	75.0	3,667.8	22.4	41.9	0.3	385.0	2.4
2019									
농업/광업	21.6	14.7	68.0	5.7	26.6	0.0	0.2	1.1	5.2
제조업	18,460.3	11,464.3	62.1	5,988.9	32.4	35.0	0.2	972.0	5.3
공공사업건설업	99.4	75.6	76.0	21.0	21.1	0.2	0.2	2.7	2.7
사업서비스업	4,141.1	3,353.4	81.0	662.8	16.0	11.5	0.3	113.4	2.7
개인서비스업	14.3	12.8	89.9	1.2	8.6	0.0	0.3	0.2	1.2
총합계	22,736.7	14,920.8	65.6	6,679.7	29.4	46.8	0.2	1,089.4	4.8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독일 양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도를 살펴보자. 인도의 독일 생산 기여액은 꾸준히 증가 중으로 2009년 67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인도의 대독일 수출 기여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동 기간 22억 달러 규모에서 65억 달러로 추산된다. 독일의 인도 생산과 수출 기여는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 중으로, 생산 기여액은 동 기간 155억 달러에서 275억 달러로, 수출 기여액은 17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생산과 수출에 기여하는 독일의 비중은 전 세계 해외 기여액 대비 2009년 고점 이후 증감을 반복 중이다. 이는 독일이 인도 생산과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못함에 있다.

표 5-30. 인도-독일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독일		독일 → 인도		인도 → 독일		독일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2009	6,700.6	0.7	15,546.2	4.1	2,286.3	0.8	1,767.8	4.4
2010	9,609.0	0.9	18,863.0	3.8	3,405.6	1.0	2,359.8	4.0
2011	11,412.4	0.9	22,360.6	3.7	4,116.6	0.9	2,583.4	3.6
2012	9,727.2	0.8	17,646.5	3.0	3,698.2	0.9	2,148.7	2.9
2013	11,951.9	1.0	15,891.4	2.9	4,697.1	1.1	2,150.6	2.7
2014	10,471.6	0.9	15,855.2	2.9	4,192.2	0.9	2,064.3	2.7
2015	9,863.6	0.9	14,174.5	2.9	3,947.3	1.0	1,635.8	2.7
2016	10,053.6	0.9	21,133.5	4.1	4,036.9	1.0	1,829.3	3.7
2017	12,802.1	1.0	22,242.9	3.9	5,484.2	1.0	1,934.2	3.5
2018	15,083.0	1.0	28,058.3	3.4	6,552.2	1.1	2,735.0	3.1
2019	15,034.6	1.0	27,572.9	3.4	6,556.0	1.1	2,586.8	3.1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이러한 추세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도의 독일 생산 기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인도 생산 기여는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독일이 인도 생산에 기여하는 전체 기여도 대비 독일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는 인도의 비중은 2009년 59.1%에서 2019년 64.2%로 증가하였고, 인도의 사업서비스업에 기여하는 독일의 비중은 동 기간 18.3%에서 32.1%로 증가되었다.

표 5-31. 인도-독일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독일 생산				독일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103.7	1.5	318.4	2.1	539.2	3.5	834.5	3.0
제조업	3,961.5	59.1	9,651.5	64.2	9,561.1	61.5	14,008.3	50.8
공공사업건설업	566.1	8.4	1,225.2	8.1	2,278.5	14.7	3,413.5	12.4

표 5-3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독일 생산				독일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사업서비스업	1,573.7	23.5	2,896.1	19.3	2,842.0	18.3	8,845.6	32.1
개인서비스업	495.6	7.4	943.4	6.3	325.4	2.1	470.9	1.7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이러한 추세를 인도와 독일 사이의 상위 생산 기여 산업을 통하여 살펴보자. 최근 인도의 독일 제조업 생산 기여도 증가는 인도의 화학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1차금속 제조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독일 화학, 식품 음료 담배, 자동차, 운송 등의 제조 산업에 대한 기여도 증가에서 기인한다. 독일의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도 증가는 구체적으로 인도의 육상 운송업 생산에 독일의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및 전기장비 제조업의 기여도 증가로부터 찾을 수 있다.

표 5-32. 인도의 대독일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독일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독일	생산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85.0	4.3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394.3	2.6
2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41.8	2.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36.8	2.2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20.9	1.8	농업, 임업, 어업	식품품, 음료 담배 제조업	313.8	2.1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100.6	1.5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19.7	1.5
5	농업, 임업, 어업	식품품, 음료, 담배 제조업	96.7	1.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16.7	1.4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33. 독일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독일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독일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476.7	3.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1,387.8	5.0
2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70.6	2.4	자동차, 운송 제조업	육상 운송업	1,175.3	4.3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353.3	2.3	전기장비 제조업	육상 운송업	736.7	2.7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16.1	2.0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517.6	1.9
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288.9	1.9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454.6	1.6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34. 인도-독일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독일 수출				독일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25.0	1.1	95.9	1.5	53.0	3.0	59.1	2.3
제조업	2,072.0	90.6	6,000.9	91.5	1,159.5	65.6	2,120.1	82.0
공공사업건설업	19.5	0.9	16.3	0.2	8.0	0.5	6.0	0.2
사업서비스업	160.2	7.0	419.8	6.4	525.2	29.7	387.4	15.0
개인서비스업	9.7	0.4	23.1	0.4	22.2	1.3	14.1	0.5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의 독일 수출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독일 제조업과 농업/광업 수출 기여도의 비중이 소폭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독일 제조업에 대한 인도의 수출 기여

비중은 2009년 90.6%에서 2019년 91.5%로, 독일 농업/광업 수출에 대한 기여 비중은 동 기간 1.1%에서 1.5%로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의 경우 인도 제조업 수출에 대한 기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 제조업 수출에 대한 독일의 기여 비중은 2009년 65.6%에서 2019년 82%로 크게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화학 제조업 수출을 위한 인도 화학 제조업의 기여액이 2009년 9천만 달러에서 3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고, 특히 독일 자동차, 운송 제조 산업 수출에 대한 인도의 1차금속, 자동차, 운송 제조업 및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인도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 수출에는 독일의 다양한 제조업(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과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주요하게 투입되고 있다.

표 5-35. 인도의 대독일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독일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독일	수출 기여도	비중
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96.5	4.2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322.1	4.9
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67.6	3.0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59.3	2.4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55.8	2.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57.1	2.4
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54.7	2.4	소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55.3	2.4
5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51.7	2.3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53.1	2.3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36. 독일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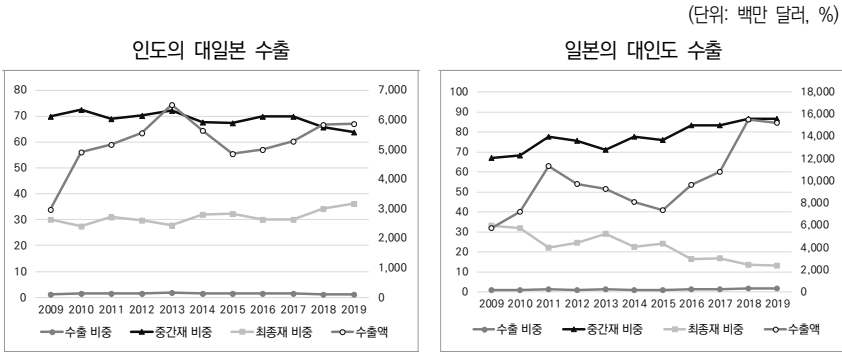
순위	2009				2019			
	독일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독일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98.7	11.2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85.1	3.3
2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41.5	2.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72.8	2.8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32.8	1.9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69.4	2.7
4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31.3	1.8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60.1	2.3
5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1.2	1.8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57.8	2.2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라. 일본

인도의 대일본 수출 규모는 2013년 65억 달러 달성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 중인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이와 추세가 비슷하나 2016년 이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9년 약 1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모습이다. 인도의 대일본 수출은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대일본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30.2%에서 2019년 37.2%로 변화되었다. 한편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중간재 비중은 동 기간 67%에서 86.7%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 수요 제품으로서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인도는 본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일본 중간재 제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5-4. 인도-일본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의 대일본 용도별 수출을 산업별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대일본 수출은 최근 최종재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농업/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다. 인도의 대일본 농업/광업의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10.5%에서 2019년 29.5%로 크게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동 기간 34.2%에서 37.0%로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최종재 증가는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과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의 최종재 수출 상승에 기인한다.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인도의 대일본 화학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 2009년 68.7%에서 2019년 86.6%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서비스업 또한 동 기간 49.1%에서 90.8%로 증가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추세는 자동차, 운송, 전자부품,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표 5-37. 인도의 대일본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579.3	518.4 (89.5)	60.9 (10.5)	농업/광업	601.8	424.5 (70.5)	177.3 (29.5)
제조업	2,060.6	1,356.6 (65.8)	703.9 (34.2)	제조업	51,09.1	3221.1 (63.0)	1888.0 (37.0)
공공사업건설업	0.0	0.0 (50.0)	0.0 (50.0)	공공사업건설업	0.0	0.0 (44.4)	0.0 (55.6)
사업서비스업	301.4	205.6 (68.2)	95.8 (31.8)	사업서비스업	129.7	90.5 (69.8)	39.2 (30.2)
개인서비스업	37.8	0.0 (0.0)	37.8 (100.0)	개인서비스업	15.7	0.0 (0.0)	15.7 (100.0)
총합계	2,979.0	2,080.6 (69.8)	898.4 (30.2)	총합계	5,856.3	3,736.1 (63.8)	2,120.1 (37.2)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520.3	397.1 (76.3)	123.2 (23.7)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944.5	1381.6 (71.1)	562.9 (28.9)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361.1	207.6 (57.5)	153.5 (42.5)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622.2	174.4 (28.0)	447.7 (72.0)
화학제조업	301.7	272.3 (90.2)	29.4 (9.8)	섬유, 의복 제조업	602.1	111.5 (18.5)	490.6 (81.5)
1차금속 제조업	257.7	236.9 (92.0)	20.7 (8.0)	화학제조업	597.8	566.1 (94.7)	31.7 (5.3)
섬유, 의복 제조업	250.6	45.4 (18.1)	205.2 (81.9)	1차금속 제조업	515.8	470.3 (91.2)	45.5 (8.8)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38. 일본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5.3	21.7 (85.7)	3.6 (14.3)	농업/광업	5.3	4.6 (86.9)	0.7 (13.1)
제조업	5,268.4	3,617.2 (68.7)	1,651.2 (31.3)	제조업	14,932.7	12,933.1 (86.6)	1,999.6 (13.4)
공공사업 건설업	0.1	0.1 (98.3)	0.0 (1.7)	공공사업 건설업	0.1	0.1 (97.7)	0.0 (2.3)

표 5-38.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사업 서비스업	415.1	203.9 (49.1)	211.2 (50.9)	사업 서비스업	285.2	259.0 (90.8)	26.1 (9.2)
개인 서비스업	37.2	9.3 (25.0)	27.9 (75.0)	개인 서비스업	1.5	0.7 (48.8)	0.8 (51.2)
총합계	5,746.0	3,852.1 (67.0)	1,893.9 (33.0)	총합계	15,224.8	13,197.6 (86.7)	2,027.2 (13.3)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346.6	1,201.6 (89.2)	145.1 (10.8)	1차금속 제조업	4,631.5	4,424.7 (95.5)	206.8 (4.5)
자동차, 운송 제조업	1,135.5	731.0 (64.4)	404.5 (35.6)	자동차, 운송 제조업	3,365.8	3,262.4 (96.9)	103.5 (3.1)
전자부품 제조업	1,123.9	597.5 (53.2)	526.4 (46.8)	전기장비 제조업	2,015.9	1,096.7 (54.4)	919.2 (45.6)
전기장비 제조업	613.5	199.5 (32.5)	414.0 (67.5)	전자부품 제조업	1,641.6	1,032.8 (62.9)	608.8 (37.1)
화학 제조업	569.0	524.8 (92.2)	44.2 (7.8)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142.6	1,141.0 (99.9)	1.5 (0.1)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의 대일본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인도의 대일본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해외부가가치와 중복계산분의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을 보인다.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18%에서 2019년 20.3%로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에서 수요하는 인도 제품에 해외부가가치 투입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인도 중간재 제품이 인도와 일본 수출 경로를 통하여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인도의 대일본 사업서비스업 수출은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상승되었고,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인도의 대일본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국내부가가치보다 해외부가가치와 중복계산 요소의 비중이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대인도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83.1%에서 2019년 76.6%로 하락한 반면,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14.4%에서

19.8%로, 중복계산 비중은 2.2%에서 3.4%로 상승하였다. 이는 일본의 대인도 수출에 있어 일본의 국내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부가가치가 투입되고 있어 후방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본과 인도 양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 추이를 살펴보자. 인도의 대일본 생산과 수출 기여액은 2010년 큰 폭으로 상승 후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해외 국가의 일본 내 생산과 수출 기여 총액 대비 인도의 비중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0.9%로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대인도 생산과 수출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일본의 대인도 생산 기여액은 2009년 103억 달러에서 2019년 248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고, 수출 기여액 또한 동 기간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생산 기여 측면에서 일본의 기여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9년 3.1%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지만, 수출 기여도는 동 기간 2.7%에서 2.8%로 크게 증가되지는 못하였다.

표 5-39. 인도의 대일본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579.3	541.1	93.4	29.4	5.1	1.7	0.3	7.1	1.2
제조업	2,060.6	1,483.0	72.0	476.8	23.1	3.3	0.2	97.5	4.7
공공사업건설업	0.0	0.0	83.3	0.0	15.1	0.0	0.1	0.0	1.5
사업서비스업	301.4	269.2	89.3	27.9	9.3	0.4	0.1	3.9	1.3
개인서비스업	37.8	35.8	94.7	2.0	5.3	0.0	0.0	0.0	0.0
총합계	2979.0	2,329.1	78.2	536.0	18.0	5.5	0.2	108.4	3.6
2019									
농업/광업	601.8	552.9	91.9	36.3	6.0	2.7	0.4	9.9	1.6
제조업	5,109.1	3,637.8	71.2	1,142.9	22.4	14.8	0.3	313.6	6.1
공공사업건설업	0.0	0.0	71.4	0.0	25.7	0.0	0.2	0.0	2.7
사업서비스업	129.7	121.9	94.0	6.4	4.9	0.3	0.3	1.1	0.9
개인서비스업	15.7	15.3	97.4	0.4	2.6	0.0	0.0	0.0	0.0
총합계	5,856.3	4,327.9	73.9	1,186.0	20.3	17.8	0.3	324.6	5.5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0. 일본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5.3	15.8	62.6	7.6	30.2	0.1	0.3	1.7	6.8
제조업	5,268.4	4386.1	83.3	751.1	14.3	10.5	0.2	120.8	2.3
공공사업건설업	0.1	0.1	80.7	0.0	14.8	0.0	0.5	0.0	4.0
사업서비스업	415.1	339.6	81.8	69.3	16.7	0.6	0.1	5.6	1.4
개인서비스업	37.2	35.8	96.2	1.2	3.3	0.1	0.2	0.1	0.3
총합계	5,746.0	4,777.3	83.1	829.3	14.4	11.2	0.2	128.2	2.2
2019									
농업/광업	5.3	3.7	69.7	1.3	24.8	0.0	0.2	0.3	5.3
제조업	14,932.7	11,432.7	76.6	2,966.3	19.9	25.6	0.2	508.2	3.4
공공사업건설업	0.1	0.1	70.9	0.0	22.0	0.0	0.4	0.0	6.7
사업서비스업	285.2	227.8	79.9	49.9	17.5	0.5	0.2	7.0	2.4
개인서비스업	1.5	1.5	95.5	0.1	3.9	0.0	0.2	0.0	0.3
총합계	15,224.8	11,665.7	76.6	3,017.6	19.8	26.1	0.2	515.4	3.4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1. 인도-일본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일본		일본 → 인도		인도 → 일본		일본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2009	7,154.4	0.9	10,396.2	2.8	749.6	0.9	1,086.5	2.7
2010	10,982.4	1.1	13,569.3	2.7	1,379.4	1.1	1,502.6	2.5
2011	11,391.8	0.9	19,673.7	3.2	1,346.9	0.9	2,046.7	2.9
2012	11,264.2	0.8	16,639.2	2.8	1,276.9	0.8	1,928.7	2.6
2013	11,474.7	0.9	13,855.2	2.5	1,524.0	1.0	1,812.0	2.3
2014	10,043.9	0.8	12,932.9	2.3	1,543.6	0.8	1,634.0	2.2
2015	8,823.4	0.8	12,164.5	2.5	1,354.5	0.9	1,373.2	2.3
2016	10,449.7	1.0	16,964.2	3.3	1,441.6	1.0	1,513.1	3.0
2017	10,927.8	1.0	18,017.0	3.1	1,647.4	1.0	1,617.8	2.9
2018	10,778.6	0.9	25,118.8	3.1	1,623.5	0.9	2,487.4	2.8
2019	10,516.9	0.9	24,850.6	3.1	1,491.6	0.9	2,360.4	2.8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앞서 살펴본 양국간 생산과 수출 기여도를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인도의 일본 생산에 대한 총 기여 중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모습이 확인된다. 인도는 광업을 바탕으로 일본의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에 기여하였고, 최근 일본 화학 제조업 생산에 인도의 화학 제조업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42. 인도-일본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일본 생산				일본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242.0	3.4	185.7	1.8	333.4	3.2	679.4	2.7
제조업	3,906.9	54.6	5,883.7	55.9	6,813.2	65.5	13,225.0	53.2
공공사업건설업	902.6	12.6	1,322.1	12.6	1,554.3	15.0	3,438.7	13.8
사업서비스업	1,367.4	19.1	1,898.1	18.0	1,496.0	14.4	7,122.1	28.7
개인서비스업	735.6	10.3	1,227.4	11.7	199.3	1.9	385.5	1.6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한편 일본은 인도 제조업 생산 기여 비중은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도 비중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 비중은 2009년 14.4%에서 28.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은 1차금속과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제조 산업 생산에 대한 기여가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 인도의 육상 운송업 생산에 대한 기여가 크게 증가된 모습이다. 2009년 인도 육상 운송업 생산에 대하여 일본 자동차, 운송 제조업의 생산 기여는 1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외에 일본의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또한 인도의 육상 제조업 생산에 2019년 기준 4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여한다.

표 5-43. 인도의 대일본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일본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일본	생산 기여도	비중
1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252.7	3.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210.6	2.0
2	광업	1차금속 제조업	233.9	3.3	광업	1차금속 제조업	199.3	1.9
3	광업	전기, 가스, 수도 공급업	137.5	1.9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95.8	1.9
4	광업	건설업	134.0	1.9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94.8	1.9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차금속 제조업	124.1	1.7	광업	화학제조업	187.6	1.8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4. 일본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일본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일본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99.0	3.8	자동차, 운송 제조업	육상 운송업	1,231.0	5.0
2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331.6	3.2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166.1	4.7
3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60.3	2.5	1차금속 제조업	육상 운송업	937.9	3.8
4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92.6	1.9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559.1	2.2
5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68.9	1.6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육상 운송업	471.2	1.9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한편 인도와 일본 양국의 수출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와 일본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양국의 기여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일본의 제조업 수출에 있어 인도의 기여 비중은 2009년 85.8%에서 2019년 91.7%로 상승하였으며, 일본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인도의 기여는 동 기간 76.7%에서 83.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인도는 광업을 바탕으로 일본의 제조업 수출에 기여하였지만, 최근 인도의 화학 제조업은 일본의 화학 제조업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 인도의 소매 서비스업 또한 일본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 수출에 활용된다. 한편 일본은 1차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1차금속, 자동차, 운송, 전기장비 등 다양한 제조산업 수출에 기여한다.

표 5-45. 인도-일본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일본 수출				일본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5.5	0.7	2.8	0.2	30.2	2.8	48.9	2.1
제조업	642.9	85.8	1368.4	91.7	833.8	76.7	1972.6	83.6
공공사업건설업	1.5	0.2	1.5	0.1	5.4	0.5	6.1	0.3
사업서비스업	98.2	13.1	117.0	7.8	206.2	19.0	320.6	13.6
개인서비스업	1.5	0.2	1.8	0.1	10.9	1.0	12.3	0.5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6. 인도의 대일본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일본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일본	수출 기여도	비중
1	광업	1차금속 제조업	35.1	4.7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45.9	3.1
2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25.2	3.4	광업	화학제조업	40.8	2.7
3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25.0	3.3	광업	1차금속 제조업	40.0	2.7

표 5-4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일본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일본	수출 기여도	비중
4	광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2.3	3.0	소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39.4	2.6
5	광업	화학제조업	19.6	2.6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9.1	2.6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7. 일본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일본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일본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39.0	3.6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33.7	5.7
2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3.6	3.1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16.6	4.9
3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8.9	2.7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90.9	3.9
4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2.4	2.1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44.5	1.9
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21.2	2.0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42.4	1.8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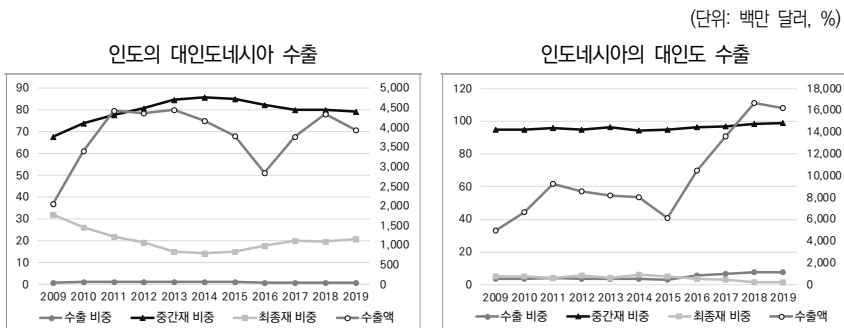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마. 인도네시아

인도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2011년 4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40억 달러 규모로 회복되었다. 이에 비하여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49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이 2019년 약 16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양국간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최종재 수출 비중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32.2%에서 2014년 14.4%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0.7%로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95.1%에서 2019년 98.7%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 수치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이 인도 생산과 수출에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5. 인도-인도네시아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인도와 인도네시아 양국 수출을 산업별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최종재 비중이 소폭 상승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수출의 경우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하였을 때 중간재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64.5%에서 2019년 75.8%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농업/광업의 경우 동기간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최종재 수출 비중이 2.5%에서 4.8%로 오

려 증가된 모습을 보여, 인도네시아에서 인도 농업/광업 상품의 최종재 수요가 소폭 증가한 한편, 생산을 위한 인도산 중간재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간재 중심의 수출이 제조업, 사업, 개인서비스업에서 심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9년 67.7%에서 2019년 96.7%로, 개인서비스업 수출 비중은 동 기간 69.2%에서 86.5%로 증가되었다. 이는 최근 인도의 생산에 있어 인도네시아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에서 인도 중간재 수요가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표 5-48.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05.3	200.2 (97.5)	5.1 (2.5)	농업/광업	727.9	692.9 (95.2)	35.0 (4.8)
제조업	1807.4	1,165.5 (64.5)	641.9 (35.5)	제조업	3,168.1	2,401.6 (75.8)	766.5 (24.2)
공공사업 건설업	0.0	0.0 (0.0)	0.0 (0.0)	공공사업 건설업	0.2	0.2 (100.0)	0.0 (0.0)
사업서비스업	35.4	23.4 (66.0)	12.1 (34.0)	사업서비스업	28.1	19.0 (67.5)	9.1 (32.5)
개인서비스업	0.0	0.0 (0.0)	0.0	개인서비스업	0.0	0.0 (0.0)	0.0 (0.0)
총합계	2,048.2	1,389.1 (67.8)	659.1 (32.2)	총합계	3,924.2	3113.5 (79.3)	810.6 (20.7)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화학 제조업	410.1	403.1 (98.3)	7.0 (1.7)	화학제조업	877.8	854.4 (97.3)	23.5 (2.7)
전자부품 제조업	354.9	53.8 (15.2)	301.1 (84.8)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478.9	382.8 (79.9)	96.1 (20.1)
1차금속 제조업	275.6	242.8 (88.1)	32.8 (11.9)	자동차, 운송 제조업	384.5	238.7 (62.1)	145.9 (37.9)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212.2	166.8 (78.6)	45.4 (21.4)	1차금속 제조업	372.5	338.7 (90.9)	33.8 (9.1)

표 5-48.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자동차, 운송 제조업	148.3	56.6 (38.2)	91.7 (61.8)	전기장비 제조업	328.4	110.9 (33.8)	217.5 (66.2)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49.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1,430.5	1,398.1 (97.7)	32.4 (2.3)	농업/광업	2,753.2	2,750.4 (99.9)	2.8 (0.1)
제조업	3,452.9	3,273.1 (94.8)	179.8 (5.2)	제조업	13,357.7	13,155.5 (98.5)	202.3 (1.5)
공공사업 건설업	0.0	0.0 (0.0)	0.0 (0.0)	공공사업 건설업	3.0	3.0 (100.0)	0.0 (0.0)
사업 서비스업	96.9	65.6 (67.7)	31.3 (32.3)	사업 서비스업	124.1	120.1 (96.7)	4.0 (3.3)
개인 서비스업	5.2	3.6 (69.2)	1.6 (30.8)	개인 서비스업	0.6	0.5 (86.5)	0.1 (13.5)
총합계	4,985.6	4,740.4 (95.1)	245.2 (4.9)	총합계	16,238.7	16,029.4 (98.7)	209.2 (1.3)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2,231.9	2,226.1 (99.7)	5.8 (0.3)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9,420.6	9,416.1 (100.0)	4.5 (0.0)
화학제조업	390.3	366.4 (93.9)	23.9 (6.1)	코코스, 석유 정제 제조업	1,076.2	1,075.6 (99.9)	0.6 (0.1)
코코스, 석유 정제 제조업	226.8	182.6 (80.5)	44.1 (19.5)	화학제조업	590.9	555.9 (94.1)	35.0 (5.9)
펄프, 종이 제조업	173.8	172.3 (99.2)	1.4 (0.8)	1차금속 제조업	586.9	577.3 (98.4)	9.6 (1.6)
전자부품 제조업	125.4	70.8 (56.5)	54.6 (43.5)	자동차, 운송 제조업	434.6	427.1 (98.3)	7.5 (1.7)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양국간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보
자.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 비중과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소폭 감소되었다.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74.3%에서 76.7%로,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0.5%에서 1.1%로 증가하였고,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21.3%에서 18.6%로 감소하였다. 특히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는 인도의 중간재(원료)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되어 중간재 혹은 최종재 형태로 생산 가공 후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소비되는 생산 형태의 비중이 소폭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국내부가가치보다는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였고,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상기 추세는 사업 서비스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수출의 경우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표 5-50.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05.3	195.3	95.1	5.1	2.5	3.3	1.6	1.7	0.8
제조업	1,807.4	1,294.5	71.6	428.3	23.7	6.0	0.3	78.7	4.4
공공사업건설업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35.4	31.8	89.7	3.1	8.8	0.1	0.4	0.4	1.1
개인서비스업	0.0	0.0		0.0		0.0		0.0	
총합계	2,048.2	1,521.5	74.3	436.5	21.3	9.4	0.5	80.8	3.9
2019									
농업/광업	727.9	678.6	93.2	18.1	2.5	23.8	3.3	7.3	1.0
제조업	3,168.1	2,305.0	72.8	710.9	22.4	19.8	0.6	132.3	4.2
공공사업건설업	0.2	0.1	81.4	0.0	14.4	0.0	1.1	0.0	3.2
사업서비스업	28.1	26.1	93.0	1.6	5.6	0.2	0.6	0.2	0.8
개인서비스업	0.0	0.0		0.0		0.0		0.0	
총합계	3,924.2	3,009.9	76.7	730.6	18.6	43.8	1.1	139.8	3.6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51.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1,430.5	1,343.9	93.9	65.0	4.5	4.5	0.3	17.1	1.2
제조업	3,452.9	3,031.6	87.8	363.8	10.5	4.8	0.1	52.7	1.5
공공사업건설업	0.0	0.0	0.0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업	96.9	90.2	93.0	5.6	5.8	0.2	0.2	1.0	1.0
개인서비스업	5.2	4.7	90.4	0.3	6.1	0.0	0.1	0.2	3.3
총합계	4,985.6	4,470.4	89.7	434.8	8.7	9.5	0.2	71.0	1.4
2019									
농업/광업	2,753.2	2,610.6	94.8	99.6	3.6	8.4	0.3	34.6	1.3
제조업	13,357.7	11,785.0	88.2	1,396.2	10.5	10.8	0.1	165.7	1.2
공공사업건설업	3.0	2.6	87.6	0.3	11.4	0.0	0.1	0.0	0.9
사업서비스업	124.1	113.5	91.4	8.9	7.2	0.2	0.1	1.5	1.2
개인서비스업	0.6	0.6	89.4	0.1	8.5	0.0	0.1	0.0	2.0
총합계	16,238.7	14,512.3	89.4	1,505.1	9.3	19.3	0.1	201.9	1.2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도를 살펴보자. 인도의 인도네시아 생산과 수출 기여액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인도의 인도네시아 생산 기여의 경우 2011년 53억 달러 달성 이후 6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 해외 생산 기여액 대비 인도 생산 기여 비중은 2.2~2.4%를 유지 중이다. 인도의 인도네시아 수출 기여도 역시 증감을 반복 중이며, 최근 2018년 9억 5천만 달러 달성 이후 2019년 7억 7천만 달러로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인도 생산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인도 생산 기여액은 2009년 94억 달러에서 2019년 25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도 기준 생산 기여 비중 또한 동 기간 2.5%에서 3.1%로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도 수출 기여는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인도 수출 기여액은 2018년 2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 19억 달러로 소폭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표 5-52. 인도-인도네시아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인니		인니 → 인도		인도 → 인니		인니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2009	2,454.0	1.9	9,406.8	2.5	382.6	2.0	771.5	1.9
2010	4,180.1	2.4	12,716.8	2.6	666.4	2.4	1,176.8	2.0
2011	5,307.1	2.4	17,697.7	2.9	905.0	2.5	1,732.6	2.4
2012	5,335.7	2.3	15,145.7	2.6	888.3	2.5	1,649.1	2.2
2013	5,752.8	2.4	14,670.3	2.6	948.2	2.6	1,825.0	2.3
2014	5,276.0	2.2	13,980.1	2.5	900.0	2.5	1,662.0	2.2
2015	5,080.9	2.4	11,109.2	2.2	718.2	2.4	1,089.8	1.8
2016	4,648.7	2.2	17,644.5	3.4	679.2	2.5	1,201.0	2.4
2017	5,566.2	2.4	21,691.5	3.8	868.7	2.6	1,550.2	2.8
2018	5,918.8	2.2	25,612.7	3.1	957.6	2.5	2,119.2	2.4
2019	5,588.4	2.2	25,191.2	3.1	772.0	2.4	1,970.0	2.3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있어 양국의 기여 비중이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사업서비스업 생산을 위한 인도의 기여 비중은 2009년 15.8%에서 2019년 20.3%로 증가된 반면, 다른 산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인도네시아 건설업에 대한 인도 화학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소매업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이 요인으로 지목되며, 기존의 인도네시아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생산에 대한 인도 농업, 임업, 어업의 기여도는 크게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여 비중도 동 기간 19.9%에서 41.7%로 크게 증가되었고, 인도 제조업 생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여도는 동 기간 64.2%에서 44.4%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인도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료품, 담배 제조업과 농업, 임업, 어업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된 모습을 배경으로 한다.

표 5-53. 인도-인도네시아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생산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152.3	6.2	279.8	5.0	375.5	4.0	669.8	2.7
제조업	1,234.1	50.3	2,757.5	49.3	6,041.3	64.2	11,196.2	44.4
공공사업건설업	525.5	21.4	1,112.8	19.9	976.1	10.4	2,225.5	8.8
사업서비스업	386.6	15.8	1,135.2	20.3	1,871.0	19.9	10,501.1	41.7
개인서비스업	155.5	6.3	303.1	5.4	142.9	1.5	598.5	2.4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54.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인도네시아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인도네시아	생산 기여도	비중
1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69.8	6.9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501.9	9.0
2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81.1	3.3	화학제조업	건설업	136.4	2.4
3	화학 제조업	건설업	54.1	2.2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120.5	2.2
4	광업	건설업	52.2	2.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07.1	1.9
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48.6	2.0	소매업	건설업	99.3	1.8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55.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네시아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네시아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광업	코코스, 석유 정제 제조업	960.1	10.2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2,744.8	10.9
2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628.6	6.7	농업,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2,349.3	9.3
3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548.4	5.8	광업	코코스, 석유 정제 제조업	1,229.2	4.9
4	광업	1차금속 제조업	522.4	5.6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194.0	4.7
5	광업	건설업	428.3	4.6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053.1	4.2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양국의 수출 기여도를 살펴보자. 인도와 인도네시아 제조업 수출에 있어 양국의 수출 기여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인도의 대 인도네시아 제조업 수출 기여 비중은 2009년 87.5%에서 2019년 92.5%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인도네시아 코코스 정제업 수출에 대한 인도 광업의 기여도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제조업 수출 비중은 동 기간 80.8%에서 81.1%로 변화되었고, 이는 기존 인도 코코스 정제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광업의 기여액이 크게 증가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여 비중은 동 기간 15.5%에서 16.2%로 상승하였고, 이는 인도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수출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의 기여도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 5-56. 인도-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29.8	7.8	35.2	4.6	21.3	2.8	39.7	2.0
제조업	334.7	87.5	714.4	92.5	623.5	80.8	1,596.9	81.1
공공사업건설업	0.3	0.1	1.8	0.2	3.4	0.4	3.8	0.2
사업서비스업	15.3	4.0	18.2	2.4	119.4	15.5	319.5	16.2
개인서비스업	2.4	0.6	2.4	0.3	3.9	0.5	10.1	0.5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57.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인도네시아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인도네시아	수출 기여도	비중
1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26.7	7.0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77.9	10.1
2	화학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15.3	4.0	농업, 임업, 어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33.4	4.3
3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0.6	2.8	화학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31.3	4.1
4	농업, 임업, 어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9.4	2.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27.4	3.6
5	화학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7.6	2.0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5.2	2.0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58. 인도네시아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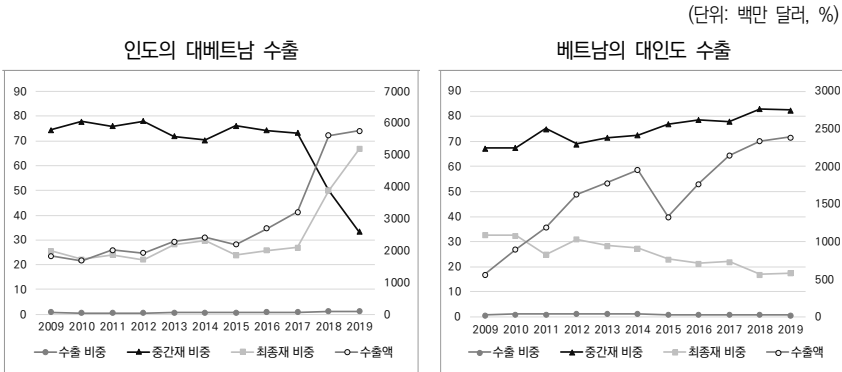
순위	2009				2019			
	인도네시아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네시아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42.7	18.5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333.3	16.9
2	광업	1차금속 제조업	44.0	5.7	광업	1차금속 제조업	102.9	5.2
3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27.5	3.6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96.1	4.9
4	광업	화학제조업	26.7	3.5	농업, 임업, 어업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84.7	4.3
5	농업, 임업, 어업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24.0	3.1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57.8	2.9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마. 베트남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인도의 베트남 수출은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수출규모는 2009년 18억 달러에서 2019년 58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베트남의 인도 수출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 중인 모습을 보이며, 2009년 5억 6천만 달러 규모에서 2019년 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양국간 교역은 증가된 모습을 보이지만, 수출 상품의 용도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인도의 베트남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25.6%에서 2019년 66.7%로 크게 성장하여 최종재 중심으로 변화된 반면, 베트남의 인도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32.6%에서 17.4%로, 중간재 수출은 67.4%에서 82.6%로 중간재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즉 베트남은 인도에서 최종재 가공을 마친 제품을 소비하기 위한 수입을 하며, 인도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활용하여 본국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한 수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6. 인도-베트남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양국의 무역 추세를 산업별로 살펴보자. 우선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은 최종재 구조로 변모되었는데, 이는 농업/광업과 제조업에서 특징적으로 변화되었다. 인도 농업/광업의 베트남 최종재 수출은 2009년 17.1%에서 2019년 67.5%로 크게 증가되었고, 제조업 또한 동 기간 22.8%에서 66.5%로 변화되었다. 인도의 대베트남 상위 제조업 수출 산업을 살펴보면, 화학, 코크스, 석유 정제,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등에서 최종재 수출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을 살펴보자.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변화되었는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베트남산 중간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 농업/광업의 대인도 중간재 수출은 2009년 74.2%에서 2019년 96%로, 제조업은 동 기간 66.5%에서 82.1%, 사업서비스업은 37.9%에서 82.8%, 개인서비스업은 71.2%에서 93.6%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고무 플라스틱, 전자부품 제조업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표 5-59.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98.0	247.0 (82.9)	50.9 (17.1)	농업/광업	1,012.1	328.7 (32.5)	683.4 (67.5)
제조업	1,372.3	1,059.2 (77.2)	313.1 (22.8)	제조업	4,372.5	1,466.1 (33.5)	2,906.5 (66.5)
공공사업 건설업	0.4	0.4 (84.7)	0.1 (15.3)	공공사업 건설업	1.0	0.8 (76.6)	0.2 (23.4)
사업서비스업	132.7	50.8 (38.3)	81.9 (61.7)	사업서비스업	307.3	117.6 (38.3)	189.7 (61.7)
개인서비스업	21.9	0.4 (2.0)	21.5 (98.0)	개인서비스업	62.0	0.7 (1.1)	61.3 (98.9)
총합계	1,825.4	1,357.9 (74.4)	467.5 (25.6)	총합계	5,754.9	1,913.8 (33.3)	3,841.1 (66.7)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92.4	392.6 (100.0)	0.0 (0.0)	화학 제조업	1,085.8	359.7 (33.1)	726.1 (66.9)
기타 제조업	295.9	76.9 (26.0)	219.1 (74.0)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938.9	184.1 (19.6)	754.8 (80.4)
화학 제조업	269.9	245.3 (90.9)	24.6 (9.1)	기타 제조업	524.8	33.9 (6.5)	490.9 (93.5)
전자부품 제조업	106.7	93.1 (87.2)	13.6 (12.8)	1차금속 제조업	503.5	438.1 (87.0)	65.4 (13.0)
화학 제조업	102.6	85.9 (83.7)	16.7 (16.3)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461.4	105.1 (22.8)	356.3 (77.2)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0.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130.4	96.7 (74.2)	33.6 (25.8)	농업/광업	75.6	72.5 (96.0)	3.0 (4.0)
제조업	419.0	278.8 (66.5)	140.2 (33.5)	제조업	2,299.8	1,888.5 (82.1)	411.3 (17.9)

표 5-60.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공공사업건설업	0.0	0.0 (91.9)	0.0 (8.1)	공공사업건설업	0.0	0.0 (94.6)	0.0 (5.4)
사업서비스업	18.8	7.1 (37.9)	11.7 (62.1)	사업서비스업	13.1	10.9 (82.8)	2.3 (17.2)
개인서비스업	0.4	0.3 (71.2)	0.1 (28.8)	개인서비스업	0.5	0.5 (93.6)	0.0 (6.4)
총합계	568.6	383.0 (67.4)	185.6 (32.6)	총합계	2,389.1	1,972.4 (82.6)	416.6 (17.4)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77.4	75.9 (98.1)	1.5 (1.9)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623.4	612.5 (98.2)	11.0 (1.8)
기타 제조업	71.2	13.1 (18.4)	58.1 (81.6)	1차금속 제조업	351.2	350.2 (99.7)	1.0 (0.3)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58.5	50.8 (86.8)	7.7 (13.2)	전자부품 제조업	252.7	95.7 (37.9)	156.9 (62.1)
섬유, 의복 제조업	55.7	54.1 (97.2)	1.6 (2.8)	섬유, 의복 제조업	231.5	230.0 (99.4)	1.5 (0.6)
전자부품 제조업	43.3	12.8 (29.7)	30.4 (70.3)	기타 제조업	190.7	71.3 (37.4)	119.4 (62.6)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베트남 양국간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은 국내부가가치와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되었다. 이는 인도의 베트남 수출이 최종재 수출 중심으로 변모되어 기존의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에 포함된 중복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도의 대베트남 농업/광업, 제조업 수출의 경우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이고, 서비스업 수출은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소폭 증가된 모습이다. 즉 농업/광업, 제조업 수출에는 해외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소폭 증가되었다면, 서비스업 수출은 자국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투입된 제품이 수출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은 전반적으로 해외부가가치 비중과 중복부가가치 비중이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이 중간재 수출로 변모되었고, 수출된 중간재의 일부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인도로 재수출되는 경우도 있어 수출 내 중복부가가치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베트남이 인도를 생산망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복부가가치 비중 상승이 특징적으로, 베트남-인도 간 중간재가 여러 차례 이동되는 비중이 높아져 베트남의 인도 생산 활용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61.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98.0	283.6	95.2	7.8	2.6	1.2	0.4	5.3	1.8
제조업	1,372.3	981.2	71.5	264.8	19.3	4.8	0.3	121.5	8.9
공공사업건설업	0.4	0.4	83.5	0.0	10.4	0.0	0.4	0.0	5.8
사업서비스업	132.7	124.0	93.4	7.4	5.6	0.2	0.1	1.2	0.9
개인서비스업	21.9	20.8	95.0	1.1	5.0	0.0	0.0	0.0	0.0
총합계	1,825.4	1,410.0	77.2	281.2	15.4	6.2	0.3	128.0	7.0
2019									
농업/광업	1,012.1	949.3	93.8	45.3	4.5	2.5	0.2	15.0	1.5
제조업	4,372.5	3,197.9	73.1	868.0	19.9	11.2	0.3	295.5	6.8
공공사업건설업	1.0	0.7	73.8	0.1	11.6	0.0	0.5	0.1	14.1
사업서비스업	307.3	289.1	94.1	14.0	4.6	0.8	0.3	3.4	1.1
개인서비스업	62.0	59.2	95.5	2.8	4.5	0.0	0.0	0.0	0.0
총합계	5,754.9	4,496.2	78.1	930.3	16.2	14.4	0.3	314.0	5.5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2.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130.4	86.7	66.5	37.8	29.0	0.1	0.1	5.8	4.4
제조업	419.0	228.7	54.6	163.2	38.9	0.2	0.1	26.8	6.4
공공사업건설업	0.0	0.0	62.2	0.0	30.8	0.0	0.1	0.0	7.0
사업서비스업	18.8	11.5	61.1	6.9	36.5	0.0	0.0	0.5	2.4
개인서비스업	0.4	0.3	77.4	0.1	19.4	0.0	0.1	0.0	3.1
총합계	568.6	327.2	57.5	208.0	36.6	0.3	0.1	33.1	5.8
2019									
농업/광업	75.6	50.4	66.6	20.7	27.4	0.1	0.2	4.4	5.8
제조업	2,299.8	1,105.5	48.1	979.6	42.6	2.2	0.1	212.6	9.2
공공사업건설업	0.0	0.0	57.4	0.0	33.9	0.0	0.2	0.0	8.6
사업서비스업	13.1	7.4	56.6	5.0	38.1	0.0	0.1	0.7	5.2
개인서비스업	0.5	0.4	68.7	0.1	26.7	0.0	0.1	0.0	4.5
총합계	2,389.1	1,163.6	48.7	1,005.4	42.1	2.3	0.1	217.7	9.1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베트남 양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도를 살펴보자. 우선 인도의 대베트남 생산과 수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9년 인도의 베트남 생산 기여는 2.3%에서 2019년 1.5%로, 수출 기여는 동 기간 2.0%에서 1.7%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도의 대베트남 용도별 수출 구조가 최종재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인한다. 즉 인도에서 최종재로 생산된 품목이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최종 소비되기에, 베트남의 수출과 생산에 활용된 인도산 부가가치 기여도가 점차 감소되는 모습이다. 이에 비하여, 베트남의 대인도 생산/수출 기여도는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다. 2009년 베트남의 인도 생산 기여는 0.2%에서 2019년 0.4%로, 수출 기여는 동 기간 0.1%에서 0.4%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의 생산과 수출에서 베트남 중간재 혹은 부가가치의 활용도가 증가되는 것을 시사한다.

표 5-63. 인도-베트남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베트남		베트남 → 인도		인도 → 베트남		베트남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수출 기여	비중
2009	2,686.8	2.3	619.2	0.2	401.3	2.0	33.6	0.1
2010	2,747.7	2.2	890.4	0.2	586.3	1.8	58.5	0.1
2011	3,031.2	2.0	1,220.8	0.2	590.6	2.3	67.5	0.2
2012	2,911.0	1.8	1,472.6	0.3	793.7	2.1	101.1	0.2
2013	3,240.7	1.8	1,606.9	0.3	950.9	2.0	142.8	0.2
2014	3,142.2	1.7	1,736.6	0.3	962.7	1.7	181.0	0.2
2015	3,288.4	1.7	1,521.6	0.3	1,172.5	1.7	216.7	0.3
2016	4,110.0	1.8	1,931.4	0.4	1,166.8	1.5	217.9	0.3
2017	4,650.9	1.8	2,214.5	0.4	886.3	1.6	168.6	0.3
2018	5,023.0	1.8	2,828.9	0.3	1,619.4	1.7	191.6	0.4
2019	4,226.9	1.5	2,969.9	0.4	1,890.9	1.7	224.9	0.4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베트남 양국의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의 대부분 산업에서 생산 기여액은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인도는 베트남 제조업 생산 기여 비중이 2009년 63.1%에서 2019년 66.9%로 다른 산업 대비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산업간 기여도를 살펴보면, 베트남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에 대한 인도의 농업, 임업, 어업 생산 기여도는 2009년 2.7%에서 1.4%로 감소한 반면, 인도의 광업, 소매업, 1차금속 제조업은 각각 베트남의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즉 인도의 베트남 생산 기여도는 농업, 광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베트남은 대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도가 2009년 12%에서 2019년 19.7%로 크게 증가되어, 인도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베트남 부가가치의 적극적 활용이 관찰된다. 특히 인도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에 대하여 베트남의 농업,

임업, 어업의 투입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베트남은 농업, 임업, 어업을 중심으로 인도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였다면, 최근 베트남의 1차금속 제조업, 가죽 신발,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의 인도 제조업 생산 기여도가 상위 산업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표 5-64. 인도-베트남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베트남 생산				베트남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379.4	14.1	488.2	11.5	29.0	4.7	97.6	3.3
제조업	1,695.4	63.1	2,828.2	66.9	435.3	70.3	1,942.0	65.4
공공사업건설업	204.5	7.6	292.4	6.9	70.5	11.4	292.5	9.8
사업서비스업	318.3	11.8	434.1	10.3	74.4	12.0	583.6	19.7
개인서비스업	89.2	3.3	184.1	4.4	10.0	1.6	54.2	1.8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5. 인도의 베트남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베트남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베트남	생산 기여도	비중
1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55.0	5.8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66.6	3.9
2	농업, 임업, 어업	농업, 임업, 어업	73.7	2.7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130.1	3.1
3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63.9	2.4	소매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68.6	1.6
4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48.7	1.8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66.0	1.6
5	광업	건설업	40.5	1.5	농업, 임업, 어업	농업, 임업, 어업	60.8	1.4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6. 베트남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베트남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베트남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29.8	4.8	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78.4	2.6
2	농업, 임업, 어업	화학 제조업	16.3	2.6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51.0	1.7
3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5.0	2.4	농업,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50.3	1.7
4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2.0	1.9	가죽, 신발 제조업	가죽, 신발 제조업	49.3	1.7
5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10.7	1.7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49.1	1.7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베트남 양국의 수출 기여도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기여도가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인도의 기여는 2009년 4억 5천만 달러에서 2019년 17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도 제조업 수출에 대한 베트남의 기여 또한 동 기간 5천만 달러에서 2억 8천만 달러로 상승하였다. 즉 양국 모두 제조업 수출 목적으로 상대 국가의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상위 산업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인도의 농업, 임업, 어업의 베트남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수출 기여액이 가장 커 연계성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최근 변화로는 인도 소매업의 베트남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과 섬유, 의복 제조업 수출 기여도가 상위 기여 산업으로 부상한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상위 인도 수출 기여 산업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섬유, 의복 제조업의 인도 동일 산업 수출에 대한 기여액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이외에 베트남의 인도 가죽, 신발 제조업 수출과 베트남 도매업의 인도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수출 기여도가 증가하여 새로운 상위

기여 산업으로 등장한 모습을 보인다.

표 5-67. 인도-베트남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베트남 수출				베트남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82.8	14.0	57.5	3.1	2.0	3.0	6.9	2.1
제조업	450.5	76.3	1,734.6	93.6	53.3	78.9	285.1	84.8
공공사업건설업	0.1	0.0	0.3	0.0	0.2	0.4	0.5	0.2
사업서비스업	54.1	9.2	55.6	3.0	11.5	17.0	41.7	12.4
개인서비스업	3.2	0.5	5.2	0.3	0.5	0.8	2.0	0.6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8. 인도의 대베트남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베트남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베트남	수출 기여도	비중
1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57.4	9.7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24.3	6.7
2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8.1	3.1	소매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51.2	2.8
3	광업	광업	12.7	2.2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51.0	2.8
4	광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1.4	1.9	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48.7	2.6
5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1.1	1.9	소매업	섬유, 의복 제조업	43.3	2.3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69. 베트남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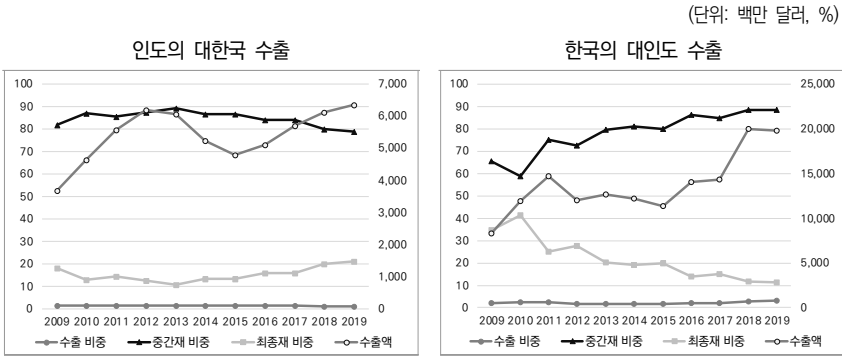
순위	2009				2019			
	베트남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베트남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5.8	8.6	섬유, 의복 제조업	섬유, 의복 제조업	15.9	4.7
2	농업, 임업, 어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6	3.9	가죽, 신발 제조업	가죽, 신발 제조업	10.7	3.2
3	농업, 임업, 어업	화학 제조업	2.3	3.5	도매업	코코스, 석유 정제 제조업	6.5	1.9
4	1차금속 제조업	기타 제조업	1.4	2.1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5.9	1.7
5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4	2.1	1차금속 제조업	기타 제조업	5.7	1.7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사. 한국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도의 해외 수출 대비 대한민국 수출 비중은 2009년 1.7%에서 2019년 1.4%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인도에 있어 수출 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019년 약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국 수출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소폭 감소 후 상승 중이며, 전체 해외 수출 대비 인도 시장 수출 비중은 2.0%에서 3.0%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와 한국의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중심이 되나,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중간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이 인도의 최종재를 중심으로 수요로 하나, 인도는 생산을 위하여 한국 중간재를 수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7. 인도-한국 양국 수출의 용도별 추이



주: 수출 비중은 수출국의 총 수출액 대비 상대국의 수출 비중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이러한 추세를 산업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종재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특히 인도의 농업/광업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9년 2.9%에서 2019년 20.0%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 섬유 의복, 식료품·음료·담배, 코크스, 석유 정제업의 대한민국 최종재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이 해당 산업의 인도 생산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5-70.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9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185.2	179.8 (97.1)	5.4 (2.9)	농업/광업	444.8	355.9 (80.0)	88.9 (20.0)
제조업	3,278.9	2,638.6 (80.5)	640.3 (19.5)	제조업	5,234.4	4,059.3 (77.6)	1,175.1 (22.4)
공공사업	0.0	0.0	0.0	공공사업	0.0	0.0	0.0
건설업		(100.0)	(0.0)	건설업		(100.0)	(0.0)
사업서비스업	214.7	199.6 (93.0)	15.1 (7.0)	사업서비스업	660.7	579.7 (87.8)	80.9 (12.2)

표 5-70.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개인서비스업	6.0	0.0 (0.0)	6.0 (100.0)	개인서비스업	3.2	0.0 (0.0)	3.2 (100.0)
총합계	3,684.8	3,018.0 (81.9)	666.7 (18.1)	총합계	6,343.0	4995.0 (78.7)	1348.0 (21.3)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2,046.8	1,531.5 (74.8)	515.4 (25.2)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2,162.8	1,415.1 (65.4)	747.6 (34.6)
화학제조업	347.5	336.3 (96.8)	11.1 (3.2)	1차금속 제조업	934.2	919.3 (98.4)	14.9 (1.6)
1차금속 제조업	317.7	308.9 (97.3)	8.7 (2.7)	화학제조업	810.6	781.9 (96.5)	28.7 (3.5)
섬유, 의복 제조업	159.0	139.6 (87.8)	19.4 (12.2)	섬유, 의복 제조업	397.6	237.3 (59.7)	160.3 (40.3)
식품품, 음료, 담배 제조업	98.8	87.8 (88.9)	11.0 (11.1)	식품품, 음료, 담배 제조업	256.1	202.8 (79.2)	53.4 (20.8)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중간재 수출 비중의 경우 2009년 65.7%에서 2019년 88.8%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운송 제조업의 중간재 비중은 동 기간 49.1%에서 94.2%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대인도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또한 주요 수출 산업으로 등장하였고, 2019년 기준 중간재 비중이 98.9%로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도 양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은 인도에서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인도는 자국의 생산을 위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1. 한국의 대인도 수출 산업별 용도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9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구분	총수출	중간재	최종재
농업/광업	23.5	23.0 (97.8)	0.5 (2.2)	농업/광업	10.1	10.1 (99.2)	0.1 (0.8)
제조업	7,848.7	5,158.9 (65.7)	2,689.8 (34.3)	제조업	18,494.3	16,426.2 (88.8)	2,068.1 (11.2)
공공사업 건설업	3.5	2.1 (59.1)	1.4 (40.9)	공공사업 건설업	6.5	5.9 (90.9)	0.6 (9.1)
사업서비스 업	369.0	273.3 (74.1)	95.7 (25.9)	사업서비스 업	1,216.5	1,056.0 (86.8)	160.4 (13.2)
개인서비스 업	100.9	6.8 (6.7)	94.1 (93.3)	개인서비스 업	54.7	35.5 (65.0)	19.1 (35.0)
총합계	8,345.6	5,464.0 (65.5)	2,881.6 (34.5)	총합계	19,782.1	17,533.7 (88.6)	2,248.3 (11.4)
상위 5개 수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342.1	1,150.1 (49.1)	1,192.1 (50.9)	1차금속 제조업	3,632.1	3,419.7 (94.2)	212.4 (5.8)
1차금속 제조업	1,650.7	1,533.5 (92.9)	117.2 (7.1)	자동차, 운송 제조업	3,493.5	3,319.5 (95.0)	174.0 (5.0)
전자부품 제조업	1,177.6	432.2 (36.7)	745.4 (63.3)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3,426.7	3,389.5 (98.9)	37.3 (1.1)
화학제조업	1,151.3	1,125.6 (97.8)	25.7 (2.2)	화학제조업	3,032.8	3,009.2 (99.2)	23.6 (0.8)
전기장비 제조업	674.5	210.0 (31.1)	464.5 (68.9)	전자부품 제조업	2,516.3	1,621.5 (64.4)	894.8 (35.6)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의 대한국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인도의 대한국 수출에서 인도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62.9%에서 2019년 72.2%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 비중은 동 기간 21.9%에서 17.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의 대한국 제조업 수출부가가치 요소의 변화에 기인한다. 인도의 대한국 수출에 있어 인도 제조업의 국내부가가치는 동 기간 59.3%

에서 67.4%로 크게 증가하였고, 해외부가가치는 동 기간 24.0%에서 20.1%로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수출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의 국내부가가치와 해외부가 가치 비중은 감소한 한편, 중복계산분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국내부가가치의 경우 2009년 64.6%에서 2019년 64.3%로, 해외부가가치는 동 기간 30.9%에서 30.3%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복계산 비중은 동 기간 4.3%에서 5.3%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수출경로를 통하여 한-인도 양국을 여러 차례 이동하는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고, 한국에 있어 인도와의 생산 연계도가 증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인도의 국내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생산기지 활용을 위한 이동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72. 인도의 대한국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185.2	174.0	93.9	4.9	2.6	1.6	0.9	4.7	2.5
제조업	3,278.9	1,944.7	59.3	787.4	24.0	19.8	0.6	527.0	16.1
공공사업건설업	0.0	0.0	84.1	0.0	12.6	0.0	0.3	0.0	3.0
사업서비스업	214.7	192.4	89.6	15.0	7.0	1.2	0.6	6.2	2.9
개인서비스업	6.0	5.7	94.7	0.3	5.3	0.0	0.0	0.0	0.0
총합계	3,684.8	2,316.7	62.9	807.6	21.9	22.7	0.6	537.8	14.6
2019									
농업/광업	444.8	423.1	95.1	12.9	2.9	2.6	0.6	6.2	1.4
제조업	5,234.4	3,530.1	67.4	1,052.0	20.1	44.4	0.8	607.9	11.6
공공사업건설업	0.0	0.0	81.8	0.0	14.1	0.0	0.5	0.0	3.6
사업서비스업	660.7	621.7	94.1	24.5	3.7	5.2	0.8	9.2	1.4
개인서비스업	3.2	3.1	97.4	0.1	2.6	0.0	0.0	0.0	0.0
총합계	6,343.0	4,578.0	72.2	1,089.5	17.2	52.3	0.8	623.2	9.8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73. 한국의 대인도 수출부가가치 분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2009									
산업	총수출	DVA	비중	FVA	비중	RDV	비중	PDC	비중
농업/광업	23.5	20.0	84.9	2.7	11.5	0.2	0.8	0.7	2.9
제조업	7,848.7	4,978.1	63.4	2,512.5	32.0	6.1	0.1	352.0	4.5
공공사업건설업	3.5	2.2	62.1	1.2	34.2	0.0	0.1	0.1	3.6
사업서비스업	369.0	307.5	83.3	51.7	14.0	0.5	0.1	9.3	2.5
개인서비스업	100.9	87.0	86.2	13.7	13.6	0.0	0.0	0.2	0.2
총합계	8,345.6	5,394.6	64.6	2,581.8	30.9	6.8	0.1	362.3	4.3
2019									
농업/광업	10.1	8.6	84.8	1.2	11.8	0.0	0.4	0.3	3.1
제조업	18,494.3	11,639.6	62.9	5,820.8	31.5	21.6	0.1	1,012.3	5.5
공공사업건설업	6.5	4.6	69.8	1.7	26.5	0.0	0.1	0.2	3.5
사업서비스업	1,216.5	1,018.0	83.7	168.9	13.9	1.7	0.1	27.9	2.3
개인서비스업	54.7	45.6	83.5	7.9	14.5	0.1	0.1	1.0	1.9
총합계	19,782.1	12,716.4	64.3	6,000.5	30.3	23.5	0.1	1,041.7	5.3

주: DVA는 국내부가가치, FVA는 해외부가가치, RDV는 회귀된 국내부가가치, PDC는 중복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인도와 한국의 생산과 수출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자. 인도의 한국에 대한 생산과 수출 기여는 2009년 65억 달러에서 2019년 119억 달러로 절대 기여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생산 기여 100억 달러 달성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한국의 전체 해외 생산 기여액에서 인도의 비중 또한 약 1.3%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 기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생산과 수출 기여는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대인도 생산 기여액은 2009년 79억 달러에서 2019년 233억 달러로, 수출 기여액은 8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기여액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인도의 해외 생산 기여 대비 한국의 기여 비중은 동 기간 2.1%에서 2.9%로, 수출 기여 비중은 2.1%에서 2.7%로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가 인도의 생산과 수출에 활용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74. 인도-한국 생산/수출 기여도 추이(2009~19년)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생산 기여				수출 기여			
	인도 → 한국		한국 → 인도		인도 → 한국		한국 → 인도	
	생산 기여액	비중	생산 기여액	비중	수출 기여액	비중	수출 기여액	비중
2009	6,505.8	1.2	7,919.5	2.1	1,607.9	1.1	833.6	2.1
2010	9,418.2	1.3	10,285.3	2.1	2,305.8	1.3	1,181.8	2.0
2011	10,401.5	1.1	14,524.4	2.4	2,774.0	1.1	1,583.7	2.2
2012	10,824.6	1.2	11,966.4	2.0	2,809.4	1.1	1,444.3	1.9
2013	11,528.9	1.3	13,555.7	2.4	2,884.1	1.1	1,831.2	2.3
2014	10,070.8	1.1	14,115.1	2.6	2,518.1	1.0	1,809.7	2.4
2015	9,815.2	1.1	13,112.4	2.6	2,444.3	1.0	1,492.4	2.5
2016	11,103.3	1.3	16,821.0	3.3	2,645.9	1.2	1,512.7	3.0
2017	12,319.4	1.3	16,498.8	2.9	2,681.0	1.2	1,493.5	2.7
2018	12,058.8	1.2	23,571.5	2.9	2,548.7	1.1	2,379.5	2.7
2019	11,956.7	1.3	23,294.4	2.9	2,445.0	1.2	2,255.5	2.7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인도와 한국의 생산 기여도를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인도는 한국의 사업 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기여 비중이 소폭 상승한 반면, 제조업 등 나머지 산업 기여도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인도의 생산 기여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은 제조업이고, 최근 한국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과 인도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 한국의 화학 제조업 생산에 있어 인도의 화학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광업의 연계도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된 모습이다. 한편 한국은 인도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있어 기여 비중이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산업의 생산 기여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인도 사업서비스업 기여 비중은 2009년 14.6%에서 2019년 29.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대인도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의 제조 산업에서 주로 기여하였지만, 최근 인도의 육상 운송업과 같은 사업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 운송 제조업과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여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표 5-75. 인도-한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한민국 생산				한국의 대인도 생산			
	2009		2019		2009		2019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121.7	1.9	181.9	1.5	284.0	3.6	753.3	3.2
제조업	4,269.6	65.6	7,709.5	64.5	5,188.3	65.5	12,508.2	53.7
공공사업건설업	639.0	9.8	1,116.4	9.3	1,128.8	14.3	2,797.9	12.0
사업서비스업	976.6	15.0	1,871.2	15.6	1,155.7	14.6	6,747.0	29.0
개인서비스업	498.9	7.7	1,077.7	9.0	162.7	2.1	487.9	2.1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76. 인도의 대한민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한국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한국	생산 기여도	비중
1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227.3	3.5	농업, 임업, 어업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316.6	2.6
2	광업	화학제조업	218.8	3.4	화학 제조업	화학 제조업	314.3	2.6
3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149.2	2.3	광업	화학제조업	280.4	2.3
4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127.9	2.0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241.8	2.0
5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17.7	1.8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224.3	1.9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77. 한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67.8	4.6	자동차, 운송 제조업	육상 운송업	875.6	3.8
2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310.5	3.9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814.3	3.5

표 5-7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3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93.6	3.7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634.4	2.7
4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273.1	3.4	1차금속 제조업	건설업	618.0	2.7
5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89.3	2.4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581.9	2.5

주: 비중은 전체 기여액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양국의 수출 기여도 측면을 살펴보면, 인도는 대한민국 수출 기여도의 90% 이상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 사업서비스업 수출에 대한 인도의 기여 비중이 2009년 7.3%에서 2019년 8.4%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액 중 인도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9년 76.6%에서 2019년 82.4%로 증가하였다. 앞서 한국의 인도 생산에 있어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표 5-78. 인도-한국 산업별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				한국의 대인도 수출			
	2009		2019		2009		2019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1.8	0.1	2.1	0.1	25.0	3.0	49.4	2.2
제조업	1,478.8	92.0	2,224.8	91.0	638.3	76.6	1,857.6	82.4
공공사업건설업	5.0	0.3	3.6	0.1	3.9	0.5	4.9	0.2
사업서비스업	117.2	7.3	204.4	8.4	159.2	19.1	330.0	14.6
개인서비스업	5.1	0.3	10.0	0.4	7.1	0.9	13.5	0.6

주: 각 산업은 기여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한국 전자부품 제조업 수출에 있어 인도의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높은 기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 전반적인 한국 수출에 기여하는 인도의 상위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으나, 최근 한국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수출에 있어 인도 광업의 기여액 증가가 특징적이다. 한편 인도 자동차, 운송 제조업 수출에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이 기여 중이며, 최근 인도의 화학 제조업 수출에 있어 한국 화학 제조업의 수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5-79. 인도의 대한민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인도	한국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한국	수출 기여도	비중
1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74.6	4.6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제조업	78.2	3.2
2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65.4	4.1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77.6	3.2
3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64.0	4.0	광업	화학제조업	69.2	2.8
4	광업	화학제조업	63.0	3.9	광업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63.2	2.6
5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42.8	2.7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59.7	2.4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표 5-80. 한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09, 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44.0	5.3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106.5	4.7
2	화학제조업	화학제조업	39.2	4.7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93.3	4.1
3	1차금속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31.0	3.7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81.5	3.6

표 5-80.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09				2019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4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28.4	3.4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67.5	3.0
5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3.1	2.8	전자부품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46.2	2.0

주: 비중은 전체 기여국 수출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수출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 국제산업연관표(검색일: 2021. 6. 23)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3. 요약 및 소결

본 장은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인도와 생산 연계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양자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인도 내 생산 기여액과 인도의 해외 생산 기여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조업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고, 미국과 독일에 대해서는 농업과 광업, 제조업 중간재 수출 또한 증가하였다. 인도의 주요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하여 코크스, 석유정제업, 독일과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자동차, 운송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 인도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에 대해서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농업/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비중이 변화되었다. 네 국가 모두 인도는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에서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의 섬유 의복 제조업 최종재는 중국, 식료품, 담배 제조업 최종재는 일본, 1차금속 제조업, 화학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최종재는 베트남, 운송 제조업, 화학 제조업은 한국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분석대상 7개국 모두 인도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제조업

을 중심으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농업/광업, 사업/개인 서비스업에서 중간재 비중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등을 바탕으로 중간재 비중이 확대 중이며, 한국은 이와 함께 화학 제조업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중간재 비중이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표 5-81. 인도, 대인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국

인도 주요 중간재 수출 비중 증가국	인도 주요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대미국: 농업/광업, 제조업</u> (인) 코크스, 석유정제업, 기타제조업 ② <u>대독일: 농업/광업, 제조업</u> (인) 섬유·의류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③ <u>대인도네시아: 제조업</u> (인) 자동차, 운송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대중국: 농업/광업, 제조업</u> (인) 섬유·의복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식료품·음료 담배 제조업 ② <u>대일본: 농업/광업, 제조업</u> (인)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식료품·담배 제조업 ③ <u>대베트남: 농업/광업, 제조업</u> (인) 화학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기타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④ <u>대한민국: 농업/광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u> (인)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대인도 주요 중간재 수출 비중 증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미국: 대인도 전 산업</u>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제조업 ② <u>중국: 대인도 농업/광업, 제조업</u>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③ <u>독일: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u>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④ <u>일본: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u>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⑤ <u>인나: 대인도 제조업, 사업/개인서비스업</u>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⑥ <u>베트남: 전 산업</u>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⑦ <u>한국: 전 산업</u>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화학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주: 대인도 주요 최종재 수출 비중 증가 국가는 없음.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인도의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수출에는 인도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인도의 미국, 중국, 일본 수출에는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인도 국내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다수 국가의 대인도 수출은 해외 중간재에 대한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중국 자국 생산 중간재가 활용된 수출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연계되어 있다. 중국을 제외한 인도 생산 연계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중간재를 조달 받아 인도로 수출하기에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은 자국 생산 중간재를 인도에 직접 수출할 수 있기에 중국의 대인도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표 5-82. 인도, 대인도 수출 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인도 수출 내 국내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인도 수출 내 해외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대인니, 대베트남, 대한민국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베트남
대인도 수출 내 국내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대인도 수출 내 해외부가가치 비중 증가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니, 베트남, 한국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인도와 주요국의 수출과 생산 기여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는 주로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에 대하여 생산과 수출 기여도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수출에 있어 인도의 화학 제조업은 미국과 독일의 화학 제조업 수출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였고, 생산 측면에서는 인도의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미국과 독일의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지원이 향상되었다. 한편 주요국은 육상 운송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기여가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미국, 독일, 한국은 자동차, 운송 제조업과 임대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일본은 1차금속 제조업과 코크스, 석유 정제업을, 중국은

도매업, 광업, 금융 보험업에서 인도 육상 운송 서비스업 생산에 기여한다.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 기여는 모두 인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제조업을, 미국과 독일은 제조업과 함께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인도네시아는 광업을 바탕으로 인도 제조업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일본의 1차금속 제조업은 인도의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에서 활용된다. 한편 베트남의 섬유, 의복 제조업은 인도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에 적극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83. 인도, 대인도 주요 생산 기여 국가 및 산업

인도 주요 생산 기여 국가 및 산업	인도 주요 수출 기여 국가 및 산업
① <u>대미국: 제조업, 사업서비스업</u> (인)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미)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서비스업 ② <u>대독일: 제조업</u> (인) 화학제조업 → (독) 화학제조업 (인)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① <u>대미국: 농업/광업, 제조업</u> (인) 화학제조업 → (미) 화학제조업 ② <u>대독일: 제조업</u> (인) 화학제조업 → (독) 화학제조업
대인도 주요 생산 기여 국가 및 산업	대인도 주요 수출 기여 국가 및 산업
① <u>미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미)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 (인) 육상 운송 서비스업 ② <u>중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중) 자동차, 운송 제조업, 도매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 (인) 육상 운송 서비스업 ③ <u>독일: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인) 육상 운송업 ④ <u>일본: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일)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 (인) 육상 운송업	① <u>미국: 대인도 제조업</u> (미)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② <u>중국: 대인도 제조업</u> (중) 화학제조업, 섬유 의류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 (인) 화학제조업, 섬유·의류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③ <u>독일: 대인도 제조업</u> (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 (인) 자동차, 운송 제조업 ④ <u>일본: 대인도 제조업</u> (일) 1차금속 제조업 → (인)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표 5-83. 계속

대인도 주요 생산 기여 국가 및 산업	대인도 주요 수출 기여 국가 및 산업
⑤ <u>인나: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인나)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 (인) 숙박 및 음식점업 ⑥ <u>베트남: 대인도 제조업</u> (베트남) 섬유, 의복 제조업 → (인) 섬유, 의복 제조업 ⑦ <u>한국: 대인도 사업서비스업</u> (한) 자동차, 운송 제조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육상 운송업	⑤ <u>인나: 대인도 제조업</u> (인나) 광업 → (인) 코코스, 석유정제 제조업 ⑥ <u>베트남: 대인도 제조업</u> (베트남) 섬유, 의복 제조업 → (인) 섬유, 의복 제조업 ⑦ <u>한국: 대인도 제조업</u> (한) 화학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송 제조 업 → (인) 화학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운 송 제조업

주: 생산 및 수출 기여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국가만을 선정.
 자료: 본 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양한 국가와 연계되어 있고, 국별,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인도와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속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의 연계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 인도는 인도와 베트남 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켜 자국 생산이나 수출에 활용 중이다. 이러한 인도와 아세안 간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성 증가는 현재 인도가 지속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의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인도의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 중심으로, 최종재 비중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모디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기반한 자국 내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요 증가와 최종재 관세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다음으로 인도와 주요국 간의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인도 민간, 산업, 정부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대인도 수출과 생산 기여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대인도 수출 기여액보다 생산 기여액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주

요국의 생산 연계가 인도가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목적보다 인도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와의 긴밀한 생산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부 수요의 면밀한 파악이 선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인도 무역적자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일부 산업에서 인도산 중간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인도의 중간재 수입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코크스, 석유 정제업과 기타 제조업 등의 중간재를, 독일은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제조업 중간재의 수입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한-인도 무역적자 현안이 중요한 이슈임을 고려할 때, 인도산 중간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한-인도 CEPA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로 한국의 서비스 산업과 인도 산업의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의 육상 운송업 산업 생산에 다양한 국가가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 미국, 중국 등의 국가는 제조업과 함께, 도매업,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연계되어 있다. 한국은 임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중국의 금융 보험업 기여도 증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조업과 함께 한국 서비스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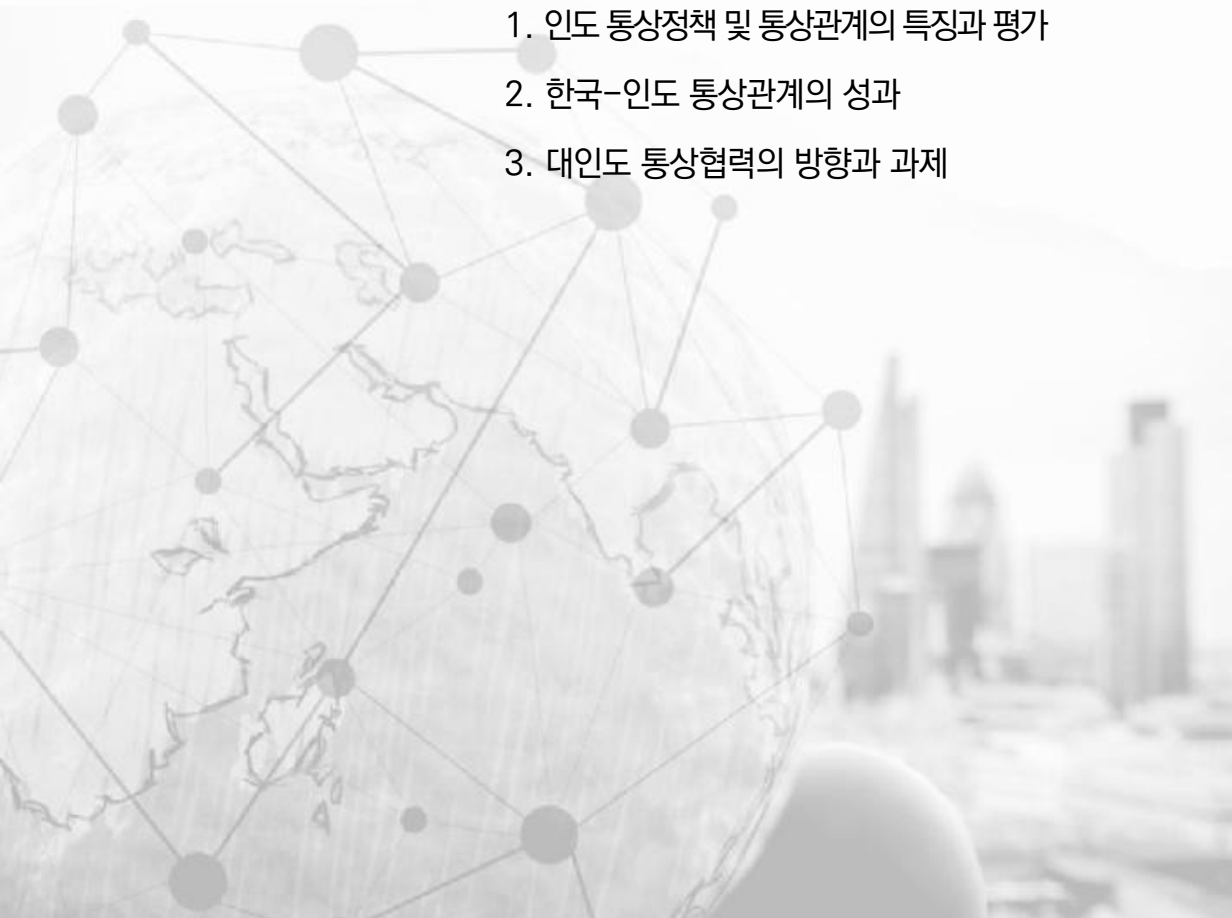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점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염을 통하여 전파되어, 생산인력 투입을 제한하며, 경제 붕괴 성격의 조치로 인하여 소비 위축 및 소득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코로나19 글로벌 생산망 충격을 고려하여 현재 인도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의 피해와 애로사항 파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지원정책 준비가 요구된다.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가. 개방화 이후 인도의 통상정책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인도의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체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주어지고 있다. 즉 투자장벽은 대폭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환경 역시 모디 정부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

반면 수입 개방화는 다소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즉 개방화 직후부터 인도는 관세 개방의 반대급부로서 반덤핑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모디 정부 들어 더욱 표면화되었으며, 경제 자립을 더욱 강조한 2017년 이후 전반적인 수입관세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특혜 원산지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내 규정(CAROTAR)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인도 통상정책의 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보다는 투자 진출이 보다 유력한 방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도는 5년 단위의 대외무역정책(FTP)을 통해 수출을 촉진해왔다. 인도는 향후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농식품 등 유망 분야의 육성과 수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인프라 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개방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미국, EU 이외에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자 노

력하고 있는바, 이들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제3국과의 협력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도의 대세계 통상관계

1) 상품무역

인도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중간재 비중이 가장 큰데, 수출은 선진국(미국, 홍콩, 영국, 일본)에서 개도국(중국, 방글라데시, 네팔)으로, 수입은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수출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와 원석의 수입이 많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 원자재보다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도의 주요 수입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철강, 알루미늄) 제조업에서 점차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직접적인 원자재 수입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기타 제조업(귀금속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자본집약적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과 석유정제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무역에서 자본재 비중이 높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인도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도의 무역활동을 유지하는 두 축은 원유를 수입·정제하여 석유정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다이아몬드, 금, 은을 수입·가공하여 귀금속을 수출하는 것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인도는 개방화를 추진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대세계는 물론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도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지만,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제도(GSP)를 적용해 온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인도의 수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남아시아 국가 위주로 한정적인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인도의 보호주의 정책은 대세계 적자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인도의 무역 구조 고도화와 무역규모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근 UAE와 포괄적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와는 화학, 철강, 전자기계와 같은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를 교역하고 있다. 기존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EU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도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메이크 인 인디아를 비롯한 대외 경제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투자 및 서비스무역

2001년 약 33억 달러에서 2020년 430억 달러로 대폭 성장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에서도 나타나듯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고 자동차, 인프라, 화학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텔리 등 주요 지역에 대부분의 FDI가 집중되고 있다.

2009~14년과 2015~20년의 투자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인도의 투자유치는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신규 M&A 관련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 투자는 다소 감소한 반면 부동산 및 각종 서비스

업 관련 투자는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모디 정부의 제조업 투자유치 정책의 성과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무역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인도는 매년 서비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19년 기간 수출 및 수입액이 각각 80%,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인도의 서비스무역 구조는 통신·정보 및 기타 비즈니스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에서는 수송·운송과 관광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과의 서비스무역이 매우 활발하며, 통신·정보, 수송·운송, 관광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관광, 수송·운송, 기타 상업서비스,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생산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측면에서 인도와 주요국 간 무역의 특징은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증가된 점이다. 소비 혹은 수출 목적의 생산 투입에 필요한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 인도의 역할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의 지속적인 통상 및 산업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최근 모디 정부는 전략 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제2장 참고), 이러한 인도의 정책은 향후 해외 제조기업의 인도 내 생산기지 건설 및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인도의 무역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중간재 수입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인도 제조업 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도는 주요국과 생산 연계성을 높이고 있는바, 주요국으로부터 인도의 수입은 중간재 중심이며, 최근 중간재 주요 수입 경로에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국가가 등장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인도산 중간재 활용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중간재 공급처로서 인도의 새로운 역할도 확인된다. 중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활용을 높이는 추세인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의 경우 인도 국내부가가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인도 산업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가. 상품무역

한국과 인도 사이의 상품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개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양국은 2011년 한-인도 CEPA를 발효했고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를 발효하여 경제협력의 주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인도 무역은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이며, 이는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생산 네트워크 심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더디게 성장했다. 인도의 최대 수출품목은 협정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나프타로 동일하였다. 더구나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다.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화학, 철강, 기계,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CEPA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의 성장으로 인도의 국내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양국간 무역규모 및 협정 발효 전후 양허유형별 수입비중을 통해 볼 때, 한-인도 CEPA는 한국보다 인도의 수입시장 개방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수입품목의 다양성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인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원유와 금을 제외하면 최근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산업은 대 세계 수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에 따른 한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았는데, 그 요인으로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 일-인도 CEPA 발효, 보호무역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수출경합도 분석에 따르면 화학, 1차금속, 기계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높으며, 한국과 주요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자동차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경우 수출품목이 디지털 전자집적회로 위주로 단순화되면서 수출 경합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나. 투자 및 서비스무역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국내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010년 한-인도 CEPA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계기로 투자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2000년 1,5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2010년 2억 달러, 2018년 10억 7천만 달러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인도가 주요 투자대상국 중 하나로 성장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주요 대기업의 인도 시장 투자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2018년 삼성전자의 노이다 스마트폰 제조 공장 설립, 2019년 아난 타푸르 내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공장 및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가공공장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인도 그린필드·브라운필드 투자는 금액 및 투자건수 측면에서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투자와 달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한-인도 서비스무역 규모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며, 대인도 수출액은 2010~19년 누적 기준 280억 달러로 일본(272억 달러)을 소폭 상회했다. 인도는 한국에 기타 비상업 서비스, 관광, 통신·정보 서비스를 주로 수출하며, 수송·운송, 관광, 기타 상업서비스,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을 주로 수입한다. 2010~19년간 대한국 수입에서 수송·운송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관광, 기타 비즈니스,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인도 무역·투자 관계가 서서히 심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생산 네트워크 구축

인도의 대한국 수출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전체 인도의 대세계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대인도 수출 금액과 비중 모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즉 인도에 있어 한국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한국에는 인도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인도 무역품목의 용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 산업에 걸쳐 중간재 중심으로,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최종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도의 생산에서 한국산 중간재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생산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양상은 한-인도 양국간 생산, 수출 기여도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인도의 한국 생산과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의 인도 생산과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인도의 육상 운송업 등의 일부 서비스업과 1차금속업 및 화학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조업은 인도의 화학 및 자동차 제조업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인도가 추진 중인 제조업 정책 및 인

도의 경제성장 및 거대시장을 고려하면 향후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도 높은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이 시장 근접성 측면에서 생산시설 투자 및 생산연계도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라. 한국과 주요 국가의 대인도 통상관계 비교와 시사점

1) 상품무역과 생산 네트워크

미국과 EU는 상품무역 측면에서 인도의 전통적인 파트너이면서, 근래에는 인도의 주요한 중간재 공급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상품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GSP를 매개로 귀금속과 섬유제품의 대미국 수출이 활발하고, 수입 측면에서는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원유 수입을 늘리면서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 측면에서 미국은 인도산 코크스, 석유정제, 기타 제조업 산업에서 중간재 활용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인도와 EU의 무역에서도 중간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는 대EU 수출에서는 소비재, 수입에서는 자본재 비중도 높은 편이다. EU는 인도에 의약품과 섬유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하며, 수입은 화학 및 기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독일은 주요 산업에서 모두 무역이 있는 국가로서 의약품 수출이 많고, 기계 수출도 점진적인 증가세이다. 수입에서는 기계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바, 기계 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인도산 중간재 활용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제조업(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아세안과 화학, 철강, 전자기계와 같은 주요 산업의 중간재 무역이 활발하다. 이와 더불어 수출에서 자본재, 수입에서 원자재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인도와 아세안 간 생산 네트워크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은 인도의 주요한 서비스수출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 무역은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동차 산업 내에서 두드러지는바, 자동차 산업에서 양국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도의 코크스, 석유 정제 제조업 산업은 인도네시아 광업과 연계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도가 인도네시아를 원재료 공급국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2000년대 이후 교역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로서, 수출은 음식료품 제조업 및 철강산업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최근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 강국의 관련 산업 생산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해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인도 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이는데, 인도는 특히 베트남의 섬유, 의복 제조업과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한국)와 무역, 특히 중간재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상품무역수지 적자국으로서, 대중국 수입억제 통상정책 기조에 따라 수출보다 수입에서 변동성이 크며, 화학산업과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다. 또한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중국은 자동차, 운송업, 전자부품 제조업뿐 아니라, 도매업, 금융 보험업 등 일부 서비스 산업에서도 인도 내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 무역증가 속도는 인도 전체 무역과 비교하여 느린 편이며, 수출입 모두 중간재 위주로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일본은 인도의 주요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자동차, 운송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생산과 수출에 기여한다.

상기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무역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강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이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을 중

심으로 인도의 생산 및 수출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지만, 주요 산업에서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경합관계에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대인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지 않은 편이며, 미국과 독일에 비해 인도산 중간재의 활용도가 낮다. 이는 한국이 대인도 무역(그리고 투자) 관계를 더욱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며, 대인도 수입의 활용 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투자

경제 및 외교안보 측면에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대인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 I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인도 서비스 시장 대규모 투자 및 진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투자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교역규모 대비 투자관계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IT 및 기술 서비스 관련 인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통한 우회적인 투자도 상당하다. 인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2000~20년 누적 투자금액 기준 5위를 기록한 대인도 주요 투자국이다. 자동차, 서비스, 의약 및 제약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최대 대인도 FDI 주체인 아세안은 서비스업, 무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인도는 투자촉진 메커니즘(IFM) 등 투자관계 증진 노력을 통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대인도 투자 유입은 서비스업, 화학,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및 제조업 내 다양한 업종으로 다변화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대인도 투자는

화학, 의약 및 제약, 식품 유통 분야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UAE의 경우 인도와의 상호 투자가 매우 활발한데, UAE는 해상운송, 전력,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대기업 주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에서도 투자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제조업 편중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 흐름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심화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와 상이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대인도 투자 다변화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서비스무역

인도의 최대 서비스무역 대상국인 미국의 경우 인도로부터 통신·정보 서비스 수입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기타 상업서비스수입 또한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미국의 대인도 서비스수입은 양국간 서비스시장 개방과 데이터 규제 등의 통상 마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인도 수출의 경우 기타 사업서비스와 지식 및 지적재산의 비중이 높은바, 고부가 서비스 영역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다. EU 및 영국은 미국 다음의 주요한 서비스무역 상대국으로서, 무역구조가 미국과 유사하다. 이처럼 서구 선진국가는 인도와 통신·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중심의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식 및 지적재산 수출 비중이 높다.

대아세안 서비스무역에서는 인도가 통신·정보, 기타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뚜렷이 보인다. 한편 중국의 경우 최근 무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인도는 수송·운송, 관광, 기타 사업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출하며, 중국으로부터도 역시 같은 분야를 주로 수입한다. 중국의 경우 인도가 강점을 가진 통신·정보,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무역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적인바, 고

부가가치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반면 일본은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데, 인도로부터 통신·정보, 기타 사업서비스를 주로 수입하는 반면, 지식 및 지적재산 수출의 비중이 매우 커서, 인도와 상호 보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무역 규모는 일본,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인도로부터 기타 사업서비스, 관광, 통신·정보 서비스를 주로 수입한다. 한국은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의 대인도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서, 이는 기술 우위를 활용한 대인도 서비스수출 확대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인도 통상협력의 여건 평가

인도의 최근 통상정책과 대외 통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인도가 서로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을 계기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성한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의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아세안을 넘어선 무역투자 확대와 다변화 측면에서 인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 한편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젊은 인구층을 보유한 국가로서,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조업 성장을 통한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다. 인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국내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연계도는 낮춤으로써 외화 가득를 높이고자 하며,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에 가장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인도는 1990년대 동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와 경제관계를 심화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한국에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는바,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의 최근 무역투자정책상의 조치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SCRI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강점을 고려할 때, 협력의 잠재력은 높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을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한-인도 CEPA 체결 및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과의 높은 무역·투자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인도가 원하는 대아세안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거대시장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며, IT, 연구개발, 사업서비스 등 우수한 서비스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측면에서도 섬유 의류, 가죽, 화학, 코크스, 석유 정제, 기타제조업(귀금속), 철강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아, 여기에 무역개방이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도는 미국 및 EU 등 선진국, 그리고 아세안,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다변화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의 진전에 걸림돌도 존재한다. 한국은 미국, EU 국가,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도와의 경제관계가 취약한 편이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와 ODA 등을 통해 인도와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해온 선진국들에 비해서 협력의 역사와 자금력이 떨어진다. 또한 주요국들에 비하면 인도에 대한 투자 분야가 제조업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경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다. 한편 인도는 산업 경쟁력이 약

하고 인프라, 법·제도, 무역장벽 등의 문제로 인해 무역·투자의 거래비용과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적극적인 인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과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운필드 투자에 비해 그린필드 투자 유입이 부진한 현상 역시 인도의 제조생산 및 무역 여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 양국 협력의 최대 현안은 무역불균형과 인도의 무역장벽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인도 양국간 무역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면서 인도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지체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인도의 관세율은 높아졌으며, 무역구제조치 역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 CAROTAR 2020 조치 도입 이후 원산지 증명 강화와 이에 따른 통관 지연이 무역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²⁰⁵⁾ 이러한 여건에서 인도의 무역장벽과 잇단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만료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제2장 참고).

나. 한-인도 통상협력의 증장기 목표와 추진 과제

본 연구를 토대로 인도 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다변화를 증장기적인 대인도 통상협력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5장의 대인도 무역·투자 및 생산 네트워크 구축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인도의 국내 수요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인도의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205) 한국 가전 A사 인도 법인에 따르면, “아세안 등지에서 도입하는 부품에 대한 인도 세관의 ‘카로타 2020’ 조치로 인한 원산지 증명 강화와 중국산 부품 도입을 감시하기 위한 통관 지연 사태”를 최근 예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2020. 11. 27). 「인도, RCEP 미참여 “당연”」,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61036>(검색일: 2021. 10. 8).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협력의 두 번째 목표는 인도와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했다. 무역장벽과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의 니즈를 충족하고 양국의 호혜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국을 연계하는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는 혁신을 통한 신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지역과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GVC상에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니즈에 부합한다. 특히 최근 인도의 생산 네트워크 발전상황을 고려해보면 아세안 생산기지를 인도와 연결하여 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가치사슬 운영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런 가능성까지 공유하면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상기한 두 가지 중장기 목표하에서, 대인도 통상협력의 세 가지 추진 과제로서 ① 무역불균형 관리와 무역 확대 ② 투자 진출 다각화 및 확대, 그리고 ③ 인도와의 제조업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는 복합적으로 기능하여 한-인도 통상협력의 중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무역불균형 관리와 무역 확대

대인도 통상협력의 우선 과제는 한-인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양국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무역확대 및 다변화, 그리고 투자관계 강화와 연계된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인도가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배경에는 외환보유고에 민감한 전통적인 성향, 거대시장을 보유했다는 자신감, 그리고 현재 국내정치적인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인도 무역 관계

를 확대·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는 한-인도 CEPA를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인도 CEPA는 한국의 대인도 수입보다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CEPA에 따른 자유화 확대보다는 품목의 특성이나 관련 통상환경 변화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 한국에 대한 나프타 수출이 최근 저조하였는데,²⁰⁶⁾ 이것이 인도의 대한국 수출 둔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3장이 제기하는 보다 핵심적인 논점은 한-인도 CEPA의 양허가 양국간 무역 성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한-인도 CEPA 협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함의는 한-인도 CEPA가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며, 따라서 한-인도 CEPA의 효과성을 개방화 확대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양국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은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성향이다.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인도의 전반적인 MFN 관세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FTA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주요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MFN 관세율의 인상과 가변성은 한-인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도는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국가로서 한국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가 도입한 새로운 원산지 검증 규정은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FTA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의 상시적인 정보교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협력 방안 참고).

206) 최근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나프타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인도로부터 나프타 수입 감소는 한국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각화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진출 다각화 및 확대

인도 진출 확대의 중요한 관건은 분야와 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투자 확대이다. 인도 통상정책의 특징과 추세를 고려할 때, 현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 확대는 물론, 한-인도 무역불균형 및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그리고 브라운필드 투자의 확대는 인도 시장 진출의 주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인도와의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확대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 3)에서 다룬다.

한국은 주요 대기업이 인도에 투자함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주요국들에 비해서 규모가 여전히 작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는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정체 상태인 반면, IT,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EU,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는 모두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5장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 미국, 중국 등은 제조업과 더불어 도매업, 사업서비스, 금융 등을 중심으로 현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일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바, 인도와 경제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3) 인도와의 제조업 연계성 강화

현재 한국이 인도에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조업 부문에서 인도 경제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의 주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이 인도의 핵심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바, 양국 협력 시 이것을 적극

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공급에 그치지 않고 수출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이는 인도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그리고 PLI 정책은 현재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역은 인도 정부가 중간재 수입을 촉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정보통신, 제약 등 기술집약적 제조업 분야는 대인도 협력의 잠재력이 높다. 또한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분야 역시 각국의 투자가 집중된 영역으로서 한국의 투자 확대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 이외에 인도가 고용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을 피하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업, 섬유·의류업 부문의 현지 투자 및 생산에도 주목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 주요 영역에서 한국이 주요국과 이미 일정 부분 경합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3장 및 제4장 참고). 따라서 인도가 중시하는 세부적인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은 물론 정부가 참여하는 양국의 기업-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투자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협력 방안 참고).

한국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중심의 투자 배치를 보다 효율화하고 미-중 갈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한-아세안 생산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인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인도는 동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CEPA를 체결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도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생산연계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즉 베트남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섬유, 전자부품 등의 분야에서 대인도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바, 한국은 베트남산 중간재를 활용한 인도에서의 최종재 생산 및 수출과 같은 방식의 3국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

면 한국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은 인도가 동북아-동남아-인도로 연결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협력 방안

아래에서는 상기한 한-인도 통상협력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인도 CEPA 개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인도 CEPA로 인한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양국 무역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도록 한-인도 CEPA를 개선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즉 한-인도 CEPA 이후 전반적인 양국간 무역은 다소간 증가하였지만, 관세철폐 품목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무관세품목과 관세감축품목의 무역이 기대와는 달리 정체된 경우도 있는 바, 한-인도 CEPA가 양국간 무역 증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양국간 실질적인 개방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인도 CEP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국내 수요가 증대하는 분야, 즉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인도의 개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상기 분야는 일본, 독일 등과 경합이 진행되는 분야로서, 한-인도 CEPA의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은 이러한 개방화가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린필드 투자유치 증가세가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 상황(제4장 참고)을 고려한다면, 인도 정부는 주요 산업의 개방수준을 높일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시 중간재 등의 대인도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 따르면 한국과 다른 미국과 독일의 대인도 무역관계의 특징 중 하나가 인도산 중간재 수입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과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여 석유정제업, 기타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 걸쳐 인도산 중간재 수입의 폭이 넓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인도산 중간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품과 중간재를 수출입하는 양방향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양국간 무역관계를 보다 호혜적으로 구축하여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한-인도 CEPA를 양국간 무역불균형과 연계하는 것은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오히려 양국은 한-인도 CEPA의 개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하여 개선협상을 전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양국의 무역불균형을 축소할 수 있는 품목별 개방수준 제고, 무역장벽 완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한-인도 CEPA의 경제협력 분야를 현재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으로 다양화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2) 투자 진출과 현지화

본 연구에 의하면 인도 진출의 큰 그림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진출 및 협력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제2장 및 아래의 일본 사례 참고).²⁰⁷⁾

207) Cho(2013)는 대인도 무역과 투자 사이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도와 전통적인 경제협력국인 영국, 미국과 인도의 무역과 투자 간에는 양방향 또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나타났지만, 비교적 새로운 협력국인 한국, 일본 등과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무역투자 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됨을 시사하며, 따라서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투자 분야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인도 투자의 흐름이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심화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시장 확대 측면에서 서비스 투자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류, 보험, 기타 사업서비스 기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인도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투자 진출의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기업 투자 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분야는 온라인 소매, 정보·통신 서비스, 석유/가스, 운송/인프라, 기타 금융, 기타 부동산,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으로서, 인도의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이 주종을 이루며, 주요 국가의 기업들은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의 대인도 브라운필드 투자는 아직 과소한 상황으로서, 투자 다각화와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유망 분야에 대한 브라운필드 투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의 통상정책은 자국 내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역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무역·투자상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서 2015년 일본과 인도가 체결한 '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을 들 수 있다. 당시 미야자와 요이치(Miyazawa Yoichi)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모디 총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본의 대인도 투자 2배 확대, 일본 기

업의 진출 협력 등을 논의하고, 상위 행동계획 체결을 통해 일본은 대인도 투자에 있어 여러 혜택을 받았다. 혜택의 세부 내용은 일본 정부와 산업지구 구축을 협약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를 포함해 약 6개의 주정부가 일본 기업에 전기세, 인지세, 진입세, 토지 수용세(Land Acquisition Tax) 등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이었다.²⁰⁸⁾ 이로 인해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2016년에 급증하였다.

글상자 6-1. 2015년 일-인도 협력 논의 주요 내용

- 2015년 4월 27일~5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일본의 25개 기업 대표와 함께 인도에 방문하여 인도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및 협약을 체결
 - 인도에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 시스템을 적용 및 개발할 것을 제안
 - 정보기술(IT) 협력 및 개발: 일본 정부는 인도 IT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
 -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와 함께 전력 인프라,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등을 협력
 - 석유 및 천연가스 조달 협력
 - 공공 및 민간 투자/통상 촉진(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 협약 체결
- 이외에도 양국은 인도-일본 에너지 포럼, IT-BPM 포럼 등을 개최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

자료: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5. 4. 20), "India and Japan Sign Action Agenda for 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20030>(검색일: 2021. 10. 4).

아울러 대인도 투자 진출에서 중요한 조건인 현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인도 정부의 산업 자국화(localization) 의지, 자국 기술 및 인력의 생산성 증대에 대한 강한 요구, 그리고 인도 시장 여건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지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²⁰⁹⁾ 현지화의 중요한 조

208) Indian Government DPIIT, <https://dipp.gov.in/japan-plus/japanese-industrial-townships> (검색일: 2021. 10. 4).

209) 예컨대 현지 사무소나 생산공장 운영 시, 현지 인력의 관리 역량이 높을 경우 비상 시 한국 인력의 관여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상 시에도 현지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진

건은 현지 인력의 양성으로서, 아래 사례와 같이 일본 기업들은 현지 기술인력 양성에 많은 공을 들인다. 또한 인도에서는 연구개발 등 전문 기능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현지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독자적으로 현지 인력 양성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제2장에서 언급한 일본의 ‘모노즈쿠리 학교’는 ODA와 연계하여 우수한 제조기술을 가진 현지 인력을 현장 관리자로 육성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이다. JIM 시행 기업은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의료·제약업계도 포함된다. JIM은 일본 기업이 직접 인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가치관 및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제조 현장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이 무상원조를 통해 인도에 대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²¹⁰⁾은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글상자 6-2. 일본 기업 다이킨의 인도 현지화

- 다이킨은 2000년 인도 진출을 개시, 2009년 인도 북부 니무라나에 공장을 설립. 2020년 일본 국내 에어컨 1위 기업으로 성장, 인도 사업을 본격화
 - 2000년 다이킨은 현지기업 합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 2004년 다이킨 단독 출자로 변경
 - 2009년 라자스탄 주 니무라나 일본기업전용공업단지내 공장 설립 및 현지생산을 개시
 - 향후 인도의 중산층 세대 증가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2020년 현재 6% 정도)이 확대하면서, 향후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 다이킨은 인도 시장개척과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기술 연구개발, 마케팅, 인재육성의 현지화를 적극 추진
 - (생산의 현지화) 2009년 공장 설립 이전까지는 태국 공장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았으나, 공장 설립 이후 저렴한 가격대 제품공급이 가능해짐.

행할 수 있다.

21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1. 1. 20).

- (연구개발의 현지화) ① 인도는 지역별 기후조건 차이(기온이 54도인 지역, 겨울이 추운 지역)로 에어컨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라인업하는 것이 중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가능한 한 짧은 리드타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 시행. 2016년 R&D 센터 설립 및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 ② 인도는 전력 상황이 좋지 않고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전압으로 인한 상품파손 사례가 많음. 이에 전압 안정화 장치를 부착하여 고장이 나지 않는 에어컨을 개발 ③ 도시에서는 공기청정기술을 탑재하여 대기오염에 강한 제품, 해안지역에서는 해풍에도 강하여 부식이 나지 않는 제품을 개발 ④ 도로운송 상황이 열악한 인도에서는 수송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레임과 바디가 통합된 일체형 에어컨을 개발하고, 포장도 인도용으로 개량했음.
- (마케팅의 현지화) 인도의 지역별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현지 자체 판매거점을 구축. 우선적으로 현지 수요를 숙지하기 위해 인도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다이킨의 판매대리점은 2009년 300점에서 2020년 1만 점을 상회.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정도의 지방도시로도 확대
- (인재육성의 현지화) 다이킨은 매년 연간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영업, 에어컨 설치, AS까지 연수를 시행. 최근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와 연계하여 연수센터(인도 현지 20개소)를 만들어서 기술자 육성에 주력
 - 다이킨은 라자스탄 주 니무라나 공업단지에 일본식 모노즈쿠리 학교(JIM)를 개설.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인력 활약을 추진하기 위해 1기 연수생을 전원 여성으로 발탁(공장 OJT, 에어컨 공조 기초 및 조립 기술을 연수)
- 다이킨은 인도가 아프리카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 아프리카 비즈니스 추진 거점으로서 기능을 확대
 - 다이킨은 아프리카와의 지리적 근접성, 시장의 유사성, 동남부 아프리카에 많은 인도계 주민 정착 등의 이유로 대아프리카 수출의 거점으로서 인도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2018년 6월부터 동아프리카 지역진출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 특히 아프리카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인도에서 제조한 상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함.
 - 아프리카 시장은 경제발전예 따른 중산층 확대로 에어컨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다이킨은 2019년부터 케냐,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세이셸, 모리셔스, 브룬지 7개국 대상의 수출거점으로서 인도 거점을 지원. 인도에서 제조한 에어컨의 아프리카 수출을 개시, 동 지역 대상으로 2020년 8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획
 - 다이킨은 에어컨 유통, 판매, 설치, 보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지 판매점을 인도 법인 산하로 편입시킴. 향후 아프리카에서 전개하는 판매점 인력과 기술자를 인도로 초청하여 에어컨 판매, 서비스, 영업 연수를 실시

자료: 김은지(2021), 전문가 간담회(2021. 10. 18).

3) 신산업 분야 협력·투자 확대

인도에 대한 투자 다각화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신산업 분야의 협력은 2018년 한-인도 정상의 공동 비전 성명(Joint Vision Statement)에 포함된 바 있으며, 기존 신남방정책을 개선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비대면 비즈니스 등 미래 신산업(future industries) 분야를 7대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인도는 신산업 영역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즉 인도는 거대시장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지만,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 부문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이다. 인도 역시 한국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산업혁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바,²¹¹⁾ 신산업은 양국의 수요가 부합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한국의 대인도 지식 및 지적재산 서비스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양국 협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공동 비전 성명에서는 양국의 주요 협력 분야로서 스마트 공장과 같은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스마트의료와 바이오테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국 신산업 협력을 위해 강조할 부분은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 확대이다. 인도는 방갈로르,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케어,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농업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편당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주요 성장 분야는 제2장 참고).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 것은 신남

211) Kumar(2021), pp. 73-76.

방정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한-인도 미래전략그룹, 스타트업 펀드, 기술교류센터,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 등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 공동 기술개발, 양국간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²¹²⁾ 디지털 제도 및 기술 표준 정립²¹³⁾ 등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4) ODA 연계 투자 추진

최근 인도가 한국을 ODA 협력국으로 포함하고, 한국 역시 인도를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것은 양국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수원국 지위 졸업을 목표로 2005년부터 G7 국가들과 NGO 및 다자기구에 한하여 ODA를 받다가, 최근 G8 국가인 한국을 협력국에 포함시켰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인도 ODA는 약 897만 달러이며, 이 중 35.4%인 317만 달러가 2019년에 집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대인도 ODA 집행금액은 연평균 5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유상원조 실적은 전무했다.²¹⁴⁾ 그러나 인도의 대한국 ODA 수원 방침에 따라 유상원조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 금융 패키지를 활용한 최초의 사업인 나그부르-뭄바이 고속도로 ITS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도 정부의 차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²¹⁵⁾

한국은 대인도 ODA를 시작하는 국가로서, 경험과 자금력 측면에서 일본 등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인도는 이미 대규모 ODA 연계 협력사업을

212) 한-인도 스타트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형민(2020)을 참고.

213) 인도의 디지털 제도 및 표준은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어 양국의 정보교류 및 정책대화가 시급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외(2020b) 제3장 참고.

214) 2019 기준가격, gross disbursements 기준. OECD Stat, CRS(검색일: 2021. 7. 19).

21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1. 1. 20) 및 장영신 외(2021), p. 164.

다수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인도 인프라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면,²¹⁶⁾ 한국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대인도 ODA 연계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프라 분야는 ODA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유망한 영역이다. 현재 인도는 각 분야에 걸친 인프라 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프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NIP)의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등으로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대부분 개방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인도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까지 더하여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도시 개발의 경우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현지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의 ‘한국형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가 제안된 바 있으며,²¹⁷⁾ 동일한 목적하에 인도의 특별경제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건설 역시 검토할 수 있다.²¹⁸⁾ 전력 부문의 경우 인도 정부는 FDI를 100%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2020년 누적기준 전력부문 FDI 유치액은 153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²¹⁹⁾ 특히 최근 주요국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제4장 참고) 성장성이 높은²²⁰⁾ 재생에너지 분

216) 인도 정부가 실시한 Economic Survey 2017-18에 의하면, 인도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5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2018b), Economic Survey 2017-18, p. 12.

217) 자세한 내용은 조충제 외(2018), pp. 207~209 참고.

218) 그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서의 해외 산업단지 사업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국 기업 전용으로 운영한다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적과 관계없이 현지 소재 기업을 아우르는 개방적인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나서서 산업단지 건설과 운용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기업의 산업단지 사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219) IBEF(2021), p. 27.

220) 인도의 에너지 부문 최대 이슈는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이다. 인도 정부는 2022년과 2027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석탄 에너지 생산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enewable Purchase Obligation)를 통해 주(州)정부 소요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야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 및 5개년 대외무역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등 전자정부, ICT 인프라(5G 구축 및 기술협력)²²¹⁾ 등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3국에서의 한-인도 협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제2장 및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는 아프리카, 중동 등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많다. 일본의 경우 아프리카 시장에서 IT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인도의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제52회 AfDB 연차 총회에서 인도와 일본은 공동 비전인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구상을 발표했다.²²²⁾ 일본은 인도와의 연계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에서 실효성이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구상의 취지는 일본과 인도가 아프리카에서 개발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I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ICT가 교육, 제조, 헬스케어, 정부,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²²³⁾

5) 정례적인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제2장의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인도는 대국으로서 독자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외환부족에 대한 우려, 자국 기간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 거대시장으로서의 자신감, 이익집단의 강한 영향력 등을 이유로 무역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인도의 통상정책은 당면한 국내 수요 및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서 예측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며, 이로 인해 상대국에 불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투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221) 김정곤 외(2019), pp. 157~172

222) JETRO(2021. 5), 「아프리카におけるインドのITサービス調査」, p. 27.

223) 김은지(2021), 전문가 간담회(2021. 10. 18).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양자간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최근의 경제 및 통상정책 이슈를 상호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인도 CEPA 개정 협상, 무역구제 협의 채널(2018년 도입), 그리고 기타 분야별 한-인도 경협 채널이 운용되고 있지만, 폭넓고 정례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통해 서로의 주요 경제, 통상정책을 소개하고, 당면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도와 미국은 2021년 9월 쿼드 정상회의 시 정례적인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²²⁴⁾ 좁게는 통상정책에 국한할 수 있지만, 산업정책 또는 경제정책 대화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및 한-인도 협력기금 도입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 정부 및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한 일본-베트남 공동 이니셔티브와 유사한 것인데, 산업구조 고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물리적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해 베트남의 산업을 지원하고, 현지진출 일본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²²⁵⁾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베트남 고위층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²²⁶⁾ 이처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224) India Prime Ministers' Office(2021), "U.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A Partnership for Global Good."

225) 자세한 내용은 정영식 외(2019), pp. 292~294 참고.

226) 위의 자료.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²²⁷⁾

또한 정례적인 기업실태조사 역시 상기 이니셔티브 및 기금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실태조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경제 충격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업 설문조사가 중요하다. 일본의 아세안일본인상공회의소연합회(FJCCIA: Federation of Japa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n ASEAN)는 매년 아세안에 진출한 회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에 개선사항이나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은 고위급 실무회담을 거쳐 일·아세안 경제장관 회담에 매년 보고되며, 필요할 경우 일·아세안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건의된다.²²⁸⁾

7) 한-인도 관계자본 확대

장기간에 걸친 정부 차원의 역량 축적 및 관계자본 형성이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남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양국의 상호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자원 투입이 배가되어야 한다. 인도 경제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상과 니즈,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특히 대기업을 넘어 중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227) 조충제 외(2018), pp. 205~206.

228) 정재완, 김대홍(2018), p. 130.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인도 주재 관세관을 파견한 것은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더해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인도 담당자를 대폭 확충하고, 현지 파견자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와 소프트파워 측면의 관계자본 형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도에서도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에서 한류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인도의 한국어 교육 저변을 강화하고,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인도 내 거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문영. 2021. 「GVC 개편에 대한 인도정부 및 산업계 대응노력」. 남아시아 이슈페이퍼, Vol. 8, 2021. 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김원길, 정운세. 2013.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조사 결정요인」. 『무역학회지』, 38(5).
- 김은지. 2021.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10월 18일)
- 김정곤, 정재완, 이정미, 김도연, 윤지현. 2019. 『신남방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 환경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인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김정곤, 조문희, 이주관, 한형민, 류한별, 김도연, 조동희, 이철원. 2020a.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 분석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김정곤, 나승권, 이재호, 윤지현, 김은미. 2020b.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곤. 2021a. 「인도 2021/22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21b. 「쿼드 및 미국-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평가」.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인도 CEPA 설명자료』.
- _____. 2021. 『한·인도 CEP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민국정부. 2009.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배찬권, 김영귀, 이 웅, 강준구, 김혁황, 이준원. 2015. 『한·인도 FTA 이행상황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윤지현. 2021. 「인도, EU와 FTA 협상 재개 공식화」.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웅, 송영철, 이정미. 2013.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전략지역심층연구 13-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웅, 이정미, 김신주, 장용준. 2016.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전략지역심층연구 1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 2014.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4-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영식, 김정근, 한형민, 정재완, 이정미, 김제국, 윤지현. 2019.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19-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완, 김대홍. 2018. 「해외사례 연구: 일본과 네덜란드」. 방호경, 고희재, 권경덕, 김대홍, 김형주, 정재완.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1. 1. 20)」.
- 조의윤. 2019. 「최근 인도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진단」. 『트레이드 포커스-해외시장/마케팅』. 한국무역협회.
- 조충제, 성한경, 최윤정, 송영철. 2010.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연구보고서 1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윤지현. 2018.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18-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 웅, 정혜원. 201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12-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이 웅, 배찬권, 송영철. 2014. 『한·인도 CEPA 개선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조충제, 최윤정. 2013.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전략지역심층연구 1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형민. 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21. 「20/21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동향 및 배경」.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일문자료]

- 繪所秀紀. 2008. 『離陸したインド經濟-開發の軌跡と展望』. ミネルヴァ書房. 번역: 박종수. 2009. 『인도 경제의 발자취』. 경성대학교출판부.
- JETRO. 2021. 「アフリカにおけるインドのITサービス調査」. (5月)

[영문자료]

- ASEAN Secretariat. 2018. *ASEAN Investment Report 2018*.
- Bain & Company. 2018. *The Future of Retail: Asia's Ecosystems*.
- Bao, X. and L. Qiu. 2012. "How D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luence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20, No. 4.
- Bhagwati, Jagdish, and Padma Desai. 1970. *India: Planning for Industrializ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BER. 2020.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 Chatterjee, Shoumitro and Arvind Subramanian. 2020. "India's Inward (Re)Turn: Is it Warranted? Will it Waork?" Policy Paper No. 1. Ashoka Centre for Economic Policy, Ashoka University.
- Cho, Choongjae. 201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FDI: Implication for India and East Asian Countries." Working paper 13-06.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U.S.-India Trade Relations. (December 23)
- Datt, Gaurav and Ashwani Sundharam. 2012. *Indian Economy*(66th revised version). S. Chand: New Dehli.
- DPIIT. 2020. *Consolidated FDI Policy*(revised October 2020).
- Embassy of India in Beijing China. 2019. "India-China Bilateral Relations."
- Embassy of India in Tokyo. 2020. "Brief Note on India-Japan Bilateral Relations."
- Entrepreneur. 2021. "India will be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by 2031, Bank of America projects." (March 24)
- European Council. 2021. "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 factsheet." _____ . 2021. "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
- Gateway House. 2020. "Chinese investments in India."
- High-Level Advisory Group. 2019. *Report of the High-Level Advisory Group*.
- IBEF. 2021. "Power."
- India Prime Ministers' Office. 2021. "U.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A Partnership for Global Good."
- Ind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ommerce. 2018. *Annual Report 2017-18*.

-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15a. *Foreign Trade Policy [1st April, 2015 - 31st March, 2020]*.
- _____. 2015b.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 Announcement on 1.4.2015: Speech of CIM.”
- _____. 2017. *Foreign Trade Policy Statement 2017: Mid-Term Review*.
-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1. “India-European Union Bilateral Relations.”
-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1991. *Union Budget Speech 1991-1992*.
- _____. 1993. *Union Budget Speech 1993-1994*.
- _____. 2015. *Union Budget Speech 2015-2016*.
- _____. 2016. *Budget 2016-2017. Speech of Arun Jaitley Minister of Finance*.
- _____. 2017. *Budget 2017-2018. Speech of Arun Jaitley Minister of Finance*.
- _____. 2018a. *Budget 2018-2019. Speech of Arun Jaitley Minister of Finance*.
- _____. 2018b. Economic Survey 2017-18.
- _____. 2019. *Budget 2019-2020.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Minister of Finance*.
- _____. 2020a. *Budget 2020-2021.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Minister of Finance*.
- _____. 2020b.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Volume 1*.
- _____. 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Minister of Finance*.
- ISEAS. 2018. “ASEAN-India Economic Relations-Low Base, Large Potential.”
- Kohli, A. 1989. “Politics of Economic Liberalization in India.” *World Development*, Vol. 17, No. 3.
- Krishna, Pravin. 2019. “India’s Trade Agreements and the Future of Indian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2019-05. Columbia SIPA.
- Kumar, Mohan. 2021.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India: Progress and Way Forward.” K. H. Lee and Y. J. Ro eds. *The New Southern*

- Policy Plus: Progress and Way Forwar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umar, N. 1995. "Industrialization, liberalization and two way 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e case of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0, No. 50, pp. 3228-3237.
- Leontief, Wassily. 1936.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8, No. 3.
- Mukhopadhyay, Abhijit. 2020. "CEPA: Fulcrum of Futur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ORF Special Report 101.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Muni, S. D. 2011. "India's 'Look East' Policy: The Strategic Dimension." Working Paper No. 121. ISAS.
- NASSCOM. 2019.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 OECD. 2019.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India 2019."
- Panagariya, Arvind. 2004. "India's Trade Reform." In Bery, Suman, Barry Bosworth and Arvind Panagariya. 2004. *The India Policy Forum 2004*. Volume 1. National Counci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and Brookings Institution.
- Poitiers, Niclas, Suman Bery, Sonali Chowdhry, and Alicia García-Herrero. 2021. "EU-India trade relations: assessment and perspectives." European Parliament.
- Rodrik, Dani and Arvind Subramanian. 2004. "From "Hindu Growth" to Productivity Surge: The Mystery of the Indian Growth Transition." WP/04/77. IMF.
- Roy, Jayanta and Pritam Banerjee. 2013. "Why Isn't India a Major Global Player?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Liberalization." RSCAS Working Papers, No. 2013/84.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Roy, Jayanta, Pritam Banerjee, and Ankur Mahanta. 2014.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ian trade policy and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oices on present tim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ingh, Harsha Vardhana. 2017. "Trade Policy Reform in India since 1991." Brookings India.
- Singh, S. 2009.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Growth of States of India, Regional Disparity In India Issues and Perspectives." ICFAI University Press.
- Singh, Shikha, 2019.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lows in India."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Research*, Vol. 6, Issue. 1. (January)
- Singh, Surendar. 2021. "Role of Korea-India Bilateral Economic Ties in India's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 K. H. Lee and Y. J. Ro eds.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Progress and Way Forwar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Singh, Surendar and Ram Singh. 2020a. "Domestic Sources of India's Trade Policy Preferences in RCEP Negoti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54, No. 4.
- _____. 2020b. "Is India Heading Towards Trade Protectionism?: An Analysis of CAROTAR Ru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Vol. 5, No. 2.
- Srinivasan, T. N. and Tendulkar, S. D. 2003. *Reintegrating India with the World Economy*.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30 Anniversary Edition.
- _____. 2021a. "Global FDI Flows Down 42% in 2020." *Invest Trend Monitor Issue 38*.
- _____. 2021b. "Global Investment Trend Monitor."
- Wang, Zhi, Shang-Jin Wei, and Kunfu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No. 19677.
- WTO ITC UNCTAD. 2020. *World Tariff Profiles 2020*.
- WTO. 2002.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_____. 2007.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_____. 2011.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_____. 2015.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_____. 2019. *World Trade Report 2019*.
- _____. 2020.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ia*.
- _____. 2021. "TWENTY-SIX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NOTE BY THE SECRETARIAT.”

[언론/보도 자료]

KOTRA. 2019. 「인도 섬유산업」. (7월 30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6505>(검색일: 2021. 10. 30).

_____. 2019.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주얼리 시장」. (9월 5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924>(검색일: 2021. 10. 30).

_____. 2020. 「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9943>(검색일: 2021. 10. 3).

“Amazon to increase India investment to \$5 billion.” 2016. *The Hindu*. (June 8).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dustry/Amazon-to-increase-India-investment-to-5-billion/article14391866.ece>(검색일: 2021. 6. 27).

“China’s Closed. So Google Invests \$10 Billion In India, Following Facebook, Amazon, Apple.” 2020. *Forbes*. (July 13). <https://www.forbes.com/sites/johnkoetsier/2020/07/13/chinas-closed-so-google-invests-10-billion-in-india-following-facebook-amazon-apple/?sh=3d6cfc962b01>(검색일: 2021. 7. 2).

“CII wants end to inverted duty structure to make India an exporting nation.” 2020. *Business Standard*. (August 11).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cii-wants-end-to-inverted-duty-structure-to-make-india-an-exporting-nation-120081100854_1.html(검색일: 2021. 10. 6).

European Council. 2020. “Joint Statement - 15th EU-India Summit, 15 July 2020.” (July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7/15/joint-statement-15th-eu-india-summit-15-july-2020/>(검색일: 2021. 7. 2).

“Exclusive: India foreign investment rules aimed ad China to include Hong Kong - sources.” 2020. *Reuters*. (April 20). <https://www.re>

- 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india-investments-idUSKBN2221H3(검색일: 2021. 4. 22).
- FDI India. 2020. "China Can't Use Singapore to Push FDI into India." (July 3). <https://www.fdi.finance/news/china-cant-use-singapore-to-push-fdi-into-india>(검색일: 2021. 9. 30).
- "Foreign trade policy 2021-26- Can new FTP refuel India's stagnant exports?" 2021. *BusinessToday.In*. (Sep. 3). <https://www.business-today.in/opinion/columns/story/foreign-trade-policy-2021-26-can-a-new-ftp-refuel-indias-stagnant-exports-305852-2021-09-03> (검색일: 2021. 10. 6).
- GOV.UK(영국 정부). 2021. "UK and India announce new era in bilateral relationship." (May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d-india-announce-new-era-in-bilateral-relationship>(검색일: 2021. 10. 19).
- "India-based JK Cement sign \$14.9m Fujairah deal." 2011. *constructionweek*. (November 16). <https://www.constructionweekonline.com/business/article-14692-india-based-jk-cement-sign-149m-fujairah-deal> (검색일: 2021. 9. 30).
- "India is home to 21 unicorns, collectively valued at \$73.2 billion: Hurun Global Unicorn List 2020." 2020. *cnbctv18*. (August 4). <https://www.cnbctv18.com/startup/india-is-home-to-21-unicorns-collectively-valued-at-732-billion-hurun-global-unicorn-list-2020-6538511.htm>(검색일: 2021. 6. 24).
- "India, UAE in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ign 13 security, trade pacts." 2017. *The Hindu*. (January 25).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uae-in-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sign-13-security-trade-pacts/story-IxpOFpcYtpDd9rfBQIuP6M.html>(검색일: 2021. 9. 30).
- "Indian diaspora can be 'a bridge for closer Asean- India ties'." 2018. *The Straits Times*. (January 8). <https://www.straitstimes.com/asia/indian-diaspora-can-be-a-bridge-for-closer-asean-india-ties>(검색일: 2021. 6. 24).
-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15. "India and Japan Sign Action Agenda for India-Japan Investment and

-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pril 20).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20030>(검색일: 2021. 10. 4).
- _____. 2021. “India attracted highest ever total FDI inflow of US\$ 81.72 billion during 2020-21, 10% more than the last financial year.” (May 24).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21268>(검색일: 2021. 5. 25).
- “India plans to set up Japanese industrial township in Assam: DPIIT Secretary.” 2020. *Economic Times*. (August 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frastructure/road-ministry-to-look-for-cabinet-nod-for-townships-alongside-highways-nitin-gadkari/articleshow/84264931.cms>(검색일: 2021. 6. 24).
- India Briefing. 2021. “India’s Import-Export Trends in FY 2020-21.” (October 4). <https://www.india-briefing.com/news/indias-import-export-trends-in-2020-21-trade-diversification-fta-ftp-plans-23305.html/>(검색일: 2021. 10. 6).
- _____. 2021. “India-ASEAN Trade and Investment Prospects.” (February 23). <https://www.india-briefing.com/news/india-asean-trade-and-investment-prospects-21779.html/>(검색일: 2021. 10. 5).
- “Over 67 Percent of H1B Registrants from India, Says US.” 2020. *news18*. (April 1). <https://www.news18.com/news/india/over-67-percent-of-h1b-registrants-from-india-says-us-2560783.html>(검색일: 2021. 9. 30).
- “Quality and scale, not subsidies, to push exports to \$1 trn: Piyush Goyal.” 2020. *Business Standard*. (October 4).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ic-revival/quality-scale-to-help-take-exports-to-1-trn-not-subsidies-piyush-goyal-120100301012_1.html(검색일: 2021. 10. 5).
- “RIL eyes short-term gains from \$9 bn BP deal.” 2011. *businesstoday*. (Mar 20). <https://www.businesstoday.in/magazine/features/story/mukesh-ambani-ril-and-british-oil-major-bp-deal-24107-2011-07-23>(검색일: 2021. 10. 1).
- “Singapore is top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India.” 2019. *The Straits Times*. (June 6). <https://www.straitstimes.com/asia/>

south-asia/spore-is-top-source-of-foreign-direct-investment-into-india(검색일: 2021. 7. 2).

The White House. 2014. "U.S.-India Joint Statement." (September 3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9/30/us-India-joint-statement>(검색일: 2021. 6. 27).

USTR. 2019. "United States Will Terminate GSP Designation of India and Turkey." (March 4).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march/united-states-will-terminate-gsp>(검색일: 2021. 10. 7).

"WTO upholds US's claims, rules against India's export subsidies." 2019. *mint*. (November 1). <https://www.livemint.com/news/world/wto-upholds-us-s-claims-rules-against-india-s-export-subsidies-11572549484806.html>(검색일: 2021. 10. 5).

[온라인 자료]

인베스트 인디아. 「아트마니르바 바라트 아비얀(자립 인도)」. <https://www.investindia.gov.in/ko-kr/atmanirbhar-bharat-abhiyaan>(검색일: 2021. 9. 29).

한국무역협회. 2020. 「인도, RCEP 미참여 "당연"」. 무역뉴스. (11월 27일).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1036>(검색일: 2021. 10. 8).

_____. K-Stat.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1. 11.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1. 5. 20).

인도상공부. <https://commerce.gov.in/trade-statistics/>(검색일: 2021. 6. 17).

일본 외무성. 일본-인도 관계(Basic Data).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india/data.html>(검색일: 2021. 10. 5).

ADB 국제산업연판표. <https://mrrio.adbx.online>(검색일: 2021. 6. 23).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웹페이지. <https://aric.adb.org/database/fta>(검색일: 2021. 6. 9).

CEIC.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21. 6. 20).

cogoport. 2021. "Foreign Trade Policy 2021-2026: Expectations For The

- Import-Export Sector.” <https://www.cogoport.com/blogs/foreign-trade-policy-2021-2026-expectations-for-the-import-export-sector>(검색일: 2021. 10. 5).
- Counterpoint. 2020. “India Surpassed the USA to Become the Second Largest Smartphone Market in the World Reaching 158 Million Shipments in 2019.” (January 24).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india-surpassed-usa-become-second-largest-smartphone-market-world-reaching-158-million-shipments-2019/>(검색일: 2021. 6. 24).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BIT. <https://dea.gov.in/bipa>(검색일: 2021. 10. 19).
- DIPP. FDI Newsletter(erstwhile SIA Newsletter). <https://dpiit.gov.in/publications/si-news-letters>(검색일: 2021. 6. 20).
- DPIIT. 2020a. “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for curbing opportunistic takeovers/acquisitions of Indian companies due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pn3_2020.pdf(검색일: 2021. 6. 24).
- _____. 2020b. QUATERLY FACT SHEET. <https://dpiit.gov.in/sites/default/files/FDI%20Factsheet%20December%202020.pdf>(검색일: 2021. 6. 24).
- Embassy of India, Abu Dhabi, U.A.E. Bilateral Economic & Commercial Relations. <https://www.indembassyuae.gov.in/bilateral-eco-com-relation.php>(검색일: 2021. 9. 30).
- FDI India. GUJARAT. <https://www.fdi.finance/states/gujarat>(검색일: 2021. 6. 10).
- _____. Karnataka. <https://www.fdi.finance/states/karnataka>(검색일: 2021. 6. 10).
- Financial Times. fDi Markets. <https://www.fdimarkets.com/>(검색일: 2021. 7. 1).
- Government of Singapore. 2019. “INCOME TAX ACT.” (September 24). <https://sso.agc.gov.sg/SL-Supp/S647-2019/Published?DocDate=20190930&ProvIds=>(검색일: 2021. 6. 24).
- High commission of India. 2021. “BRIEF ON INDIA-UK ECONOMIC RELATIONS.” <https://www.hcilondon.gov.in/docs/1633948114Ge>

- neral%20Economic%20Brief%20India-UK.pdf(검색일: 2021. 10. 1).
 _____. 2021. "India - South Africa Relations." <https://www.hciproto.ria.gov.in/page/india-sa/>(검색일: 2021. 10. 1).
- MEA. 2015.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17).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5733/Joint_Statement_between_the_United_Arab_Emirates_and_the_Republic_of_India(검색일: 2021. 9. 25).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Framework Agreement with Thailand.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framework-agreement-with-thailand/framework-agreement-with-thailand/>(검색일: 2021. 6. 9).
- IBRF. 2021. "EXPECTATIONS WITH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ttps://www.ibef.org/blogs/expectations-with-new-foreign-trade-policy-2021-26>(검색일: 2021. 10. 6).
- IIFCL, SIFTI. <https://www.iifcl.org/sifti>(검색일: 2021. 6. 8).
- IIG. Delhi. <https://indiainvestmentgrid.gov.in/states/delhi>(검색일: 2021. 6. 10).
- Indian Government Director General of Trade Remedies. "Anti-Dumping Cases." https://www.dgtr.gov.in/anti-dumping-cases?title=&field_cn_code_value=&field_case_country_value=&field_type_of_proceeding_value=Anti-dumping&field_case_status_value=All&date_filter%5Bmin%5D%5Bmonth%5D=1&date_filter%5Bmin%5D%5Bday%5D=1&date_filter%5Bmin%5D%5Byear%5D=1960&date_filter%5Bmax%5D%5Bmonth%5D=12&date_filter%5Bmax%5D%5Bday%5D=31&date_filter%5Bmax%5D%5Byear%5D=1993&save=Search(검색일: 2021. 5. 12).
- IISD. 2012. "The White Industries Arbitration: Implications for India's Investment Treaty Program." (April 13). <https://www.iisd.org/itn/en/2012/04/13/the-white-industries-arbitration-implications-for-indias-investment-treaty-program/>(검색일: 2021. 10. 19).
- Indian Government DPIIT. 2020. "FDI Policy Section, Press Note No. 1 (2020 Series)."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pn1_2020.pdf. (검색일: 2021. 6. 8).
- _____. 2020. "FDI Policy Section, Press Note No. 2 (2020 Series)." <https://>

- dipp.gov.in/sites/default/files/pn2_2020.pdf(검색일: 2021. 6. 8).
_____. <https://dipp.gov.in/japan-plus/japanese-industrial-townships>
(검색일: 2021. 10. 4).
- Indian Governme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ake in India.
<http://www.makeinindia.com/>(검색일: 2021. 5. 11).
- investindia. 2021. “KOREA - INDIA RELATIONS.” <https://www.investindia.gov.in/country/korea-plus>(검색일: 2021. 7. 2).
- Invest India. DELHI.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delhi>(검색일: 2021. 6. 10).
_____. GUJARAT.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gujarat>(검색일: 2021. 6. 10).
_____. Karnataka.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karnataka>(검색일: 2021. 6. 10).
_____. Maharashtra. <https://www.investindia.gov.in/state/maharashtra>
(검색일: 2021. 6. 10).
-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2021. “Parliamentary Consultative Committee meeting of Commerce and Industry on “New Foreign Trade Policy 2021-26” held.”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88074>(검색일: 2021. 10. 6).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6. “India-US Joint Statement during the visit of Prime Minister to USA.” (June 7).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6879/IndiaUS_Joint_Statement_during_the_visit_of_Prime_Minister_to_USA_The_United_States_and_India_Enduring_Global_Partners_in_the_21st_Century(검색일: 2021. 6. 27).
_____. 2018. “India- ASEAN Relations.” <https://mea.gov.in/aseanindia/20-years.htm>(검색일: 2021. 6. 24).
- OECD Stat.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1. 7. 19).
- ORF. 2021. “Chinese investments in Indian startups: Trends and controversies.” (June 5).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chinese-investments-in-indian-startups-trends-and-controversies/>
(검색일: 2021. 6. 24).
- Press Information Bureau. AATAMNIRBHAR BHARAT KA BUDGET.

- <https://pib.gov.in/AATAMNIRBHARBHARATKABUDGET/>(검색일: 2021. 9. 29).
- Reserve Bank of India(RBI). 2021. DATA ON OVERSEAS INVESTMENT. https://rbi.org.in/Scripts/Data_Overseas_Investment.aspx(검색일: 2021. 6. 20).
- Thomson Reuters. Refinitiv Eikon. <https://eikon.thomsonreuters.com/index.html>(검색일: 2021. 7. 1).
- Trade Map. <https://www.trademap.org/Index.aspx>(검색일: 2021. 6. 17).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1. 3. 18~10. 30).
- UN LDC Portal.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https://www.un.org/ldcportal/global-system-of-trade-preferences-among-developing-countries/>(검색일: 2021. 6. 10).
- World Bank. Doing Business.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검색일: 2021. 6. 9).
-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home.aspx>(검색일: 2021. 10. 30).
-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ip_e.htm(검색일: 2021. 6. 30).
- _____. RTA Database.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 WTO and in force by country/territory.” <http://rtais.wto.org/UI/publicPreDefRepByCountry.aspx>(검색일: 2021. 6. 10).
- _____.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spsims.wto.org/>(검색일: 2021. 6. 30).
- _____.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tbtims.wto.org/>(검색일: 2021. 6. 30).
- WTO Stats. <https://timeseries.wto.org/>(검색일: 2021. 9. 1).

[관련자료 목록]

- 장영신, 이권형, 김정곤, 노운재, 정재완, 이재호, 윤지현, 김제국, 김소은, 김민희. 2021. 『우리 기업의 신남방 4개국 진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Modi calls for early review of free trade agreement.” 2020. *Business Line*. (November 12).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world/modi-calls-for-early-review-of-free-trade-agreement/article33086211.ece>(검색일: 2021. 7. 13).

부 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
(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부록 표 1-1. 인도의 관세율 추이

(단위: %)

구분	MFN 적용 관세율 단순 평균										MFN 적용 관세율 범위									
	1997/1998	2001/2002	2006/2007	2010/2011	2014/2015	2019/2020	2020/2021	1997/1998	2001/2002	2006/2007	2010/2011	2014/2015	2019/2020	2020/2021						
합계	35.3	32.3	15.1	12.0	13.0	13.9 (14.9)	14.3 (15.4)	0-260	0-210	0-150	0-150	0-150	0-150 (0-637.7)	0-150 (0-637.7)						
HS 01-24			38.2	35.1	37.7	36.1	37.5			0-150	0-150	0-150	0-150	0-150						
HS 25-97			11.8	8.6	9.0	10.4 (11.6)	10.5 (11.7)			0-100	0-70	0-100	0-100 (0-637.7)	0-100 (0-637.7)						
By WTO category																				
WTO 농산물 분야	35.1	40.7	36.2	33.2	36.4	34.8	36.5	0-260	0-210	0-150	0-150	0-150	0-150	0-150						
동물·동물성 생산품	25.4	39.8	30.7	30.8	30.4	30.4	30.2	15-45	35-100	5-100	5-100	5-100	5-100	0-100						
낙농품	31.5	38.0	35.3	34.4	34.2	34.2	36.7	0-35	35-60	30-60	30-60	30-60	30-60	30-60						
과일·채소·식물	37.6	39.6	28.3	27.6	29.0	15.8	29.0 (28.9)	15-192	35-170	0-100	0-100	0-100	0-100	0-100						

(단위: %)

구분	MFN 적용 관세율 단순 평균										MFN 적용 관세율 범위									
	1997/	2001/	2006/	2010/	2014/	2019/	2020/	1997/	2001/	2006/	2010/	2014/	2019/	2020/						
	1998	2002	2007	2011	2015	2020	2021	1998	2002	2007	2011	2015	2020	2021						
커피·티	25.1	29.9	74.7	74.7	74.8	74.8	74.8	10-45	10-35	17.5-100	17.5-100	30-100	30-100	30-100						
곡물과 그 조제품	32.7	36.6	32.8	30.4	40.9	32.7	35.1	0-127	25-115	0-90	0-90	0-150	0-80	0-100						
오일시드·지방 및 그 생산품	0.0	49.4	42.7	18.5	33.2	26.7	35.1	0-0	0-100	0-100	0-100	0-100	0-80	7.5-100						
당류·설탕과자	38.9	56.2	33.4	33.4	35.4	35.4	47.0	15-45	15-100	10-60	10-60	10-60	10-60	25-100						
음료·주류·담배	114.8	96.9	73.1	78.7	77.5	81.1	79.4	15-260	35-210	10-150	7.5-150	5-150	5-150	5-150						
면	45.0	35.0	13.2	5.5	2.7	2.7	2.7	45-45	35-35	0-30	0-30	0-30	0-30	0-30						
기타 농산물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농산물	27.8	28.1	24.9	25.1	25.2	25.1	25.3	0-45	0-50	0-70	0-70	0-70	0-70	0-70						
WTO 비농산물 분야	35.4	31.1	12.0	8.9	9.5	10.8 (12.0)	11.1 (12.3)	0-192	0-170	0-70	0-70	0-100	0-100 (0-637.7)	0-100 (0-637.7)						
수산물	20.3	35.0	29.5	29.5	29.6	29.7	29.7	0-65	35-35	5-30	5-30	0-30	0-30	0-30						
광물·금속	37.5	30.6	9.1	7.1	7.4	8.7	8.9	0-45	0-55	0-10	0-10	0-15	0-40	0-40						
화학품 및 사진·영화용 재료	32.5	32.0	12.1	8.1	8.2	8.3	8.3	10-45	5-35	0-10	0-10	0-10	0-20	0-20						
목재·펠프· 종이 및 기타	34.6	33.8	11.5	9.2	9.2	9.7	10.0	0-192	0-170	0-10	0-10	0-10	0-20	0-25						

부록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부록 표 2-1.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제목	분야	STC 제기 국가	최초 제기일	최근 제기일
India -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ID 367)	전자, IT제품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06-03-2013	24-02-2021
India - 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Standards) Regulations, 2015 (ID 494)	식품	호주; 캐나다; 칠레; 과테말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자메이카	09-03-2016	24-02-2021
India - Mandatory Certification for Steel Products (ID 224)	철강	중국;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유럽연합	18-03-2009	24-02-2021
India - Air Conditioner and its related Parts (Quality Control) Order, 2018 (IMS ID 598)	전자	대한민국; 미국; 중국	13-11-2019	24-02-2021
India - 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20 (IMS ID 622)	식품	미국; 캐나다	13-05-2020	24-02-2021
India - Quality Control Orders for Chemical and Petrochemical Substances (IMS ID 630)	화학	캐나다; 대만; 유럽연합; 미국	13-05-2020	24-02-2021
India - Toys (Quality Control) Order, 2020 (IND/131); Amendment in Policy Condition No. 2(iii) to Chapter 95 of ITC (HS), 2017-Schedule-1 (import Policy) (IND/143) (IMS ID 632)	완구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13-05-2020	24-02-2021

부록 표 2-1. 계속

제목	분야	STC 제기 국가	최초 제기일	최근 제기일
India - FSSAI's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and the new implementing veterinary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IMS ID 633)	식품	유럽연합; 미국	13-05-2020	24-02-2021
India - Notification of 2018 draft cosmetic rules, amending provisions of the India Drug and Cosmetics Act of 1940 (ID 586)	완구	미국; 유럽연합	20-06-2019	24-02-2021
India - Phase II of the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TCTE), implementing the Indian Telegraph Amendment	통신장비	미국	28-10-2020	24-02-2021
India - Indian standards and import restrictions in the automotive sector (Quality Control Orders): wheel rims, safety glass, helmets	자동차	유럽연합	28-10-2020	24-02-2021
India - Order related to requirement of Non-GM cum GM free certificate accompanied with imported food consignment	식품	브라질; 미국; 유럽연합	28-10-2020	24-02-2021
India - New Telecommunications related Rules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No. 842-725/2005-VAS/Vol.III (3 December 2009); No. 10-15/2009-AS-III/193 (18 March 2010); and Nos. 10-15/2009-AS.III/Vol.II/(Pt.)/(25-29) (28 July 2010);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No. 10-15/2009-AS.III/Vol.II/(Pt.)/(30) (28 July 2010) and accompanying template, "Security and Business Continuity Agreement") (ID 274)	통신	캐나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03-11-2010	13-05-2020
India - Amended regulation on toy imports (ID 546)	완구	유럽연합; 중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 홍콩	08-11-2017	26-02-2020

부록 표 2-1. 계속

제목	분야	STC 제기 국가	최초 제기일	최근 제기일
India - The Stainless Steel Products (Quality Control) Order, 2015 (ID 486)	철강	유럽연합	04-11-2015	06-20-2019
India -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graph (The Indian telegraph (Amendment) Rules, 2017) (ID 558)	통신장비	미국; 대한민국	06-20-2018	06-20-2019
India - Pneumatic tyres and tubes for automotive vehicles (ID 133)	자동차	일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03-15-2006	06-20-2018
India -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ID 515)	E-waste	일본; 대한민국; 미국	11-10-2016	03-29-2017
India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 - Food labelling requirements (ID 298)	식품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03-24-2011	06-15-2016
India - Labelling Regulations for Canola Oil (ID 413)	식품	호주; 캐나다	03-19-2014	06-15-2016
India - Drugs and Cosmetics Rules 2007 (ID 167)	제약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07-05-2007	06-17-2015
India - Toys and Toy Products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ID 309)	완구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06-15-2011	06-13-2012
India -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ID 225)		미국; 유럽연합	03-18-2009	03-20-2012
India - Phthalic Anhydride (Quality Control) Order, 2019	화학	대만	10-28-2020	

부록 표 2-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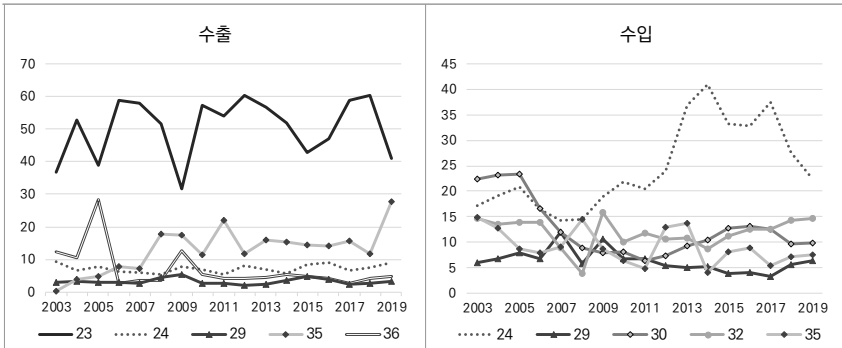
제목	분야	STC 제기 국가	최초 제기일	최근 제기일
India -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dated 27 January 2020 regarding operationalization of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Amendment Regulations, 2020 (IMS ID 631)	식품	미국	13-05-2020	
India - Expansion of BIS Certification to plugs, socket outlets and power cords (IMS ID 639)	전기	중국	13-05-2020	
India - 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식품	미국; 유럽연합	26-02-2020	
India - Toys (Quality Control) Order, 2019 (ID 587)	완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20-06-2019	
India - Moisture content for Cassia Vera (Cinnamomum Burmani) (ID 595)	식품/ 화장품	인도네시아	20-06-2019	
India -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ID 482)	전자	대한민국; 미국	04-11-2015	
India - Amendments in the import policy conditions applicable to apples (ID 487)	식품	호주; 칠레; 뉴질랜드; 미국; 유럽연합	04-11-2015	
India - Proposed Amendment to 2008 Hazardous Waste Law (ID 373)	폐기물	미국	06-03-2013	
India - E-Waste (Management and Handling) Rules 2010 (ID 310)	E-waste	미국	15-06-2011	

자료: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tbtims.wto.org/>, 검색일: 2021. 6. 30).

부록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부록 그림 3-1. 싱가포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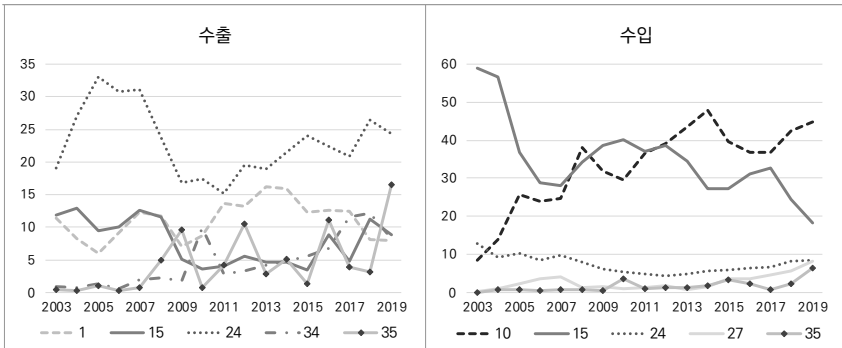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0 사무용·회계 및 컴퓨터 기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3-2. 인도네시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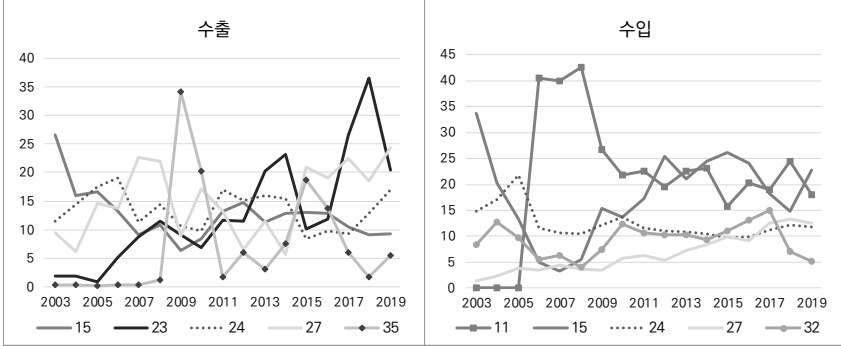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 농축산업, 10 석탄광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3-3.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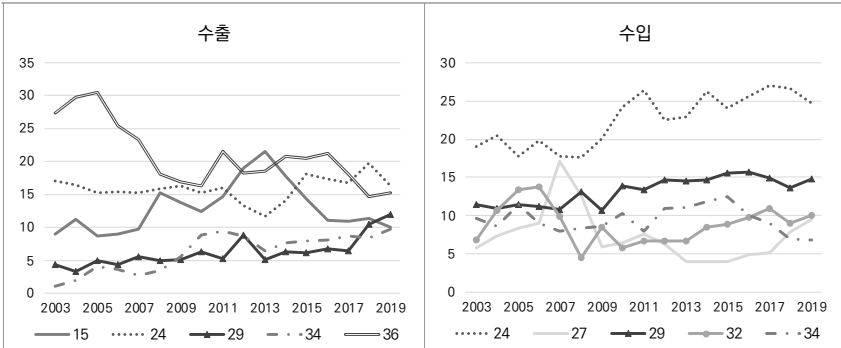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1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23 코코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3-4. 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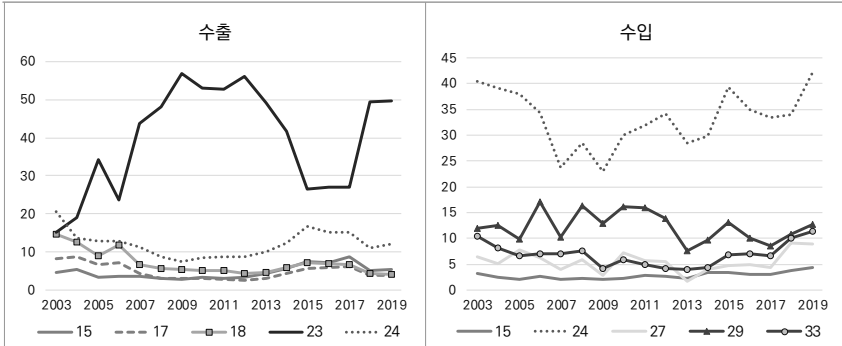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5 음식료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부록 그림 4-1. 네덜란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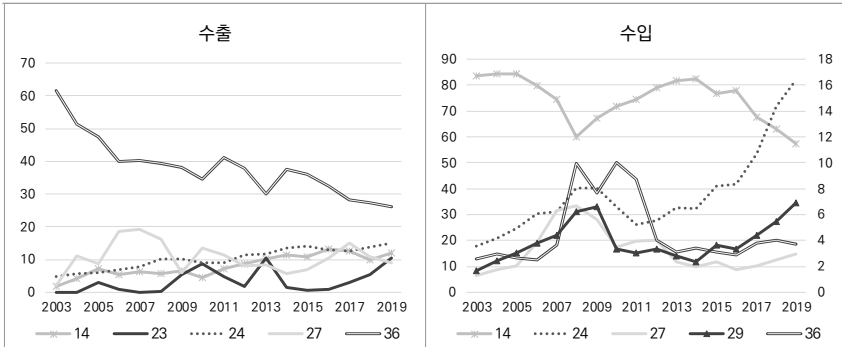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4-2. 벨기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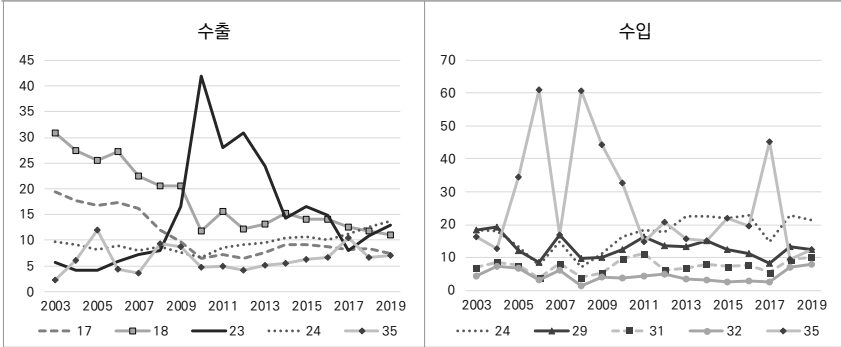
주: 1)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4 기타광업,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6 기타제조업.

2) 수입에서 ISIC 14(기타광업)는 좌축, 그 외 산업은 우축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4-3. 프랑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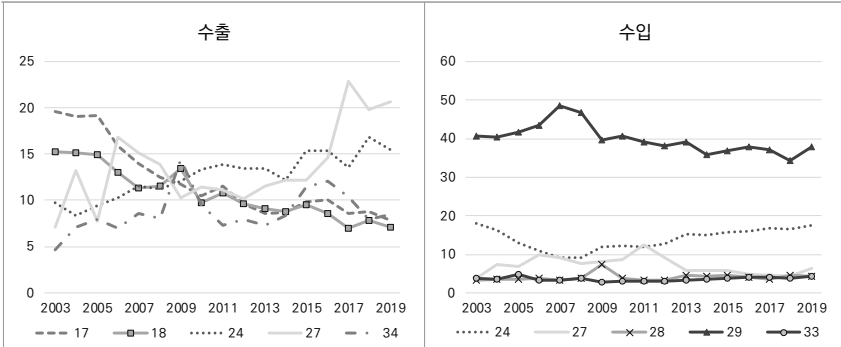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3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 전자기계·장비 제조업, 32 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그림 4-4. 이탈리아

(단위: %)



주: ISIC 2단위(rev.3) 기준 산업명은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가공, 24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7 1차금속 제조업, 28 금속가공제품,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34 자동차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3. 18) 자료를 토대로 계산.

부록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부록 표 5-1. 한-인도 CEPA: 인도 측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분야		주요 양허내용
사업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회계, 건축설계, 의료 및 치과의료, 수의사 서비스 등에서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허용
	R&D 서비스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농업과학 R&D 부문의 신규개방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시장 개방
	광고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및 외국인 방송채널과 활자매체를 통한 국경간 광고서비스 제공 허용
	광업 관련 서비스 및 사진서비스	전 분야 개방
통신서비스	음성전화서비스, 데이터전송 및 무선호출 서비스	49%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터넷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74%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건설서비스	건물관련 일반 공사 및 토목 엔지니어링 관련 일반 공사, 설치 및 조립 공사,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방에 합의하여 외국인 단독투자 가능	
유통서비스	소매를 제외한 위탁중개인 서비스, 도매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 개발	
관광서비스	호텔 및 숙박서비스, 여행대행 및 관광가이드 분야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생명·손해·재보험 서비스에서 26%까지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은행서비스	4년간 우리나라 은행 지점설치를 10개까지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할 것에 합의***
	기타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리스 관련, 법인설립을 통해 서비스 공급 가능 • 자산관리 부문은 26%까지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 증권발행 서비스 부문은 74%까지, 은행은 51%까지 외국인 지분 취득 가능

주: * 담당기관의 허가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PB)의 승인이 있어야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 여행 대행 및 관광가이드의 경우, 가이드 숫자는 500명을 넘길 수 없음.

*** 인도는 매년 20개의 외국은행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쿼터제를 운용.

자료: 배찬권 외(2015), p. 24.

부록 표 5-2. 한-인도 CEPA: 한국 측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내용

분야	주요 양허내용
사업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와 R&D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부동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과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관광, 여행,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통신, 유통, 운송서비스	통신(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무선데이터 서비스 등), 유통(도·소매 서비스 등), 해운(선박임대 및 예선 서비스 등), 철도운송, 항공운송(컴퓨터 예약시스템, 항공기 유지 및 수리 서비스 등) 분야의 국경간 공급 및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현지주재의무를 조건으로 개방한 분야*	수의사, 지도제작, 엔지니어링, 큐리어 서비스,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 대한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허용
보험서비스	외국 생명·손해·재보험회사만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은행서비스	국내 진출해 있는 법인이나 지점형태의 금융서비스 공급의 경우 일부 제한조치** 등을 제외하고 상업적 주재(서비스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주: * 국경간공급(mode1)의 조건으로 공급대상국에 사무소 등의 설치가 요구되는 의무.

** 보험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 주택청약저축 등의 취급기관 제한 등 국내법상 규제.
 자료: 배찬권 외(2015), p. 23.

부록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Leontief(1936) 방식은 국가, 산업 간 상호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생산 및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기여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레온티에프 방법론을 활용하면 양국의 특정 산업별 수출 원천 부가가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i 의 생산은 i 산업의 부가가치와 i 산업과 연계된 다른 산업(예: j, k, \dots)의 부가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산업(예: j)의 중간재는 그 산업(예: j)의 부가가치와 그와 연계된 다른 산업(예: l, k, l, \dots)의 부가가치로 구성되며(1차 간접 부가가치), 이를 반복하여 2차, 3차 이상의 간접 부가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 레온티에프 방식은 산업연관표상의 산업간 투입 비중이 직간접 부가가치 과정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무한으로 반복하여 부가가치 기여 비중을 수식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V 는 부가가치 행렬을 나타내며, 행렬 A 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A 행렬의 계수는 모두 1보다 작은 수로 구성된다. 즉 $A < 1$. 행렬 V 는 부가가치 행렬을 지칭한다.

$$\begin{aligned} VB &= V + VA + VAA + VAAA + \dots \\ &= V(I + A + A^2 + A^3 + \dots) = V(I - A)^{-1} \end{aligned}$$

VB 매트릭스는 부가가치 승수(multiplier)이며, 이 부가가치 승수를 생산 혹은 수출 매트릭스와 결합하면 특정 산업의 1단위(달러) 생산, 수출에 필요한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가 계산된다. 본 분석에 활용한 VAO와 VAE 매트릭스는 VB 매트릭스에 생산(O) 혹은 수출(E)을 결합한 양국 산업별 생산/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기여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두 국가('k', 'l'), 2 산업('i', 'j') 가정 아래 VAE 매트릭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I-A)^{-1}E = \begin{pmatrix} v_k^i & 0 & 0 & 0 \\ 0 & v_k^j & 0 & 0 \\ 0 & 0 & v_k^i & 0 \\ 0 & 0 & 0 & v_k^j \end{pmatrix} * \begin{pmatrix} b_{kk}^{ii} & b_{kk}^{jj} & b_{kl}^{ii} & b_{kl}^{jj} \\ b_{kk}^{ji} & b_{kk}^{jj} & b_{kl}^{ji} & b_{kl}^{jj} \\ b_{lk}^{ii} & b_{lk}^{jj} & b_{ll}^{ii} & b_{ll}^{jj} \\ b_{lk}^{ji} & b_{lk}^{jj} & b_{ll}^{ji} & b_{ll}^{jj} \end{pmatrix} * \begin{pmatrix} e_k^i & 0 & 0 & 0 \\ 0 & e_k^j & 0 & 0 \\ 0 & 0 & e_k^i & 0 \\ 0 & 0 & 0 & e_k^j \end{pmatrix}$$

다음으로 WWZ 수출 분해 방식을 살펴보자. WWZ 수출 분해 방식은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활용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레온티에프 방식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WWZ 방식은 이를 확장하여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활용처(최종재 수출에 기여한 국내/해외부가가치, 회귀된 국내부가가치와 같은 최종 수출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제 생산구조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WWZ 방식은 국가간 산업간 수출부가가치 분해를 가능하게 하며,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가 총 16개로 자세히 분해된다. 'k' 국가에서 'l' 국가로의 수출 분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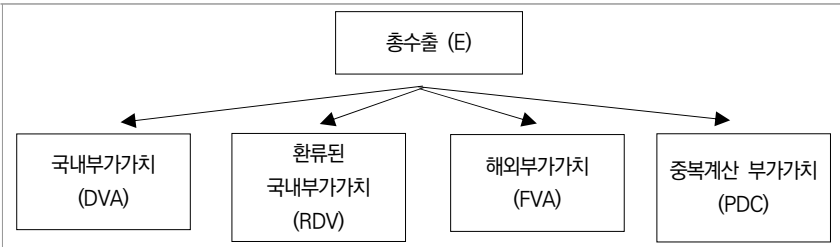
$$\begin{aligned} E^{kl} &= (V^k B^{kk})^{T*} F^{kl} + V^k L^{kk})^{T*} (A^{kl} B^{ll} F^{ll}) \\ &+ (V^k L^{kk})^{T*} (A^{kl} \sum_{t \neq k,l}^G B^{lt} F^{tt}) + (V^k L^{kk})^{T*} (A^{kl} B^{ll} \sum_{t \neq k,l}^G F^{tt}) \\ &+ (V^k L^{kk})^{T*} (A^{kl} \sum_{t \neq k,l}^G \sum_{u \neq k,t}^G B^{lt} F^{tu}) + (V^k L^{kk})^{T*} (A^{kl} B^{ll} F^{lk}) \\ &+ (V^k L^{kk})^{T*} (A^{kl} \sum_{t \neq k,l}^G B^{lt} F^{tk}) + (V^k L^{kk})^{T*} (A^{kl} B^{lk} F^{kk}) \\ &+ (V^k L^{kk})^{T*} (A^{kl} \sum_{t \neq k,l}^G B^{lt} F^{tk}) + (V^k B^{kk} - V^k L^{kk})^{T*} (A^{kl} X^l) \\ &+ (V^k L^{kk})^{T*} F^{kl} + (V^l B^{lk})^{T*} (A^{kl} L^{ll} F^{ll}) + (V^l B^{lk})^{T*} (A^{kl} L^{ll} E^{l*}) \\ &+ (\sum_{t \neq k,l}^G V^t B^{tk})^{T*} F^{kl} + (\sum_{t \neq k,l}^G V^t B^{tk})^{T*} (A^{kl} L^{ll} F^{ll}) \\ &+ (\sum_{t \neq k,l}^G V^t B^{tk})^{T*} (A^{kl} L^{ll} E^{l*}) \end{aligned}$$

참고로 $F(k, l)$ 매트릭스는 'l'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한 k국의 기여를 의미하며, $L(l, l)$ 은 'l' 국가의 국내 레온티에프 인버스(inverse) 매트릭스를 지칭한다.

총수출(E)은 크게 국내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Added),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 Returned Domestic Value-Added), 해외부가가치(FVA: Foreign Value-Added), 중복계산분(PDC: Pure Double Counted Terms)으로 분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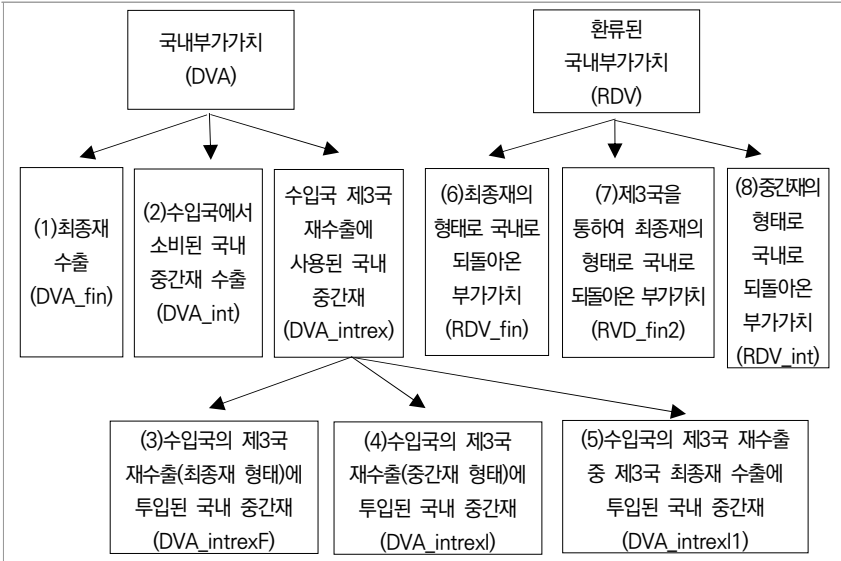
국내부가가치(DVA)는 직접 수입국 혹은 제3국으로 수출되어 최종 소비(absorb)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RDV)는 직접 수입국으로 수출되었지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와 소비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해외부가가치(FVA)는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로, 수출품 생산에 포함된 직접 수입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조달받은 중간재를 의미한다. 중복계산(PDC)은 생산이 본국과 수입국 사이 반복적인 중간재 이동으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수출에 중복계산된 값을 지칭한다. 총수출을 분해한 16개 항목은 [부록 그림 6-2]와 [부록 그림 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그림 6-1. 수출부가가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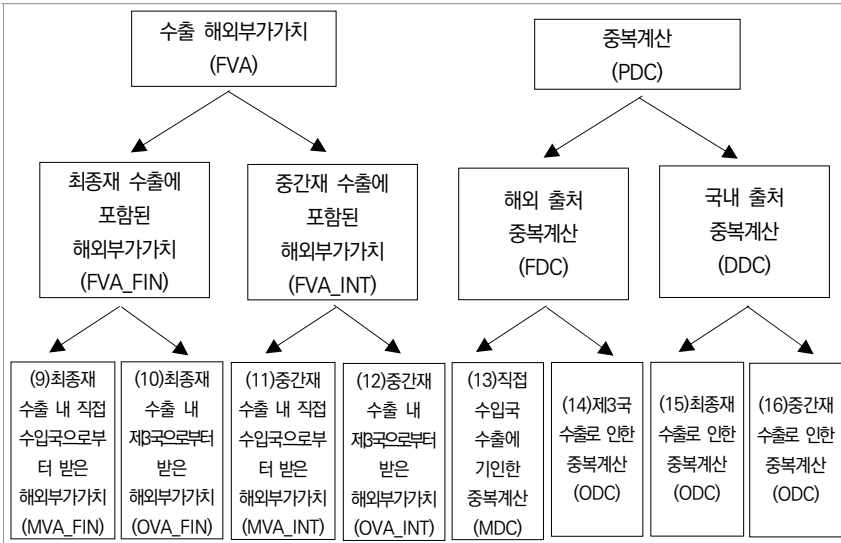
자료: 정영식 외(2019), pp. 77~78 재인용.

부록 그림 6-2. 수출 분해: 국내부가가치



자료: 정영식 외(2019), pp. 77~78 재인용.

부록 그림 6-3. 수출 분해: 해외부가가치 및 중복계산



자료: 정영식 외(2019), pp. 77~78 재인용.

Analysis on Indi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Jeong Gon Kim, Hyoungmin Han, Hyeyoon Keum, Jong Hun Pek,
and Sunhyung Lee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ndia have been expanding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India CEPA, which took effect in 2010, and the recent promo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by Korea, but the level of exchange still remains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eepening Korea-India trade cooperation by analyzing India's trade policy and trade investment relations. Taken overall, Chapter 2 analyzes the trends of commodity & service trade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policies, centering around India's economic liberalization since the 1990s. Chapters 3 and 4 examine India's recent trade and investment structure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apter 5 analyzes India's status o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conclusion, Chapter 6 presents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India trade cooperation.

Looking at Chapter 2 in more detail, India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lowering tariff rates and easing investment barriers by

promoting full-fledged liberalization policies since 1991. In particular, investment barriers have been significantly lowered and automatic approval is now being implemented in most areas, reflecting the remarkable improvements made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di government. But at the same time, India has continued to actively utilize non-tariff barriers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and has been showing a trend of raising tariff barriers since 2018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its economic self-reliance. In short, India has placed its focus on developing its own production base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in spite of steady liberalization, India's trade policy continues to lean towards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According to Chapter 3, as intermediate goods account for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otal trade in goods, India's status as a global production base is on the rise. In recent years, India's major import destinations have switched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to China, Korea, and Southeast Asia, and in particular, trade with Korea has significantly expanded since 2000s. Furthermore, since the Korea-India CEPA took effect in 2011,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and Korea's exports to India have increased even more, widening India's trade deficit with Korea. However, India is also enjoying the positive effect of diversifying its export items to Korea.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in India's trade with Korea is the highest among India's major trading partners, and the manufacturing network between the two is

growing stronger. Nevertheless,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has not grown as much as expected following establishment of the CEPA, thus indicating a new breakthrough is required.

In Chapter 4, we examine India's growth into a major FDI target country in the global market. In particular, India record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DI inflow along with China in 2020, when the global economy shrank significant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major fields of FDI in India are services, software, renewable energy, and infrastructure. Also, FDI investment in India has recently shown a notable increase in brownfield investment over greenfield. Korea's FDI in India began in earnest during the 1990s with the entry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to India, and increased further with the Korea-India CEPA.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manufacturing and green fields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ut on a far smaller scale.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investment fields and methods in response to India's aggressive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 to Chapter 5, India is reinforcing its global connectivity as a production base. Since the Modi government took office, India has been more actively supporting foreign companies' production in India, and it has been effective in promoting production activities of foreign companies in India. If we classify the contribution of major countries to India's exports and production, they have in common that their contribution to production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exports. This means that major countries' production linkages with India place greater weight on the purpose of meeting India's domestic demand. Therefore,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need to closely monitor demand in India and strategically strengthen production linkage with the country.

In Chapter 6, we consolidate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study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As shown in this study, Korea and India are excellent cooperative partners,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meeting each other's needs. Korea has the ability to invest in key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India seeks to foster, such as electrical/electronics and automobiles. Meanwhile, India continues to conduct active trade in intermediate goods while exhibiting a strong will to foster its manufacturing sector. Moreover, India needs a partner that can alleviate its excessiv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ll of which is likely to expand Korea's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bolstering its production network with India, Korea should keep in mind its connection with Southeast Asi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Korea needs to minimize the risks associated with US-China conflict by streamlining investment deployment, mak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Korea-ASEAN production network to India. As found in this study, India has recently been trying to reinforce production connections with Southeast Asia. This could offer opportunities for Korea to establish a three-nation production network by expanding production and exports of final goods in India using Vietnamese

intermediate goods. Developing these links in the mid to long term can further boost Korean companies' trade and investment in the New Southern Region, which could also lead to expansion of India'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Considering this potential, Korea and India should break away from the trade imbalance issue and take the view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Korea-India CEPA is not a direct cause of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could instead be a result of failure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of the bilateral trade structure. Given this fact, the two countries should shift to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to further expand liberalization through further negotiations to improve the CEPA.

Meanwhile,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diversifying its investment in India in addition to manufacturing. This study shows that Korea's investment in India is biased toward manufacturing compared to major countries, and competition with Germany, Japan, and China is likely to intensify. It is worth noting that investment in India from major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mainly in services, computer software /hardware, renewable energy, communication, and infrastructure. And in terms of investment methods, it is recommended to actively consider brownfield investment. According to this study, while Korea's investment in India has been concentrated in greenfield investment,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ve a very high

proportion of brownfield investment. These investment fields are where India's demand is increasing, and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are enjoying a rapid first-mover effect through brownfield investment.

Korea is currently in dialogue with India's trade authorities, focusing on improvements of the Korea-India CEPA and India's trade relief measures with Korea, but these efforts seem insufficient to broaden its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for cooperation. Therefore, the country should establish regular trade policy dialogue channels with India to broadly understand each other's core policies, raise immediate issues, and continuously discover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In addition, the Korea-India CEPA must be upgraded into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by including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energy, and digital industries, which India is currently focusing its efforts on.

As well as the intergovernmental trade policy dialogue channel, a joint initiative should be pursued between Korea and India as a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channel in which various economic actors, including Korean and Indian companies,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an participate. The Korea-India joint initiative would serve 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bilateral cooperation, which can be used as a window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immediate needs of the two countries, match companies, and directly communicate difficulties in business activities with the Indian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Korea-India

cooperation fund in connection with this joint initiative. This should be utilized to further encourage projects and research across almost all fields related to bilateral coope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fund can support business matching projects between companies in both countries, and could help companies related to the CEPA and support joint research to revitalize trade investment.

When cooperating with India, it is critical for Korea to prioritize investment that meets India's needs. This is because India prefers partners that solve its needs through investment rather than unilateral expansion of exports. In other words, it would be feasi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eemptively present the investment projects that India needs in terms of economic policy and receive support from the Indian government. One such example is the 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 agreed upon by Japan and India in 2015. At the time, Japan suggested expanding investment in India and inviting Japanese companies into the market, focusing on major projects, based on which India provided Japanese companies with trade investment benefits. In order to proceed with such large-scale projects, not only corporate investment but also government support in the form of ODA, etc., must play an important role.

〈책임〉

김정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통상학 석,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장

(現, E-mail: j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공저, 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0) 외

〈공동〉

한형민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IHEID) 국제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hmhan@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공저, 2019)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0) 외

김혜운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사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공저, 2019)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공저, 2020) 외

백종훈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보험계리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pek@kiep.go.kr)

저서 및 논문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2019)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0) 외

이선형

Dickinson College 경제학/국제경영학 학사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現, E-mail: lees@montclair.edu)

저서 및 논문

An Efficient Sequential Learning Algorithm in Regime-Switching Environments(공저, 2018)

Heterogeneous Price Effects and Increased Price Dispersion from Quantity-based Congestion Management(공저, 2021)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1년

- 21-0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규엽 · 최원석 · 박지현 · 엄준현 · 강민지 · 황운중
- 21-02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이다운
- 21-03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박영호 · 강문수 · 김예진 · 박규태 · 최영출
-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라미령 · 최인아 · 정재완 · 신민금 · 김형중
-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정곤 · 한형민 · 금혜윤 · 백종훈 · 이선형
- 21-06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강구상 · 김종혁 · 임지운 · 윤여준
- 21-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한형민 · 예상준 · 이선형 · 정재완 · 윤지현 · 김미림
- 21-08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박영석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21-09 미 · 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김승현
-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주관 · 김종덕 · 문진영 · 엄준현 · 김지현 · 서정민
- 21-1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 · 이정균 · 최유정 · 이대은
-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 · 정지현 · 김정곤 · 이효진 · 최지원 · 김주혜 · 백서인

-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탁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 · 강부균 · 김석환 · 권원순 · 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 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 · 현상백 · 구경현 · 노운재 · 윤정환 · 이효진
-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 · 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김승현 · 양다영 · 이진희 · 조고운 · 김원기 · 김진일
-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강구상 · 문지영 · 박혜리 · 나승권 · 김제국
-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 · 강은정 · 이진희 · 김경훈 · 김지혜
-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율 · 윤정환 · 이은석 · 이주영 · 유애라 · 김성혜
-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 · 장영신 · 윤상하 · 오태현 · 김수빈
-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 · 이천기 · 강민지 · 정민철
-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 · 이승호 · 김진오 · 박미숙 · 윤여준
- 21-22 미 · 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 · 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 · 윤성원 · 김유정 · 김현정 · 강유덕 · 정세원
- 21-23 한국-베트남 경제 · 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곽성일 · 백용훈 · 이한우 · Quoc Phuong Le · Manh Loi Vu · Thi Thanh Huyen Nguyen
-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박단비 · 최혜린
-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 · 민지영 · 정동연
-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 · 강문수 · 연원호 · 김범환 · 한하린
- 21-27 미 · 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 · 연원호 · 나수엽 · 김영선 · 오윤미

-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곤 · 윤여준 · 연원호 · 김서희 · 주대영
-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조동희 · 홍성우 · 장영욱 · 이정은
-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 · 강준구 · 금혜윤 · 정재욱
- 21-31 한 · 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 · 김종덕 · 장영욱 · 오태현 · 이현진 · 정민철 · 윤형준 · 강유덕
-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 · 강은정 · 김유리 · 문성만 · 장희수
- 21-33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 · 현승수 · 이종화 · 정수미 · 성진석 · 이상제 · 정선미

■ 2020년

-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 · 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 · 정은미 · 김중기 · 이 준 · 남상욱 · 이재운 · 이은창 ·
조용원 · 김양행 · 심우중 · 윤자영 · 이고은 · 이자연 · 전수경
- 20-02 주요 중소 · 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 · 정영록 · 이준엽 · 서봉교
-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 · 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 · 문익준 · 안치영 · 유동원 · 장윤미
- 20-04 미 · 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 · 나수엽 · 박민숙 · 김영선
- 20-05 신북방시대 한국 · 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 · 김보라 · 박정후 · 이평래 · 유원수
-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최현양
-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 · 최유정 · 한하린
- 20-08 산업간 융 · 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 · 장영신 · 오태현 · 임지운
-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서봉교

-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 · 김정곤 · 김도연 · 이성희 · 백종훈
-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예상준 · 금혜윤 · 강민지
-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손원주
-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 · 광성일 · 정재완 · 이정미 · 박나연 · 김미림 · 이재현 · 조원득
-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 · 양평섭 · 정지현 · 현상백 · 연원호 · 최원석 · 양갑용 ·
이동률 · 임상훈 · 유동원 · 윤종석 · 김정진
-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 · 나승권 · 이재호 · 윤지현 · 김은미
- 20-16 자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 · 안성배 · 김효상 · 김수빈 · 이진희 · 김소영 · 편주현
-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 · 안성배 · 김정훈 · 강은정
-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김혁황
-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 · 이천기 · 이주관 · 김지현 · 정명화
-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오수현 · 박영석 · 이성희 · 김은미
- 20-22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 · 김석환 · 정민현 · 강부균 · 김초롱 · 세르게이 슈트린 ·
올가 트로피멘코 · 이리나 코르군
- 20-2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 · 양평섭 · 박진희 · 김주혜 · 최지원 · 자오쥔왕(焦兴旺)
-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 · 광성일 · 광소영 · 박은빈 · 문성만 · 남상열

-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조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 · 최원석 · 김홍원 · 김주혜
-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 · 배찬권 · 이규엽 · 강준구 · 김지현
-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 · 최상엽 · 양다영 · 김유리
-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 · 송원호 · 이진희
-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 · 정재완 · 신민금 · 김제국
- 20-3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 · 이주관 · 박혜리 · 강유덕
-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 · 이철원 · 이현진 · 정민지 · 문성만
-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 · 홍성우 · 김진오 · 김종혁 · 남지민
-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 · 안성배 · 채희율 · 이영섭 · 문우식
- 20-34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 정형곤 · 이홍배 · 이형근 · 박민숙
- 20-35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연원호 · 현상백 · 박민숙 · 이효진 · 오윤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 회원*
S	외부 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8만 원		4만 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 원		4만 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alysis on Indi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Jeong Gon Kim, Hyoungmin Han, Hyeyoon Keum, Jong Hun Pek,
and Sunhyung Lee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양국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IT,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으로의 투자 다각화를 통해 대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킬 필요가 있다.



9 788932 217987

ISBN 978-89-322-1798-7
978-89-322-1072-8(세트)

정가 15,000원